

ETHER LIBRARY 0013

세네카 대화편

Dialogi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Lucius Annaeus Seneca · 1세기

철학 · 종교

세네카 대화편

Dialogi · De clementia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Dialogi · De clementia (대화편 · 관용에 관하여)

지은이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기원전 4년경~기원후 65,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정치가)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집필 기원후 37년 무렵의 「마르키아에게 보내는 위로」부터 56년 무렵 젊은 황제 네로에게 바친 「관용에 관하여」까지, 스무 해 가까이 여러 사람에게 써 보낸 라틴어 글 열네 편. 열두 편은 11세기 사본(밀라노 암브로시우스 도서관 소장)에 『대화편』 열두 권으로 묶여 전하고, 「관용에 관하여」는 따로 전하는데 제2권 앞부분까지만 남았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라틴어로 쓴 『대화편(Dialogi)』 열두 편과 「관용에 관하여(De clementia)」 두 권을 라틴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쳐 옮긴 중역이 아닙니다. 저본은 The Latin Library가 공개한 라틴어 전자 텍스트로, 토이프너(Teubner) 계열 비판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오브리 스튜어트의 영어 번역(1889)은 뜻을 확인하는 대조에만 썼고, 영어 번역이 라틴어와 다르게 읽은 자리에서는 라틴어 문법을 따랐습니다.

편의 차례는 『대화편』을 전하는 사본의 차례(제1권 「섭리에 관하여」부터 제12권 「어머니 헬비아에게 보내는 위로」까지)를 따르고, 그 뒤에 「관용에 관하여」 두 권을 두었습니다. 문단 앞의 굵은 숫자는 오늘날 널리 쓰는 장 번호입니다. 장 안의 절 번호는 싣지 않았습니다. 저본의 문단 나눔은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았고, 「관용에 관하여」 제1권 첫머리의 권 표시만 제목과 겹쳐 따로 싣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상한 곳

「여가에 관하여」와 「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는 앞부분이, 「행복한 삶에 관하여」와 「여가에 관하여」와 「관용에 관하여」 제2권은 끝부분이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와 문장 중간에 빠진 자리는 「〈 … 〉」로 표시했습니다. 편집자가 보충한 낱말은 넣어 읽고 따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편집자가 지우자고 한 낱말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상해 읽기가 갈리는

자리는 가장 그럴듯한 뜻으로 옮기고, 뜻을 짐작으로 메운 곳만 각주에 밝혔습니다. 저본 전자 텍스트의 단순한 오자는 바로잡아 옮겼습니다. 「분노에 관하여」 제1권 2장 뒤의 빈자리는 비판본을 따라, 이 글을 인용한 후대 저자 둘(브라가의 마르티누스, 락탄티우스)의 대목으로 메우고 「〔단편: …〕」으로 표시했습니다.

말의 등급

세네카의 글은 모두 한 사람에게 써 보낸 글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편마다 말의 등급을 달리했고, 한 편 안에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게체: 「섭리에 관하여」(아끼는 벗 루킬리우스에게), 「현자의 의연함에 관하여」, 「여가에 관하여」,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젊은 벗 세레누스에게).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1장은 세레누스가 세네카에게 털어놓는 글이라 합쇼체입니다.

합쇼체: 「분노에 관하여」 세 권과 「행복한 삶에 관하여」(형 노바투스, 뒷날의 갈리오에게), 「마르키아에게 보내는 위로」(마르키아 부인에게),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파울리누스 공에게), 「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폴리비우스 공에게), 「어머니 헬비아에게 보내는 위로」(어머니께), 「관용에 관하여」(황제 네로에게. 부르는 말은 「폐하」).

글 속에 끼어드는 가상의 반론자는 편과 상관없이 따옴표 안에서 문어체 하다체로 말합니다. 신과 자연과 운이 사람에게 하는 말,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해라체로 옮겼습니다.

이름과 낱말

세네카는 황제 칼리굴라를 늘 본명 「가이우스」 또는 「가이우스 카이사르」로 부릅니다. 이 번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별명 **칼리굴라**로 적고 편마다 처음 나오는 자리의 각주에 원문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름 자체가 일화의 핵심인 「현자의 의연함에 관하여」 18장만 원문의 이름을 살렸습니다.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만 썼습니다. 그때그때의 황제를 가리키는 카이사르는 「황제」로 옮기고(「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네로를 부르는 카이사르는 「폐하」로 옮겼습니다.

사람 이름은 에테르 라이브러리 총서의 표기 원칙에 따라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어 형태(크리시포스, 데메트리오스), 로마 사람은 라틴어 형태(루틸리우스, 섹스티우스)로 적고, 널리 굳은 표기가 있으면 그것을 따랐습니다.

세네카가 일부러 갈라 쓴 말은 책 전체에서 한 가지로만 옮겼습니다. 포르투나(fortuna)는 **운**, 파툼(fatum)은 **운명**, 카수스(casus)는 **우연**입니다. 이라(ira)는 **분노**, 화를 잘 내는 성향인 이라쿤디아(iracundia)는 **성마름**입니다. 이니우리아(iniuria)는 **불의**, 콘투멜리아(contumelia)는 **모욕**입니다. 클레멘티아(clementia)는 **관용**, 미세리코르디아(misericordia)는 **연민**, 베니아(venia)는 **용서**입니다. 아니무스(animus)는 **마음**이고, 몸을 떠나는 불멸의 것을 말할 때만 **영혼**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낱말과 우리말로 뉘앙스를 다 살리기 어려운 핵심어는 편마다 처음 나오는 자리에 라틴어를 괄호 안에 적었습니다.

각주와 시구

각주 241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편마다 따로 읽힐 수 있도록 사람과 사건과 제도는 편마다 처음 나오는 자리에 달았고, 여러 편에 나오는 사람은 처음에 자세히, 뒤에는 짧게 적었습니다. 인용한 시구와 격언의 출처, 원문이 상한 자리, 우리말로 살리기 어려운 말놀이도 밝혔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해설은 달지 않았습니다.

시구만으로 된 문단은 원래의 시행대로 행을 갈라 실었습니다. 같은 시구가 두 번 인용된 자리(「마르키아에게 보내는 위로」 9장과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11장의 푸블릴리우스)는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맞추었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와 괄호로 이었습니다.

차례

섭리에 관하여 8

현자의 의연함에 관하여 28

분노에 관하여 제1권 53

분노에 관하여 제2권 81

분노에 관하여 제3권 119

마르키아에게 보내는 위로 164

행복한 삶에 관하여 206

여가에 관하여 241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251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286

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 316

어머니 헬비아에게 보내는 위로 343

관용에 관하여 제1권 376

관용에 관하여 제2권 408

섭리에 관하여

1 루킬리우스, 자네는 내게 물었지. 우주가 섭리(providentia)로 다스려진다면 어째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그토록 많이 닥치느냐고. 이 물음에는 이 저술 전체의 흐름 안에서 답하는 편이 더 알맞을 걸세. 섭리가 만물을 이끌고 신이 우리 일에 함께한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는 자리라면 말일세. 그러나 자네는 전체에서 한 조각만 떼어 내어, 본안 소송은 그대로 둔 채 반론 하나만 풀어 주기를 바라니, 어렵지 않은 일을 하겠네. 신들을 변호하겠네. 지금 굳이 보여 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네. 이토록 거대한 작품이 지키는 이 없이 서 있을 리 없다는 것, 별들이 무리 지어 오가는 것이 우연한 충동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우연이 부추기는 것은 걸핏하면 엉클어지고 금세 서로 들이받지만 이 우주는 영원한 법의 명령을 따라 막힘없이 빠르게 나아가며 땅과 바다의 그 숱한 것과 정해진 자리에서 빛나는 그 숱한 찬란한 빛을 싣고 간다는 것 말일세. 이 질서가 정처 없이 떠도는 물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아무렇게나 엉겨 붙은 것들이라면 그토록 정교하게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그렇지. 그 솜씨 덕분에 가장 무거운 땅덩이는 꼼짝 않고 앉아 제 둘레를 서둘러 달아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골짜기마다 흘러든 바다는 땅의 기후를 누그러뜨리면서도 강물이 아무리 흘러들어도 불어나는 줄 모르며, 아주 작은 씨앗에서 거대한 것이 자라난다네.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 없어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비와 구름, 구름을 찢고 내리꽂히는 벼락, 갈라진

산꼭대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 흔들리는 땅의 떨림, 그 밖에 땅 언저리에서 우주의 소란스러운 부분이 일으키는 일들조차 아무리 갑작스럽다 한들 이치 없이 일어나지는 않네. 그것들에도 저마다 원인이 있네. 낯선 곳에서 보여 경이로 여겨지는 일들, 이를테면 파도 한가운데서 솟는 뜨거운 물이나 드넓은 바다에 불쑥 솟아오르는 새 섬들에 원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일세. 또 바다가 제 쪽으로 물러나며 해안이 드러났다가 얼마 안 가 다시 덮이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물결이 어떤 눈먼 뒤척임에 휩쓸려 때로는 오그라들며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때로는 터져 나와 큰 기세로 제자리를 되찾는다고 믿을 걸세. 그러나 실은 그동안에도 물결은 정해진 몫만큼씩 불어나, 달이라는 별이 끌어당기는 대로 시각과 날에 맞춰 더 크게 또 더 작게 밀려든다네. 대양은 달의 뜻에 따라 넘쳐흐르지. 이런 이야기는 제때를 위해 아껴 두세. 자네는 섭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섭리를 원망하는 것이니 더욱 그렇지. 나는 자네를 신들과 화해시킬 걸세. 가장 선한 이들에게 가장 선한 신들과 말일세. 자연은 선한 것이 선한 것을 해치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네. 선한 사람과 신들 사이에는 덕(virtus)이 맺어 준 우정이 있지. 우정이라고 했나?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혈연이요 닮음일세. 선한 사람은 오직 시간에서만 신과 다를 뿐, 신의 제자이자 신을 본받아 겨루는 자이며 신의 참된 자식이기 때문이네. 그 장엄한 아버지는 덕을 요구하는 데 조금도 무르지 않아서, 엄한 아버지들이 그러듯 자식을 더 혹독하게 기른다네. 그러니 신들의 사랑을 받는 선한 사람들이 애쓰고 땀 흘리며 가파른 길을 오르는 동안 악한 자들은 방탕하게 놀며 쾌락에 흠뻑 젖어 지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생각하게. 우리도 아들에게서는 얌전함을, 집에서 난 어린 노예에게서는 방자함을 보며 흐뭇해하지 않는가. 아들은 더 엄한 규율로 다잡고, 노예 아이의 당돌함은 오히려 북돋아 주지. 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명히 알아 두게.

신은 선한 사람을 응석받이로 기르지 않네. 시험하고, 단련하고, 자기 곁에 둘 사람으로 길러 낸다네.

2 "어째서 선한 사람들에게 궂은일이 그토록 많이 닥치는가?" 선한 사람에게는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없네. 서로 반대되는 것은 섞이지 않는 법이지. 그 숱한 강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빗물이, 약효 있는 샘들이 뿜어내는 그 엄청난 물이 바다의 짠맛을 바꾸지 못하고 묽게 하지도 못하듯이, 역경이 아무리 몰아쳐도 강한 사람의 마음은 뒤집히지 않네. 그 마음은 제자리를 지키며 무슨 일이 닥치든 제 빛깔로 물들여 버리지. 바깥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일세. 그렇다고 그가 그런 일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아닐세. 느끼되 이겨 낸다는 말이지. 평소에는 고요하고 온화하다가도, 덮쳐 오는 것에 맞설 때는 우뚝 일어선다네. 그는 모든 역경을 단련으로 여기네. 사내답고 훌륭한 것을 향해 꼿꼿이 선 사람이라면 누군들 정당한 수고를 마다하겠으며, 위험이 따르는 의무 앞에서 머뭇거리겠는가? 부지런한 사람에게 한가함이 벌이 아닌 적이 있던가? 힘을 기르는 데 마음을 쏟는 운동선수들을 보게. 그들은 가장 센 상대만 골라 맞붙고, 시합을 앞두고 훈련을 돕는 상대들에게 자기를 상대로 온 힘을 다하라고 요구하네. 얻어맞고 시달리는 것을 기꺼이 견디며, 혼자서는 맞수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여럿을 한꺼번에 상대한다네. 맞수가 없으면 덕은 시드네. 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센지는 견디는 힘으로 제 역량을 보여 줄 때에야 드러나지. 선한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두게. 거칠고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운명(fatum)을 원망하지 말고, 무슨 일이 닥치든 좋게 받아들여 좋은 것으로 바꾸어야 하네. 무엇을 견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하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지 못했나? 아버지는 아이들을 일찍 깨워 공부하러 보내고, 쉬는 날에도 빈둥거리게 두지 않으며, 땀을

짜내고 때로는 눈물까지 짜낸다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아 감싸고 그늘에 두려 하며, 아이가 언짢아하는 일도, 우는 일도, 애쓰는 일도 결코 없기를 바라지. 신은 선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그들을 엄하게 사랑한다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그들이 노고와 고통과 손실에 시달리게 하라. 그래야 참된 힘을 기른다." 게으름으로 살찐 것은 축 늘어져서, 일은커녕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제 무게만으로도 주저앉고 마네. 한 번도 다쳐 본 적 없는 행운은 어떤 일격도 견디지 못하네. 그러나 제 불운과 줄곧 다투어 온 사람은 숱한 상처를 거치며 굳은살이 박여서 어떤 불행에도 굽히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무릎을 꿇은 채 끝까지 싸운다네. 선한 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들이 더없이 훌륭하고 뛰어나기를 바라는 신이 그들의 훈련 상대로 운(fortuna)을 짝지어 준다고 해서 자네는 놀라는가? 나는 조금도 놀랍지 않네. 신들이 이따금 위대한 사람이 어떤 재앙과 맞붙어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해도 말일세. 우리도 의연한 젊은이가 덤벼드는 짐승을 사냥창으로 받아 내거나 사자의 돌진을 겁 없이 버텨 내면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지체 높을수록 그 구경거리를 더 반기지. 그러나 그런 것은 신들의 얼굴을 돌려세울 만한 일이 못 되네. 아이들 장난이요, 경박한 인간의 심심풀이일 뿐이지. 보게, 자기 일에 몰두한 신도 고개를 돌려 바라볼 만한 구경거리가 여기 있네. 보게, 신이 보기에 걸맞은 맞대결이 여기 있네. 강한 사람이 나쁜 운과 짝지어 맞서는 모습 말일세. 더구나 그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 거듭 말하지만, 유피테르가 이 땅으로 눈길을 돌린다면, 자기 편이 이미 몇 번이나 꺾였는데도 나라가 무너진 폐허 한가운데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카토[1]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모르겠네. 카토는 말하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땅은 군단이, 바다는 함대가 지키고, 카이사르의 병사들이 성문을

에워싼다 해도 카토에게는 나갈 길이 있다. 한 손으로 자유에 이르는 넓은 길을 낼 것이다. 내전 중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죄 없이 지켜 온 이 칼이 마침내 훌륭하고 고귀한 일을 해낼 것이다. 조국에 주지 못한 자유를 카토에게는 줄 것이다. 영혼아, 오래 생각해 온 일에 손을 대라. 인간사에서 너를 빼내라. 페트레이우스와 유바[2]는 이미 맞붙어 서로의 손에 쓰러져 누웠다. 운명을 두고 맺은 용감하고 빛나는 약조였지만 나의 위대함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카토가 누구에게 죽음을 구걸하는 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만큼이나 부끄럽다." 나는 확신하네. 자기 자신에게 누구보다 단호했던 그 사람이 남의 안전을 챙기고 떠나는 이들이 달아날 길을 마련해 줄 때, 마지막 밤에도 책을 붙들고 있을 때, 거룩한 가슴에 칼을 꽂을 때, 창자를 흩뿌리며 칼에 더럽혀지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그 영혼을 제 손으로 끌어낼 때, 신들은 크나큰 기쁨으로 지켜보았을 걸세. 그래서 그 상처가 단번에 확실히 숨을 끊지 못했다고 나는 믿고 싶네. 불멸의 신들은 카토를 한 번 보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걸세. 그의 덕은 붙들려 다시 무대로 불려 나왔네. 더 어려운 배역에서 자신을 보여 주도록 말일세. 죽음에 처음 들어설 때보다 다시 찾아갈 때 더 큰 용기가 드는 법일세. 자기들이 길러 낸 제자가 그토록 빛나고 길이 기억될 퇴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신들이 어찌 기꺼이 지켜보지 않았겠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조차 그 마지막을 칭송하는 이들, 죽음은 그런 이들을 신성하게 만든다네.

3 나쁜 일로 보이는 것들이 실은 얼마나 나쁜 일이 아닌지는 이야기가 나아가는 대로 보여 주겠네. 지금은 이것만 말해 두지. 자네가 거칠다고, 고약하고 끔찍하다고 부르는 그 일들은 첫째로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신들이 낱낱의 사람보다 더 마음에 두는 모두를 위한 것이네. 또 그런 일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며, 받아들이기 싫다는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해도 싸다네. 여기에

덧붙여, 그런 일은 운명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며 선한 사람들을 선하게 만드는 바로 그 법에 따라 그들에게 닥친다는 것도 보여 주겠네. 그런 다음 자네가 선한 사람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설득하겠네. 선한 사람은 비참하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어도 비참할 수는 없으니 말일세. 내가 내세운 것들 가운데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은 맨 처음에 말한 것, 곧 우리가 몸서리치고 벌벌 떠는 일들이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이롭다는 주장일세. "추방당하고, 가난에 떨어지고, 자식과 아내를 묻고, 치욕을 뒤집어쓰고, 몸을 못 쓰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 자신에게 이롭단 말인가?" 하고 자네는 말하겠지. 이런 일이 누군가에게 이롭다는 것이 놀랍다면, 어떤 사람들이 칼과 불로, 또 그 못지않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도 놀라울 걸세. 그러나 치료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뼈를 깎아 내고 뼛조각을 추려 내고 혈관을 뽑아내며, 붙어 있으면 온몸을 망칠 팔다리를 잘라 내기도 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내가 증명하도록 허락해 주겠지. 어떤 불편한 일은 그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롭다는 것 말일세. 맹세코 그것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탐내는 어떤 것들이 그것을 즐긴 사람들을 해치는 것과 꼭 같은 이치일세. 체증이나 만취, 그 밖에 쾌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다 그렇지. 우리 데메트리오스[3]가 남긴 훌륭한 말이 많지만, 그 가운데 내가 방금 듣고 와서 아직도 귓가에 울리며 떨리는 말이 있네. "한 번도 역경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행해 보이는 사람은 없다." 그 사람은 자기를 시험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일세.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아니 바라기도 전에 술술 풀렸다 해도 신들은 그를 낮게 평가한 걸세. 언젠가 운을 이길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본 것이지. 운은 가장 비겁한 자들을 피해 가니,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네. "뭐라고? 저런 자를 내 상대로 삼으라고? 당장 무기를 내려놓을 텐데. 저런 자에게는 내 힘을 다 쏟을 것도 없다. 살짝 을러대기만 해도 달아날

테고, 내 얼굴을 마주 보지도 못한다. 맞붙어 볼 만한 다른 자를 둘러보자. 질 채비가 된 자와 겨루는 것은 부끄럽다." 검투사는 자기보다 못한 상대와 짝지어지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네. 위험 없이 쓰러뜨린 상대는 쓰러뜨려도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운도 똑같이 하네. 가장 용감한 자들을 제 맞수로 찾고, 어떤 자들은 하찮게 여겨 지나쳐 버리지. 가장 굽힐 줄 모르고 가장 꼿꼿한 사람을 골라 덤벼들어 그에게 제 힘을 겨누네. 무키우스[4]에게는 불을, 파브리키우스[5]에게는 가난을, 루틸리우스[6]에게는 추방을, 레굴루스[7]에게는 고문을, 소크라테스에게는 독을, 카토에게는 죽음을 시험해 보지. 위대한 본보기는 나쁜 운만이 찾아낸다네. 무키우스가 적의 불을 오른손으로 짓누르며 제 실수의 벌을 스스로 받아 내고, 무기를 든 손으로는 쫓아내지 못한 왕을 불탄 손으로 쫓아냈다고 해서 불행한가? 그럼 어떤가? 그 손을 애인의 품에 넣어 덥히고 있었다면 더 행복했겠는가? 파브리키우스가 나랏일에서 틈이 날 때마다 제 밭을 일구었다고 해서 불행한가? 피로스와 싸운 만큼 재물과도 싸웠다고 해서? 개선식까지 치른 노인이 밭의 잡초를 뽑다가 캐낸 바로 그 뿌리와 풀을 화롯가에서 저녁으로 먹었다고 해서? 그럼 어떤가? 먼 바닷가의 물고기와 낯선 땅에서 잡은 새들을 제 배 속에 쌓아 넣었다면, 위쪽 바다와 아래쪽 바다의 조개로 메슥거리는 위장의 굼뜬 입맛을 깨웠다면, 사냥꾼이 숱하게 죽어 나가며 잡은 최상급 짐승들을 산더미 같은 과일로 둘러쌌다면 더 행복했겠는가? 그를 단죄한 자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앞에서 변론을 해야 할 판이라고 해서 루틸리우스가 불행한가? 조국에서 떼어지는 일은 추방을 빼앗기는 일보다 담담하게 견뎠다고 해서? 독재관 술라에게 무언가를 거절한 사람이 그 하나뿐이었고,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자 뒷걸음질 치다시피 더 멀리 달아났다고 해서? 그는 말했네. "그건 그대의 행운이 로마에서 붙잡아 둔 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오. 포룸에

흥건한 피도, 세르빌리우스 연못[8] 위에 놓인 원로원 의원들의 머리도 (술라 살생부의 시체 벗기는 방이 바로 그곳이오), 온 도시를 떼 지어 누비는 자객들도, 살려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아니 바로 그 약속에 속아 한곳에서 도륙당한 로마 시민 수천 명도 그들이나 보라 하시오. 그런 것은 추방살이도 할 줄 모르는 자들이나 볼 일이오." 그러면 루키우스 술라는 행복한가? 포룸으로 내려올 때 칼로 사람들을 밀어내며 길을 트고, 집정관을 지낸 사람들의 머리를 제 앞에 내보이게 하고, 그 살육의 값을 재무관을 시켜 나라 장부에서 셈해 내주었다고 해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한 자가 바로 그 사람, 코르넬리우스 법[9]을 만든 그 사람일세. 레굴루스에게로 가 보세. 운이 그를 신의의 본보기로, 인내의 본보기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해를 끼쳤는가? 못이 살갗을 꿰뚫어, 지친 몸을 어디로 기대든 상처 위에 눕게 되네. 두 눈은 끝없이 깨어 있도록 억지로 치켜 열려 있네. 고통이 클수록 영광도 클 걸세. 덕에 이런 값을 매긴 것을 그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싶은가? 그를 못에서 떼어 내 원로원으로 보내 보게. 같은 의견을 말할 걸세. 그렇다면 자네는 마이케나스[10]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가? 사랑 때문에 애를 태우고, 까다로운 아내와 날마다 갈라서는 일을 눈물로 한탄하다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오는 악단의 노랫소리로 잠을 청하던 그 사람 말일세. 독한 술로 제 정신을 잠재우고, 물 쏟아지는 소리로 마음을 딴 데로 돌리고, 천 가지 쾌락으로 불안한 정신을 속여 본들, 그는 깃털 침상에서도 레굴루스가 형틀 위에서 그랬듯 깨어 있을 걸세. 그러나 레굴루스에게는 훌륭한 것을 위해 가혹한 일을 견딘다는 위안이 있고, 그는 고통에서 눈을 돌려 그 까닭을 바라보네. 반면 쾌락에 흐물흐물해지고 지나친 행운에 시달리는 마이케나스는 겪는 일 그 자체보다 그 일을 겪는 까닭에 더 괴로워한다네. 악덕이 아무리 인류를 차지했다 해도, 운명을 고르게 해 준다면 마이케나스보다 레굴루스로

태어나려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네. 레굴루스보다 마이케나스로 태어나는 편이 나았으리라고 감히 말할 사람이 있다면, 그자는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테렌티아로 태어나기를 더 바랐던 셈일세. 소크라테스가 나라에서 섞어 준 그 독배를 불사의 약을 마시듯 들이켜고 숨이 다할 때까지 죽음을 논했다고 해서, 자네는 그가 모진 대접을 받았다고 보는가? 피가 얼어붙고 냉기가 차츰 번져 혈관의 힘이 멎었다고 해서 그가 몹쓸 일을 당했단 말인가? 보석 잔으로 시중을 받는 자들보다, 온갖 짓을 다 받아 주도록 길들여진 사내종이, 거세당했거나 사내인지 아닌지 모를 그 종이 금 그릇에 담긴 눈을 녹여 술을 식혀 주는 자들보다,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더 부러운가! 이자들은 마신 것을 무엇이든 시무룩하게 토해 내며 제 쓸개즙을 다시 맛볼 걸세.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독을 기쁘게, 기꺼이 들이켤 걸세. 카토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했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가 더없는 행복을 누렸다고 인정할 걸세. 자연은 두려운 것들과 맞부딪쳐 볼 상대로 그를 골랐으니 말일세. "권세가들의 적의는 무겁다. 그러니 그를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와 크라수스에게 한꺼번에 맞서게 하라. 못난 자들에게 관직에서 밀리는 것은 무겁다. 그러니 바티니우스[11]보다 뒤로 밀리게 하라. 내전에 휘말리는 것은 무겁다. 그러니 온 세상을 누비며 옳은 대의를 위해 끈질기게, 그만큼 불운하게 싸우게 하라. 제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것은 무겁다. 그러니 그렇게 하게 하라. 이것으로 나는 무엇을 얻는가? 내가 카토에게 걸맞다고 여긴 이런 일들이 악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다."

4 순조로운 일은 평민에게도, 비천한 재주를 지닌 자들에게도 찾아가네. 그러나 재앙과 인간의 두려움을 굴복시켜 멍에 밑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일세. 늘 운이 좋기만 하고 마음을 물어뜯기는 일 없이 삶을 지나가는 것은 자연의 나머지

반쪽을 모르는 것이지. 자네는 위대한 사람일세. 그러나 운이 자네에게 덕을 드러내 보일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나? 자네는 올림피아 제전에 나갔지만 자네 말고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네. 관은 얻었어도 승리는 얻지 못했지. 나는 자네를 용감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집정관이나 법무관 자리를 얻은 사람으로서 축하하네. 자네는 명예가 하나 늘었을 뿐일세. 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네. 더 모진 불행이 그에게 마음의 힘을 보여 줄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말일세. "자네는 한 번도 비참해 본 적이 없으니 나는 자네를 비참하다고 보네. 자네는 맞수 없이 삶을 지나왔네. 자네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걸세. 자네 자신조차." 자기를 알려면 시험해 보아야 하네. 누구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해 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했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쁜 일이 꾸물거리자 스스로 나서서 그 앞에 몸을 내밀었고, 그대로 두면 어둠 속에 묻혀 갈 덕에 빛을 낼 기회를 찾아 나섰다네. 거듭 말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이따금 역경을 반기네. 용감한 병사가 전쟁을 반기는 것과 다르지 않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무르밀로 검투사 트리움푸스[12]가 검투 경기가 드물다고 불평하는 것을 나는 들은 적이 있네. "좋은 한창때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더군. 덕은 위험을 탐하네. 무엇을 겪게 될지가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생각하지. 겪게 될 일도 영광의 일부이기 때문일세. 군인들은 상처를 뽐내고, 남보다 나은 운을 만나 흘린 피를 기쁘게 내보이네. 싸움터에서 멀쩡히 돌아온 이들이 똑같이 싸웠다 해도, 사람들은 다쳐서 돌아온 이를 더 눈여겨보지. 거듭 말하지만, 신은 더없이 훌륭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무언가를 해낼 거리를 줄 때마다 바로 그들을 위하는 걸세. 그러자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하네. 키잡이는 폭풍 속에서, 병사는 싸움터에서 알아보는 법이지. 자네가 재물 속에 흐물흐물 녹아 있다면, 가난에 맞설 기개가 자네에게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자네가 박수갈채 속에서 늙어 가고, 무너뜨릴 수 없는 인기가, 사람들 마음이 저절로 쏠려 기우는 인기가 자네를 따라다닌다면, 치욕과 오명과 대중의 미움에 맞설 의연함이 자네에게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낳아 기른 자식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보고 있다면, 자식 잃는 일을 자네가 얼마나 담담하게 견딜지 내가 어찌 알겠나? 자네가 남을 위로하는 말은 들었네. 그때 자네가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면, 자기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면, 나는 자네를 제대로 보았을 걸세. 부탁하네, 자네들은 불멸의 신들이 마음에 박차처럼 갖다 대는 이런 일들에 질겁하지 말게. 재앙은 덕의 기회일세. 지나친 행운에 마비된 자들, 잔잔한 바다에 갇힌 배처럼 맥 빠진 고요에 붙들린 자들이야말로 비참하다고 해야 마땅하니,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든 낯선 일로 다가올 걸세. 모진 일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을 더 세게 짓누르네. 여린 목에는 멍에가 무겁지. 신병은 다칠 낌새만 보여도 낯빛이 하얘지지만, 피를 흘리고 나서 이긴 적이 많다는 것을 아는 노병은 제 피를 대담하게 바라보네. 그래서 신은 자기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단련하고, 살피고, 훈련시키네. 반면 신이 너그럽게 봐주고 아껴 주는 듯한 자들은 무른 채로 두었다가 닥쳐올 나쁜 일에 내맡기지. 누군가가 예외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자네들은 잘못 생각하는 걸세. 오래도록 운이 좋았던 그 사람에게도 제 몫이 찾아올 걸세. 면제된 듯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미뤄졌을 뿐일세. 신은 어째서 가장 훌륭한 사람마다 병이나 사별의 슬픔이나 그 밖의 불편한 일로 괴롭히는가? 군영에서도 위험한 일은 가장 용감한 자들에게 맡기기 때문일세. 장군은 가장 뛰어난 정예를 뽑아 보내 밤에 매복했다가 적을 치게 하거나, 길을 정탐하게 하거나, 적의 수비대를 진지에서 몰아내게 하지. 그렇게 나가는 자들 가운데 "사령관이 나를 홀대했다"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네. "나를 제대로 알아보았다"고 하지. 겁 많고 비겁한

자들이라면 울고불고할 일을 견디라는 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똑같이 말하게. "신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에 우리가 걸맞다고 보았다." 자네들은 사치를 피하게. 사람을 무르게 만드는 행운을 피하게. 그런 행운에 마음은 흠뻑 젖어 들고, 인간의 처지를 일깨워 줄 무언가가 끼어들지 않으면 끝없이 취해 잠든 사람처럼 시들어 버리네. 창유리가 늘 바람을 막아 주고, 수시로 갈아 대는 찜질 속에서 발이 늘 따뜻했고, 바닥 밑과 벽 둘레로 도는 열기가 식당을 덥혀 준 사람이라면, 가벼운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위태롭다네. 도를 넘은 것은 모두 해롭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행운의 무절제일세. 그것은 머리를 어지럽히고, 정신을 헛된 환영 속으로 불러내며, 거짓과 참 사이에 짙은 안개를 잔뜩 퍼뜨리네. 그러니 덕을 불러 곁에 두고 끝없는 불운을 견디는 편이, 끝도 한도 없는 좋은 것들에 배가 터지는 것보다 어찌 낫지 않겠는가? 굶어서 맞는 죽음은 차라리 순하네. 과식한 자들은 터져 죽지. 신들은 선한 사람들을 대할 때, 기대가 더 확실한 제자일수록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스승들과 같은 이치를 따르네. 스파르타인들이 공개적으로 매질을 해서 자식들의 됨됨이를 시험한다고 해서, 자네는 그들이 자식을 미워한다고 믿는가? 아버지들이 몸소 나서서 아이들에게 채찍질을 꿋꿋이 견디라고 다그치고, 살갗이 찢겨 반쯤 죽은 아이들에게도 상처 위에 계속 상처를 내밀어 달라고 청하네. 신이 고귀한 기백을 지닌 이들을 모질게 시험한다 해서 무엇이 놀라운가? 덕을 보여 주는 증거는 결코 무르지 않네. 운이 우리를 때리고 찢는다면 견디세. 그것은 포악함이 아니라 시합일세. 자주 나설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걸세. 몸에서 가장 단단한 곳은 자주 써서 단련된 곳이지. 우리는 운에게 자신을 내맡겨야 하네. 바로 그 운에게 단련되어 운에 맞설 수 있도록 말일세. 운은 차츰 우리를 제 맞수로 만들 것이고, 쉼 없이 위험을 겪다 보면 위험을 업신여기게 될 걸세. 그래서 뱃사람의

몸은 바다를 견디느라 단단하고, 농부의 손은 닳아 굳었으며, 군인의 팔뚝은 창을 던질 만큼 힘차고, 달리기 선수의 팔다리는 날래다네. 누구든 단련한 곳이 가장 단단하지. 마음은 인내로써 나쁜 일을 견디는 수고쯤은 업신여기는 데 이르네. 인내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는, 헐벗고 가난 덕에 오히려 더 강해진 민족들에게 고된 삶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면 알게 될 걸세. 로마의 평화가 끝나는 곳의 민족들을 모두 생각해 보게. 게르만족과 히스테르강 언저리를 떠도는 숱한 부족들 말일세. 끝없는 겨울과 음울한 하늘이 그들을 짓누르고, 메마른 땅은 인색하게 그들을 먹여 살리네. 그들은 짚이나 나뭇잎으로 비를 막고, 꽁꽁 언 늪 위를 뛰어다니며, 먹을거리로 짐승을 사냥하지. 그들이 비참해 보이는가? 습관이 본성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도 비참하지 않네. 필요해서 시작한 일도 차츰 쾌락이 되기 때문일세. 그들에게는 지친 몸이 그날그날 정해 주는 곳 말고는 집도 거처도 없네. 먹을 것은 변변찮은 데다 그나마 제 손으로 구해야 하고, 날씨는 끔찍하게 사나우며, 몸은 가릴 것이 없네. 자네에게 재앙으로 보이는 이것이 그 숱한 민족의 삶일세. 선한 사람들이 굳건해지려고 흔들리는 것이 어찌 놀라운가? 바람이 자주 들이치지 않는 나무는 단단하지도 튼튼하지도 않네. 시달리면서 바로 그 시달림에 몸이 조여지고 뿌리를 더 깊이 박기 때문이지. 볕 잘 드는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는 잘 부러지네. 그러므로 선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으려면 두려운 것들 사이에서 많이 지내며, 나쁘게 견디는 사람에게만 나쁜 그런 일들을 담담하게 견디는 편이 바로 그들 자신에게 이롭다네.

5 이제 여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군 복무를 하고 부역을 치르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도 덧붙이게. 신이 뜻하는 바는 현자가 뜻하는 바와 같으니, 뭇사람이 탐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일일세. 그런데 신이 그것들을

선한 사람에게만 나누어 준다면 그것들은 선으로 보일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만 지운다면 악으로 보일 걸세. 눈을 뽑혀 마땅한 자만 눈을 잃는다면 눈먼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 될 걸세. 그래서 아피우스와 메텔루스[13]도 빛을 잃는 것이네. 재물은 선이 아니네.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에 바쳐 거룩하게 모신 돈을 사창가에서도 보도록 뚜쟁이 엘리우스도 재물을 갖는 걸세. 사람들이 탐내는 것들을 망신 주는 데에는, 그것들을 가장 추한 자들에게 건네주고 가장 훌륭한 이들에게서는 쫓아 버리는 것보다 나은 길이 신에게 없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불구가 되거나 찔리거나 묶이는데, 악한 자들은 성한 몸으로 풀려나 호사를 누리며 활보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뿐인가? 용감한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군영에서 밤을 지새우며 상처를 동여맨 채 방벽 앞을 지키는데, 그동안 도성 안에서는 거세한 자들과 음란을 드러내 놓고 일삼는 자들이 근심 없이 지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또 어떤가? 더없이 고귀한 처녀들은 제사를 올리려고 밤중에 일어나야 하는데, 몸을 더럽힌 여자들은 깊디깊은 잠을 즐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수고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네. 원로원은 온종일 회의를 여는 일이 잦은데, 그 시각에 가장 하찮은 자들은 들판에서 한가롭게 놀거나 술집에 숨어 있거나 어느 패거리에 끼어 시간을 죽이지. 이 거대한 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네. 선한 사람들은 애쓰고, 아낌없이 쓰고, 자신도 아낌없이 쓰이며, 그것도 기꺼이 그렇게 하네. 그들은 운에게 끌려가지 않네. 운을 따라가며 걸음을 맞추지. 미리 알았더라면 앞서 나갔을 걸세. 더없이 용감한 사람 데메트리오스가 한 이 패기 있는 말도 들은 기억이 나네. "불멸의 신들이여, 제가 신들께 불평할 것은 단 하나, 신들의 뜻을 제게 미리 알려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지금 부름을 받고서야 나선 이 자리에 제가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제 자식들을 데려가시렵니까? 그 아이들은 신들을 위해 길렀습니다. 제

몸의 어느 부분을 원하십니까? 가져가소서. 대단한 것을 드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곧 몸 전체를 두고 떠날 터입니다. 제 숨을 원하십니까? 주신 것을 돌려받으시는 데 제가 어찌 조금이라도 지체하겠습니까? 무엇을 청하시든 기꺼이 내어 드리는 자에게서 받아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넘겨 드리기보다 먼저 바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실 까닭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빼앗아 가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에도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무엇도 마지못해 겪지 않네. 나는 신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신에게 동의하는 사람이며, 모든 것이 확고하게, 영원토록 선포된 법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그렇다네. 운명이 우리를 이끌고, 저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태어나는 첫 시각이 정해 놓았네. 원인은 원인에 매달려 있고, 사사로운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기나긴 사슬이 끌고 가지. 모든 일은 우리 생각처럼 우연히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찾아오는 것이니, 무슨 일이든 용감하게 견뎌야 하네. 자네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울지는 오래전에 정해졌고, 저마다의 삶이 아무리 크게 달라 보여도 합쳐 보면 결국 하나로 모이네. 사라질 우리가 사라질 것을 받을 뿐일세.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분개하는가? 무엇을 불평하는가?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마련된 존재일세. 자연이 제 몸들을 뜻대로 쓰게 두세. 우리는 무슨 일에든 기쁘고 용감하게 맞서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세. 선한 사람의 할 일은 무엇인가? 운명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일세. 우주와 함께 휩쓸려 간다는 것은 큰 위안이지.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으라고 명했든, 그것은 같은 필연으로 신들도 묶어 두네.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인간의 일과 신의 일을 똑같이 싣고 가네. 만물을 지은 이요 다스리는

이인 그 자신도 운명을 써 놓기는 했으나 그것을 따르네. 늘 따르되, 명한 것은 한 번뿐일세. "그래도 신은 어째서 운명을 나누어 주는 데 그토록 불공평해서, 선한 사람들에게 가난과 상처와 때 이른 초상을 정해 주었는가?" 장인은 재료를 바꿀 수 없네. 재료가 본디 그렇게 생겼네"[14]. 어떤 것들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지. 서로 붙어 있어 나눌 수가 없네. 무기력하고 잠으로, 혹은 잠과 다를 바 없는 깨어 있음으로 빠져들 성품들은 굼뜬 원소들로 엮여 있으니, 진지하게 사람이라 일컬을 만한 사람을 빚어내려면 더 굳센 운명이 있어야 하지. 그에게는 평탄한 길이 없을 걸세. 오르락내리락하고, 파도에 흔들리며, 거친 물결 속에서 배를 몰아야 하네. 운을 거슬러 항로를 지켜야 하지. 가혹하고 거친 일이 많이 닥치겠지만, 그것을 누그러뜨리고 고르게 펴는 것은 그 자신의 몫일세. 불은 금을 시험하고, 불행은 강한 사람을 시험하네. 덕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하는지 보게. 덕이 안전한 길로만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첫길은 가파르다. 아침에 갓 기운을 차린 말들도
간신히 기어오르는 길이다. 하늘 한가운데서 길은 가장 높아,
거기서 바다와 땅을 내려다보면 나조차
두려움이 일고 가슴이 겁에 질려 떨린다.
마지막 길은 내리막이라 흔들림 없는 손이 있어야 한다.
그때는 저 아래 물결로 나를 맞아들이는
테티스마저 내가 곤두박질칠까 늘 두려워한다."[15]

그 고귀한 젊은이는 이 말을 듣고 말했네. "그 길이 마음에 듭니다. 오르겠습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런 길을 지나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불같은 마음을 두려움으로 을러대기를 그치지 않네.

"네가 길을 지키고 어떤 실수로도 빗나가지 않는다 해도
너는 맞서 오는 황소의 뿔 사이로,
하이모니아의 활과 사나운 사자의 아가리 사이로 지나가야 한다."[16]

이 말을 듣고 젊은이가 말하네. "약속하신 수레에 말을 매어 주십시오. 저를 겁주어 물러서게 하리라 여기시는 바로 그것들이 저를 부추깁니다. 태양신께서 몸소 떠시는 그 자리에 서 보고 싶습니다." 안전한 것만 좇는 것은 비천하고 게으른 자나 하는 일일세. 덕은 높은 곳으로 간다네.

6 "그래도 신은 어째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가?" 아니, 신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네. 신은 범죄와 파렴치한 짓, 사악한 생각, 탐욕스러운 꾀, 눈먼 정욕, 남의 것을 노리는 욕심 같은 모든 악을 그들에게서 치워 두었네. 신은 그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네. 그런데 누가 신에게 선한 사람들의 짐 보따리까지 지켜 달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들 스스로 신에게서 그런 걱정을 덜어 주네. 그들은 바깥의 것을 업신여기지. 데모크리토스[17]는 재물을 내던졌네. 재물을 건전한 정신의 짐으로 여겼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선한 사람이 이따금 스스로 바라는 일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신이 내버려 둔다고 해서 자네는 무엇이 놀라운가? 선한 사람들은 자식을 잃네. 왜 아니겠는가, 그들은 때로 제 손으로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데. 그들은 추방당하네. 왜 아니겠는가, 그들은 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스스로 조국을 떠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죽임을 당하네. 왜 아니겠는가, 그들은 때로 제 손으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그들은 왜 가혹한 일을 겪는가? 남들에게 견디는 법을 가르치려는 걸세. 그들은 본보기가 되려고 태어났지. 그러니 신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게. "올바른 것을 좋아해 온 너희여, 너희가 나를 두고 무슨 불평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자들에게는 거짓된 좋은 것들을 둘러 주고, 그 텅 빈 마음을 길고 거짓된 꿈으로 놀려 주었다. 그들을 금과 은과 상아로 꾸며 주었지만 그 속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네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저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쪽이 아니라 숨은 쪽을 보면 비참하고 더럽고 추하며, 제 집 벽처럼 겉만 번드르르하게 꾸몄을 뿐이다. 그것은 단단하고 순수한 행복이 아니다. 겉에 붙인 껍데기, 그것도 얇은 껍데기다. 그래서 그들은 버티고 서서 제 뜻대로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동안에는 번쩍거리며 사람을 속인다. 그러나 무언가가 닥쳐 그들을 흔들고 껍데기를 벗기면, 그제야 빌려 온 광채가 얼마나 깊고 참된 추함을 감추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너희에게는 확실하고 오래가는 좋은 것, 누구든 이리저리 돌려 보고 구석구석 살펴볼수록 더 좋고 더 커 보이는 것들을 주었다. 너희에게는 두려운 것을 업신여기고 욕망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었다. 너희는 겉으로 번쩍이지 않는다. 너희의 좋은 것은 안쪽을 향해 있다. 우주도 그렇게 바깥의 것을 업신여기고 제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나는 모든 선을 안에 두었다. 행운이 필요 없다는 것, 그것이 너희의 행복이다. '그러나 슬프고 끔찍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 많이 닥친다.' 너희를 그런 일에서 빼낼 수 없었기에 나는 너희 마음을 모든 것에 맞서도록 무장시켰다. 용감하게 견뎌라. 이 점에서 너희는 신을 앞설 수 있다. 신은 나쁜 일을 견딜 일 바깥에 있고, 너희는 견딤 위에 있다. 가난을 업신여겨라. 누구도 태어날 때만큼 가난하게 살지는 않는다. 고통을 업신여겨라. 고통은 풀리거나 너희를 풀어 준다. 죽음을 업신여겨라. 죽음은 너희를 끝내거나 옮겨 놓는다. 운을 업신여겨라. 나는 운에게 마음을 찌를 무기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는 누구도 너희 뜻을 거슬러 너희를 붙잡아 두지 못하게 해 두었다. 나가는 문은 열려 있다. 싸우기 싫으면 달아나도 된다. 그래서 너희에게 꼭 있어야 한다고 정한 모든 것 가운데 죽는 일만큼 쉽게 만든 것이 없다. 나는 목숨을 내리막에 두었다. 목숨은 저절로 끌려 내려간다'[18]. 눈여겨보기만 하면 자유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거침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들어올 때만큼 나갈 때

오래 지체하게 하지도 않았으니, 그렇지 않아서 사람이 태어나는 만큼 더디게 죽는다면 운이 너희 위에 큰 권세를 휘둘렀을 것이다. 모든 때와 모든 곳이 너희에게, 자연과 인연을 끊고 자연이 준 선물을 그 얼굴에 되던지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가르쳐 주게 하라. 제단 바로 곁에서, 제물을 바치는 이들의 엄숙한 의식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목숨을 빌고 있을 때 죽음을 배워라. 살진 황소의 몸뚱이도 작은 상처 하나에 쓰러지고, 힘센 짐승도 사람 손이 한 번 내리치면 넘어진다. 가는 칼날 하나에 목덜미의 이음매가 끊어지고, 머리와 목을 잇는 그 마디가 잘리면 그 커다란 덩치가 무너져 내린다. 숨은 깊은 곳에 숨어 있지 않아서 굳이 칼로 파낼 것도 없고, 상처를 깊숙이 찔러 넣어 가슴속을 헤집을 필요도 없다. 죽음은 바로 곁에 있다. 나는 이런 일격을 위해 정해 둔 자리를 두지 않았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길이 뚫려 있다. 죽는다고 부르는 바로 그 일, 영혼이 몸을 떠나는 일은 그 빠르기를 느낄 수도 없을 만큼 짧다. 올가미가 목구멍을 조였든, 물이 숨구멍을 막았든, 거꾸로 떨어진 머리를 아래 놓인 단단한 땅이 부수었든, 들이마신 불이 되돌아 나오는 숨길을 끊었든, 무엇이든 서둘러 끝난다. 너희는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토록 빨리 끝나는 일을 그토록 오래 두려워하다니!"

---

1. 소(小)카토(기원전 95~기원전 46). 공화정을 지키려 카이사르에 맞섰고, 북아프리카 우티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첫 칼에 죽지 못하자 꿰맨 상처를 제 손으로 다시 찢었다고 전한다.

2. 폼페이우스파의 장군 마르쿠스 페트레이우스와 누미디아 왕 유바 1세. 기원전 46년 탑수스에서 카이사르에게 진 뒤 서로 찔러 죽기로 하고 맞붙었다.

3. 견유학파 철학자. 1세기 로마에서 가난하게 살며 가르쳤고, 세네카의 벗이었다. 칼리굴라부터 베스파시아누스 시대까지 활동했다.

4. 가이우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 로마를 에워싼 에트루리아 왕 포르센나를 죽이려다 엉뚱한 사람을 찔렀다. 붙잡히자 오른손을 제단 불에 넣어 태우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놀란 왕이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고 전한다(기원전 6세기 말).

5. 가이우스 파브리키우스 루스키누스. 기원전 3세기 로마의 장군·집정관. 에페이로스 왕 피로스와 싸웠고, 피로스의 뇌물을 물리친 청렴과 가난으로 이름났다.

6. 푸블리우스 루틸리우스 루푸스. 아시아 속주에서 징세업자들의 횡포를 막다가 그들의 모함으로 기원전 92년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고 스미르나로 물러났다. 뒤에 술라가 불러들였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7.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 1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에 사로잡혔다. 포로 교환을 협상하러 로마에 보내지자 원로원에서 교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맹세대로 카르타고로 돌아가 고문 끝에 죽었다고 전한다.

8. 포룸 가까이 있던 연못. 술라는 살생부에 오른 원로원 의원들의 머리를 이곳에 내걸었다. 「시체 벗기는 방」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은 검투사의 무구와 옷을 벗기던 방(spoliarium)에 빗댄 말이다.

9. 술라가 기원전 81년에 만든, 자객과 독살범을 처벌하는 법.

10. 가이우스 킬니우스 마이케나스(기원전 70 무렵~기원전 8). 아우구스투스의 측근이자 시인들의 후원자. 성미 까다로운 아내 테렌티아와 여러 번 갈라섰다가 다시 합쳤고,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전한다.

11. 푸블리우스 바티니우스. 카이사르파 정치가. 기원전 55년 법무관 선거에서 카토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12. 무르밀로는 물고기 장식이 달린 투구를 쓰고 큰 방패와 짧은 칼로 싸운 검투사다. 트리움푸스는 그 검투사의 이름이다.

13.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기원전 4~3세기)는 늘그막에 눈이 멀었다. 루키우스 카이킬리우스 메텔루스는 기원전 241년 불타는 베스타 신전에서 성물을 구해 내다가 눈이 멀었다고 전한다.

14. 원문 손상. 재료가 본디 그렇게 생겼다는 뜻으로 읽었다.

15.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2.63~69. 태양신이 아들 파에톤에게 태양 수레를 모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일러 주는 말이다. 테티스는 바다의 여신이다.

16. 같은 책 2.79~81. 황소와 하이모니아(테살리아)의 활과 사자는 하늘의 황소자리·궁수자리·사자자리를 가리킨다.

17. 그리스의 원자론 철학자(기원전 460 무렵~기원전 370 무렵). 학문에 몰두하려고 물려받은 재산을 내놓았다고 전한다.

18. 원문 손상. 목숨이 내리막을 따라 저절로 끌려 나간다는 뜻으로 읽었다.

현자의 의연함에 관하여

1 세레누스, 스토아학파와 지혜를 내세우는 다른 학파들 사이에는 여자와 남자 사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걸세. 두 무리가 삶을 함께 꾸리는 데 똑같이 몫을 하기는 하지만, 한쪽은 따르도록, 다른 쪽은 다스리도록 태어났으니 말일세. 다른 학파의 현자들은 집안에 드나드는 단골 의사가 병든 몸을 대하듯,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허락되는 길을 골라 부드럽고 살갑게 치료하네. 스토아학파는 사내다운 길에 들어섰고, 그 길이 들어서는 사람 눈에 즐거워 보이는지에는 마음을 쓰지 않네. 그들이 마음을 쓰는 것은 그 길이 되도록 빨리 우리를 건져 내어, 어떤 화살도 닿지 않을 만큼 높이 솟아 운(fortuna) 위로 우뚝 드러난 저 높은 봉우리로 데려가는 일일세. "하지만 우리를 부르는 그 길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높은 곳을 평지로 걸어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그 길이 어떤 이들 생각만큼 깎아지르지도 않네. 바위와 벼랑이 버티고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은 첫 구간뿐일세. 멀리서 바라보면 대개의 것이 깎아지른 듯하고 한데 붙어 보이게 마련이지. 거리가 눈을 속이기 때문이네. 그러다 가까이 다가가면 눈의 착각이 한 덩어리로 뭉쳐 놓았던 바로 그것들이 차츰 벌어지고, 멀리서 낭떠러지로 보이던 곳이 다시 완만한 비탈로 돌아온다네. 얼마 전 마르쿠스 카토[1]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당한 일을 참지 못하는 자네는 몹시 분개했지. 카토의 시대가 카토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

같은 이들보다 높이 솟은 그를 바티니우스'[2] 같은 자들보다 아래에 두었다고 말일세. 그가 법안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려다 포룸에서 토가를 빼앗긴 일, 반란 무리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며 연단에서 파비우스 개선문까지 끌려가는 동안 상스러운 욕설과 침과 그 밖에 미쳐 날뛰는 군중이 퍼붓는 온갖 모욕을 견뎌야 했던 일도 자네에게는 분하게 보였지.

2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네. 나라를 생각해서라면 자네가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하다고. 이쪽에서는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3]가, 저쪽에서는 바티니우스와 가장 못된 자들이 저마다 나라를 팔아넘기고 있었고, 눈먼 탐욕에 사로잡힌 그들은 팔아넘기는 사이에 자기들도 팔려 간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말일세. 그러나 카토 자신을 두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일렀지. 현자는 불의(iniuria)도 모욕(contumelia)도 당할 수 없으며, 불멸의 신들이 앞선 시대에 오디세우스와 헤라클레스를 주었던 것보다 카토를 더 확실한 현자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일세. 우리 스토아학파는 이 두 사람을 현자라고 선언했네. 노고에 꺾이지 않고, 쾌락을 업신여기고, 모든 공포를 이겨 낸 사람들이라고. 카토는 들짐승과 맞붙어 싸우지 않았네. 짐승을 쫓는 것은 사냥꾼과 시골 사람이 할 일이지. 불과 칼로 괴물을 쫓아다니지도 않았고, 한 사람의 어깨가 하늘을 떠받친다고 믿을 수 있던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네. 그가 산 시대는 옛날의 순진한 믿음을 이미 떨쳐 버리고 영리함이 끝까지 치달은 때였네. 그런 시대에 그는 갖가지 얼굴을 한 악인 관직 매수와 맞붙었고, 온 세상을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도 채울 수 없던 끝없는 권력욕과 맞붙었네. 타락해 가며 제 무게에 눌려 가라앉는 나라의 악덕에 맞서 그는 홀로 버티었고, 한 손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데까지 무너지는 나라를 붙들었네. 그러다 마침내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가자, 그토록 오래 떠받쳐 온 나라가 무너질 때 스스로 그 길동무가

되었지. 그리하여 갈라놓는 것이 죄였을 두 가지가 함께 꺼졌네. 카토는 자유를 잃고 살아남지 않았고, 자유도 카토를 잃고 살아남지 않았네. 그런 사람이 인민에게 불의를 당할 수 있었다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인민이 그에게서 법무관 자리나 토가를 빼앗았다고 해서, 그 거룩한 머리에 입에서 나온 오물을 끼얹었다고 해서? 현자는 안전하네. 어떤 불의도, 어떤 모욕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네.

3 자네 마음이 불붙어 끓어오르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네. 자네는 이렇게 소리치려는 참이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당신들의 가르침이 권위를 잃는다. 당신들은 큰 것을 약속한다. 바랄 수조차 없는 것, 믿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을.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 놓고, 현자는 가난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종도 지붕도 먹을 것도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현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정신을 잃고 성치 않은 말을 내뱉고 병의 힘이 몰아붙이는 대로 무슨 짓이든 저지른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현자는 노예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같은 입으로 그가 팔려 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에게 노예의 시중을 들리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신들은 눈썹을 한껏 치켜올렸다가 사물의 이름만 바꾸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온다. 그러니 이 주장에도 그런 것이 숨어 있으리라고 나는 짐작한다. 현자는 불의도 모욕도 당하지 않으리라는 주장은 언뜻 보기에 아름답고 웅장하다. 그러나 현자를 분개하지 않는 자리에 두느냐, 불의가 미치지 않는 자리에 두느냐는 크게 다르다. 현자가 그것을 담담히 견디리라는 뜻으로 당신이 말한다면 그에게는 아무 특권도 없다. 그가 얻은 것은 흔한 것, 불의를 거듭 당하다 보면 저절로 배우게 되는 것, 곧 인내(patientia)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불의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뜻, 다시 말해 아무도 그에게 불의를 저지르려 들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말한다면, 나는 하던 일을 모두 내던지고

스토아학파가 되겠다." 그러나 나는 말로만 꾸민 헛된 영예로 현자를 치장하려는 것이 아닐세. 어떤 불의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에 그를 두기로 마음먹었네. "그러면 어떤가? 그를 건드리고 시험하려 드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말인가?" 자연에는 신성을 더럽히는 자를 만나지 않을 만큼 신성한 것이 없네.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높이 있는 위대함을 닿지도 못할 손으로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신성한 것들이 덜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아니네. 상처 입지 않는 것이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아도 다치지 않는 것일세. 이 표지로 나는 자네에게 현자를 보여 주겠네. 꺾이지 않는 힘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힘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가? 시험받지 않은 힘은 미덥지 못하고,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굳셈이야말로 가장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니 알아 두게. 현자는 아무 불의도 일어나지 않을 때보다 어떤 불의도 그를 해치지 못할 때 더 뛰어난 본성을 지녔다고 해야 하네. 나는 전쟁에도 굴하지 않고 다가오는 적의 힘에도 겁먹지 않는 사람을 용감하다고 부르겠네. 게으른 민족들 사이에서 기름진 한가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내 말은 이것일세. 현자는 어떤 불의에도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그에게 창이 몇 자루 날아드는지는 상관없네. 무엇도 그를 꿰뚫지 못하니 말일세. 어떤 돌은 쇠로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서, 금강석은 자르지도 쪼개지도 갈아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딪쳐 오는 것을 무디게 만드네. 어떤 것은 불에 타지 않고, 불길에 휩싸여도 제 단단함과 모양을 지키네. 먼바다로 뻗어 나간 어떤 바위는 바다를 부수고, 그토록 오랜 세월 매를 맞고도 사나운 물결이 남긴 흔적 하나 드러내지 않네. 현자의 마음도 그처럼 단단하고, 불의 앞에서 내가 말한 그것들만큼 안전할 힘을 모았다네.

4 "그래서? 현자에게 불의를 저지르려는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인가?" 저지르려 들기는 하겠지. 그러나 그 불의는 그에게 닿지

못하네. 그는 아랫것들의 손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떤 해로운 힘도 그에게까지 제 힘을 실어 나르지 못한다네. 권세 있는 자들, 통치권으로 높이 오르고 섬기는 자들이 한뜻으로 받들어 힘을 얻은 자들이 해치려 들 때에도, 그들의 공격은 모두 지혜에 못 미친 채 꺾이고 말 걸세. 활시위나 투석기로 하늘 높이 쏘아 올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솟구치고도 결국 하늘에 못 미쳐 꺾여 내려오는 것과 같지. 어떤가? 그 어리석은 왕[4]이 숱한 화살로 대낮을 어둡게 했을 때 화살 하나라도 해에 꽂혔다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바다 깊이 쇠사슬을 던져 넣었을 때 그것이 넵투누스에게 닿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늘의 것이 사람의 손을 벗어나고 신전을 허물고 신상을 녹이는 자들도 신성을 조금도 해치지 못하듯, 현자에게 뻔뻔하게, 방자하게, 오만하게 저지르는 짓도 무엇이든 헛된 시도일 뿐일세. "그래도 그런 짓을 하려는 자가 아예 없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자네는 인류에게 어려운 것을 바라는군.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 말일세. 그런 짓이 일어나지 않아서 득을 보는 것은 그 짓을 저지를 자들이지, 일어난다 해도 그것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닐세. 아니, 오히려 도발하는 것들 한가운데서 지키는 평정(tranquillitas)이 지혜의 힘을 더 잘 보여 주는지도 모르네. 무기와 병사가 넉넉한 사령관의 힘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증거가 적지에서도 든든하게 누리는 안온함(securitas)이듯이.

5 세레누스, 괜찮다면 불의와 모욕을 갈라 보세. 앞의 것은 본디 더 무겁고, 뒤의 것은 더 가벼워서 응석받이들에게나 무겁지. 모욕을 당하면 사람은 다치지는 않고 기분만 상하네. 그런데도 사람들 마음이 워낙 풀어지고 허영에 들떠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보다 쓰라린 것이 없다고 여기네. 그래서 따귀를 맞느니 채찍으로 맞겠다는 노예, 모욕하는 말보다는 죽음과 매질이 견디기 쉽다고 믿는 노예도 자네는 보게 될 걸세. 어리석음이 어찌나 심해졌는지 우리는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생각에도 시달리네. 아이들과 똑같지. 아이들은 그림자나 흉측한 가면이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 겁에 질리고, 귀에 거슬리는 이름이나 손가락 놀림, 그 밖에 앞뒤 가리지 않는 착각에 휩쓸려 피하는 것들 앞에서는 눈물을 쏟는다네. 불의가 노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악을 입히는 일일세. 그런데 지혜는 악이 들어설 자리를 남기지 않네. 지혜에게 악은 오직 하나, 추함(turpitudo)뿐인데, 추함은 이미 덕(virtus)과 훌륭한 것(honestum)이 자리 잡은 곳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일세. 그러니 악이 없으면 불의도 없고, 추한 것이 아니면 악도 없으며, 추한 것은 훌륭한 것이 차지한 사람에게 닿을 수 없으니, 불의는 현자에게 닿지 못하네. 불의가 어떤 악을 겪는 일인데 현자는 어떤 악도 겪지 않는다면, 어떤 불의도 현자와는 상관이 없네. 모든 불의는 그것이 덮친 사람을 깎아 내네. 체면이든 몸이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든, 무언가를 잃지 않고 불의를 당하는 사람은 없네. 그러나 현자는 아무것도 잃을 수 없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쌓아 두었고, 운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며, 덕으로 만족하기에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단단한 땅 위에 두었네. 덕은 우연히 오는 것이 필요 없고, 그래서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네. 꼭대기에 이른 것에는 더 자랄 여지가 없고, 운은 자기가 준 것밖에 빼앗지 못하지. 그런데 운은 덕을 주지 않으니 덕을 앗아 가지도 못하네. 덕은 자유롭고, 범할 수 없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불행에 맞서 단단히 굳어서 꺾이기는커녕 기울지도 않네. 무시무시한 것을 늘어놓아도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며, 가혹한 일을 내보이든 순탄한 일을 내보이든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지. 그러므로 현자는 잃어서 아쉬워할 것은 하나도 잃지 않을 걸세. 그가 차지한 것은 덕 하나뿐이고 거기서는 결코 쫓겨날 수 없으며, 나머지는 주인이 허락하는 동안만 빌려 쓰는 것이네. 남의 것을 잃었다고 누가 마음이 흔들리겠는가? 불의가 현자의 몫인 것을 하나도

해칠 수 없다면, 그의 덕이 온전한 한 그것들도 온전하니, 현자에게는 불의가 일어날 수 없네. 폴리오르케테스라는 별명이 붙은 데메트리오스[5]가 메가라를 함락했을 때 일이네. 데메트리오스가 철학자 스틸폰에게 무엇을 잃었느냐고 묻자 스틸폰은 대답했지. "아무것도 잃지 않았소. 내 것은 모두 나와 함께 있소." 그런데 그의 재산은 약탈물이 되었고, 딸들은 적에게 끌려갔고, 조국은 남의 손에 넘어갔으며, 승리한 군대의 무기에 둘러싸인 왕이 높은 자리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묻고 있었네. 그러나 스틸폰은 왕의 손에서 승리를 쳐내 버렸고, 도시가 함락되었어도 자기는 꺾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잃지 않았음을 증언했네. 그에게는 참된 좋은 것들이 함께 있었고, 거기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지. 흩어지고 약탈당해 실려 가는 것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밖에서 흘러들어 와 운의 눈짓을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여겼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제 것처럼 아끼지 않았네. 밖에서 흘러드는 것은 무엇이든 미끄럽고 미덥지 못한 소유일 뿐일세.

6 이제 생각해 보게. 전쟁도 적도, 도시를 부수는 빼어난 기술을 자랑하던 그 사람도 아무것도 빼앗지 못한 이 사람에게, 도둑이나 무고하는 자나 제멋대로 구는 이웃이, 아니면 자식 없는 늙음을 무기로 왕 노릇 하는 어떤 부자가 불의를 저지를 수 있겠는가? 사방에서 번득이는 칼과 약탈하는 병사들의 소란 속에서, 불길과 피와 무너진 도시의 주검 더미 속에서, 제 신들 위로 무너져 내리는 신전들의 굉음 속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었네. 그러니 내 약속을 무모하다고 여길 까닭은 없네. 내 말이 미덥지 않다면 자네에게 보증인을 세워 주지. 사람에게 그토록 굳셈이, 그토록 큰 도량이 깃들 수 있다고 자네는 좀처럼 믿지 않지. 그러나 여기 한 사람이 한가운데로 나서서 이렇게 말하네.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인간사 위로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의심할 것 없소. 고통과 손실을, 곪은 상처와 벤

상처를, 제 둘레에서 으르렁대는 큰 격변을 근심 없이 바라보고, 가혹한 일은 차분하게, 순탄한 일은 절도 있게 견디며, 앞의 것에 굴하지도 뒤의 것에 기대지도 않고 서로 다른 처지 속에서도 한결같은 한 사람으로 남으며,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신마저도 더 나은 부분만 제 것으로 여길 수 있는지 의심할 것 없소. 보시오, 그대들에게 이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여기 있소. 그토록 많은 도시를 뒤엎은 이 사람 밑에서 성벽은 공성추에 맞아 흔들리고, 높은 탑은 땅굴과 숨은 갱도에 갑자기 주저앉고, 가장 높은 성채와 키를 맞추려고 흙둔덕이 솟아오르지만, 기초를 든든히 다진 마음을 뒤흔들 공성 기계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소. 나는 방금 무너진 집에서 기어 나왔고,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 피를 밟으며 달아났소. 내 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나라가 당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오. 홀로, 늙어, 둘레의 모든 것이 적의 것이 된 것을 보면서도, 나는 내 재산이 온전하고 무사하다고 신고하오. 내 것이었던 것은 무엇이든 지금도 내 손에 있고 내 곁에 있소. 내가 졌고 그대가 이겼다고 믿을 것 없소. 그대의 운이 내 운을 이긴 것이오. 떨어져 나가고 주인을 바꾸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오. 내 것에 관해서라면, 그것들은 나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오. 저 부자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잃었고, 호색한들은 사랑하던 이들과 체면을 크게 치르며 아끼던 창부들을 잃었고, 야심가들은 원로원과 포룸과 사람들 앞에서 악덕을 부리라고 마련된 자리들을 잃었소. 고리대금업자들은 장부를 잃었소. 탐욕은 그 장부를 들여다보며 헛되이 기뻐하고 부를 꿈꾸었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도 축나지 않은 채 지니고 있소. 그러니 저들에게 물으시오. 울며 통곡하는 자들, 돈을 지키려고 뽑힌 칼 앞에 맨몸을 내미는 자들, 품에 잔뜩 챙겨 넣고 적을 피해 달아나는 자들에게." 그러니 세레누스, 이렇게 알아

두게. 인간의 덕과 신의 덕으로 가득 찬 그 완전한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네. 그의 좋은 것들은 단단하고 넘을 수 없는 성벽에 둘러싸여 있네. 알렉산드로스가 들어간 바빌론의 성벽도, 한 사람의 손에 함락된 카르타고나 누만티아의 성벽[6]도, 카피톨리움이나 그 성채도 거기에 견주지 말게. 그런 것들에는 적의 발자국이 남아 있네. 그러나 현자를 지키는 성벽은 불길에도 습격에도 안전하고, 들어갈 틈을 하나도 내주지 않으며, 드높고, 함락할 수 없고, 신들과 맞먹는다네.

7 자네가 늘 하듯, 우리가 말하는 이 현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할 것은 없네. 우리는 인간의 재주가 지어낸 헛된 장식을 꾸며 내는 것도, 있지도 않은 것의 거대한 허상을 그려 내는 것도 아닐세. 우리가 빚어내는 그대로의 현자를 우리는 보여 주었고 앞으로도 보여 줄 걸세. 아마 드물게, 여러 세대에 한 사람씩일 테지만. 위대한 것, 흔하고 평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자주 태어나지 않는 법일세. 게다가 이 논의의 실마리가 된 바로 그 마르쿠스 카토는 우리가 그리는 본보기보다 오히려 위에 있지 않을까 싶네. 요컨대 해치는 쪽은 해를 입는 쪽보다 강해야 하네. 그런데 사악함은 덕보다 강하지 않네. 그러므로 현자는 해를 입을 수 없네. 선한 사람에게 불의를 저지르려 드는 것은 악한 자들뿐일세. 선한 사람들끼리는 평화롭고, 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에게 해로운 만큼 자기들끼리도 해롭지. 더 약한 쪽만 해를 입을 수 있고, 악한 자는 선한 사람보다 약하며, 선한 사람이 두려워할 불의는 자기와 같지 않은 자에게서만 온다면, 불의는 현자에게 미치지 않네. 현자 말고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자네에게 새삼 일깨울 필요는 없겠지. "소크라테스가 부당하게 단죄되었다면 그는 불의를 당했다." 하고 누군가 말하네. 여기서 우리는 누가 내게 불의를 저질러도 나는 불의를 당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누가 내 시골 별장에서 훔친 물건을 내 집에 갖다 놓았다고 해 보세. 그는 도둑질을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네. 해를 끼치지 않고도 해를 끼친 죄인이 될 수 있네. 누가 제 아내와 남의 아내인 줄 알고 잠자리를 같이했다면, 아내는 간통한 것이 아니어도 그는 간통한 자가 되네. 누가 내게 독을 먹였는데 음식에 섞이는 바람에 독이 힘을 잃었다고 하세. 그는 해를 끼치지 못했어도 독을 준 것만으로 죄를 지었네. 옷자락에 막혀 칼이 빗나갔다고 해서 강도가 덜 강도인 것은 아닐세. 모든 범죄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죄를 묻기에 충분한 만큼은 이미 완성되어 있네. 어떤 것들은 서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어서,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그 하나 없이 있을 수 없네. 내 말을 분명히 해 보겠네. 나는 달리지 않고도 발을 움직일 수 있지만, 발을 움직이지 않고는 달릴 수 없네. 물속에 있으면서 헤엄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헤엄친다면 물속에 있지 않을 수 없지. 지금 다루는 문제도 이런 종류일세. 내가 불의를 당했다면 누군가 불의를 저지른 것이 틀림없네. 그러나 누가 불의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꼭 당한 것은 아닐세. 불의를 막아 내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 말일세. 어떤 우연이 치켜든 손을 떨어뜨리고 날아가던 창을 비껴가게 할 수 있듯이, 어떤 것이 어떤 불의든 물리치고 중간에 가로챌 수 있어서, 불의는 저질러졌으되 당하지는 않은 것이 된다네.

8 게다가 정의는 정의롭지 않은 것을 당할 수 없네. 서로 반대되는 것은 한데 어울리지 않는 법이지. 그런데 불의는 정의에 어긋나게만 일어나네. 그러므로 현자에게는 불의가 일어날 수 없네. 아무도 그에게 불의를 저지를 수 없다고 해서 놀랄 것 없네. 아무도 그를 이롭게 할 수조차 없으니 말일세. 현자에게는 선물로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악한 자는 현자에게 걸맞은 것을 하나도 줄 수 없네. 주려면 먼저 지녀야 하는데, 악한 자에게는 현자가 넘겨받고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네. 그러므로 누구도 현자를 해칠 수도 이롭게 할

수도 없네. 신성한 것은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해를 입을 수도 없는데, 현자는 신들 바로 곁에 이웃하여 서 있고, 죽는다는 것만 빼면 신과 닮았기 때문일세. 드높고, 질서 있고, 두려움 없고, 고르고 어긋남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근심 없고, 너그럽고, 모두의 이로움을 위해 태어나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이로운 그것들을 향해 애써 나아가는 사람은, 낮은 것을 탐내지 않고 무엇에도 울지 않을 걸세. 이성에 기대어 인간사의 숱한 불행 사이를 신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불의를 당할 틈이 없네. 사람에게서만 그렇다는 말로 들리는가? 운에게서도 그렇다네. 운은 덕과 맞붙을 때마다 한 번도 비기고 물러난 적이 없지. 성난 법률과 더없이 잔인한 주인들도 그 너머로는 위협할 거리가 없는 가장 큰 것, 운이 제 지배력을 다 써 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담담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은 악이 아니며 그러니 불의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것들은 훨씬 쉽게 견딜 걸세. 손실과 고통, 치욕, 사는 곳이 바뀌는 일, 자식을 잃는 일, 헤어지는 일 말일세.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현자를 에워싼다 해도 그를 가라앉히지 못하네. 하나씩 덮쳐 온다고 해서 슬퍼할 리는 더더욱 없지. 운이 저지르는 불의도 절도 있게 견디는 그가, 운의 손발임을 아는 권세가들이 저지르는 불의야 얼마나 더 잘 견디겠는가!

9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겨울의 혹독한 추위나 고르지 못한 날씨처럼, 열병과 질병과 그 밖에 우연히 닥치는 일처럼 견디고, 누구를 두고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숙고해서 했다고 여길 만큼 좋게 판단하지 않네. 숙고는 현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세.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숙고가 아니라 속임수와 함정과 마음의 어지러운 움직임이며, 현자는 그것들을 우연한 일 가운데 하나로 셈하네. 그런데 우연한 일은 모두 우리 둘레에서, 하찮은 것들을 상대로 날뛸 뿐일세. 이것도 생각해 보게. 불의의 거리가 가장 넓게 펼쳐지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꾸미는 일들일세. 고발자를 몰래 내세우거나,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일, 그 밖에 토가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강도질 말일세. 흔한 불의는 또 있네. 누가 이득을 빼앗기거나 오래 노려 온 보상을 놓칠 때, 큰 공을 들여 노리던 유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돈벌이가 되는 집안의 총애를 빼앗길 때 말일세. 현자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네. 그는 희망에 매여 사는 법도, 두려움에 매여 사는 법도 모르네. 여기에 이것도 보태게. 누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채 불의를 당하지는 않네. 불의를 느끼면 동요(perturbatio)하게 마련이지. 그러나 미혹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깊고 잔잔한 고요에 잠긴 사람에게는 동요가 없네. 불의가 그를 건드린다면 그를 흔들고 떠밀 걸세. 그런데 현자에게는 분노가 없네. 분노는 불의를 당했다는 인상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불의가 없어야 분노도 없을 수 있네. 자기에게는 불의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아네. 그래서 그는 그토록 꼿꼿하고 즐거우며, 그래서 끊임없는 기쁨에 차올라 있네. 일이나 사람에게 부딪혀도 움츠러들기는커녕 불의마저 쓸모 있게 여기네. 불의를 겪으며 자신을 시험하고 덕을 단련하는 것일세. 부탁하네, 자네들. 이 생각에 호의를 보여 주고, 현자를 불의에서 빼내는 동안 공정한 마음과 귀로 함께해 주게. 그렇다고 자네들의 방자함이나 몹시 탐욕스러운 욕망이나 눈먼 무모함과 오만에서 무엇 하나 덜어 내는 것은 아닐세. 자네들의 악덕은 그대로 둔 채 현자를 위해 이 자유를 구하는 것일세. 우리는 자네들이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불의를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히고 인내와 도량으로 자신을 지키게 하려는 것일세. 신성한 경기에서도 많은 선수가 때리는 상대의 손이 지치도록 끈질기게 버티어 이겼네. 현자도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단련해서 어떤 적대적인 힘이든 끝까지 견디어 지치게 만드는 힘을 얻은 사람들 말일세.

10 앞부분을 훑어보았으니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세. 거기서는 몇 가지는 고유한 논거로, 대부분은 앞과 같은 논거로 모욕을 물리치겠네. 모욕은 더 작은 불의일세. 소송을 걸기보다는 불평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도 처벌할 거리로 여기지 않은 것이지. 이 격정(affectus)을 일으키는 것은 비굴한 마음일세. 체면을 깎는 말이나 행동 하나에 움츠러드는 마음 말이네. "그 사람이 오늘 다른 사람들은 들이면서 나는 들이지 않았다." "내 말을 거만하게 외면하거나 대놓고 비웃었다." "나를 가운데 의자가 아니라 맨 끝 의자에 앉혔다." 이런 말들, 그 밖에 이런 부류의 것들을 멀미 난 마음의 투정 말고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이런 데 빠지는 것은 대개 응석받이와 운 좋은 사람들일세. 더 나쁜 일이 닥친 사람은 이런 것을 눈여겨볼 겨를이 없지. 본디 약하고 여자 같은 성품이 지나친 한가함 속에서, 참된 불의를 겪어 보지 못해 방자해지면 이런 것들에 흔들리네. 그 대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이 잘못된 데서 생기지. 그러니 모욕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에게 분별도 자신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일세. 그는 틀림없이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이 쓰라림은 스스로를 낮추고 내려앉는 비굴한 마음 없이는 생기지 않네. 그러나 현자는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네. 그는 자기의 위대함을 알고, 누구에게도 자기를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일러두며, 마음의 불행이라기보다 성가심이라 불러야 할 이 모든 것을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느끼지도 않네. 현자를 쓰러뜨리지는 못해도 때리기는 하는 것들은 따로 있네. 몸의 고통과 쇠약, 벗과 자식을 잃는 일, 전쟁으로 불타는 조국의 재앙 같은 것 말일세. 현자가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은 나도 부정하지 않네. 우리는 그에게 돌이나 쇠의 단단함을 갖다 붙이지 않네. 느끼지 못하는 것을

견디는 데에는 아무 덕도 없네. 그러면 어찌 되는가? 그는 어떤 타격은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인 타격을 이겨 내고 낮게 하고 가라앉히네. 그러나 이 더 작은 것들은 느끼지도 않고, 가혹한 일을 견딜 때 늘 쓰는 그 덕을 이것들에 맞서 꺼내 쓰지도 않네. 아예 눈여겨보지 않거나 웃어넘길 일로 여기지.

11 게다가 모욕은 대부분 오만하고 무례한 자들, 행운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지르니, 현자에게는 그 부풀어 오른 격정을 뱉어 낼 것이 있네. 모든 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덕, 도량(magnanimitas) 일세. 도량은 그런 것은 무엇이든 꿈속의 헛된 형상이나 밤의 환영처럼, 단단한 것도 참된 것도 없는 것으로 보고 지나쳐 버리네. 동시에 현자는 이렇게 생각하네. 모든 사람은 그토록 높은 것을 감히 내려다보기에는 너무 낮은 곳에 있다고. 모욕이라는 말은 업신여김(contemptus)에서 나왔네. 누구든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만 이런 불의로 낙인을 찍기 때문일세. 그런데 자기보다 크고 나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는 없네. 업신여기는 자들이 흔히 하는 짓을 하더라도 말일세.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때리고,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머리칼을 헝클고 쥐어뜯고 침을 뱉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가려야 할 곳을 드러내고, 상스러운 말도 서슴지 않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모욕이라 부르지 않네. 왜인가? 그 짓을 하는 아이는 업신여길 줄 모르기 때문일세. 우리 노예들이 주인을 모욕하는 재담을 우리가 즐기는 것도 같은 까닭일세. 노예들의 뻔뻔함은 주인에게서 시작했을 때에야 손님들에게도 그럴 권리를 얻지. 그리고 노예는 업신여김을 받을수록 혀가 더 풀린다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때문에 당돌한 노예 소년들을 사들여 그 뻔뻔함을 벼리고, 미리 궁리한 욕설을 쏟아 내도록 선생까지 붙여 가르치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욕이라 하지 않고 재치라고 부르지. 같은 것에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기분 상하며, 벗이 한 말은 욕설이라 하고 하찮은 노예가 한 말은 우스운 놀림이라 하다니, 이 얼마나 미친 짓인가!

12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현자는 모든 사람을 대하네. 젊은 시절이 지나고 머리가 희어져도 여전히 아이 같은 사람들 말일세. 마음에는 악이 들어앉고 미혹은 더 커지기만 한 그들이 나이를 먹어 무엇을 얻었는가? 아이들과 다른 것은 몸의 크기와 생김새뿐, 그 밖에는 아이들 못지않게 갈팡질팡하고 종잡을 수 없으며, 가리지 않고 쾌락을 탐하고, 겁에 질려 있고, 조용할 때도 성품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조용한 자들이 아닌가? 아이들은 공깃돌과 호두와 잔돈을 탐내고 이들은 금과 은과 값비싼 둥근 탁자를 탐낸다고 해서,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관직 놀이를 하며 자줏빛 단을 두른 토가와 권표와 재판석을 흉내 내고 이들은 투표장과 포룸과 원로원에서 똑같은 놀이를 진지하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모래를 쌓아 집 모양을 세우고 이들은 무슨 큰일이나 하듯 돌과 벽과 지붕을 쌓아 올리느라 바빠 몸을 지키려고 만든 것을 위험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서, 그들과 아이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아이들이나 나이를 더 먹은 이들이나 미혹은 같고, 다만 이들의 미혹은 다른 것, 더 큰 것을 향해 있을 뿐일세. 그러니 현자가 이들의 모욕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네. 그는 때로 아이들을 다루듯 이들을 고통과 벌로 타이르기도 하지. 자기가 불의를 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짓을 그만두게 하려고. 가축도 그렇게 매로 길들이네. 말이 사람을 태우지 않으려 한다고 우리가 화를 내지는 않지. 고통이 고집을 꺾도록 억누를 뿐일세. 그러니 우리에게 던지는 이 반론도 풀렸음을 자네는 알 걸세. "현자가 불의도 모욕도 당하지 않았다면 왜 그 짓을 한 자들을 벌하는가?" 그는 자기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는 것일세.

13 다른 이들에게서도, 같은 까닭에서는 아니지만,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자에게 이런 마음의 굳셈이 깃든다는 것을 자네가 믿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는가? 어느 의사가 정신 나간 환자에게 화를 내겠는가? 열에 들뜬 채 찬물을 못 마시게 막는다고 퍼붓는 환자의 욕설을 누가 나쁘게 받아들이겠는가? 현자는 의사가 자기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네. 의사는 치료가 필요하면 환자의 은밀한 곳을 만지는 것도, 배설물과 토한 것을 들여다보는 것도, 광란에 빠져 날뛰는 환자의 욕설을 받아 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지. 현자는 토가를 입고 자줏빛 옷을 걸치고 활보하는 이 모든 사람, 건강하고 혈색 좋은 이 사람들이 실은 성하지 않다는 것을 아네. 그는 그들을 절제를 모르는 환자로밖에 보지 않네. 그러니 그들이 병중에 치료하는 사람에게 무례한 짓을 좀 저질러도 노여워하지조차 않고, 그들이 베푸는 영예를 하찮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들의 무례한 짓도 하찮게 여기네. 거지가 자기를 떠받든다고 우쭐하지 않고, 가장 낮은 평민이 자기 인사에 답례하지 않는다고 모욕으로 여기지 않듯이, 많은 부자가 자기를 우러러본다 해도 그는 그들을 우러러보지 않을 걸세. 그들이 거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세. 거지에게는 조금이 모자라고, 부자에게는 많은 것이 모자라지. 또 메디아 왕이나 아시아의 아탈로스[7]가 그의 인사를 받고도 말없이 거만한 얼굴로 지나쳐 가도 그는 마음이 다치지 않을 걸세. 그는 그 왕의 처지라는 것이, 큰 집안에서 병든 노예와 미친 노예를 다스리는 일을 맡은 사람의 처지보다 조금도 더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아네. 카스토르 신전 앞에서 쓸모없는 노예를 사고팔며 장사하는 자들, 가게마다 가장 못된 노예들로 꽉 찬 자들 가운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 답례하지 않는다고 내가 언짢아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걸세. 밑에 못된 자들밖에 없는 사람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 현자는 이런

자가 인정을 베풀든 인정머리 없이 굴든 개의치 않듯이, 왕이 그래도 개의치 않네. "그대는 파르티아인과 메디아인과 박트리아인을 거느렸소. 하지만 두려움으로 붙들어 둔 자들이오. 하지만 그들 때문에 그대는 활시위를 늦춰 본 적이 없소. 하지만 더없이 흉악한 적들이오. 하지만 돈에 팔리는 자들이오. 하지만 새 주인을 노리는 자들이오." 그러니 현자는 누구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을 걸세. 사람들이 저마다 서로 다르다 해도, 현자는 그들이 똑같이 어리석기에 모두 같다고 여기네. 한 번이라도 불의나 모욕에 흔들리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면 그는 결코 근심 없이 지낼 수 없을 걸세. 그런데 안온함이야말로 현자만의 좋은 것일세. 또 그는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고 판단해서 모욕한 자를 높여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걸세. 누구든 어떤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아 속상해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러름을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으니 말일세.

14 어떤 이들은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여자에게서도 모욕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그들이 상대하는 여자가 얼마나 부유하든, 가마꾼을 몇이나 거느리든, 귀에 얼마나 무거운 귀걸이를 달았든, 가마가 얼마나 넓든 무슨 상관인가? 분별없는 동물이기는 마찬가지이고, 지식과 많은 교양이 보태지지 않으면 사납고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네. 어떤 이들은 머리 지지는 노예에게 떠밀렸다고 언짢아하고, 문지기가 까다롭게 구는 것, 이름 알리는 노예가 거만하게 구는 것, 침실 시종이 눈썹을 치켜드는 것을 모욕이라 부르네. 아,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얼마나 크게 웃어야 하는가! 남들의 미혹이 일으키는 소란을 바라보며 제 고요를 돌아보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큰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그러면 어떤가? 현자는 고약한 문지기가 지키는 문 앞에는 가지 않겠다는 말인가?" 아니, 그는 꼭 필요한 일이 부르면 가 볼 걸세. 그리고 그 문지기가 누구든 사나운 개를 먹이로 달래듯 달래고, 문지방을 넘으려고 얼마쯤 쓰는 것을 분하게 여기지 않을 걸세. 어떤 다리에서는 건너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일세. 그러니 아침 문안[8]의 통행료를 거두는 자가 누구든 그에게도 무언가를 쥐여 줄 걸세. 팔려고 내놓은 것은 돈으로 산다는 것을 그는 아네. 문지기에게 거침없이 대꾸했다고, 그 지팡이를 부러뜨렸다고, 주인에게 찾아가 그놈을 매질하라고 요구했다고 흐뭇해하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일세. 다투는 사람은 스스로 상대의 맞수가 되고, 이긴다 해도 그와 대등했던 셈이지. "하지만 현자가 따귀를 맞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카토가 얼굴을 맞았을 때 한 대로 하겠지. 카토는 성내지 않았고, 불의를 갚지 않았고, 용서하지조차 않았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지. 용서하는 것보다 아예 알은체하지 않는 편이 더 큰마음이었네. 여기에 오래 머물지는 않겠네.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좋다고 믿는 것 가운데 어느 것도 현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하다거나 비참하다고 판단하는지 돌아보지 않고, 대중이 가는 길로 가지 않네. 별들이 우주의 회전을 거슬러 제 길을 가듯, 그는 모든 사람의 통념을 거슬러 나아가네.

15 그러니 자네들은 이런 말을 그만두게. "그러면 현자는 매를 맞아도, 눈알이 뽑혀도 불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상스러운 자들의 더러운 고함을 들으며 포룸을 끌려다녀도 모욕을 당하지 않는가? 왕의 잔치에서 식탁 아래 자리에 눕고 천한 일을 맡은 노예들과 함께 먹으라는 명을 받아도? 자유인의 염치를 괴롭히려고 생각해 낼 만한 그 밖의 무슨 일을 억지로 견뎌야 해도?" 그런 것들이 수로나 크기로나 아무리 불어나도 그 본성은 같을 걸세. 작은 것이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면 더 큰 것도 못 건드리고, 몇 안 되는 것이 건드리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도 못 건드리네. 그런데 자네들은 자네들의 나약함을 잣대로 거대한 마음을 짐작해서, 자네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헤아려 보고는 현자의 인내에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곳에 경계를 긋지. 그러나 그의 덕은 그를

세상의 전혀 다른 경계 안에, 자네들과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 데려다 놓았네. 거칠고 견디기 힘든 것,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뒷걸음질할 것을 다 찾아보게. 그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그는 파묻히지 않고, 하나씩 올 때 맞섰던 그대로 다 같이 몰려와도 맞설 걸세. 이것은 현자가 견딜 수 있고 저것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며 도량을 일정한 경계 안에 가두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일세. 운을 통째로 이기지 못하면 운이 우리를 이기네. 이것을 스토아학파의 완고함이라고 여기지 말게. 자네들이 자네들 게으름의 변호인으로 모시고, 무르고 나태하고 쾌락으로 이끄는 것을 가르친다고 여기는 에피쿠로스[9]도 이렇게 말하네. "현자에게 운이 끼어드는 일은 드물다." 사내다운 말을 거의 내뱉을 뻔하지 않았는가! 자네는 더 힘차게 말해서 운을 아예 몰아내 보겠는가? 현자의 이 집은 좁고, 꾸밈도 소란도 차림새도 없으며, 돈에 팔리는 까다로움으로 손님 무리를 가려 들이는 문지기도 지키지 않네. 그러나 이 텅 비고 문지기 없는 문지방을 운은 넘지 못하네. 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는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운은 알지.

16 몸에 누구보다 너그러웠던 에피쿠로스마저 불의에 맞서 일어선다면, 우리 쪽에서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이 믿기지 않거나 인간 본성의 한도를 넘어선다고 보일 수 있겠는가? 그는 현자가 불의를 견딜 수 있다고 하고, 우리는 현자에게 불의란 없다고 하네. 이것이 본성에 어긋난다고 말할 것도 없네. 매 맞고 떠밀리고 팔다리 하나를 잃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도 부정하지 않네. 다만 그 모든 것이 불의라는 것을 부정할 뿐이지. 우리는 그것들에서 고통의 감각을 빼는 것이 아니라 불의라는 이름을 빼는 것일세. 덕이 온전한 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 말일세. 누구 말이 더 참된지는 두고 보세. 불의를 업신여기자는 데에는 양쪽이 다 동의하네. 둘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가? 가장 용감한 두 검투사의 차이와 같네. 한 사람은 상처를 손으로

누르고 제자리를 지키며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소리치는 관중을 돌아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몸짓을 하고 싸움을 말리게 두지 않지. 우리가 갈라지는 지점이 크다고 생각할 것은 없네. 지금 다루는 문제, 자네들과 상관있는 단 하나의 문제에서는 두 본보기가 똑같이 권하네. 불의를 업신여기라고, 그리고 내가 불의의 그림자요 낌새라고 부를 만한 모욕을 업신여기라고. 모욕을 깔보는 데에는 현자까지 필요 없고, 그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되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일세. "이런 일이 내게 닥친 것은 마땅한가, 부당한가? 마땅하다면 모욕이 아니라 판결이다. 부당하다면 부당한 짓을 한 자가 얼굴을 붉힐 일이다." 그리고 모욕이라 불리는 그것은 대체 무엇인가? 누가 내 대머리를, 내 눈병을, 내 가는 다리를, 내 키를 두고 농담을 했다고 하세. 눈에 빤히 보이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이 무슨 모욕인가? 한 사람 앞에서 들으면 웃어넘길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들으면 분개하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하는 말을 남들이 우리에게 할 자유는 남겨 두지 않네. 적당한 농담은 즐기고, 지나친 농담에는 화를 내지.

17 크리시포스[10]의 말로는, 누가 자기를 바다 숫양이라고 불렀다고 분개한 사람이 있었다네. 우리는 오비디우스 나소의 사위 코르넬리우스 피두스가 원로원에서 우는 것을 보았네. 코르불로가 그를 털 뽑힌 타조라고 불렀을 때였지[11]. 그는 자기 품행과 삶을 난도질하는 다른 욕설에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버티었는데, 이 터무니없는 말에는 눈물을 쏟았네. 이성이 떠나면 마음은 이토록 약해지네. 누가 우리 말투를, 걸음걸이를, 몸이나 혀의 어떤 결함을 흉내 내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또 어떤가? 마치 우리가 할 때보다 남이 흉내 낼 때 그것이 더 잘 알려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늙음이나 흰머리, 그 밖에 빌고 빌어서야 이르는 것들 이야기를 들으면 싫어하네. 가난하다는 욕이 몹시 쓰라렸던 사람들도 있지. 그러나 가난을 감추는 사람은 누구든 스스로

가난을 들추어 탓하는 셈일세. 그러니 자네가 먼저 나서서 그것을 꺼내 버리면, 방자한 자들과 모욕으로 재치를 부리는 자들은 거리를 빼앗기네. 자기를 두고 먼저 웃은 사람은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네. 웃음거리로도 미움거리로도 타고난 바티니우스는 익살꾼이었고, 재치 있고 입담 좋은 사람이었다고 전하네. 그는 자기 발과 상처투성이 목을 두고 스스로 숱한 농담을 했네. 그렇게 해서 그는 앓던 병보다도 많았던 원수들의 재담을, 무엇보다 키케로의 재담을 피해 갔지. 끊임없는 욕설에 시달리다 부끄러워할 줄을 잊어버린 그 사람도 뻔뻔한 낯가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자유인의 학문과 지혜를 닦아 얼마쯤 나아간 사람이 왜 못 하겠는가? 게다가 모욕한 자에게서 모욕하는 쾌락을 빼앗는 것도 일종의 복수일세. 그런 자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아, 내 신세야! 저 사람이 못 알아들은 모양이다." 모욕의 열매는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분개하는 데 달려 있네. 또 그런 자에게도 언젠가는 맞수가 나타날 걸세. 자네 원수까지 갚아 줄 사람이 나타날 걸세.

18 칼리굴라[12]는 넘쳐 나던 다른 악덕에 더해 남을 모욕하기를 즐겨서, 누구에게든 무슨 낙인을 찍어 대고 싶은 이상한 욕망에 휘둘렸는데, 그 자신이야말로 더없이 푸짐한 웃음거리였네. 광기를 드러내는 창백한 얼굴은 그토록 흉했고, 노파 같은 이마 밑에 숨은 눈은 그토록 사나웠으며, 얻어 붙인 듯 몇 올 남은 머리카락이 흩어진 벗어진 머리는 그토록 볼썽사나웠지[13]. 거기에 거친 털로 뒤덮인 목, 가느다란 다리, 엄청나게 큰 발을 보태 보게. 그가 부모와 조상들을 모욕한 일, 모든 신분을 모욕한 일을 하나하나 늘어놓자면 끝이 없을 걸세. 그를 파멸로 몰아넣은 일만 이야기하겠네. 그는 발레리우스 아시아티쿠스[14]를 으뜸가는 벗으로 여겼는데, 아시아티쿠스는 기개가 사나워 남의 모욕을 좀처럼 참아 넘기지 못할 사람이었네. 그런데 칼리굴라는 잔치

자리에서, 아니 민회나 다름없는 자리에서, 그의 아내가 잠자리에서 어떻더라는 이야기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에게 들이댔네. 신들이시여! 남편이 이런 말을 듣고, 군주가 이런 것을 알고, 방종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 군주라는 자가 집정관을 지낸 사람에게, 벗에게라고는 하지 않겠네, 그저 한 남편에게 자기의 간통과 그 여자가 마음에 차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늘어놓다니! 한편 천부장 카이레아[15]는 말이 그 솜씨에 걸맞지 않았네.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그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상쩍게 들렸지. 그가 암호를 청하면 칼리굴라는 어떤 때는 베누스를, 어떤 때는 프리아포스를 암호로 내주며, 무장한 사내에게 이렇게 저렇게 사내답지 못하다고 조롱했네. 그런 짓을 하는 그 자신은 속이 비치는 옷에 샌들을 신고 금붙이를 두르고 있었으면서 말일세. 그렇게 칼리굴라는 카이레아가 더는 암호를 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칼을 쓰게 몰아붙였네. 공모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을 든 것도 그였고, 단칼에 목 한가운데를 벤 것도 그였네. 그 뒤로 나라의 원한과 저마다의 원한을 갚으려는 칼이 사방에서 숱하게 꽂혔지만, 가장 사내답지 않아 보이던 그가 첫째가는 사내였네. 그런데 바로 그 칼리굴라는 모든 것을 모욕으로 여겼네. 모욕을 하는 데 가장 열심인 자들이 모욕을 견디는 데는 가장 서툰 법이지. 그는 헤렌니우스 마케르가 자기에게 인사하며 가이우스라고 불렀다고 화를 냈고, 어느 수석 백인대장은 그를 칼리굴라라고 불렀다가 무사하지 못했네[16]. 군영에서 태어나 군단의 손에 자란 그는 그렇게 불리곤 했고, 병사들에게는 어떤 이름보다도 그 이름으로 친숙했네. 그러나 비극 배우의 높은 장화를 신게 된 그는 이제 칼리굴라라는 이름을 욕설이요 치욕으로 여겼지. 그러니 우리가 너그러워 복수를 거른다 해도, 방자하고 오만하고 불의한 자에게 대가를 받아 낼 누군가가 나타나리라는 것, 바로 그것이 위안이 될 걸세. 이런 악덕은 한

사람에게서, 한 번의 모욕으로 다 쓰이고 끝나는 일이 결코 없네. 우리가 그 참을성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를 돌아보세. 이를테면 소크라테스는 희극들이 자기를 두고 퍼뜨리고 구경거리로 삼은 재담[17]을 좋게 받아들였고, 아내 크산티페가 더러운 물을 뒤집어씌웠을 때 못지않게 웃었네. 안티스테네스[18]는 어머니가 야만인이요 트라키아 여자라는 조롱을 받자, 신들의 어머니도 이다산의 여신이라고 대답했네.

19 말다툼과 몸싸움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네. 멀찍이 발을 빼야 하네. 이런 일이 분별없는 자들에게서 생기면(분별없는 자들에게서밖에 생길 수 없지만) 무시해야 하고, 대중이 주는 영예와 불의를 똑같은 것으로 여겨야 하네. 불의에 괴로워해서도, 영예에 기뻐해서도 안 되네. 그러지 않으면 모욕이 두렵거나 지겨워서 꼭 해야 할 일을 많이 빠뜨리고, 공적·사적 의무에, 때로는 우리를 살릴 의무에도 나서지 않게 될 걸세.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들을까 하는 여자 같은 걱정에 시달리는 동안 말일세. 때로는 권세가들에게 화가 나서 절제 없이 거침없는 말로 이 격정을 드러내기도 할 걸세. 그러나 아무것도 당하지 않는 것이 자유는 아닐세.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지. 자유란 마음을 불의보다 높이 두는 것, 기뻐할 것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솟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 바깥 것들을 자기에게서 떼어 놓는 것일세. 그래야 모든 사람의 웃음과 모든 사람의 혀를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살지 않게 되네. 누구라도 모욕할 수 있다면, 모욕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현자와 지혜를 좇는 사람은 서로 다른 약을 쓸 걸세. 아직 완성되지 않아 여전히 세상의 판단에 맞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일러 주어야 하네. 그들은 불의와 모욕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가볍게 닥치네. 집안과 명성과 재산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용감하게 처신해야 하네. 맨 앞 대열에는 키 큰 병사들이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욕과 욕설과 치욕과 그 밖의 망신거리는 적의 함성처럼, 멀리서

날아와 상처 하나 내지 못하고 투구에 부딪혀 딸그락거리는 창과 돌처럼 견뎌야 하네. 그러나 불의는 상처처럼, 어떤 것은 방패에 박히고 어떤 것은 가슴에 박힌 상처처럼, 쓰러지지 않고 발 한 걸음 물러서지 않은 채 버텨야 하네. 적이 밀어붙이고 사나운 힘으로 몰아쳐도 물러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세. 자연이 정해 준 자리를 지키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 묻는가? 사내의 자리일세. 현자에게는 이와 반대되는 다른 도움이 있네. 자네들은 아직 싸우는 중이지만, 그는 이미 승리를 거두었네. 자네들 자신의 좋은 것을 거스르지 말게. 참된 것에 이를 때까지 이 희망을 마음속에 품어 기르고, 더 나은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음과 바람으로 그것을 북돋아 주게. 꺾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운이 어찌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인류라는 나라에 이롭네.

---

1. 소(小)카토(기원전 95~기원전 46). 공화정을 지키려 카이사르에 맞서다 북아프리카 우티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원전 55년 무렵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일파의 법안에 맞서다 포룸에서 폭도에게 봉변을 당했다. 연단(로스트라)과 파비우스 개선문은 포룸의 서로 다른 끝에 있었으니, 포룸을 가로질러 끌려갔다는 말이다.

2. 푸블리우스 바티니우스. 카이사르파의 정치가로, 기원전 55년 법무관 선거에서 카토를 이겼다. 생김새가 흉하고 병이 많아 키케로의 조롱을 받았다.

3. 푸블리우스 클로디우스 풀케르. 기원전 58년 호민관을 지냈고, 폭력배를 거느리고 로마 정계를 휘저었다. 기원전 52년 정적 밀로의 무리에게 살해되었다.

4.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그리스 원정 때 페르시아군의 화살이 해를 가릴 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와, 다리를 부순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족쇄를 던져 넣게 했다는 이야기가 헤로도토스 『역사』 7.35와 7.226에 전한다.

5. 마케도니아의 왕 데메트리오스 1세(기원전 337~기원전 283). 폴리오르케테스는 「 도시 공략자 」 라는 뜻이다. 기원전 307년 메가라를 함락했다. 스틸폰은 메가라학파의 철학자다.

6. 카르타고(기원전 146년)와 누만티아(기원전 133년)는 둘 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함락했다.

7. 메디아 왕은 동방의 대왕, 여기서는 파르티아 왕을 일컫는다. 아탈로스는 소아시아 페르가몬의 왕들이 대대로 쓴 이름이다.

8. 아침 문안(salutatio). 피호민과 아랫사람들이 아침마다 권세가의 집에 찾아가 문안하던 로마의 관습. 문지기에게 돈을 쥐여 주어야 문을 들어설 수 있었다.

9. 에피쿠로스(기원전 341~기원전 270). 쾌락을 최고선으로 본 학파를 세웠다. 인용은 『주요 교설』 16.

10. 크리시포스(기원전 280 무렵~기원전 207 무렵). 스토아학파의 세 번째 수장으로, 학파의 이론을 집대성했다.

11. 코르넬리우스 피두스는 시인 오비디우스의 사위로 원로원 의원이었다. 코르불로는 뒷날 네로 시대에 파르티아 원정을 이끈 장군 그나이우스 도미티우스 코르불로다.

12. 황제 칼리굴라(재위 37~41). 원문은 「가이우스 카이사르」. 세네카는 그를 늘 본명 가이우스로 부르는데, 이 번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별명 칼리굴라로 적는다.

13. 원문 손상. 「얻어 붙인 듯 몇 올 남은 머리카락」의 뜻으로 읽었다.

14. 갈리아 출신의 원로원 의원으로 집정관을 지냈다. 칼리굴라가 살해되자 그 일을 자기가 했더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15. 카시우스 카이레아. 근위대의 천부장으로, 41년 1월 칼리굴라를 살해한 음모를 이끌었다. 근위대 천부장은 날마다 황제에게서 그날의 암호를 받았다.

16. 여기서만 원문의 이름을 그대로 살렸다. 가이우스는 황제의 개인 이름이라 신하가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허물없는 호칭이었다. 칼리굴라는 「작은 군화」라는 뜻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 게르마니쿠스의 군영에서 병사용 군화(caliga)를 신고 자라 얻은 별명이다. 뒤의 「비극 배우의 높은 장화」는 이 군화와 맞세워 제왕 행세를 비꼰 말이다. 수석 백인대장은 군단의 백인대장 가운데 으뜸이다.

17.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기원전 423년)이 소크라테스를 웃음거리로 삼았다.

18. 안티스테네스(기원전 445 무렵~기원전 365 무렵).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견유학파의 선구자다. 이다산의 어머니 여신은 프리기아에서 섬기던 키벨레로, 그리스인에게는 이방의 여신이었다.

분노에 관하여 제1권

1 노바투스[1] 형님, 형님께서는 분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글로써 달라고 제게 청하셨습니다. 형님께서 여러 격정(affectus) 가운데서도 유독 이 격정을 두려워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격정 가운데 가장 흉하고 사납기 때문입니다. 다른 격정에는 그래도 어딘가 고요하고 잔잔한 구석이 있지만, 이것은 온통 들끓으며 내닫기만 합니다. 고통과 무기, 피와 처형을 바라는, 조금도 사람답지 않은 욕망으로 미쳐 날뛰고, 남을 해칠 수만 있다면 제 몸은 돌보지 않으며, 겨눈 칼끝으로 곧장 뛰어들고, 복수하는 사람마저 함께 끌고 쓰러질 복수를 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자들은 분노를 짧은 광기(insania)라고 불렀습니다. 분노도 광기처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체면을 잊고, 맺어진 정을 돌아보지 않으며, 한번 시작한 일에는 고집스레 매달리고, 이성(ratio)과 조언에는 귀를 닫고, 하찮은 까닭에도 들끓으며, 무엇이 공정하고 참된지 가려볼 줄 모르니, 깔아뭉갠 것 위에서 함께 부서져 내리는 무너진 건물과 꼭 닮았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려면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친 사람에게는 틀림없는 표가 있습니다. 대담하고 위협하는 얼굴, 찌푸린 이마, 험상궂은 낯빛, 다급한 걸음, 가만있지 못하는 손, 달라진 안색, 잦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이 그렇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표가 나타납니다. 눈은 이글거리며 번득이고, 가슴 깊은 데서 피가 끓어올라

온 얼굴이 시뻘겋고, 입술은 떨리고, 이는 악물리고, 머리털은 곤두서고, 숨은 짓눌린 듯 쇳소리를 내고, 제풀에 비틀리는 마디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고,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말이 툭툭 끊기고, 손뼉을 연거푸 치고, 발로 땅을 구르고, 온몸이 들썩이며 분노의 거센 위협을 쏟아 냅니다. 스스로를 일그러뜨리며 부풀어 오른 그 얼굴은 보기에 흉하고 끔찍해서, 이 악덕이 더 가증스러운지 더 추한지 모를 지경입니다.

다른 악덕은 숨겨 두고 남몰래 키울 수 있습니다. 분노는 제 모습을 드러내며 얼굴로 터져 나오고, 클수록 더 뚜렷하게 끓어오릅니다. 어떤 짐승이든 해치려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징조가 먼저 나타나고, 온몸이 평소의 차분한 모습을 벗어던지며 제 사나움을 한층 돋우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멧돼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엄니를 비벼 갈며, 황소는 허공에 뿔을 휘두르고 발굽으로 모래를 차 올리며, 사자는 으르렁거리고, 성난 뱀은 목을 부풀리며, 미친개는 눈빛이 음산해집니다. 본래 아무리 무섭고 해로운 짐승이라도, 분노가 덮치는 순간 새로운 사나움이 더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짐승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격정들도 감추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정욕도 두려움도 대담함도 제 표를 드러내니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어떤 격렬한 흔들림이든 마음에 들어오면서 얼굴에 아무 움직임도 일으키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격정은 드러나지만, 분노는 불거져 나옵니다.

2 이제 분노가 낳은 결과와 해악을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인류에게 이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재앙은 없습니다. 살육과 독살, 서로를 고발하며 나란히 상복 차림이 된 피고들, 도시의 몰락과 온 민족의 멸망, 나라의 경매 창[2] 아래 매물로 나온 지도자들의 목숨, 지붕 밑에 들이댄 횃불, 성벽 안에 갇히지 않고 적의 불길로 드넓은 땅을 환히 밝히는 불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름 높던 도시들의 주춧돌이 이제는 알아보기도 어렵게 된 것을 보십시오. 그 도시들을 허문 것이 분노입니다. 수백 리에 걸쳐 사람 하나 없이 버려진 황무지를 보십시오. 그 땅을 비운 것이 분노입니다. 불행한 운명의 본보기로 기억에 전해지는 그 많은 지도자를 보십시오. 분노는 누구는 제 침상에서 찔러 죽였고, 누구는 식탁의 신성한 법도 안에서 쳐 죽였고, 누구는 법의 보호 아래 사람들로 붐비는 포룸 한복판에서 갈가리 찢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들의 손에 피를 흘리게 했고, 누구에게는 노예의 손에 왕의 목을 베이게 했고, 누구에게는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벌만 늘어놓았습니다. 분노가 하나하나 겨누어 타오른 사람들은 제쳐 두고, 칼에 베여 쓰러진 민회와, 군대를 풀어 도륙한 평민과, 뒤섞인 파멸 속에 통째로 사형을 선고받은 온 민족을 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겠습니까 〈…〉

〔단편: 브라가의 마르티누스, 『분노에 관하여』 2〕[3]

분노는 가장 좋고 가장 올바른 것을 모조리 그 반대로 바꿔 놓습니다. 분노는 누구를 사로잡든 그가 어떤 의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에게 분노를 주면 원수가 되고, 아들에게 주면 부모를 죽이는 자가 되고, 어머니에게 주면 계모가 되고, 시민에게 주면 적이 되고, 왕에게 주면 참주가 됩니다.

〔단편: 락탄티우스, 『신의 분노에 관하여』 17.13〕

분노란 불의(iniuria)를 앙갚음하려는 욕망입니다. 포세이도니오스[4]의 말로는, 자기를 부당하게 해쳤다고 여기는 사람을 벌하려는 욕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분노란 자기를 해쳤거나 해치려 한 사람을 해치려고 마음이 들끓는 것이다."

〈…〉 마치 그들이 우리의 보살핌을 저버리거나 우리의 권위를 업신여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군중은 왜

검투사들에게 화를 내며, 그것도 검투사들이 기꺼이 죽어 주지 않는 것을 불의로 여길 만큼 터무니없이 화를 냅니까? 군중은 자기가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얼굴과 몸짓과 열기로 구경꾼에서 적수로 돌변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이든 분노가 아니라 분노 비슷한 것이어서, 넘어지면 땅을 때려 주기를 바라고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화를 낼 때가 많은 아이들의 분노와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까닭도 없고 불의를 당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불의를 당했다는 인상(species)과 벌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쯤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때리는 시늉에 속아 넘어가고, 용서를 비는 척 흘리는 눈물에 달래지며, 거짓 복수로 거짓 고통이 사라집니다.

3 "우리는 이미 해친 사람보다 앞으로 해칠 사람에게 화를 낼 때가 많다. 그러니 분노가 불의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를 해치고 있고, 불의를 저지르려는 사람은 이미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도, 바랄 수도 없는 벌을 탐하지는 않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 분노가 벌하려는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분노가 벌을 내리려는 욕망이라고 했지 벌을 내릴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도 욕망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에게라도 벌이 내리기를 바라지 못할 만큼 비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해치는 일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힘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도 우리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가 고통을 되갚으려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의와 이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낱낱이 따지자면 길어집니다. 두 정의를 반박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짐승도 화를 내지만, 불의를 당해 성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벌을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것도 아니며, 그런 결과를 낳기는 해도 그것을 노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들짐승에게는, 아니 사람 말고는 무엇에게도 분노가 없습니다. 분노는 이성의 적이지만, 이성이 깃들 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짐승에게는 충동(impetus)이 있고, 광포함과 사나움과 덤벼드는 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치가 없듯 분노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쾌락에는 사람보다 더 절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노래한 시인을 믿으실 까닭은 없습니다.

"멧돼지는 성낼 줄을 잊고, 암사슴은 날랜 걸음을 믿을 줄을,
곰은 힘센 소 떼에 덤벼들 줄을 잊었다."[5]

시인이 성낸다고 한 것은 들썩여 덤벼든다는 뜻입니다. 짐승들은 용서할 줄 모르듯 화낼 줄도 모릅니다. 말 못 하는 짐승에게는 사람의 격정이 없고, 다만 그와 비슷한 어떤 충동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짐승에게 사랑과 미움이 있다면 우정과 반목, 불화와 화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의 흔적이 짐승에게도 얼마쯤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선과 악은 사람의 가슴에만 깃듭니다. 분별, 앞을 내다보는 힘, 부지런함, 생각은 사람 말고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고, 짐승은 사람의 덕(virtus)뿐 아니라 사람의 악덕과도 거리가 멉니다. 짐승은 겉모습만큼이나 속 생김새도 통째로 사람과 다르며, 왕 노릇을 하는 그 으뜸 부분, 곧 지도 이성(principale)부터 달리 빚어졌습니다. 짐승에게도 목소리가 있지만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없고 어지러우며 말을 이루지 못하고, 혀가 있지만 묶여 있어 이리저리 놀리지 못하듯이, 지도 이성도 섬세하지 못하고 정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승도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사물의 모습과 인상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인상이 흐리고 뒤죽박죽입니다. 그 때문에 짐승은 사납게 내달리고 거칠게

날뛰지만, 두려움과 근심, 슬픔과 분노는 없고 그와 비슷한 무엇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금세 가라앉고 정반대로 바뀝니다. 짐승은 더없이 사납게 날뛰고 겁에 질렸다가도 곧 풀을 뜯고, 으르렁대며 미친 듯 내닫던 끝에 곧바로 고요와 잠이 찾아옵니다.

4 분노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풀어 말했습니다. 분노가 성마름(iracundia)과 어떻게 다른지도 분명합니다. 취한 사람이 술꾼과 다르고, 겁먹은 사람이 겁쟁이와 다른 것과 같습니다. 화난 사람이 성마른 사람이 아닐 수 있고, 성마른 사람이 때로는 화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분노를 여러 이름으로 갈래지어 나누지만, 그 밖의 갈래는 우리 말에 제 낱말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을 두고 가시 돋쳤다, 모질다 하고, 그에 못지않게 발끈한다, 사납다, 고함친다, 까다롭다, 거칠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분노의 여러 차이입니다. 여기에 까탈스럽다는 말을 넣어도 좋습니다. 성마름 가운데 유난히 까다로운 한 갈래입니다. 어떤 분노는 고함 안에서 가라앉고, 어떤 분노는 잦은 만큼 끈질기며, 어떤 분노는 손은 사나워도 말은 아끼고, 어떤 분노는 쓰라린 말과 욕설로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분노는 불평하고 외면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않고, 어떤 분노는 깊고 무거워 안으로 파고듭니다. 여러 얼굴을 한 이 악에는 그 밖에도 천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5 분노가 무엇인지, 사람 말고 다른 짐승에게도 일어나는지, 성마름과 어떻게 다른지, 그 갈래가 몇이나 되는지는 따져 보았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본성에 맞는지, 쓸모가 있는지, 그래서 어느 만큼은 붙들어 둘 만한지를 따져 봅시다.

분노가 본성에 맞는지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바른 상태에 있는 동안 사람보다 온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분노보다 잔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남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보다 남에게 사나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서로 돕도록 태어났고, 분노는 서로 망하게 하려고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모이려 하고 분노는 갈라서려 하며, 사람은 이롭게 하려 하고 분노는 해치려 하며, 사람은 모르는 이까지 도우려 하고 분노는 가장 아끼는 이까지 덮칩니다. 사람은 남에게 이로운 일이라면 제 몸까지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고, 분노는 남을 끌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제 몸도 위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 자연이 빚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흠 없는 작품에 이 사납고 해로운 악덕을 덧씌우는 사람보다 자연을 더 모르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분노는 벌을 탐합니다. 그런 욕망이 사람의 더없이 평온한 가슴에 깃든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조금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은 은혜와 화합으로 이루어지며,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묶여 동맹을 맺고 서로 돕습니다.

6 "그러면 어떤가? 때로는 꾸짖어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노 없이, 이성으로 해야 합니다. 꾸짖음은 해치는 듯 보여도 해치지 않고 고칩니다. 휘어진 창 자루를 바로잡으려고 불에 쬐고, 부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펴려고 쐐기를 박아 조이듯이, 우리도 악덕으로 비뚤어진 성품을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바로잡습니다. 의사를 보십시오. 의사는 가벼운 병에는 먼저 일상의 습관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데 질서를 세워, 생활의 짜임새를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굳히려 합니다. 그다음은 양을 조절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양을 조절하고 질서를 세워도 효과가 없으면 무언가를 덜어 내고 잘라 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음식을 끊게 하고 굶겨서 몸의 짐을 덜어 줍니다. 부드러운 처방이 헛되이 끝나면 핏줄을 째고, 팔다리가 몸에 붙은 채 해를 끼치며 병을 퍼뜨리면 거기에 칼을 댑니다. 결과가 몸을 살린다면 어떤 치료도 가혹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동안에는 말로, 그것도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의 성품을 고쳐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설득하고, 훌륭하고 공정한 것을 바라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며, 악덕은 미워하고 덕은 귀히 여기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더 엄한 말로 넘어가 여전히 타이르면서 나무라야 합니다. 마지막에야 형벌로 내려가되, 그것도 아직은 가볍고 되돌릴 수 있는 형벌이어야 합니다. 가장 무거운 형벌은 가장 무거운 죄에만 내려서, 죽는 것이 죽는 사람 자신에게도 이로운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점에서 그는 의사와 다를 것입니다. 의사는 목숨을 베풀어 줄 수 없는 환자에게는 편안한 죽음을 마련해 주지만,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치욕 속에 사람들 앞에 내세워 그 목숨을 거둡니다. 누구든 벌받는 것을 즐겨서가 아닙니다. 그토록 사람답지 않은 사나움은 현자와 거리가 멉니다. 그들을 모두에게 본보기로 삼고, 살아서는 쓸모 있기를 마다했으니 죽어서라도 나라에 쓸모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은 벌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도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분노는 벌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논증도 하나 끌어오겠습니다. 다른 학파의 말이라도 우리와 같은 대목이라면 빌려 쓴들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플라톤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6] 벌은 해칩니다. 그러니 벌은 선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분노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벌이야말로 분노에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벌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벌을 쾌락으로 삼는 격정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7 분노가 본성에 맞지 않는다 해도, 자주 쓸모가 있었으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노는 마음을 북돋우고 부추깁니다. 분노가 밑에서

불을 지피고 그 박차가 몰아대어 대담한 사람들을 위험 속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용기도 전쟁에서 장한 일을 하나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분노를 없애지 말고 누그러뜨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넘쳐흐르는 것은 덜어 내어 이로운 한도 안에 묶어 두되, 그것이 없으면 행동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의 힘과 기운이 풀려 버릴 부분만은 붙들어 두자는 것입니다. 첫째, 해로운 것은 다스리기보다 막아 내기가 쉽고, 들인 뒤에 절제시키기보다 아예 들이지 않기가 쉽습니다. 해로운 것이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으면 다스리는 자보다 힘이 세져서, 잘리거나 줄어들기를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삐를 넘겨받은 이성 자체도 격정과 떨어져 있는 동안에만 힘이 있습니다. 이성이 격정과 뒤섞여 더럽혀지면, 쫓아낼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한번 흔들려 제자리에서 내던져진 정신은 저를 떠미는 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은 시작만 우리 손에 있고, 그다음은 제 힘으로 우리를 휩쓸어 가 되돌아갈 길을 남겨 두지 않습니다. 낭떠러지로 내던져진 몸은 제 뜻대로 할 수 없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버티지도 멈추지도 못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추락이 모든 생각과 뉘우침을 끊어 버려서, 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곳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분노와 사랑과 그 밖의 격정에 몸을 던지고 나면 그 기세를 억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제 무게와, 아래로 기울기 마련인 악덕의 본성이 마음을 휩쓸어 밑바닥까지 몰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8 가장 좋은 것은 분노를 처음 부추기는 것을 곧바로 물리치고, 그 씨앗부터 맞서 싸우며,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분노가 한번 우리를 엇길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 격정이 일단 들어오고 우리가 제 뜻으로 그에게 무슨 권리라도 내준 뒤에는 이성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므로, 성한 데로 되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뒤로 격정은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적은 국경에서부터 막아야 합니다. 적이 일단 들어와 성문 안으로 밀고 들어서면 포로가 정해 주는 한도 따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따로 떨어져 바깥에서 격정을 지켜보며 마땅한 정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격정으로 바뀌므로, 이미 넘겨주어 약해진 그 쓸모 있고 이로운 힘을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둘은 서로 떨어진 처소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격정과 이성은 마음이 더 낫게 또는 더 나쁘게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분노에 자리를 내주고 악덕에 사로잡혀 짓눌린 이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더 나쁜 것이 섞여 우세해진 그 뒤죽박죽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분노하면서도 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노가 시키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을 만큼 자제합니까, 아니면 무언가는 합니까?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성보다 더 굳센 무언가라도 지닌 것처럼 여겨 불러들이던 분노가 일을 해내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끝으로 묻겠습니다. 분노는 이성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더 강하다면 이성이 어떻게 분노에 한도를 정해 주겠습니까? 따르는 것은 대개 더 약한 쪽뿐인데 말입니다. 더 약하다면 이성은 분노 없이 혼자서도 일을 해내기에 넉넉하고, 더 약한 것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 말입니까? 분노가 이미 스러져 저절로 물러갈 때이지, 한창 끓어오를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분노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가? 분노하는 중에도 미워하는 사람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무사히 놓아주며 해치기를 삼가는 때가 있지 않은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격정이 격정을 되받아치고, 두려움이나 욕망이 무언가를 얻어 냈을 때입니다. 그때

분노가 가라앉은 것은 이성의 은혜가 아니라 격정들끼리 맺은 믿을 수 없는 나쁜 평화 덕분입니다.

9 다음으로, 분노에는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분노가 싸움에 나설 마음을 벼려 주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넉넉한 덕은 결코 악덕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덕은 기세가 필요할 때마다 화를 내지 않고 떨쳐 일어서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달아올랐다가 늦춥니다. 투석기로 쏘는 무기도 얼마나 세게 감아 날릴지가 쏘는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분노는 필요하다. 분노가 마음을 채우고 기세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쳐부술 수 없다. 다만 분노를 장수로 쓰지 말고 병사로 써야 한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분노가 이성의 말을 듣고 이끄는 대로 따른다면 그것은 이미 분노가 아닙니다. 고집스레 거스르는 것이 분노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분노가 맞서 버티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지 않고 제멋대로 사납게 내달린다면, 퇴각 신호를 무시하는 병사만큼이나 마음에 쓸모없는 부하입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한도를 받아들인다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하고, 더는 분노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분노는 고삐 풀리고 길들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로우니 도움으로 꼽을 수 없습니다. 결국 분노가 아니든지, 쓸모가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벌 자체를 탐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하기에 벌을 내리는 사람은 화난 사람으로 꼽아서는 안 됩니다. 계획에 따를 줄 아는 병사라야 쓸모 있는 병사입니다. 격정은 장수로서나 부하로서나 똑같이 나쁩니다.

10 그러므로 이성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거친 충동을 결코 도우미로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은 그런 충동 앞에서 아무런 권위도 없고, 그와 맞먹고 닮은 충동을 맞세우지 않고는 결코 누를 수 없습니다. 분노는 두려움으로, 게으름은 분노로, 겁은 욕망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이 언젠가 악덕에게로 피신하다니, 그런 불행은 덕과 멀리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악에 기대어야만 안전한 마음, 화내지 않고는 용감할 수 없고, 탐하지 않고는 부지런할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는 고요할 수 없는 마음은 믿을 만한 쉼을 얻지 못하고 흔들리며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느 격정의 종살이로 들어가 참주 밑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 덕을 악덕의 피호민 신세로 끌어내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이성이 격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성은 아무 힘도 없게 되고, 격정과 대등하고 닮은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성 없는 격정이 무분별한 것이나 격정 없는 이성이 무력한 것이나 매한가지라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 있을 수 없다면 둘은 대등합니다. 그런데 격정을 이성과 같은 자리에 놓는 것을 누가 참겠습니까? "격정은 알맞은 정도라면 쓸모가 있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아니, 본래 쓸모 있는 것이라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격정이 명령과 이성을 참지 못한다면, 절도를 지켜 얻는 것은 기껏해야 작을수록 해를 덜 끼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알맞은 격정이란 알맞은 악일 뿐입니다.

11 "그러나 적과 맞설 때는 분노가 필요하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때만큼 필요 없을 때도 없습니다. 그때는 충동이 마구 쏟아져서는 안 되고, 절제되고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우리보다 훨씬 억세고 고생도 훨씬 잘 견디는 야만족을 꺾어 놓는 것이 제 몸에 가장 해로운 분노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검투사도 기술이 지켜 주고, 분노가 무방비로 내놓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이 같은 일을 해낸다면 분노가 무슨 소용입니까? 사냥꾼이 짐승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사냥꾼은 덤벼드는 짐승을 받아 내고 달아나는 짐승을 뒤쫓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성이 분노 없이 해냅니다. 알프스를 넘어 쏟아져 들어온 킴브리족과 테우토니족[7]의 그 숱한 무리를 쓸어 없애, 그 큰 참패의

소식을 제 겨레에게 전한 것이 전령이 아니라 소문뿐이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용기 대신 분노가 있었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노는 이따금 앞을 막는 것을 밀어붙여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자주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게르만족보다 기개 높은 이가 누구입니까? 돌격할 때 그들보다 매서운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보다 무기를 좋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무기 속에서 태어나 무기 속에서 자라며, 다른 일은 다 팽개치고 오직 무기만 돌봅니다. 어떤 고난이든 그들보다 단단히 견디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대부분 몸을 가릴 옷도 마련하지 않았고, 끝없이 이어지는 혹독한 추위를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히스파니아인과 갈리아인, 전쟁에는 무른 아시아와 시리아 사람들이 군단이 눈에 띄기도 전에 그들을 베어 넘기니, 그들이 쉽게 당하는 까닭은 오직 성마름 하나입니다. 자, 쾌락도 사치도 재물도 모르는 그 몸과 그 마음에 이성을 주고 규율을 주어 보십시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틀림없이 옛 로마의 기풍을 되찾아야 할 처지가 될 것입니다. 파비우스[8]는 흔들리던 제국의 힘을 무엇으로 되살렸습니까? 머뭇거리고, 끌고, 늦출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화난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벼랑 끝에 서 있던 제국은, 파비우스가 분노가 부추기는 만큼 감행했더라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운을 깊이 헤아리고, 이제는 무엇 하나를 잃으면 전부를 잃을 판인 남은 힘을 따져 본 뒤, 울분도 복수도 제쳐 두고 오직 이로움과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는 한니발보다 분노를 먼저 이겼습니다. 스키피오[9]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니발과 카르타고 군대, 마땅히 분노해야 할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악의를 품은 자들에게 사치스럽고 게으르다는 말을 들을 만큼 느긋하게 전쟁을 아프리카로 옮겨 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스키피오[10]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누만티아 둘레에 오래도록 진을 치고 앉아, 누만티아가 카르타고보다 더디게 정복된다는

자신과 나라의 울분을 담담하게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는 적을 둘러막고 가두어, 마침내 적이 제 칼에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전투에서도 전쟁에서도 쓸모가 없습니다. 분노는 무모함으로 기울고, 남을 위험에 빠뜨리려다 자기 위험은 살피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용기는 오래도록 두루 살피고 자기를 다스리며 천천히, 작정한 대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12 "그러면 어떤가? 선한 사람은 제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제 어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보아도 화를 내지 않는가?"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고, 지켜 낼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없으면 효심(pietas)이 너무 약한 박차가 될까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같은 투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가? 선한 사람은 제 아버지나 아들이 칼에 베이는 것을 보면서도 울지 않고 정신을 잃지도 않는가?" 하찮은 위험의 낌새만 스쳐도 여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선한 사람은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제 의무를 다할 것이고, 선한 사람에게 걸맞은 일을 하면서도 사내답지 못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하려 한다면 저는 지킬 것입니다. 살해당했다면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이지, 마음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도 제 사람들이 불의를 당하면 화를 낸다." 테오프라스토스[11]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굳센 가르침에 미움을 씌우려는 것이고, 재판관을 제쳐 두고 둘러선 구경꾼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화를 내니, 사람들이 저마다 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판정해 주리라는 계산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도 겪어 아는 격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운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유리그릇이 깨져도, 신발에 진흙이 튀어도 똑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효심이 아니라 나약함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을 때나 갖고 놀던 호두를 잃었을 때나 똑같이 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 사람들을 위해 화를 내는 것은 효심 깊은 마음이 아니라 나약한 마음입니다. 아름답고 떳떳한 것은 떠밀리거나 미쳐 날뛰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고 판단하고 내다보면서, 의무 그 자체에 이끌려 부모와 자식, 벗과 동료 시민을 위해 수호자로 나서는 일입니다. 분노만큼 복수를 탐하는 격정은 없고, 바로 그 때문에 분노만큼 복수에 서툰 격정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욕망이 그렇듯이 너무 서두르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서둘러 가려는 바로 그곳을 스스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평화에서든 전쟁에서든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평화를 전쟁처럼 만들고, 싸움터에서는 마르스가 어느 편에나 공평하다는 것을 잊으며, 제 힘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이에 남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악덕이 이따금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쓸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열병도 어떤 병은 덜어 주지만, 그렇다고 열병을 아예 앓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병 덕분에 건강해진다는 것은 끔찍한 치료법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여서, 독약이나 추락이나 난파가 뜻밖에 도움이 될 때가 있듯 이따금 도움이 되었다 해도, 그렇다고 몸에 이롭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로운 것이 목숨을 살린 적은 많습니다.

13 다음으로, 지닐 만한 것은 클수록 더 좋고 더 바랄 만합니다. 정의가 선이라면 거기서 무언가를 덜어 내면 더 나아지리라고 말할 사람은 없고, 용기가 선이라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도 클수록 더 좋아야 합니다. 어떤 선이든 늘어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노가 커지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있는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라면서 악이 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분노는 쓸모가 있다. 사람을 더 잘 싸우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술 취함도 쓸모가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뻔뻔하고 대담하게 만들고, 맨정신이 아닐 때 칼을 더 잘 쓴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정신착란과 광기도 힘을 내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광란에 빠지면 더 힘이 세지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거꾸로 두려움이 사람을 대담하게 만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가장 게으른 자들까지 싸움터로 뛰어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노, 술 취함, 두려움 같은 것들은 추하고 덧없는 자극일 뿐이어서, 악덕이 조금도 필요 없는 덕을 무장시켜 주지는 못하고 다만 본래 굼뜨고 비겁한 마음을 잠깐 들어 올릴 뿐입니다. 분노 없이는 용감하지 못했을 사람이 아니고서는, 화를 낸다고 더 용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분노는 덕을 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덕을 대신하러 옵니다. 게다가 분노가 선이라면 가장 완전한 사람마다 분노가 따라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성마른 것은 갓난아이와 노인과 병자입니다. 약한 것은 무엇이든 본래 투덜대기 마련입니다.

14 테오프라스토스는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논리라면 사람은 선할수록 더 성마를 것입니다. 오히려 선할수록 더 온화하고, 격정에서 풀려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보십시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 미워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그런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길을 잃은 탓인데 말입니다. 길 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분별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바른 도리에 어긋나게 하는지, 자기가 한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는 이제 자기에게도 화를 낼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관은 자기 사건과 남의 사건에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자기를 무죄로 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양심이 아니라 증인을 돌아보며 하는 말입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온화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 주고, 그들을 뒤쫓기보다 불러 돌려세우는 것이 얼마나 더 사람다운 일입니까! 길을 몰라 들판을 헤매는 사람은 내쫓기보다 바른길로 데려다주는 편이 낫습니다.

15 그러므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타이르기도 하고 힘을 쓰기도 하며, 부드럽게도 엄하게도 바로잡아, 꾸짖음 없이가 아니라 분노 없이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고쳐 주는 사람에게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로잡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부드러운 구석도, 좋은 희망을 걸 만한 데도 없다." 그렇다면 손대는 것마다 더 나쁘게 만들 그들을 인간 무리에서 없애야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악하기를 그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미움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를 그 자신에게서 빼내 줄 때야말로 그에게 가장 크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인데, 제가 무슨 까닭으로 그를 미워하겠습니까? 제 팔다리를 잘라 낼 때 그 팔다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가엾은 치료입니다. 우리는 미친개를 때려죽이고, 사납고 길들지 않는 황소를 잡고, 병든 가축은 무리에 병을 옮기지 않도록 칼을 대며, 기형으로 태어난 새끼는 없애고, 자식이라도 허약하거나 기형으로 태어나면 물에 빠뜨립니다. 성한 것에서 쓸모없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성입니다. 벌을 내리는 사람에게 화내는 것만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벌은 판단에 따라 내릴 때 사람을 더 잘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화가 나 있지 않다면 너를 때렸을 것이다." 그는 노예를 꾸짖는 일을 마음이 더 성할 때로 미루고, 그때는 자기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소크라테스조차 감히 분노에 자기를 맡기지 못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격정이 절제되어 있겠습니까?

16 그러므로 길을 잘못 든 자와 죄지은 자를 다스리는 데 화난 징벌자는 필요 없습니다. 분노는 마음이 저지르는 잘못이니, 잘못하는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 강도에게도 화내지 말란 말인가? 그러면 어떤가? 독살범에게도 화내지 말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 피를 뽑을 때 저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벌이든 약으로 씁니다. "너는 아직 잘못의 첫걸음에 머물러 있어 크게 넘어지지는 않으나 자주 넘어진다. 먼저 남몰래, 다음에는 드러내 놓고 꾸짖어 고쳐 보겠다. 너는 말로 고칠 수 있는 데를 이미 너무 멀리 지나왔으니 불명예로 붙들어 두겠다. 너에게는 더 센 것, 뼈저리게 느낄 만한 것을 지져 새겨야 하니, 추방해 낯선 땅으로 보내겠다. 너는 악이 이미 굳어 더 독한 처방을 부르니, 나라의 사슬과 감옥을 쓰겠다. 너는 마음을 고칠 길이 없고 죄에 죄를 엮어 가며, 이제 악인에게 결코 모자라지 않을 핑계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을 넉넉한 까닭이 되었다. 악을 들이마셔 창자에 섞어 버려서, 창자와 함께가 아니면 악이 빠져나올 수 없다. 가엾게도 오래전부터 죽기를 구해 왔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남을 괴롭히고 너 자신도 괴롭히는 그 광기를 거두어 주고, 네 형벌과 남의 형벌 속을 뒹굴어 온 너에게 남은 단 하나의 좋은 것을 당장 치러 주겠다. 바로 죽음이다." 제가 가장 크게 이롭게 해 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엇 하러 화를 내겠습니까? 때로는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연민입니다. 제가 군대의 병원이나 부잣집 병실에 들어갔다면, 저마다 다른 병을 앓는 모든 이에게 같은 처방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마음속에서 온갖 악덕을 보며 나라를 돌보라고 불려 온 사람이니, 저마다의 병에 맞는 약을 찾아, 누구는 부끄러움이, 누구는 타향살이가,

누구는 고통이, 누구는 궁핍이, 누구는 칼이 고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무관이 옷을 뒤집어 입고[12] 나팔을 불어 민회를 불러 모아야 할 때가 오더라도, 저는 미쳐 날뛰지도 적의를 품지도 않고 법의 얼굴로 법정 단상에 오를 것입니다. 그 엄숙한 선고문은 사나운 목소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읊고, 화가 나서가 아니라 엄격하게 법대로 집행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죄인의 목을 베라고 명할 때도, 존속 살해범을 가죽 자루에 꿰매 넣을 때도[13], 군법에 따른 처형으로 보낼 때도, 반역자나 나라의 적을 타르페이아 바위[14]에 올려 세울 때도, 저는 뱀과 독 있는 짐승을 칠 때와 같은 얼굴, 같은 마음으로 분노 없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벌하려면 성마름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법이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법의 마음가짐을 본받아야 합니다. 법은 화를 내지 않고 정할 뿐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짓을 보고 화내는 것이 마땅하다면, 악한 자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것도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운을 찾아 주어도 모자랄 자들이 번성하며 운의 너그러움을 함부로 누리는 것보다 더 분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들이 누리는 복을 시기 없이 바라보듯 그들의 죄도 분노 없이 바라볼 것입니다. 좋은 재판관은 비난받을 일을 단죄하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현자도 그런 일을 손에 쥐면 마음이 건드려져 여느 때보다 흔들리지 않겠는가?" 인정합니다. 현자도 가볍고 엷은 움직임은 느낄 것입니다. 제논[15]이 말하듯이, 현자의 마음에도 상처가 아문 뒤에 흉터는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자는 격정의 낌새나 그림자 같은 것은 느끼겠지만, 격정 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17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격정은 잘 쓰기만 하면 무기 노릇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격정을 전쟁 도구처럼 손에 드는 사람 마음대로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다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에게 쥐여 주는 이 무기는 제 힘으로 싸우고, 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기를 쥐는 것이 아니라 무기가 사람을 쥡니다. 다른 도구는 필요 없습니다. 자연은 이성으로 우리를 넉넉히 무장시켰습니다. 자연이 준 이 무기는 단단하고 영원하며 말을 잘 듣고, 양날이 아니어서 주인에게 되돌아와 꽂힐 일도 없습니다. 이성은 혼자 힘으로 앞일을 내다보는 데뿐 아니라 일을 해내는 데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이성이 성마름에게 보호를 구하다니, 굳건한 것이 불확실한 것에게, 믿음직한 것이 믿지 못할 것에게, 성한 것이 병든 것에게 보호를 구하다니,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마름의 손길이 꼭 필요해 보이는 유일한 영역인 행동에서도, 이성은 혼자서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이성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자기를 바꿀 만큼 자기보다 나은 것을 찾아낼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한번 정한 것을 지킵니다. 분노는 연민에 밀려 물러선 적이 많습니다. 분노에는 단단한 힘이 아니라 헛된 부풀음만 있고, 시작만 거셀 뿐이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일어나 강과 늪에서 생겨난 바람이 거세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노는 큰 기세로 시작하지만 때가 되기도 전에 지쳐 주저앉고, 오로지 잔인한 짓과 새로운 형벌만 궁리하다가도 막상 벌을 내릴 때가 되면 이미 꺾이고 누그러져 있습니다. 격정은 금세 무너지지만, 이성은 한결같습니다. 게다가 분노가 끝까지 버틴 때에도, 죽어 마땅한 자가 여럿이면 둘이나 셋의 피를 보고 나서 죽이기를 그칠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첫 일격만 매섭습니다. 뱀의 독도 굴에서 막 기어 나올 때나 해롭지, 여러 번 물어 독이 다 빠지면 이빨이 아무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 똑같은 벌을 받지 않고, 덜 지은 자가 더 받는 일이 흔합니다. 분노가 더 생생할 때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모든 면에서 고르지 않습니다. 마땅한 정도를 넘어

내달리는가 하면,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못 미쳐 멈춥니다. 제멋대로 굴고, 기분대로 판단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변론할 틈을 주지 않고, 한번 움켜쥔 것은 놓지 않으며, 제 판단이 아무리 그릇되어도 빼앗기려 하지 않습니다.

18 이성은 양쪽 모두에게 시간을 주고, 자기도 말미를 청해 진실을 가려낼 여유를 얻습니다. 분노는 서두릅니다. 이성은 공정한 것을 판결하려 하고, 분노는 자기가 판결한 것이 공정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성은 다루는 사안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분노는 사안 밖에서 얼씬거리는 하찮은 것들에 흔들립니다. 피고의 너무 태연한 얼굴, 너무 또랑또랑한 목소리, 너무 거침없는 말, 너무 멋 부린 옷차림, 너무 요란한 변호인단, 대중의 호의가 분노를 들쑤십니다. 분노는 변호인이 미워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진실이 눈앞에 들이밀어져도 오류를 아끼고 감쌉니다. 반박당하기를 싫어하고, 잘못 시작한 일에서는 뉘우치기보다 고집을 부리는 편이 더 떳떳해 보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나이우스 피소[16]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 악덕에 물들지 않았지만 비뚤어진 사람이어서, 의연함 대신 완고함을 좋아했습니다. 피소는 어느 병사가 휴가에서 동료 없이 혼자 돌아오자, 데려오지 못한 그 동료를 죽이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며 끌어내 처형하라고 명했고, 동료를 찾아볼 시간을 조금만 달라는 병사의 청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병사는 진지 밖으로 끌려 나가 이미 목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그 동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처형을 맡은 백인대장은 집행병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하고, 운이 이미 병사에게 결백을 돌려주었으니 이제 피소에게도 결백을 돌려줄 셈으로 사형수를 피소에게 도로 데려갔습니다. 두 동료 병사는 서로 얼싸안은 채, 온 진영이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구름같이 몰려든 병사들과 함께 피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피소는 미쳐 날뛰며 단상에 올라 둘 다 처형하라고 명했습니다. 죽이지 않은 병사도, 죽지 않은 병사도. 이보다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결백이 드러났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피소는 셋째 사람까지 보탰습니다. 사형수를 도로 데려온 백인대장마저 끌어내라고 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결백하다는 이유로 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아, 성마름은 광란의 핑계를 지어내는 데 얼마나 재주가 좋습니까! 피소는 말했습니다. "너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니 처형한다. 너는 동료가 사형을 선고받은 원인이 되었으니 처형한다. 너는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도 사령관에게 따르지 않았으니 처형한다." 그는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자 죄 셋을 지어낼 궁리를 해냈습니다.

19 거듭 말하지만 성마름에는 이런 나쁜 점이 있습니다. 다스림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마름은 진실이 제 뜻에 어긋나게 드러나면 진실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고함치고 소란을 피우며 온몸을 들썩이고,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점찍어 둔 사람들을 뒤쫓습니다. 이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도 필요하다면 말없이 조용히 집안 전체를 뿌리째 들어내고, 나라에 해로운 가문을 아내와 자식까지 함께 멸하고, 집을 허물어 땅바닥과 평평하게 만들고, 자유에 적대하는 이름을 뿌리 뽑습니다. 이를 갈지도 않고 고개를 흔들지도 않으며, 재판관에게 어울리지 않는 짓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재판관의 얼굴은 무거운 선고를 내릴 때일수록 더 평온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히에로니모스[17]는 말합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싶을 때 먼저 제 입술부터 깨물 까닭이 무엇인가?" 그가 만일 총독이 단상에서 뛰어내려 권표 든 시종에게서 권표를 빼앗고, 남의 옷이 너무 더디게 찢긴다며 제 옷을 찢어 대는 꼴을 보았다면 어땠겠습니까? 식탁을 뒤엎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잔을 내동댕이칠 까닭이 무엇입니까? 기둥에 몸을 들이받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머리털을 쥐어뜯고 넓적다리와 가슴을 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바라는 만큼 빨리 터져 나오지 못하자 제게로 되돌아오는 분노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곁에 있는 이들이 붙잡고서, 제발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고 달래야 합니다.

분노 없이 저마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잘못을 찾아낸 사람을 놓아줄 때가 많습니다. 저지른 일을 뉘우치는 모습이 좋은 희망을 약속하거나, 악이 마음 깊은 데서 나오지 않고 흔히 하는 말로 마음 거죽에 붙어 있을 뿐이라고 알아보면, 받는 쪽에도 주는 쪽에도 해가 되지 않을 사면을 베풀 것입니다. 때로는 큰 죄를 작은 죄보다 가볍게 다스릴 것입니다. 큰 죄는 잔인함이 아니라 실수로 저질렀고, 작은 죄에는 숨겨지고 덮이고 오래 묵은 교활함이 깃들어 있다면 말입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한 사람은 부주의로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일부러 해를 끼치려 했다면, 두 사람에게 같은 벌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처벌에서든 늘 이것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벌은 악한 자를 고치려고, 어떤 벌은 없애려고 내린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을 볼 것입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분별 있는 사람은 잘못이 저질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벌한다."[18]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올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굽히지 않는 악의 본보기로 삼고 싶은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죽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겁주어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따지고 헤아려야 하는 사람이, 더없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일, 곧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에 다가갈 때 얼마나 모든 동요

(perturbatio)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화난 사람에게 칼을 맡기면 안 됩니다.

20 분노가 도량(magnitudo animi)에 무언가 보탠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부은 것입니다. 나쁜 체액이 가득 차 팽팽해진 몸에서 병은 몸이 자란 것이 아니라 해로운 과잉일 뿐입니다. 정신 나간 마음에 들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곳까지 솟아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무언가 높고 숭고한 것을 숨 쉰다고 믿지만, 그 밑에는 단단한 것이 하나도 없고, 토대 없이 자라난 것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분노에는 디디고 설 곳이 없습니다. 분노는 굳건하고 오래갈 것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바람만 차 있고 속이 비어서, 무모함이 용기와, 오만이 자신감과, 침울함이 근엄함과, 잔인함이 엄격함과 떨어진 만큼이나 도량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숭고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크게 다릅니다. 성마름은 크고 품위 있는 일을 하나도 꾀하지 못하며, 오히려 짓무르고 병든 몸이 아주 살짝 닿기만 해도 신음하듯 자주 쓰라려하는 것은 제 나약함을 아는 무기력하고 불행한 마음의 짓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분노는 무엇보다 여자와 아이의 악덕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사내들에게도 찾아온다." 사내들 가운데에도 아이 같고 여자 같은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가? 화난 사람들 입에서 큰마음에서 나온 듯한 말이 나오기도 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참된 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말, "미워해도 좋다, 두려워하기만 한다면"[19]이 그런 말입니다. 술라의 시대에 쓰인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기를 바란 것과 두려움을 사기를 바란 것 가운데 어느 쪽이 자기에게 더 나쁜 소원이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미워해도 좋다."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음모를 꾸미고, 짓밟으려 하리라는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덧붙였습니까? 신들이여, 그에게 벌을 내리소서! 미움받아 마땅한

처방을 찾아낸 셈입니다. "미워해도 좋다." 무엇을 조건으로? "복종하기만 한다면"? 아닙니다. "인정하기만 한다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저는 사랑받는 것조차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큰 기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아신 것입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흉포한 것입니다. 화난 사람들의 말을 믿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크고 위협적이지만, 속마음은 더없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더없이 말 잘하는 티투스 리비우스[20]의 책에 나오는 말도 참이라고 여길 까닭이 없습니다. "선하기보다 위대한 재능을 지닌 사람." 이 둘은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위대하다면 선하기도 할 것이고 선하지 않다면 위대하지도 않을 것이니, 제가 이해하는 도량은 흔들리지 않고 속까지 단단하며 밑바닥부터 고르고 굳건한 것이어서 악한 성품에는 깃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성품은 무섭고 소란스럽고 파괴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함을 받침과 힘으로 삼는 위대함은 결코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말과 몸짓과 온갖 겉치레로 자기가 위대하다고 믿게 할 것이고, 큰마음에서 나왔다고 여길 만한 말을 내뱉기도 할 것입니다. 칼리굴라[21]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경하기보다 흉내 내기를 더 좋아하던 무언극 배우들의 공연을 하늘이 천둥으로 방해한다고 화를 냈고, 제 술잔치가 벼락에 놀라 흩어진다고 화를 냈습니다. 벼락이 영 빗나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는 유피테르에게 결투를, 그것도 패자를 살려 보내지 않는 끝장 결투를 청하며 호메로스의 저 시구를 외쳤습니다.

"나를 들어 올려라. 아니면 내가 너를 들어 올리겠다."[22]

얼마나 미친 짓이었습니까! 그는 유피테르조차 자기를 해칠 수 없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유피테르까지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 말이 음모자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데 적잖이 한몫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피테르조차 참아 넘기지 못하는 자를 참는 것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1 그러니 분노에는, 거세게 보이고 신과 사람을 업신여기는 듯 보일 때조차, 큰 것도 고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분노가 큰마음을 낳는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사치도 큰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치는 상아 위에 몸을 얹고, 자줏빛 옷을 걸치고, 황금 지붕 아래 살고 싶어 하며, 땅을 옮기고, 바다를 가두고, 강물을 폭포로 떨어뜨리고, 숲을 공중에 매달려 합니다. 탐욕도 큰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탐욕은 금과 은 더미 위에 엎드려 지키고, 속주라고 불러도 될 만한 땅을 갈며, 관리인 하나하나에게 맡긴 땅이 옛 집정관들이 제비 뽑아 다스리던 영토보다 넓습니다. 정욕도 큰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욕은 해협을 헤엄쳐 건너고, 소년들을 떼로 거세하며,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의 칼 아래로 뛰어듭니다. 야심도 큰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심은 한 해짜리 관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집정관 연표를 제 이름 하나로 채우고, 온 세상에 제 칭호를 새긴 비문을 늘어세우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리 멀리 나아가고 아무리 넓게 뻗어도 비좁고 비참하고 낮습니다. 숭고하고 높은 것은 덕뿐입니다. 평온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크지 않습니다.

---

1. 세네카의 형 마르쿠스 안나이우스 노바투스. 뒷날 웅변가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가 되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이름을 얻었다.

2. 나라가 몰수한 재산을 경매에 부칠 때는 창을 꽂아 표지로 삼았다. 내전 때 정적들을 살생부에 올려 재산을 팔아넘긴 일을 가리킨다.

3. 2장 3절 뒤로 원문이 얼마간 전하지 않는다. 비판본은 후대 저자 둘이 이 책을 인용한 대목으로 그 자리를 메웠다. 6세기 브라가의 주교 마르티누스가 쓴 『분노에 관하여』와 4세기 초 락탄티우스가 쓴 『신의 분노에 관하여』다. 원문은 그 뒤 문장 중간에서 다시 이어진다.

4. 포세이도니오스(기원전 135 무렵~기원전 51 무렵). 시리아의 아파메이아 출신으로 로도스에서 가르친 스토아 철학자.

5.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7.545~546. 아이기나섬에 역병이 덮쳐 짐승들마저 기운을 잃은 모습을 그린 대목이다.

6. 플라톤 『국가』 1권 335d.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는 소크라테스의 논증이다.

7. 이탈리아로 쳐들어온 게르만계 부족. 기원전 102년과 101년에 마리우스에게 잇달아 섬멸되었다.

8.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독재관으로서 한니발과 정면으로 맞붙기를 피하고 시간을 끌어 「지연자(쿵크타토르)」라는 별명을 얻었다.

9. 대(大)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기원전 204년 한니발이 아직 이탈리아에 있을 때 아프리카로 건너가 카르타고를 쳤고, 202년 자마에서 한니발을 이겼다.

10. 소(小)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를 무너뜨렸고, 133년 히스파니아의 누만티아를 오랜 포위 끝에 함락했다.

11. 테오프라스토스(기원전 371 무렵~기원전 287 무렵). 아리스토텔레스의 뒤를 이어 소요학파를 이끈 철학자.

12. 사형을 선고할 때 정무관은 고관의 토가를 벗고 상복 차림을 했다고 한다. 「뒤집어 입은 옷」이 정확히 어떤 차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3. 존속 살해범에게 내리던 벌. 죄인을 개·수탉·뱀·원숭이와 함께 가죽 자루에 꿰매 넣어 물에 던졌다.

14. 카피톨리움 언덕의 낭떠러지. 반역자를 여기서 떨어뜨려 죽였다.

15. 키티온의 제논(기원전 334 무렵~기원전 262 무렵). 스토아학파를 세웠다.

16. 그나이우스 칼푸르니우스 피소. 티베리우스 때 시리아 총독을 지냈다. 기원후 19년 게르마니쿠스가 죽자 독살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7. 로도스의 히에로니모스. 기원전 3세기의 소요학파 철학자.

18. 플라톤 『법률』 11권 934a. 『프로타고라스』 324b에도 같은 생각이 나온다.

19. 로마의 비극 작가 아키우스(기원전 170~기원전 86 무렵)의 『아트레우스』에 나오는 대사. 술라는 기원전 82년 독재관이 되어 살생부로 정적들을 숙청했다.

20. 로마의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기원전 59~기원후 17). 이 구절은 남아 있는 그의 『로마사』에서는 찾을 수 없다.

21. 황제 칼리굴라(재위 37~41). 원문은 「가이우스 카이사르」. 41년 근위대 장교들의 음모로 살해되었다.

22. 호메로스 『일리아스』 23.724. 레슬링 시합에서 아이아스가 오디세우스에게 한 말이다. 저본은 그리스어 시구를 라틴 문자로 적었다.

분노에 관하여 제2권

1 노바투스[1] 형님, 첫째 권은 다루기 수월한 주제였습니다. 악덕을 따라 비탈을 내려가는 길은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섬세한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분노가 판단에서 시작하는지 충동에서 시작하는지, 곧 분노가 저절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다른 대부분의 것처럼 우리가 알아차린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따져 보려는 것입니다. 이 논의가 이렇게 낮은 데까지 내려가야 저 높은 데로도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온몸을 받치고 목숨을 지탱하지만 보기에는 조금도 아름답지 않은 뼈와 힘줄과 관절이 먼저 자리를 잡고, 다음에 얼굴과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들이 자리를 잡으며,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뒤에야 눈길을 가장 사로잡는 빛깔이 이미 다 지어진 몸 위에 마지막으로 입혀집니다.

불의를 당했다는 인상(species)이 눈앞에 나타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지려는 것은, 분노가 그 인상을 곧바로 뒤따라 마음이 거들지 않아도 뛰쳐나가는지, 아니면 마음이 동의(adsensus)해야 움직이는지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분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감행하지 못하고, 마음이 승인해야만 움직입니다. 불의를 당했다는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 앙갚음을 바라고, 해를 입어서는 안 되었다는 생각과 앙갚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로 잇는 일은 우리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충동(impetus)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충동은 단순하지만, 분노는

여러 단계가 얽힌 것입니다. 무언가를 알아차렸고, 분개했고, 단죄했고, 그래서 앙갚음합니다. 이 일들은 마음이 자기를 건드린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2 "이런 물음이 무슨 소용인가?" 하고 형님은 말씀하시겠지요. 분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분노가 우리 뜻을 거슬러 생겨난다면 결코 이성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뜻으로 일어나지 않는 움직임(motus)은 모두 이길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찬물을 뒤집어쓰면 소름이 돋고, 어떤 것에 닿으면 움찔하며, 나쁜 소식을 들으면 머리털이 곤두서고, 상스러운 말을 들으면 얼굴이 붉어지며,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면 어지럼증이 납니다. 이런 것은 조금도 우리 힘이 미치지 않으니, 어떤 이성도 일어나지 말라고 설득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가르침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이 스스로 택하는 악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처한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닥치는 일들과는 다릅니다. 불의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 뒤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의 저 첫 일격은 이런 일들 가운데 넣어야 합니다. 이 첫 일격은 무대의 구경거리를 볼 때나 옛일을 읽을 때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키케로를 추방하는 클로디우스와 키케로를 죽이는 안토니우스[2]에게 화가 난 듯할 때가 많습니다. 마리우스의 무력과 술라의 살생부[3]에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테오도토스와 아킬라스, 그리고 아이답지 않은 짓을 감행한 그 소년[4]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래와 빠른 가락과 마르스의 나팔 소리가 우리를 부추길 때도 있습니다. 참혹한 그림이나, 더없이 정당한 처형이라도 그 처절한 광경은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사람을 보면 따라 웃고, 슬퍼하는 무리를 보면 함께 슬퍼지며, 남의 싸움에도 피가 끓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무대에서 배가 난파하는 장면을 보고 이마를 찌푸리는 것이 슬픔이 아니고, 칸나이

전투 뒤 한니발이 로마 성벽을 에워싸는 대목을 읽을 때 읽는 이의 마음을 스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움직이고 싶지 않은 마음의 움직임일 뿐, 격정(affectus)이 아니라 격정에 앞서 몸을 푸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토가를 입고 평화롭게 사는 군인의 귀를 나팔 소리가 일깨우고, 무기 부딪는 소리가 군마의 귀를 쫑긋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악사 크세노판토스가 피리를 불자 알렉산드로스가 무기에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3 우연히 마음을 떠미는 것들은 어느 것도 격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라기보다 마음이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격정이란 눈앞에 나타난 사물의 인상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상에 자기를 내맡기고 이 우연한 움직임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창백해지는 얼굴, 흐르는 눈물, 음란한 체액이 솟는 것, 깊은 한숨,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눈빛 같은 것을 격정의 증거요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잘못 아는 것이고 이것이 몸의 떨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없이 용감한 사람도 무장을 하는 동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일이 많고, 더없이 사나운 병사도 싸움 신호가 떨어지면 무릎이 조금 떨리며, 위대한 장군도 두 진영이 맞부딪치기 전에는 심장이 뛰고, 더없이 말 잘하는 웅변가도 연설을 준비하는 동안 손발 끝이 굳습니다. 분노는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뛰쳐나가야 합니다. 분노는 충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동은 결코 정신의 동의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모르는 사이에 복수와 벌을 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앙갚음하려 했다가, 무언가 말리는 까닭이 생겨 곧바로 가라앉았다고 해 봅시다. 저는 이것을 분노라 부르지 않고, 이성에 복종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라 부릅니다. 이성을 뛰어넘어 이성을 휩쓸고 가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당했다는 인상이 일으킨

마음의 저 첫 흔들림은 그 인상 자체가 분노가 아니듯 분노가 아닙니다. 그 뒤를 잇는 충동, 곧 불의를 당했다는 인상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승인한 충동이 분노이며, 뜻을 세우고 판단을 내려 앙갚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들끓음입니다. 두려움에는 달아남이, 분노에는 덤벼듦이 따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의 동의 없이 무언가를 좇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4 격정이 어떻게 시작하고 자라고 날뛰게 되는지 아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움직임은 뜻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자면 격정을 준비하는 것이요 일종의 위협입니다. 둘째 움직임은 뜻이 따르되 고집스럽지는 않은 것으로, "나는 해를 입었으니 앙갚음해야 마땅하다"거나 "이자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움직임입니다. 셋째 움직임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마땅하다면 앙갚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앙갚음하겠다는 것이며, 이성을 꺾어 버린 움직임입니다. 마음의 저 첫 일격은 이성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몸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남이 하품하면 우리도 하품이 나오고, 누가 갑자기 손가락을 들이대면 눈이 감깁니다. 이런 것은 이성이 이길 수 없고, 습관과 끊임없는 주의가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 뿐입니다. 판단에서 생겨나는 저 둘째 움직임은 판단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5 이제 또 하나 따져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포악하게 굴며 사람의 피를 즐기는 자들, 이를테면 아폴로도로스나 팔라리스[5] 같은 자들이 자기에게 불의를 저지른 적도 없고 저질렀다고 스스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을 죽일 때, 그들이 화가 나서 그러는지 하는 물음입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나움(feritas)입니다. 사나움은 불의를 당했기 때문에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해칠 수만 있다면 불의를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매질과 살을 찢는 고문을 복수가 아니라

쾌락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악의 뿌리는 분노에 있습니다. 분노는 잦은 연습과 물리도록 실컷 누린 끝에 관용(clementia)을 잊고 사람 사이의 모든 맹약을 마음에서 내던지고 나면, 마침내 잔인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웃고 즐거워하며 큰 쾌락을 누리고, 화난 사람의 얼굴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느긋하게 포악을 부립니다. 한니발은 사람의 피가 가득 찬 도랑을 보고 "오,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피가 강이나 호수를 가득 채웠다면 그에게 얼마나 더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피 속에서 태어나 갓난아이 때부터 살육 곁에서 자란 그대가 이 광경에 무엇보다 사로잡힌들 무엇이 놀랍겠소? 운이 스무 해 동안 그대의 잔인함을 순순히 따르며 가는 곳마다 그대 눈에 반가운 광경을 펼쳐 줄 것이오. 그대는 그 광경을 트라시메누스호 둘레에서도, 칸나이 둘레에서도, 마지막에는 그대의 카르타고 둘레에서도 보게 될 것이오. 얼마 전 신격 아우구스투스 때 아시아 총독이던 볼레수스[6]는 하루에 삼백 명을 도끼로 처형하고는, 무슨 장하고 볼만한 일이라도 해낸 듯 거만한 얼굴로 시체들 사이를 거닐며 그리스 말로 외쳤습니다. "참으로 왕다운 일이구나!" 이자가 왕이었다면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고칠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6 "덕은 훌륭한 일에 호의를 보이듯 추한 일에는 화를 내야 한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덕이 비천하면서 동시에 위대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덕을 높이 세우면서 동시에 끌어내리려는 사람은 바로 그런 말을 하는 셈입니다. 옳은 일을 두고 느끼는 즐거움은 환하고 장하지만, 남의 잘못을 두고 내는 화는 천하고 속 좁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덕은 악덕을 누르다가 악덕을 흉내 내는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덕은 분노 자체를 꾸짖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분노는 자기가 화를 내는 그 잘못보다 조금도 낫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쁠 때가 많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덕의 본디 모습이요 본성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슬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덕의 위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마름(iracundia)에는 슬픔이 따라다니고, 모든 분노는 뉘우친 뒤에든 앙갚음에 실패한 뒤에든 슬픔으로 되돌아옵니다. 또 잘못을 보고 화내는 것이 현자의 일이라면, 현자는 큰 잘못에 더 크게, 그리고 자주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현자는 화난 사람일 뿐 아니라 성마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큰 분노도 잦은 분노도 현자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현자를 이 격정에서 아주 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저마다의 행실에 따라 화를 내야 한다면 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르지 않은 잘못에 고르게 화를 낸다면 불공정할 것이고, 죄가 분노를 부를 때마다 불끈 타오른다면 더없이 성마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7 게다가 현자의 마음이 남의 악에 매달려 흔들린다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소크라테스가 집을 나설 때의 얼굴 그대로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현자가 추한 짓을 보고 화를 내고, 죄를 보고 들끓고 슬퍼해야 한다면, 현자보다 고달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이 성마름과 비탄 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을 보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겠습니까? 집을 나설 때마다 그는 죄인과 탐욕스러운 자와 낭비하는 자와 뻔뻔한 자, 그리고 바로 그 덕분에 운이 트인 자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로 눈을 돌리든 분개할 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까닭이 요구할 때마다 자기에게서 분노를 짜내야 한다면 그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포룸으로 서둘러 가는 저 수천 명을 보십시오. 그들의 소송은 얼마나 추하고, 그들의 변호인은 얼마나 더 추합니까! 누구는 아버지의 판단을 고발하는데, 그런 판단을 받을 짓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누구는 어머니와 법정에서 맞서고, 누구는

자기가 더 뻔히 저지른 죄를 고발하러 옵니다. 재판관으로는 제가 저지른 짓을 단죄할 자가 뽑히고, 둘러선 청중은 변호인의 좋은 목소리에 홀려 나쁜 송사 편에 섭니다.

8 하나하나 늘어놓아 무엇 하겠습니까?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포룸과, 온갖 군중이 몰려들어 꽉 찬 투표장과, 인민이 거의 다 모여드는 저 전차 경기장을 보시거든, 거기에는 사람 수만큼 악덕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토가를 입은 저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해 서로를 파멸로 끌고 가고, 남이 해를 입어야만 이익을 봅니다. 운 좋은 사람은 미워하고 불운한 사람은 업신여기며, 윗사람은 버거워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버거운 짐이 됩니다. 저마다 다른 욕망에 쫓기고, 하찮은 쾌락과 노획물을 얻으려고 모든 것이 망가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싸우는 검투사 양성소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짐승들의 모임입니다. 다만 짐승은 저희끼리는 온순해서 같은 무리를 물지 않지만, 이자들은 서로 물어뜯으며 배를 채웁니다. 이자들이 말 못 하는 짐승과 다른 점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짐승은 먹여 주는 사람에게 길들지만, 이자들의 광포함은 저를 먹여 기른 사람마저 뜯어먹습니다.

9 현자가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 결코 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죄와 악덕으로 가득합니다. 형벌로 고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저질러지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악의 경주를 벌이며,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날마다 커지는데 부끄러움은 날마다 줄어듭니다. 더 낫고 더 공정한 것을 돌아보는 마음이 쫓겨나자 방종은 어디든 내키는 대로 들이닥치고, 이제 죄는 숨어서 저지르는 일이 아닙니다. 죄는 눈앞을 버젓이 지나가고, 악은 공공연히 풀려나 모든 사람의 가슴에서 힘을 얻어, 결백한 사람은 드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 한두 사람이나 몇 사람뿐이겠습니까? 사방에서 마치 신호라도

떨어진 듯 사람들이 들고일어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손님은 주인에게서 안전하지 않고,
장인은 사위에게서 안전하지 않으며, 형제의 우애도 드물다.
남편은 아내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노리고,
무서운 계모들은 시퍼런 투구꽃 독을 섞으며,
아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몇 해나 더 살지 캐묻는다."[7]

그런데 이것이 죄의 얼마만 한 부분이겠습니까? 시인은 한 겨레에서 갈라져 서로 맞선 진영,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편에 바친 군인 서약, 시민의 손으로 조국에 지른 불, 살생부에 오른 사람들의 숨은 곳을 뒤지려고 떼 지어 맴도는 적의 기병대, 독을 탄 샘물, 사람 손으로 퍼뜨린 역병, 포위된 부모를 둘러 판 참호, 가득 찬 감옥, 도시를 통째로 태우는 불길, 끔찍한 폭정, 왕위를 노리고 나라를 망치려는 은밀한 음모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억누를 수 있는 동안에는 죄이지만 영광으로 여겨지는 일들, 곧 납치와 겁탈, 그리고 입마저 정욕을 비켜 가지 못한 짓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민족들이 공공연히 저지르는 거짓 맹세와 깨진 조약, 저항하지 못해 힘센 자의 노획물로 끌려간 모든 것, 그리고 포룸 세 곳으로도 모자랄 만큼 많은 사기와 도둑질과 속임수와 빚 떼어먹기를 더해 보십시오. 죄의 몹쓸 정도가 요구하는 만큼 현자가 화를 내기를 바라신다면, 현자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미쳐야 할 것입니다.

10 차라리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헤매는 잘못에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화를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마땅히 할 일은 거들떠보지 않고 놀이와

또래의 시시한 장난에 눈을 판다고 화를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병들고 늙고 지친 사람들에게 화를 내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어야 하는 존재가 겪는 여러 불편 가운데 이것도 있습니다. 정신이 흐릿하다는 것, 헤맬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헤매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면 모두를 용서해야 하고, 인류에게 용서(venia)를 베풀어야 합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잘못한다고 화를 낸다면 갓난아이에게도 화를 내십시오. 그들도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아직 사물을 분별할 줄 모르는 나이의 아이들에게 누가 화를 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아이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정당한 변명거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몸의 병 못지않게 마음의 병에도 시달리는 동물이고, 둔하거나 굼뜨지는 않지만 제 날카로움을 잘못 쓰며, 서로에게 악덕의 본보기가 됩니다. 앞서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니는 큰길에서 헤맨 것이니, 어찌 변명거리가 없겠습니까? 장군의 엄격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칼을 뽑지만, 온 군대가 탈영했을 때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자의 분노를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현자는 모두의 악덕에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위험한지 압니다.

헤라클레이토스[8]는 밖에 나가 제 둘레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잘못 살고, 아니 잘못 죽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울었고, 즐겁고 운 좋게 자기와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온화한 마음이었지만 너무 여렸고, 그 자신도 울어 주어야 할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반대로 데모크리토스는 사람들 앞에서 웃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는 일 가운데 그에게 진지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분노가 들어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웃어넘기든지 울어 주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현자는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현자로 태어나지 않고 현자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어느 시대에나 현자가 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인간 삶의 조건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정신이 성한 사람은 자연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숲속 덤불에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놀라워하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시덤불과 찔레에 쓸 만한 열매가 가득 열리지 않는다고 놀란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이 감싸 주는 결함에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평온하고, 헤매는 이들에게 너그러우며, 잘못하는 이들의 적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아 주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오늘 나는 술에 빠진 사람을 많이 만날 것이다. 정욕에 빠진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야심의 광기에 쫓기는 사람을 많이 만날 것이다." 현자는 이 모든 것을 의사가 제 환자를 보듯 너그럽게 바라볼 것입니다. 이음매가 사방에서 벌어져 배에 물이 잔뜩 스며들 때, 배 주인이 선원들과 배에게 화를 냅니까? 오히려 달려가 어떤 물은 막고 어떤 물은 퍼내며, 눈에 보이는 구멍은 틀어막고, 숨어서 몰래 배 밑바닥으로 물을 들이는 구멍에는 쉬지 않고 일하며 맞섭니다. 퍼낸 만큼 다시 차오른다고 해서 일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끼를 치는 악에 맞서려면 끈질긴 도움이 필요합니다. 악이 그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1 "분노는 쓸모가 있다. 업신여김을 피하게 해 주고 악한 자들을 겁주기 때문이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첫째, 분노가 위협하는 만큼 힘이 있다면 무섭다는 바로 그 까닭으로 미움을 받는데, 두려움을 사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반대로 분노에 힘이 없다면 더욱 업신여김을 받고 비웃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헛되이 소란을 피우는 성마름보다 김빠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으로, 어떤 것이

더 무섭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현자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짐승의 무기가 그렇듯 두려움을 사는 것은 현자의 무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병과 통풍과 악성 종기도 두려움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것들에 좋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은 모두 업신여김을 받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겨지며, 바로 그런 것이기에 두려움을 삽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흉하고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못 되지만, 흉한 탈이 아이들을 겁주듯 많은 사람을 겁줍니다. 게다가 두려움은 늘 두려움을 일으킨 자에게 되돌아오고, 남에게 두려움을 사면서 자기는 마음 편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전이 한창일 때 극장에서 울려 퍼지자 마치 온 인민의 심정을 대신 외친 목소리처럼 모든 사람을 사로잡은 라베리우스의 저 대사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9]

자연은 남이 두려워해서 커진 것은 무엇이든 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사자의 가슴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얼마나 겁에 질립니까! 더없이 사나운 짐승도 그림자와 소리와 낯선 냄새에 놀라 날뜁니다. 겁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도 떱니다. 그러니 현자라면 누구도 두려움을 사기를 바랄 까닭이 없고, 분노가 무서움을 자아낸다고 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이라고 여길 까닭도 없습니다. 독이나 해로운 뼈나 물린 상처처럼 더없이 하찮은 것도 두려움을 사기 때문입니다. 깃털을 매단 줄 하나가 엄청난 짐승 떼를 가두어 덫으로 몰아넣고, 사냥꾼들이 바로 그 격정의 이름을 따서 그 줄을 「공포(formido)」라고 부르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헛된 것에게는 헛된 것이 무서운 법입니다. 마차가 움직이고 바퀴가 도는 모습에 사자가 우리로 쫓겨 들어가고, 코끼리는 돼지 울음소리에 겁을 먹습니다. 그러니 분노는 아이들이 그림자를 무서워하듯, 짐승이 붉은 깃털을

무서워하듯 두려움을 살 뿐입니다. 분노 자체에는 단단하거나 굳센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가벼운 마음을 흔들 뿐입니다.

12 "분노를 없애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둘 다 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첫째, 겨울이라도 춥지 않을 수 있고, 여름 몇 달이라도 덥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무는 곳 덕분에 궂은 날씨를 피하거나, 몸이 단련되어 추위도 더위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성마름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마음에서 덕(virtus)을 없애야 합니다. 악덕은 덕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니, 병들었으면서 동시에 건강할 수 없듯이 누구도 화난 사람이면서 동시에 선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분노를 모조리 없앨 수는 없다.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이 이겨 내지 못할 만큼, 끊임없는 연습으로 익숙하게 만들지 못할 만큼 어렵고 험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납고 제멋대로인 격정이라도 훈련으로 길들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스스로에게 명령한 것이면 무엇이든 이루어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웃지 않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어떤 사람들은 성애를, 어떤 사람들은 마실 것 일체를 제 몸에 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잠에 만족하며 지칠 줄 모르는 깨어 있음을 늘려 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가는 줄 위를, 그것도 비탈지게 매단 줄을 거슬러 달리는 법을 익혔고, 사람의 힘으로는 겨우 견딜까 말까 한 엄청난 짐을 지는 법을 익혔으며, 끝없이 깊은 바다로 잠겨 들어 한 번도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서 버티는 법을 익혔습니다. 끈기가 온갖 장애를 넘어서서, 정신이 스스로 견디기로 마음먹은 일 가운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여 준 일이 그 밖에도 천 가지나 됩니다. 제가 방금 말한 사람들은 그토록 끈질긴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받아도 그만한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팽팽한 줄 위를 걷는 법을 익힌

사람이, 엄청난 짐 밑에 목을 들이민 사람이, 잠에 눈을 내주지 않은 사람이, 바다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간 사람이 무슨 대단한 것을 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수고는 대단치 않은 품삯을 받고 일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마음의 흔들림 없는 평정(tranquillitas)이라는 그토록 큰 상이 기다리는 우리가 인내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악인 분노를 피하고, 그와 함께 광포함과 포악함과 잔인함과 광란, 분노를 따라다니는 다른 격정들까지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13 분노가 쓸모 있다거나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리 자신을 변호해 줄 말을 찾고 방종에 핑계를 댈 까닭은 없습니다. 도대체 변호인이 없었던 악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앓는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고 우리를 바르게 낳은 자연 자신이 우리가 고쳐지기를 바라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니, 분노는 잘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실 까닭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덕에 이르는 길이 가파르고 험한 것도 아닙니다.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헛된 일을 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vita beata)에 이르는 길은 쉽습니다. 좋은 징조 아래, 신들의 도움을 받아 들어서기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음의 고요보다 한가로운 것이 무엇이며, 분노보다 고된 것이 무엇입니까? 관용보다 느긋한 것이 무엇이며, 잔인함보다 바쁜 것이 무엇입니까? 정숙은 여유롭고, 정욕은 더없이 분주합니다. 요컨대 모든 덕은 지키기 쉽고, 악덕은 큰 비용을 들여야 가꿀 수 있습니다. 분노는 물리쳐야 합니다. 분노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분노는 통째로 내보내야 합니다. 분노는 아무 쓸모도 없을 것입니다. 분노 없이도 죄는 더 쉽고 더 바르게 없앨 수 있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아 더 나은 쪽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현자는 해야 할 일을 모두 어떤

나쁜 것의 시중도 받지 않고 해낼 것이며, 한도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섞어 넣지 않을 것입니다.

14 그러므로 성마름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듣는 이들의 굼뜬 마음을 일깨워야 할 때는 이따금 성난 척할 수는 있습니다. 출발이 굼뜬 말을 박차와 횃불을 들이대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따금 두려움을 안겨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보다 조금도 더 쓸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분노를 부추기는 일이 생기지 않는가?" 바로 그때야말로 분노에 맞서 손을 들어 막아야 합니다. 마음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에게서 가장 하찮은 부분인 몸에 매달리는 사람들이지만, 때리는 상대의 힘이 다 빠지도록 주먹과 고통을 견디며, 분노가 부추길 때가 아니라 기회가 올 때 칩니다. 체육 경기의 가장 뛰어난 스승이던 피로스는 자기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늘 일렀다고 합니다. 분노는 기술을 흐트러뜨리고, 어떻게 해칠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참으라고 권하고 분노는 앙갚음하라고 권할 때가 많고, 처음의 불행으로 끝낼 수 있었던 우리가 더 큰 불행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의 모욕(contumelia)을 담담하게 견디지 못해 추방당했습니다. 가벼운 불의를 잠자코 견디려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불행에 짓눌렸고, 더없이 넉넉한 자유에서 조금 덜어 내는 것에 분개하던 사람들이 제 목에 노예의 멍에를 끌어다 씌웠습니다.

15 "분노에 무언가 고결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면, 게르만족과 스키타이인처럼 가장 성마른 민족들이 자유로운 민족이라는 것을 보라."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본디 굳세고 단단한 기질은 훈련으로 누그러지기 전에는 분노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더 나은 기질에서만 자라납니다. 땅이 아무리 버려져 있어도 기름지면 억센

나무를 키우고, 비옥한 땅의 숲이 높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디 굳센 기질은 성마름을 낳고, 불같고 뜨거운 기질은 가늘고 하찮은 것을 하나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 없이 오직 자연의 혜택만으로 솟아나는 모든 것이 그렇듯 그 기운은 덜 다듬어져 있고, 서둘러 길들이지 않으면 용기에 걸맞던 것이 대담함과 무모함에 길들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온순한 마음에는 연민과 사랑과 수줍음 같은 더 부드러운 악덕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바탕을 그 사람의 결점으로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성의 표시라고 해서 악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나워서 자유로운 이 모든 민족은 사자나 늑대처럼 남을 섬기지 못하는 만큼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사람다운 기질의 힘이 아니라 사납고 다룰 수 없는 기질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은 대개 날씨가 온화한 곳에 사는 민족들 손에 있었습니다. 추운 북쪽으로 기운 곳에 사는 이들은 시인의 말처럼 기질이 "길들지 않았고"

"제 하늘을 꼭 닮았다."[10]

16 "가장 고결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은 분노가 많은 짐승이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이성 대신 충동을 지닌 것들을 사람의 본보기로 끌어오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충동 대신 이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짐승들에게도 같은 것이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자에게는 성마름이, 사슴에게는 겁이, 매에게는 덮치는 기세가, 비둘기에게는 달아남이 도움이 됩니다. 더구나 가장 좋은 짐승이 가장 성마르다는 말부터가 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탈로 먹고사는 들짐승이라면 성날수록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멍에를 메는 소와 고삐를 따르는 말의 참을성을 칭찬하겠습니다. 모든 생명 가운데 사람만이 신을 알아보는 것은 사람만이 신을 본받게 하려는

것인데, 우주와 신을 두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그토록 불행한 본보기들에게로 돌려보내십니까? "성마른 사람이 가장 순박하다고들 한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속이 검고 교활한 자들과 견주니 순박해 보이는 것이고, 속이 다 드러나 있으니 순박해 보일 뿐입니다. 저라면 그들을 순박하다 하지 않고 조심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 방탕한 자, 낭비꾼, 그리고 영리하지 못한 모든 악덕에 이 이름을 붙입니다.

17 "웅변가는 화가 났을 때 더 잘할 때가 있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아니, 화난 척할 때 그렇습니다. 배우들도 대사를 읊을 때 화가 나서가 아니라 화난 사람을 잘 연기해서 관객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재판관 앞에서든 민회에서든, 남의 마음을 우리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는 남에게 분노나 두려움이나 연민을 불어넣으려고 몸소 그런 척할 것입니다. 참된 격정이 이루지 못했을 일을 격정의 흉내가 이루어 낸 적도 많습니다.

"분노가 없는 마음은 무기력하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분노보다 더 힘센 것이 그 마음에 없다면 맞는 말입니다. 강도가 되어서도 먹잇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연민에 빠진 사람이 되어서도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니, 앞의 마음은 너무 무르고 뒤의 마음은 너무 모질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절제된 사람이어야 하고, 일을 굳세게 해내야 할 때는 분노가 아니라 힘을 써야 합니다.

18 분노를 두고 따질 것은 다 다루었으니, 이제 분노를 고치는 약으로 넘어갑시다. 제 생각에 약은 두 가지입니다. 분노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분노 속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돌볼 때 건강을 지키는 법과 건강을 되찾는 법이 따로 있듯이, 분노도 물리치는 법과 다스리는 법이 따로 있어야 하고, 분노를 피하려면 삶 전체에 걸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육과 그 뒤의 시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는 가장 큰 정성이 필요하고, 그 정성은 가장 큰 보람을 안겨 줄 것입니다. 아직 여린 마음은 바로잡기 쉽지만, 우리와 함께 자란 악덕은 잘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9 뜨거운 마음의 본성이 성마름에 가장 잘 빠집니다. 원소는 불, 물, 공기, 흙 넷이고, 그에 맞는 성질도 뜨거움, 차가움, 마름, 젖음 넷입니다. 장소와 동물과 몸과 성품이 저마다 다른 것은 원소들이 섞인 비율 때문이고, 어느 원소의 힘이 더 넘치느냐에 따라 기질도 그쪽으로 더 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방을 습하다, 건조하다, 덥다, 춥다고 부릅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도 같습니다. 저마다 습한 것과 뜨거운 것을 얼마나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원소의 몫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성품이 정해집니다. 뜨거운 마음의 본성은 성마른 사람을 만듭니다. 불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것이 섞이면 겁 많은 사람이 됩니다. 추위는 굼뜨고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아학파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분노가 심장 둘레에서 피가 끓어올라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하필 가슴을 분노의 자리로 정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몸에서 가슴이 가장 뜨겁기 때문입니다. 습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은 분노가 서서히 자랍니다. 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움직여야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여자의 분노는 무겁기보다 날카롭고, 시작할 때는 가볍습니다. 메마른 나이에는 분노가 거세고 억세지만, 더 자라지 않고 크게 불어나지도 않습니다. 기울어 가는 열을 추위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까다롭고 투덜거립니다. 병자와 회복기의 환자, 그리고 피로하거나 피를 많이 흘려 열이 바닥난 사람들도 그렇고, 목마름과 굶주림에 여윈 사람, 핏기 없는 몸에 영양이 모자라 기운이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분노에 불을 붙입니다. 열을 돋우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본성에 따라 어떤 이는 거나하게 취했을 때, 어떤 이는 살짝 취했을 때 끓어오릅니다. 금발에 붉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가장 성마른 것도 다른 까닭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띠는 빛깔을 본디 지니고 있으니, 피가 잘 움직이고 들끓기 때문입니다.

20 그런데 본성이 어떤 사람들을 분노로 기울게 하듯이, 본성과 같은 힘을 내는 까닭도 많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병이나 몸의 상처 때문에, 어떤 이는 고된 일이나 끝없이 이어지는 밤샘, 근심 어린 밤,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몸이나 마음을 해친 것은 무엇이든 병든 정신을 불평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시작이요 까닭일 뿐입니다. 가장 큰 힘을 쓰는 것은 습관이고, 습관이 무거우면 악덕을 키웁니다. 본성을 바꾸기는 어렵고, 태어날 때 한번 섞인 원소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뜨거운 기질의 사람에게서는 포도주를 거두어야 합니다. 플라톤도 아이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말라고 하며, 불로 불을 돋우지 말라고 합니다[11]. 음식을 가득 먹여서도 안 됩니다. 몸이 부풀면 마음도 몸과 함께 부어오를 것입니다. 지치지 않을 만큼 일을 시켜서, 열이 바닥나지 않고 줄어들기만 하게 하고, 지나친 끓어오름이 거품처럼 걷히게 해야 합니다. 놀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맞은 즐거움은 마음을 풀어 주고 고르게 해 줍니다. 더 습하고 더 메마르고 차가운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위험이 없지만, 더 굼뜬 악덕, 곧 겁과 까다로움과 절망과 의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기질은 부드럽게 달래고 따뜻하게 보살피며 즐거움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분노에 맞서는 약을, 어떤 이에게는 슬픔에 맞서는 약을 써야 하고, 이 둘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반대의 약으로 다스려야 하니, 우리는 언제나 더 커진 쪽에 맞서야 합니다.

21 거듭 말하지만, 아이들을 처음부터 건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끄는 일은 어렵습니다. 아이들 안에서 분노를 키우지도, 타고난 바탕을 무디게 하지도 않도록 애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북돋아야 할 것과 눌러야 할 것이 비슷한 것을 먹고 자라고, 비슷한 것은 주의 깊은 사람마저 쉽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기세(spiritus)는 풀어 주면 자라고 억누르면 쪼그라듭니다. 칭찬받고 스스로에게 좋은 기대를 품게 되면 일어서지만, 바로 그것이 오만과 성마름도 낳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이 둘 사이에서, 때로는 고삐를 쓰고 때로는 박차를 쓰며 이끌어야 합니다. 아이가 비굴하거나 노예 같은 일은 하나도 겪지 않게 하고, 애원해야 할 일이 결코 없게 하며, 애원해서 득을 보는 일도 없게 하십시오. 차라리 아이 자신의 까닭과 지난 행실과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을 보아 들어주십시오. 또래와 겨룰 때는 지게 두지도 화를 내게 두지도 말고, 늘 겨루는 상대와 친하게 지내도록 애써서, 겨룰 때 해치려 하지 않고 이기려 하는 데 익숙해지게 합시다. 이기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때마다 기를 펴게 하되 우쭐대게 두지는 맙시다. 기쁨 뒤에는 들뜸이, 들뜸 뒤에는 부풀어 오름과 지나친 자부심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숨 돌릴 틈은 주되 게으름과 빈둥거림으로 풀어지게 하지는 않고 사치와 맞닿지 않게 멀리 떼어 놓을 것이니, 무르고 응석을 받아 주는 교육만큼 사람을 성마르게 만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은 응석을 받아 줄수록, 고아는 제멋대로 하게 둘수록 마음이 더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아이, 늘 애태우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아 준 아이, 돌보는 노예를 두고 투정할 때마다 편을 들어 준 아이는 언짢은 일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처지가 클수록 분노도 커지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부자와 귀족과 관리들에게서 특히 그것이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있던 가볍고 헛된 것이 순풍을 타고 높이 들릴 때 말입니다.

행운은 성마름을 키웁니다. 아첨꾼 무리가 교만한 귀를 에워쌀 때 그렇습니다. "저자가 감히 나리께 말대꾸를 합니까? 나리께서는 나리의 지위만큼 자신을 높이 헤아리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단단히 자리 잡은 건전한 정신도 이런 말들에는 좀처럼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은 아첨에서 멀리 떼어 놓아야 합니다. 아이는 참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늘 공경하며, 어른이 오면 일어서야 합니다. 성마름으로는 아무것도 얻어 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울 때 거절한 것은 잠잠해졌을 때 내어 주십시오. 부모의 재산은 눈으로 보게 하되 쓰게 하지는 마십시오. 잘못한 일은 나무라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차분한 스승과 돌보는 노예를 붙여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린 것은 무엇이든 가까이 있는 것에 들러붙어 그것을 닮아 자랍니다. 젊은이들의 성품은 곧 유모와 돌보는 노예의 성품을 그대로 옮겨 보여 줍니다. 플라톤 밑에서 자란 한 아이가 부모에게 돌아가 아버지가 고함치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플라톤 선생님 댁에서는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플라톤보다 아버지를 더 빨리 닮았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먹을 것은 소박하고 옷은 값비싸지 않으며, 차림새는 또래와 같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여럿과 대등하게 키운 아이는 누가 자기와 견주어져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해당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의 경우 태어난 처지와 받은 교육은 이미 지나간 일이어서, 이제는 잘못을 저지를 여지도 가르침을 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그 뒤의 일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원인과 싸워야 하는데, 성마름의 원인은 불의를 당했다는 생각이니 그런 생각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뻔하고 분명해 보이는 일에도 곧바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인데도 참의 모습을 띤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세월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헐뜯는 자들에게 쉽게 귀를 열지 맙시다.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일수록 기꺼이 믿고 판단하기도 전에 화를 내니, 사람의 본성에 있는 이 악덕을 알고 경계합시다. 게다가 우리는 헐뜯는 말뿐 아니라 의심에도 떠밀려, 남의 얼굴빛이나 웃음을 나쁘게 해석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리에 없는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상대로 변론해야 하고, 분노는 미결 상태로 붙들어 두어야 합니다. 미룬 벌은 언제든 내릴 수 있지만, 내린 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3 저 참주 살해자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지 못하고 붙잡혀 히피아스[12]에게 공범을 대라고 고문을 받자, 둘러선 참주의 벗들, 참주의 안위를 누구보다 아끼는 줄 아는 이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히피아스가 이름이 불린 자들을 하나씩 죽이라고 명한 뒤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고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뿐이오. 그대를 아끼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소." 분노 때문에 참주는 참주 살해자에게 제 손을 빌려주고, 제 칼로 제 호위를 베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얼마나 더 담대했습니까! 그는 어머니의 편지에서 의사 필리포스[13]의 독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읽고도, 겁내지 않고 건네받은 약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기 벗을 두고 자기가 내린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그는 결백한 벗을 둘 자격이 있었고, 벗을 결백하게 만들 자격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렉산드로스의 이 일을 더욱 칭찬하는 것은 그만큼 분노에 휘둘린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에게서 절도가 드물수록 더 칭찬해야 합니다. 내전에서 이기고 그 승리에 더없는 관용을 베푼 저 카이사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중립이었거나 반대편에 섰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14]에게 보낸 편지 상자를 손에 넣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절도

있게 화를 냈지만, 아예 화낼 수 없는 쪽을 택했습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고마운 용서라고 생각했습니다.

24 남의 말을 쉽게 믿는 것이 가장 큰 화를 부릅니다. 아예 듣지 말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일에서는 의심하느니 속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짐작은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둘 다 사람을 가장 잘 속이는 자극입니다. "저 사람은 내게 인사를 퉁명스럽게 했고, 저 사람은 내 입맞춤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저 사람은 내가 꺼낸 이야기를 금방 끊었고, 저 사람은 나를 저녁 식사에 부르지 않았고, 저 사람은 얼굴을 돌리는 것 같았다." 의심에는 늘 그럴듯한 근거가 따라붙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함과 너그러운 눈으로 일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들이닥쳐 분명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맙시다. 우리 의심이 헛된 것으로 드러날 때마다 쉽게 믿은 자신을 나무랍시다. 이렇게 꾸짖다 보면 쉽게 믿지 않는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25 여기서 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일에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 아이가 굼뜨다, 마실 물이 미지근하다, 침상이 흐트러졌다, 식탁을 아무렇게나 차렸다, 이런 일에 들끓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가벼운 바람에도 움츠러드는 사람은 병들고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고, 흰옷에 눈이 부신 사람은 눈병이 난 사람이며, 남이 일하는 것을 보고 옆구리가 결리는 사람은 사치에 늘어진 사람입니다. 시바리스 사람 민디리데스[15]는 누가 땅을 파며 괭이를 높이 쳐드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지친다고 투덜거리며 제 앞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장미 꽃잎이 겹쳐진 자리에 누웠더니 몸이 언짢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쾌락이 마음과 몸을 함께 망쳐 놓으면 견딜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일이 고되어서가 아니라 견디는 사람이 물러서입니다. 누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파리를 제대로 쫓지 못하거나, 개가 앞을 얼쩡거리거나, 부주의한 노예의 손에서 열쇠가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해서 미쳐 날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의자를 끄는 삐걱 소리에도 귀가 거슬리는 사람이 나랏일을 하며 듣는 욕설과 민회나 원로원에서 쏟아지는 비방을 담담하게 견디겠습니까? 눈을 녹여 술을 차게 하는 일을 잘못했다고 노예 아이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굶주림과 여름 원정길의 목마름을 견디겠습니까? 절제할 줄도 참을 줄도 모르는 사치만큼 성마름을 키우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거칠게 다루어, 무거운 일격이 아니면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6 우리는 우리에게 불의를 저지를 수조차 없는 것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앞의 것 가운데 어떤 것은 감각도 없으니, 글씨가 너무 잘다고 몇 번이나 내던지고 오자가 많다고 찢어 버린 책이 그렇고, 마음에 안 든다고 찢은 옷이 그렇습니다. 우리 분노를 받을 까닭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화를 내다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비위를 거스른 것이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것을 가리기도 전에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그 장인들도 아마 정당한 변명을 내놓을 것입니다. 누구는 그보다 잘 만들 수 없었던 것이고, 남을 모욕하려고 일부러 덜 배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남의 비위를 거스르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사람에게 쌓인 울화를 물건에 쏟아붓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생명 없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이 미친 짓이듯, 뜻을 세울 수 없어 우리에게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는 말 못 하는 짐승에게 화를 내는 것도 미친 짓입니다. 의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 짐승은 쇠나 돌처럼 우리를 해칠 수는 있어도 불의를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이 어떤 기수에게는 순순히 따르고 자기에게는 고집을 부리면 업신여김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더 잘 따르는

것이 길들이고 다루는 솜씨 때문이 아니라 판단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에 화를 내는 것이 어리석듯, 아이들과 아이보다 별로 나을 것 없는 분별을 지닌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공정한 재판관 앞에서는 이런 잘못에서 모두 분별없음이 결백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27 해칠 수 없고 이롭고 살리는 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불멸의 신들이 그렇습니다. 신들은 해치려 하지도 않고 해칠 수도 없습니다. 신들의 본성은 온화하고 평온해서, 남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일과도 자기가 불의를 당하는 일과도 똑같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고 진실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해치고 돕는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를 겨냥하지 않는데도, 바다가 사나운 것, 비가 지나치게 오는 것, 겨울이 끈질긴 것을 신들 탓으로 돌립니다. 우주가 겨울과 여름을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에게는 저마다의 법칙이 있고, 신의 일은 그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토록 큰 것들이 우리 때문에 움직인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이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에게 불의를 저지르려고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일어납니다. 앞에서 해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해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치려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좋은 관리와 부모와 스승과 재판관이 있으니, 그들의 꾸짖음은 수술칼이나 단식처럼, 괴롭지만 이롭게 될 다른 처방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겪는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도 떠올리고, 우리 삶을 심리하는 배심원 자리에 우리 자신을 앉혀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에게 매길 벌을 더 무겁게 매길 것입니다.

28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 허물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시다. 가장 큰 분개는 바로 여기서 생겨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훈계나 처벌을 받으면 분개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못된 짓에 오만과 고집까지 보태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모든 법 앞에 결백하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설령 그렇다 해도, 법에 비추어 선하다는 것은 얼마나 좁은 결백입니까! 의무의 범위는 법의 잣대보다 얼마나 더 넓습니까! 효심과 인정과 너그러움과 정의와 신의가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많으며, 그것은 모두 나라의 법전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좁은 결백의 기준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일은 저질렀고, 어떤 일은 꾀했고, 어떤 일은 바랐고, 어떤 일은 부추겼습니다. 어떤 일에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백할 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꾸짖는 사람들의 말을 믿읍시다. 적어도 선한 사람들에게는 화내지 맙시다. 선한 사람에게도 화를 낸다면 누구에겐들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신들에게는 더더구나 화내지 맙시다. 우리가 겪는 불편은 무엇이든 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존재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과 고통이 덮친다." 썩어 가는 집을 제비뽑아 받은 이상, 무언가는 치러야 합니다. 누가 험담을 했다는 말이 들려오거든, 자기가 먼저 그러지 않았는지, 자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입에 올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이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되갚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억지로, 어떤 이들은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알고 일부러 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불의를 저질러 그 불의 자체를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치를 부리는 재미에 미끄러졌거나, 우리를

해치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는 제 목적을 이룰 수 없어서 무언가를 했을 것입니다. 아첨도 비위를 맞추다가 비위를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주 억울한 의심을 받았는지, 운이 자기의 친절에 얼마나 자주 불의의 탈을 씌웠는지,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는 사람은 곧바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슬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나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 하고 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공정한 재판관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남의 아내라면 누구든 탐내고 남의 아내라는 것만으로 사랑할 까닭이 넉넉하다고 여기는 자가 제 아내는 남이 쳐다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신의를 가장 엄하게 따지는 자가 배신자이고, 거짓말을 뒤쫓는 자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이며, 무고를 일삼는 자가 자기에게 소송이 걸리는 것을 가장 못 견딥니다. 제 정절은 아끼지 않은 자가 어린 노예들의 정절이 위협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남의 악덕은 눈앞에 두고, 제 악덕은 등 뒤에 둡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더 못된 아버지가 아들이 이른 시간부터 벌이는 술잔치를 꾸짖고, 제 사치는 무엇 하나 마다하지 않은 자가 남의 사치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며, 참주가 살인자에게 화를 내고, 신전 도둑이 도둑질을 벌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잘못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본다면 더 절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짓을 저지른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도 그렇게 헤매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단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가?"

29 분노를 고치는 가장 큰 약은 미루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분노에게 이것을 요구하십시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처음 덤벼드는 기세가 거세지만, 기다리면 그칠 것입니다. 분노를 한꺼번에 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뜯어내다 보면 전부 이길 것입니다. 우리 비위를 거스르는 일 가운데 어떤 것은 남이 전해

주고, 어떤 것은 우리가 직접 듣거나 봅니다. 전해 들은 일은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남을 속이려고, 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며, 어떤 자는 남을 헐뜯어 환심을 사려 하고 불의가 저질러진 것에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불의를 지어냅니다. 어떤 자는 심술궂어서 굳게 맺어진 우정을 갈라놓으려 합니다. 어떤 자는 의심이 많은 데다 구경거리를 즐기려 해서, 자기가 맞붙여 놓은 사람들을 멀리 안전한 곳에서 지켜봅니다. 아주 작은 액수를 두고 재판을 하신다 해도, 증인 없이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맹세하지 않은 증인의 말은 효력이 없을 것이며, 양쪽 모두에게 변론할 기회와 시간을 주고, 한 번만 듣고 말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여러 번 손에 들어올수록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벗을 당장 들은 말만으로 단죄하시겠습니까? 그의 말을 듣기도 전에, 물어보기도 전에, 그가 자기를 고발한 사람도 죄목도 알 수 있기도 전에 화를 내시겠습니까? 벌써, 정말 벌써 양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 일을 일러 준 사람도, 증명해야 한다면 말을 그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끌어낼 생각은 마시오. 끌려 나가면 나는 부인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그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그는 부추기면서 동시에 자기는 다툼과 싸움에서 빠져나갑니다. 몰래가 아니면 말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몰래 믿고 드러내 놓고 화내는 것보다 더 불공정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0 어떤 일은 우리가 직접 목격합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한 사람의 본성과 의도를 따져 봅시다. 아이입니까? 나이를 보아 용서합시다. 아이는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입니까? 그동안 베푼 은혜가 커서 불의를 저지를 권리마저 있거나, 어쩌면 우리 비위를 거스르는 바로 그 일이 그의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여자입니까? 그저

헤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았습니까? 불공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필연에 성을 내겠습니까? 해를 입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먼저 한 짓을 당하는 것은 불의가 아닙니다. 재판관입니까? 자기 판단보다 그의 판결을 더 믿으십시오. 왕입니까? 죄 있는 자를 벌한다면 정의에 굽히고, 죄 없는 자를 벌한다면 운에 굽히십시오. 말 못 하는 짐승입니까, 아니면 짐승과 다름없는 자입니까? 화를 낸다면 그것을 흉내 내는 셈입니다. 병이나 재앙입니까? 견디는 사람은 더 가볍게 넘어갈 것입니다. 신입니까? 신에게 화를 내는 것은 신이 남에게 화를 내 달라고 비는 것만큼이나 헛수고입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믿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갚아야 할 벌을 다른 사람에게 치를 것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벌을 치렀습니다.

31 앞서 말했듯이 성마름을 부추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의를 당했다고 여겨질 때인데, 이것은 충분히 말했습니다. 둘째는 부당하게 당했다고 여겨질 때인데, 이제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은 당해서는 안 되었다는 까닭으로, 어떤 일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까닭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뜻밖의 일을 억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대한 것과 어긋나게 일어난 일이 가장 마음을 흔들고, 집안에서는 아주 작은 일에도 언짢아하고, 벗에게서는 소홀함도 불의라고 부르는 것도 다른 까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이 저지르는 불의에는 왜 마음이 흔들리는가?"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런 불의를 예상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그만큼 클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원수에게조차 다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누구나 속에 왕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자기는 제멋대로 해도 되기를 바라면서 남이 자기에게 그러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마르게 만드는 것은

무지 아니면 오만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무엇이 놀랍습니까? 원수가 해치고, 벗이 언짢게 하고, 아들이 미끄러지고, 노예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무엇이 새롭습니까? 파비우스[16]는 장군에게 가장 부끄러운 변명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부끄러운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고 기다리십시오. 좋은 성품에도 무언가 거친 것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음흉한 마음도, 은혜를 모르는 마음도, 탐욕스러운 마음도, 불경한 마음도 낳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을 판단할 때는 사람들 전체의 성품을 생각하십시오. 가장 기쁠 때 가장 두려워하십시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일 때도 해로운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거슬리는 일이 언제든 생길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키잡이는 아무리 마음을 놓아도 돛을 활짝 다 펴는 법이 없고, 언제든 거둘 수 있도록 밧줄을 갖추어 둡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해치려는 힘은 추하고 저주스러우며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입으면 사나운 것들도 길이 듭니다. 멍에에 목을 숙인 코끼리, 아이들과 여자들이 등에 올라 뛰놀아도 탈이 없는 황소, 술잔 사이와 품속을 해 없이 기어 다니는 뱀, 집 안에서 다루는 사람에게 순하게 입을 내맡기는 곰과 사자, 주인에게 아양 떠는 짐승을 보십시오. 짐승과 성품을 맞바꾼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조국을 해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니 시민을 해치는 것도 죄입니다. 시민은 조국의 일부이고, 전체가 존엄하다면 그 부분들도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해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은 더 큰 도시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발을, 눈이 손을 해치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한마음인 것은 지체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전체에 이롭기 때문이듯, 사람도 서로를 아낄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도록 태어났고, 사회는 그

부분들을 지키고 아끼지 않으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사나 물뱀처럼 물거나 쏘아서 해를 끼치는 것들도, 앞으로 길들이거나 우리와 남에게 위험하지 않게 만들 수만 있다면 때려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도,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도록 해를 가할 것이며, 벌은 결코 지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을 바라볼 것입니다. 벌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지고 해로운 기질을 지닌 사람을 모두 벌해야 한다면, 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32 "그러나 분노에는 무언가 쾌락이 있다. 고통을 되갚는 것은 달콤하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갚는 것이 훌륭하지만, 불의를 불의로 갚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에서는 지는 것이 부끄럽고, 불의에서는 이기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복수는 사람답지 않은 말인데도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고통을 되돌려주는 사람은 순서 말고는 처음 고통을 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잘못을 저지를 뿐입니다. 마르쿠스 카토[17]가 목욕탕에 있을 때, 누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심코 때렸습니다. 알면서 누가 그에게 불의를 저질렀겠습니까? 뒤에 그 사람이 사과하자 카토는 말했습니다. "맞은 기억이 없소." 그는 복수하기보다 모른 척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무례하게 군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인가?" 하고 형님은 말씀하시겠지요. 아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카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불의를 업신여기는 것은 큰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앙갚음할 가치도 없는 자로 보이는 것이 가장 모욕적인 복수입니다. 가벼운 불의를 앙갚음하다가 오히려 더 깊이 새긴 사람이 많지만, 작은 개들이 짖어 대는 소리를 큰 짐승처럼 태연히 듣고 넘기는 사람은 크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33 "불의를 앙갚음하면 업신여김을 덜 받을 것이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치료하러 가듯 앙갚음하러 간다면, 분노 없이 가야 합니다. 앙갚음이 달콤해서가 아니라 쓸모 있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앙갚음하기보다 모른 척하는 편이 나았던 적이 많습니다. 힘센 자들의 불의는 참을성 있게 견딜 뿐 아니라 밝은 얼굴로 견뎌야 합니다. 자기가 불의를 저질렀다고 믿으면 그들은 또 저지를 것입니다. 큰 운에 오만해진 자들에게는 이런 가장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친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왕들을 섬기며 늙은 어느 사람의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누가 그에게 궁정에서 가장 드문 것, 곧 늙도록 사는 일을 어떻게 이루었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불의를 당하고 감사하면서." 불의를 앙갚음하는 것이 이롭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의를 당했다고 인정하는 것조차 이롭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칼리굴라[18]는 명망 있는 로마 기사 파스토르의 아들이 멋을 부리고 머리를 너무 공들여 다듬은 것이 거슬려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빌자, 칼리굴라는 그 말에 처형을 떠올리기라도 한 듯 곧바로 아들을 끌어내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에게까지 모든 일을 몰인정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그날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파스토르는 조금도 원망하는 기색 없는 얼굴로 왔습니다. 칼리굴라는 그에게 술 한 사발을 권하며 건배하고 감시꾼을 붙였습니다. 가엾은 아버지는 아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이 그 잔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칼리굴라가 향유와 화관을 보내며 그가 받는지 지켜보라고 명하자, 그는 받았습니다. 아들을 묻은 그날, 아니 묻지도 못한 그날, 통풍을 앓는 노인은 백 명의 손님 가운데 하나로 식탁에 기대 누워, 자식의 생일에도 차마 마시기 민망할 만큼의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어떤 몸짓으로도 슬픔이 터져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마치 아들의 목숨을 빌어 얻어 낸 사람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물으십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 프리아모스,[19]는 어떻습니까? 그도 분노를 감추고 왕의 무릎을 끌어안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피에 젖은 그 죽음의 손을 제 입술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향유도 화관도 없이 그렇게 했고, 더없이 사나운 적은 많은 위로의 말로 그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했을 뿐, 머리 위에 감시꾼을 세워 놓고 커다란 잔을 비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로마인 아버지가 자기 목숨이 두려워 그랬다면 저는 그를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를 누른 것은 남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잔치 자리를 떠나 아들의 뼈를 거두러 가도록 허락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친절하고 상냥한 그 젊은이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근심을 덜어 주겠다며 연거푸 건배를 들이밀어 노인을 괴롭혔습니다. 노인은 그와 반대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은 듯 즐거운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손님이 망나니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다른 아들마저 죽었을 것입니다.

34 그러므로 맞서야 할 상대가 대등하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분노를 삼가야 합니다. 대등한 사람과 다투는 것은 결과를 알 수 없고, 윗사람과 다투는 것은 미친 짓이며, 아랫사람과 다투는 것은 천한 짓입니다. 무는 자를 되무는 것은 하찮고 비참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니, 쥐와 개미도 손을 대면 입을 돌려 대고, 약한 것들은 건드리기만 해도 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언젠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일을 생각해 보면 더 온화해질 것이고, 그 공로가 잘못을 갚아 줄 것입니다. 관용으로 얻은 평판이 우리를 얼마나 돋보이게 할지, 용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쓸모 있는 벗으로 만들었는지도 떠올립시다. 원수와 적의 자식들에게 화내지 맙시다. 술라의 잔인함을 보여 주는 본보기 가운데 하나는 그가 살생부에 오른

사람들의 자식들을 공직에서 몰아낸 일입니다. 누군가를 아버지가 받던 미움의 상속자로 만드는 것보다 불공정한 일은 없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워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무자비한 것이 우리에게 이로울지 생각해 봅시다. 용서를 거절한 사람이 용서를 비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자기 발밑에서 쫓아낸 사람의 발밑에 엎드리는 일이 얼마나 잦습니까! 분노를 우정으로 바꾸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인민에게 한때 가장 끈질긴 적이었던 이들보다 더 충실한 동맹이 누구입니까? 앞날을 내다본 건전한 지혜가 정복당한 자들을 정복한 자들과 섞지 않았다면, 오늘날 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화를 내거든 반대로 은혜로 맞서십시오. 한쪽이 버려 두면 다툼은 곧 무너집니다. 양쪽이 맞서지 않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에서 분노가 겨루면 맞붙게 됩니다. 그때는 먼저 발을 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입니다. 누가 때렸습니까? 물러나십시오. 맞받아치면 상대에게 더 자주 칠 기회와 핑계를 주게 되고, 나중에 떨어져 나오고 싶어도 떨어져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35 상대를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손이 상처에 박혀 빠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찌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노가 바로 그런 무기입니다. 좀처럼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루기 쉬운 무기, 손에 맞고 잘 듣는 칼을 고릅니다. 그런데 이토록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마음의 충동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명령을 받으면 걸음을 멈추고, 정해진 데를 넘어 내닫지 않으며, 방향을 틀고 달리다가도 걸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빠르기라야 좋은 빠르기입니다. 우리 뜻을 거슬러 움직이는 힘줄은 병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걸으려는데 뛰게 되는 사람은 늙었거나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움직임도 우리 뜻대로 가고 제멋대로 휩쓸려 가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힘센 움직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분노가 얼마나 흉한지를, 다음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어떤 격정도 분노만큼 얼굴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분노는 더없이 아름다운 얼굴도 흉하게 만들고, 더없이 평온한 얼굴도 험상궂게 바꿉니다. 화난 사람에게서는 모든 품위가 떠납니다. 옷을 법도대로 단정히 걸쳤어도 옷자락을 질질 끌고 몸가짐을 내팽개치며, 타고났든 다듬었든 머리털이 보기 좋게 누워 있어도 마음과 함께 곤두섭니다. 핏줄이 부풀고, 가슴은 가쁜 숨에 들썩이고, 미친 듯 터져 나오는 고함에 목이 부풀며, 팔다리가 떨리고, 손이 가만있지 못하고, 온몸이 출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이토록 흉하다면 그 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속의 얼굴은 얼마나 더 끔찍하고, 숨은 얼마나 더 거칠며, 기세는 얼마나 더 팽팽해서, 터져 나오지 않으면 제풀에 터져 버릴 지경이겠습니까! 피에 젖었거나 살육하러 가는 적이나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인들이 지어낸 지옥의 괴물들, 뱀을 허리에 두르고 불길을 내뿜는 괴물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들 사이에 불화를 퍼뜨리며 평화를 찢으려고 저승에서 나오는 가장 끔찍한 여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노를 그런 모습으로 그려 봅시다. 눈은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쉭쉭거림과 울부짖음과 신음과 쇳소리, 그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까지 요란하게 내지르며, 두 손에 무기를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제 몸을 가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납고 피투성이에 흉터투성이이고, 제가 휘두른 매질에 시퍼렇게 멍들고, 걸음은 미쳐 날뛰며, 짙은 어둠에 휩싸인 채 덤벼들고, 짓부수고, 내쫓고, 모든 이의 미움에 시달리면서도 남을 해칠 수 없으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땅과 바다와 하늘을 뒤엎고 싶어 하며, 남을 해치는 만큼 남에게 미움받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원하신다면 우리 시인들이 그린 모습 그대로 그려도 좋습니다.

"오른손에 피 묻은 채찍을 휘두르는 벨로나"[20]

아니면

"찢긴 옷자락을 휘날리며 기뻐 날뛰는 불화의 여신"

아니면 이 끔찍한 격정에 어울리는 더 끔찍한 얼굴을 지어낼 수 있다면 그 얼굴이라도 좋습니다.

36 섹스티우스[21]의 말처럼,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들여다본 것이 도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바뀐 것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마치 현장으로 끌려온 것처럼 자기 모습을 보고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참된 흉함의 얼마나 작은 부분만 보여 주었겠습니까! 마음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마음이 어떤 물질을 통해 비쳐 보일 수 있다면, 시커멓고 얼룩덜룩하며 들끓고 일그러지고 부어오른 그 모습이 들여다보는 사람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뼈와 살과 그 숱한 장애물을 뚫고 흘러나오는 마음의 흉함이 이토록 큰데,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거울을 보고 분노를 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바꾸려고 거울 앞에 간 사람은 이미 바뀐 것입니다. 화난 사람들에게는 사납고 소름 끼치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고, 그들은 실제로 그런 모습이기를, 또 그렇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분노가 그 자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끓어오르다가 핏줄이 터졌고, 힘에 부치게 내지른 고함에 피를 토했으며, 눈으로 너무 세게 몰려든 체액이 눈을 흐리게 했고, 병자는 병이 도졌습니다. 광기에 이르는 데 이보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가 분노의 광란을 그대로 이어 가, 내쫓은 정신을 다시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아이아스[22]를 죽음으로 몬 것은 광란이었고, 광란으로 몬 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죽음을, 자기에게 가난을, 집안에 파멸을 빌면서도 화가 나지 않았다고 우기니, 미친 사람이 미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벗에게 원수가 되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사람이 되며, 해를 끼칠 때 말고는 법을 잊고, 아주 작은 일에도 흔들리며, 말로도 친절로도 다가가기 어렵고, 모든 일을 힘으로 처리하며, 칼을 들고 싸울 각오도 칼 위에 엎어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악, 모든 악덕을 넘어서는 악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다른 악덕은 조금씩 들어오지만, 분노의 힘은 한꺼번에 온통 들이닥칩니다. 분노는 결국 다른 모든 격정을 제 발아래 둡니다. 분노는 가장 뜨거운 사랑도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의 몸을 칼로 꿰뚫고, 자기가 죽인 이들의 품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분노는 가장 모질고 가장 굽힐 줄 모르는 악인 탐욕도 짓밟아, 재산을 흩뿌리게 하고 집과 한데 모은 재물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야심가가 높이 치던 관직의 표장을 내던지고 주어진 관직을 물리친 적이 없습니까? 분노가 다스리지 못하는 격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

1. 세네카의 형 마르쿠스 안나이우스 노바투스(뒷날의 갈리오).

2. 호민관 클로디우스는 기원전 58년 키케로를 추방했고,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43년 키케로를 살생부에 올려 죽였다.

3. 마리우스와 술라는 기원전 88~기원전 82년 내전에서 차례로 로마를 장악하고 정적들을 학살했다. 술라는 정적들의 이름을 살생부에 올려 죽이고 재산을 몰수했다.

4.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신하 테오도토스, 장군 아킬라스. 기원전 48년 카이사르에게 쫓겨 이집트로 피신한 폼페이우스를 죽였다. 왕은 그때 열서너 살이었다.

5. 아폴로도로스는 기원전 3세기 초 카산드레이아의 참주, 팔라리스는 기원전 6세기 시칠리아 아크라가스의 참주로, 둘 다 잔학하기로 이름났다. 팔라리스는 사람을 청동 황소 속에 넣어 구워 죽였다고 전한다.

6. 루키우스 발레리우스 메살라 볼레수스. 기원후 11년 무렵 아시아 총독을 지냈고, 학정으로 원로원의 단죄를 받았다.

7.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1.144~148. 사람이 타락한 철의 시대를 그린 대목이다.

8. 헤라클레이토스(기원전 500 무렵)는 에페소스의 철학자, 이어 나오는 데모크리토스(기원전 460 무렵~기원전 370 무렵)는 아브데라의 철학자다. 둘은 뒷날 우는 철학자와 웃는 철학자로 짝지어 이야기되었다.

9. 로마 기사이자 소극(마임) 작가 데키무스 라베리우스(기원전 105 무렵~기원전 43)의 대사. 카이사르의 독재를 빗댄 말로 받아들여졌다.

10. 어느 시인의 구절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앞 문단의 「길들지 않았고」와 이어진다.

11. 플라톤 『법률』 2권 666a. 열여덟 살이 되기 전에는 포도주를 맛보지 못하게 하라고 한다.

12. 아테네의 참주(재위 기원전 527~기원전 510). 전승에 따르면 이 참주 살해자는 기원전 514년 히피아스의 아우를 죽인 아리스토게이톤이다.

13. 아카르나니아 출신의 의사. 다른 전승에서는 경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장군 파르메니온이다.

14. 카이사르의 맞수 폼페이우스(기원전 106~기원전 48). 카이사르는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에서 그를 이긴 뒤 폼페이우스 진영에서 나온 편지를 읽지 않고 불태웠다고 전한다.

15. 남이탈리아의 그리스 도시 시바리스는 사치로 이름났고, 민디리데스는 그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사치꾼으로 전한다.

16.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지연자(쿵크타토르)」라 불린 장군.

17. 소(小)카토(기원전 95~기원전 46). 공화정을 지키려 카이사르에 맞섰고, 엄격한 성품으로 이름났다.

18. 황제 칼리굴라(재위 37~41). 원문은 「가이우스 카이사르」.

19. 트로이의 왕. 호메로스 『일리아스』 24권에서 그는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으려고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무릎을 끌어안고 그 손에 입을 맞추었고, 아킬레우스는 그에게 음식을 권했다.

20.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8.702~703. 악티움 해전을 새긴 방패 그림의 한 대목이다. 세네카는 두 행의 순서를 바꾸고 벨로나의 행을 고쳐 인용했다. 벨로나는 로마의 전쟁 여신이다.

21. 퀸투스 섹스티우스. 아우구스투스 때 로마에서 학파를 연 철학자로, 세네카가 존경한 인물이다.

22. 트로이 전쟁의 그리스 장수.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오디세우스에게 빼앗기자 분노로 미쳐 가축 떼를 적으로 알고 도륙했고, 제정신이 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분노에 관하여 제3권

1 노바투스[1] 형님, 형님께서 가장 바라시던 일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분노를 도려내거나, 적어도 고삐를 채워 그 기세를 붙드는 일입니다. 이 일은 때로는 드러내 놓고 공공연히 해야 합니다. 나쁜 기운이 아직 약해서 그렇게 해도 견딜 때입니다. 또 때로는 몰래 해야 합니다. 분노가 너무 달아올라 무엇이 가로막든 더 사나워지고 더 커질 때입니다. 분노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성한지에 따라, 맞받아쳐 뒤로 몰아내야 할지, 아니면 첫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비켜서서 분노가 약까지 휩쓸어 가지 않게 해야 할지가 갈립니다. 방도는 저마다의 성미에 맞춰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간청에 누그러지고, 어떤 이는 굽히고 들어가면 오히려 깔보며 더 몰아붙이며, 어떤 이는 겁을 주어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꾸지람이, 어떤 이는 잘못을 털어놓는 말이, 어떤 이는 부끄러움이 하던 짓을 그치게 했고, 어떤 이는 시간을 끄는 것이 그치게 했습니다. 시간 끌기는 이 곤두박질치는 악에 쓰기에는 느린 약이라 맨 마지막에야 손을 대야 합니다. 다른 격정(affectus)은 미루어 둘 수도 있고 천천히 고칠 수도 있지만, 이 격정은 스스로 부추기고 스스로 휩쓸려 가는 거센 힘이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순간 이미 다 자라 있습니다. 다른 악덕처럼 마음을 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째로 끌고 가, 제 몸도 가누지 못한 채 모두가 함께 망하더라도 해치고 싶어 하게 몰아대며, 겨냥한 것에만 날뛰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마주치는 것에까지 날뜁니다.

다른 악덕은 마음을 떠밀지만, 분노는 마음을 내리꽂습니다. 제 격정에 맞서 버틸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격정이 멈춰 서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벼락이나 폭풍처럼, 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까닭에 되돌릴 수 없는 그 밖의 것들처럼, 갈수록 더 세게 힘을 몰아붙입니다. 다른 악덕은 이성에서 벗어나지만, 이 악덕은 온전한 정신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악덕은 슬며시 다가와 모르는 사이에 자라지만, 분노에는 마음이 곤두박질쳐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몰아치는 것은 없습니다. 분노는 얼이 빠진 채 제 힘을 믿고 앞으로 쏠리며, 뜻을 이루면 오만해지고 뜻이 꺾이면 미쳐 날뜁니다. 퇴짜를 맞고도 지쳐 물러나지 않으며, 운이 상대를 빼돌리면 제 이빨을 제게로 돌립니다. 분노가 얼마나 큰 일에서 일어났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하찮은 일에서 시작해 가장 큰 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2 분노는 어떤 나이도 비켜 가지 않고, 어떤 부류의 사람도 빼놓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은 가난 덕분에 사치를 모르고, 어떤 민족은 늘 움직이며 떠돌아다니기에 게으름을 면했습니다. 풍습이 거칠고 시골 살림을 하는 민족은 속임수도 사기도, 포룸에서 생겨나는 온갖 악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노가 부추기지 않는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노는 그리스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똑같이 힘을 떨치며,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의 크기로 정의를 가르는 사람들 못지않게 해롭습니다. 게다가 다른 격정은 한 사람씩 사로잡지만, 이 격정만은 때때로 온 나라가 한꺼번에 품습니다. 온 백성이 한 여자를 사랑해 불타오른 적은 없고, 온 나라가 돈이나 이득에 희망을 건 적도 없습니다. 야심은 사람을 하나하나 따로 사로잡고, 제멋대로 날뛰는 마음은 온 나라의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 분노로 내달린 일은 많습니다. 사내와 여자, 늙은이와 아이, 지도자와 군중이 한마음이 되었고, 몇 마디 말에 들끓은 온 무리가 부추긴 사람보다 앞서

내달렸습니다. 곧바로 무기와 횃불을 들고 달려 나가, 이웃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같은 시민들과 싸웠습니다. 온 집안이 씨까지 불에 타 사라졌고, 조금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솜씨로 크게 존경받던 사람이 제 연설을 들은 군중의 분노를 뒤집어썼습니다. 군단이 제 사령관에게 창을 던졌고, 평민 전체가 원로원 의원들과 갈라섰습니다. 나라의 최고 회의인 원로원은 징병을 기다리지도, 사령관을 지명하지도 않고 제 분노를 이끌 장수를 서둘러 뽑았고, 도시의 집집을 뒤져 귀족들을 쫓아가 제 손으로 처형했습니다. 사절이 능욕당하고 만민의 법이 짓밟혔으며, 입에 담지 못할 광란이 온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들끓는 민심이 가라앉을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함대를 띄워 급히 끌어모은 병사들을 실었습니다. 백성은 관습도 새점도 따르지 않고 분노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것이나 무기로 삼았고, 그러다 크나큰 참패로 무모한 분노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마구잡이로 전쟁에 뛰어드는 야만인들의 끝입니다. 변덕스러운 그들의 마음에 불의를 당했다는 인상이 박히면, 그들은 곧바로 내달려 원한이 이끄는 대로 무너지는 건물처럼 군단을 덮칩니다. 대열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조심성도 없이 제 위험을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얻어맞기를 즐기고, 칼날에 몸을 밀어붙이고, 창끝을 몸으로 밀어내며, 제 상처를 지나서 빠져나가기를 즐깁니다.

3 "그 힘이 크고 해롭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보여 달라." 하고 형님은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앞의 책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노를 변호하며 버티고 서서 분노를 우리에게서 도려내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는 덕의 박차이며, 분노를 빼앗기면 마음은 무기를 잃고 큰일을 꾀하는 데 굼뜨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가 얼마나 흉하고 사나운지 밝혀내야 합니다. 사람에게 미쳐 날뛰는 사람이 얼마나 괴물

같은지, 제 몸을 망치지 않고는 남을 망치지 못하면서 얼마나 거센 기세로 덤벼드는지, 가라앉히는 사람과 함께가 아니면 가라앉힐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끌어내리는지 눈앞에 보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폭풍에 휩쓸린 듯 제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가고, 미쳐 날뛰는 악의 종노릇을 하며, 복수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받아 내려고 마음과 손으로 한꺼번에 날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머지않아 잃고서 울게 될 것들의 사형 집행인이 되는 이 사람을 누가 온전하다고 부르겠습니까? 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그 숙고를 어지럽히는 이 격정을, 누가 덕의 조력자요 길동무로 붙여 주겠습니까? 병과 발작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힘은 덧없고 불길하며, 제게 해가 되는 쪽으로만 셉니다. 그러니 마치 분노를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제가 분노를 헐뜯으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름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분노에게 할 일을 맡기고, 분노를 쓸모 있는 것, 전쟁터에서도 일을 처리할 때도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하는 모든 일에서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것으로 여겨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는 이로우리라고 누구도 속지 않도록, 고삐 풀린 채 얼이 빠진 분노의 광기를 보여 주고, 분노에게 그 장비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고문대와 살을 조이는 밧줄, 노예 감옥과 십자가, 땅에 묻은 몸을 둘러싸고 타오르는 불, 시체까지 끌고 다니는 갈고리, 갖가지 사슬과 갖가지 형벌, 팔다리를 찢는 일, 이마에 찍는 낙인, 사나운 짐승들의 우리가 그것입니다. 이 도구들 한가운데 분노를 세워 두십시오. 무섭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이를 가는 분노는, 그것이 날뛰며 부리는 어떤 도구보다도 흉측합니다.

4 다른 점은 의심스럽다 해도, 적어도 어떤 격정도 분노보다 흉한 얼굴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의 책들에서 그 얼굴을 그려 보였습니다.

거칠고 사나우며, 피가 뒤로 빠져 달아나 하얗게 질렸다가, 온몸의 열기와 숨이 얼굴로 몰려 시뻘겋게 달아올라 피를 뒤집어쓴 것 같고, 핏줄은 부풀어 오르며, 눈은 이리저리 떨며 튀어나올 듯하다가 한곳에 꽂혀 박힌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군가를 씹어 먹고 싶어 서로 부딪치는 이빨 소리를 더하십시오. 멧돼지가 엄니를 갈아 날을 세우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손이 제 손을 꺾을 때 마디가 우두둑거리는 소리, 자꾸 두들기는 가슴, 가쁜 숨과 깊이 끌어올리는 신음, 휘청거리는 몸, 갑자기 외치는 소리에 섞인 알아듣지 못할 말, 떨리다가 이따금 꽉 다물리고 무언가 끔찍한 소리를 쉿쉿 내뱉는 입술을 더하십시오. 맹세코, 굶주림에 쫓기거나 창자에 쇠붙이가 박힌 짐승이라도, 반쯤 죽어 마지막으로 이빨을 박으려고 사냥꾼에게 덤벼들 때조차, 분노로 불타는 사람의 얼굴보다는 덜 흉측합니다. 자, 그가 내뱉는 소리와 위협을 들어 볼 틈이 있다면, 고문당하는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들어 보십시오!

분노가 무엇보다 먼저 제게 해를 끼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군들 분노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형님께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권세를 쥐고 분노를 휘두르며, 그것을 힘의 증거로 여기고, 언제든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운이 주는 큰 혜택으로 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 분노에 사로잡힌 포로는 권세 있는 사람은커녕 자유로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저마다 더 조심하고 스스로를 살피도록, 다른 마음의 악은 가장 못된 자들에게나 붙지만 성마름(iracundia)은 배운 사람들, 다른 점에서는 건전한 사람들에게까지 스며든다는 것을 일깨우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마름을 순박함의 표시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가장 사람 좋은 이가 가장 쉽게 성마름에 빠진다고 믿을 정도입니다.

5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누군가 묻습니다. 누구도 분노에서 안전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노는 본디 온화하고 차분한 사람까지 포악함과 난폭함으로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역병 앞에서는 튼튼한 몸도 부지런한 몸 관리도 소용이 없듯이(역병은 약한 몸과 튼튼한 몸을 가리지 않고 덮칩니다), 분노는 성미가 사나운 사람에게도, 차분하고 느긋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차분한 사람에게는 분노가 더 많이 바꿔 놓는 만큼 더 추하고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화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화를 그치는 것이며, 셋째는 남의 분노까지 고쳐 주는 것이니, 먼저 어떻게 하면 분노에 빠지지 않는지,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분노에서 벗어나는지, 끝으로 어떻게 하면 화난 사람을 붙들고 달래어 제정신으로 돌려놓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악덕을 모두 자주 눈앞에 떠올리고 분노를 제대로 값매겨 본다면 우리는 화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분노를 고발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분노가 저지르는 악을 샅샅이 캐내어 한가운데로 끌어내야 합니다. 분노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도록 가장 나쁜 것들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탐욕은 긁어모으고 쌓아 두어 더 나은 누군가가 쓰게라도 하지만, 분노는 탕진할 뿐이고 대가 없이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성마른 주인이 얼마나 많은 노예를 달아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화를 내다가 화가 난 까닭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분노는 아버지에게 애도를, 남편에게 이혼을, 정무관에게 미움을, 후보자에게 낙선을 가져왔습니다. 분노는 사치보다 나쁩니다. 사치는 제 쾌락을 누리지만, 분노는 남의 고통을 누립니다. 분노는 심술과 시기보다 더합니다. 심술과 시기는 남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만, 분노는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 합니다. 심술과 시기는 우연히 닥친 불행을 즐기지만, 분노는 운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해를 입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를 입히려 합니다. 반목보다 무거운 것은 없는데, 반목을 맺어 주는 것이 분노입니다. 전쟁보다 끔찍한 것은 없는데, 권세 있는 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곳이 전쟁입니다. 평민의 분노, 개인의 분노라 한들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전쟁일 뿐입니다. 게다가 곧 뒤따를 일들, 곧 손실과 음모와 서로 다투느라 끝없이 이어지는 불안은 제쳐 두더라도, 분노는 벌을 받아 내는 동안 스스로 벌을 받습니다. 분노는 사람의 본성을 저버립니다. 본성은 사랑을 권하지만 분노는 미움을 권하고, 본성은 이롭게 하라고 명하지만 분노는 해치라고 명합니다. 이것도 더하십시오. 분노는 자기를 지나치게 높이 치는 데서 나오는 분개라서 기세 좋아 보이지만, 실은 옹졸하고 좁습니다. 누구든 자기를 업신여겼다고 여기는 상대보다는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큰 마음, 자기를 참되게 값매기는 마음은 불의를 앙갚음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것에 맞은 화살은 튕겨 나오고 굳은 것을 치면 치는 사람이 아프듯이, 어떤 불의도 큰마음이 그것을 느끼게 하지 못합니다. 불의가 겨누는 큰마음보다 불의가 더 무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불의와 모욕을 튕겨 내는 것은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복수는 아팠다는 자백입니다. 불의에 허리가 굽는 마음은 큰마음이 아닙니다. 해를 끼친 사람은 해를 입은 사람보다 강하거나 약합니다. 약하다면 그 사람을 봐주시고, 강하다면 자신을 봐주십시오.

6 무슨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만큼 위대함을 확실히 보여 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주의 위쪽, 더 질서 있고 별들에 가까운 부분은 구름으로 뭉치지도, 폭풍으로 떠밀리지도, 회오리로 휘돌지도 않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소란이 없습니다. 벼락이 내리치는 것은 아래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높은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자리에 자리 잡고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발아래 누르며, 절도 있고 존경스럽고

가지런합니다. 이 가운데 무엇 하나 화난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원한에 몸을 내주고 미쳐 날뛰면서 맨 먼저 염치를 내던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격분에 휩싸여 누군가에게 덤벼들면서 제게 있던 존경받을 만한 것을 모조리 내팽개치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흥분한 사람에게 의무의 가짓수나 차례가 제대로 남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혀를 다스렸습니까? 누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붙들어 두었습니까? 고삐가 풀린 채 누가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데모크리토스의 저 이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사로이든 공적으로든 많은 일을, 또 우리 힘에 부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평정(tranquillitas)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2]. 많은 일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든 일이든 무언가에 걸려 마음을 분노로 몰아갈 언짢은 일이 생기지 않고 하루가 지나갈 만큼 운 좋은 날이 결코 없습니다. 북적이는 거리를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과 부딪치고, 어디서는 미끄러지고 어디서는 붙잡히고 어디서는 흙탕물을 뒤집어쓰듯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정처 없는 이 삶의 행로에도 많은 걸림돌과 많은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누구는 우리 희망을 저버리고, 누구는 미루고, 누구는 가로챕니다. 계획한 일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운은 누구에게도 이것저것 해 보는 사람의 뜻을 어디서나 들어줄 만큼 헌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획과 반대로 일이 풀린 사람은 사람에게도 일에도 참을성을 잃고, 아주 하찮은 까닭으로 어떤 때는 사람에게, 어떤 때는 일에, 어떤 때는 장소에, 어떤 때는 운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고요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리저리 휘둘려서도, 많은 일을 하느라, 또 힘에 부치게 탐낸 큰일을 하느라 지쳐서도 안 됩니다. 가벼운 짐은 어깨에 얹기도 쉽고 이쪽저쪽으로 옮겨 메어도 미끄러지지 않지만, 남의 손이 우리에게 지운 짐은 버티기도 힘들어서 결국 못 이기고 가까운 데 쏟아

버립니다. 짐을 진 채 서 있는 동안에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휘청거립니다.

7 나랏일에서도 집안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손쉽고 다루기 좋은 일은 하는 사람을 순순히 따라오지만, 하는 사람의 역량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은 쉽사리 몸을 내주지 않고, 붙잡았다 해도 일을 맡은 사람을 짓누르고 끌고 가다가, 이제 손에 쥐었다 싶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쉬운 일에 손대지 않고 손댄 일이 쉽기를 바라는 사람의 뜻은 번번이 헛일이 됩니다. 무슨 일을 꾀하실 때마다 자신과, 준비하는 일과, 그 일을 위해 갖춘 것을 함께 재어 보십시오. 마치지 못한 일을 뉘우치다 보면 사람이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이 뜨거운 기질인지, 차갑고 낮은 기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개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분노를 짜내고, 맥없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슬픔을 짜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작아서도, 너무 대담하고 무모해서도 안 됩니다. 희망은 가까운 데까지만 내보냅시다. 이루고 나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 놀랄 만한 일은 꾀하지 맙시다.

8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애씁시다. 우리는 그것을 견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없이 차분하고 너그러우며 조금도 안달하지 않고 까다롭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들의 성품을 닮게 마련입니다. 몸의 어떤 병이 닿는 사람에게 옮아가듯이, 마음도 제 악을 가까운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술꾼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물 타지 않은 포도주에 빠지게 했고, 음탕한 자들의 무리는 부싯돌에서 태어난 듯 굳센 사내까지 물러지게 했으며, 탐욕은 제 독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옮겼습니다. 덕은 거꾸로 같은 이치로 작용하여, 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드럽게 만듭니다. 몸에 이로운 고장과 맑은 공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마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나은 사람들 틈에서 지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는 짐승들도 우리와 함께 살면 길들고,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사람과 오래 한집에 살면 제 사나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거친 성질은 모두 무디어지고, 평온한 것들 사이에서 조금씩 잊혀 갑니다. 게다가 조용한 사람들과 사는 사람은 본보기를 보고 나아질 뿐 아니라, 화낼 까닭을 찾지 못하니 제 악덕을 부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마른 사람은 자기의 성마름을 건드릴 것 같은 사람은 모두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고 누군가 묻습니다. 갖가지 까닭으로 같은 짓을 할 사람은 많습니다. 오만한 자는 업신여김으로, 입이 건 자는 모욕으로, 버릇없는 자는 무례함으로, 시기하는 자는 심술로, 싸우기 좋아하는 자는 말다툼으로, 허풍쟁이와 거짓말쟁이는 헛소리로 비위를 건드릴 것입니다. 의심 많은 자에게 경계를 받고, 고집 센 자에게 지고, 까다로운 자에게 깔보이는 것도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꾸밈없고 너그럽고 절도 있는 사람들, 분노를 불러내지도 않고 분노를 받아 주는 사람들을 고르십시오. 고분고분하고 인정 많고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아첨에 이를 정도여서는 안 됩니다. 성마른 사람은 지나친 맞장구에도 비위가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벗 가운데에도 선한 사람이지만 화를 잘 내는 이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욕을 하는 것만큼 위험했습니다. 웅변가 카일리우스가 더없이 성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하는 말로는, 남다른 참을성을 지닌 한 피호민이 그와 함께 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쌍으로 묶인 처지라 붙어 있는 사람과 다툼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일리우스가 무슨 말을 하든 따르며 맞장구나 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일리우스는 맞장구치는 그를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뭐라도 반대 말을 좀 하게, 그래야 우리가 둘이지!"

그러나 상대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화가 났던 카일리우스도 맞설 상대가 없으니 금세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마르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차라리 우리 얼굴빛과 말을 따라 주는 사람들을 고릅시다. 물론 그들은 우리를 까다롭게 만들고, 뜻에 거슬리는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나쁜 버릇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악덕에 쉬는 틈과 고요를 주는 것은 이롭습니다. 본디 까다롭고 길들지 않은 사람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은 견딜 것입니다. 쓰다듬는 손에는 거칠고 험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토론이 길어지고 다툼이 거세질 때마다, 다툼이 힘을 얻기 전에 처음부터 버팁시다. 다툼은 스스로를 먹여 키우고, 빠져든 사람을 더 깊이 붙듭니다. 다툼에서 빠져나오기보다 처음부터 다툼을 삼가기가 더 쉽습니다.

9 성마른 사람은 너무 무거운 공부도 그만두거나, 적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된 일 사이에 두지 말고 즐거운 기예에 맡겨야 합니다. 시를 읽으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마음을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더 부드럽고 더 섬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리라로 마음의 동요(perturbatio)를 가라앉혔습니다. 뿔나팔과 나팔은 마음을 들쑤시고, 어떤 노래는 마음을 풀어 주는 달콤한 위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지러운 눈에는 푸른빛이 좋고, 약한 눈은 어떤 빛깔 앞에서는 편히 쉬지만 어떤 빛깔의 광채에는 부십니다. 그와 같이 즐거운 공부는 병든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포룸과 변론과 재판처럼 악덕을 덧나게 하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하고, 몸이 지치는 것도 똑같이 경계해야 합니다. 피로는 우리 안의 부드럽고 차분한 것을 모두 닳아 없애고 날카로운 것을 들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가 미덥지 못한 사람들은 큰일을 처리하러 나서기 전에 먹을 것으로 담즙을 다스립니다. 담즙을 가장 많이 들쑤시는 것이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피로가 열을 몸

한가운데로 몰아넣어 피를 해치고 지친 혈관 속에서 피의 흐름을 막기 때문이든, 여위고 약해진 몸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이든 말입니다. 어쨌든 병이나 나이에 지친 사람들이 더 성마른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도 같은 까닭으로 피해야 합니다. 마음을 거칠게 하고 불붙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이 싸움을 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도, 목마른 사람도, 무언가에 속이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기가 살짝 닿기만 해도, 나중에는 닿을 것 같기만 해도 아프듯이, 격정에 시달리는 마음은 아주 하찮은 일에도 언짢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사 한마디, 편지 한 통, 말 한마디, 물음 하나에도 시비를 겁니다. 병든 곳은 건드리면 반드시 아프다고 아우성칩니다.

10 그러니 나쁜 기운을 처음 느끼자마자 스스로를 고치고, 그때는 제 말에도 되도록 자유를 주지 말고 기세를 붙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격정이 막 일어날 때 알아채기는 쉽습니다. 병에는 앞서 오는 징후가 있습니다. 폭풍과 비가 오기 전에 그 낌새가 먼저 오듯이, 분노와 사랑과 마음을 뒤흔드는 그 밖의 모든 폭풍에도 미리 알리는 조짐이 있습니다. 간질로 쓰러지곤 하는 사람들은 손발 끝에서 열기가 빠져나가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힘줄이 떨리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머리가 빙빙 돌면 발작이 다가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쓰던 약으로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막습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아 정신을 앗아 가는 것을 물리치기도 하고, 찜질로 오한과 경련에 맞서기도 합니다. 약이 잘 듣지 않으면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데서 쓰러졌습니다. 자기 병을 알고 그 병이 기세를 펴기 전에 짓눌러 두는 것은 이롭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들쑤시는지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로 받는 모욕에, 어떤 사람은 일로 받는 모욕에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제 가문을, 저 사람은 제 용모를 건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가장

세련된 사람으로, 저 사람은 가장 학식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오만을, 저 사람은 고집을 참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노예 따위에게 화낼 가치도 없다고 여기고, 이 사람은 집 안에서는 포악하지만 밖에서는 온화합니다. 저 사람은 부탁을 받는 것을 불의라 여기고, 이 사람은 부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모욕이라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곳을 맞고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어느 곳이 약한지 알아야 그곳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다.

11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는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많은 불의는 그냥 지나가게 둡시다. 모르는 사람은 그 대부분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성마른 사람이 되기 싫으십니까? 캐묻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두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 캐묻는 사람, 은밀히 나눈 고약한 뒷말까지 파헤치는 사람은 스스로 제 마음을 들쑤십니다. 어떤 일은 풀이하기에 따라 불의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은 미루어 두고, 어떤 일은 웃어넘기고, 어떤 일은 너그러이 봐주어야 합니다. 분노는 갖가지로 에워싸 가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놀이와 농담으로 돌립시다. 소크라테스는 따귀를 맞고도, 사람들이 언제 투구를 쓰고 나서야 할지 모른다니 성가신 일이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의가 어떻게 저질러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견뎠느냐가 중요합니다. 운과 방종으로 부풀어 오른 참주들조차 몸에 밴 포악함을 억눌렀다는 것을 아는 마당에, 절도를 지키기가 왜 어려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테네의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그랬다고 전합니다.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잔인함을 두고 갖은 말을 퍼부었고, 그를 위해 손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나서며 이쪽저쪽에서 불을 지펴 부추겼지만, 그는 차분한 마음으로 견뎠고,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눈가리개를 한 사람이 와서 부딪쳤을 때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화가 나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12 사람들 대부분은 거짓을 의심하거나 하찮은 일을 부풀려 제 손으로 불평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오는 일도 잦지만, 우리가 분노에게 가는 일이 더 잦습니다. 분노는 결코 불러들여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닥쳐오더라도 물리쳐야 합니다. 누구도 스스로에게 "내가 화내는 이 일을 나도 저질렀거나 저지를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한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한 일만 따집니다. 그러나 살펴야 할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가 일부러 했는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억지로 했는지 속아서 했는지, 미움을 따랐는지 보상을 따랐는지, 제 뜻대로 했는지 남의 손을 거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의 나이도, 처지도 어느 정도 참작할 일이니, 견디고 참는 것이 인정이거나 이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상대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 봅시다. 지금 우리를 성마르게 만드는 것은 자기를 부당하게 높이 치는 마음, 그리고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서는 당하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도 스스로에게 말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에 가장 좋은 약은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 열기가 식고, 정신을 짓누르는 어둠이 가라앉거나 옅어집니다. 곤두박질치게 몰고 가던 일 가운데 어떤 것은 하루까지 갈 것도 없이 한 시간이면 누그러지고, 어떤 것은 아예 사라질 것입니다. 미루어 달라고 청해 얻은 말미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 그때는 이미 분노가 아니라 판단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 참모습을 알고 싶다면 시간에 맡기십시오. 파도 속에서는 무엇 하나 똑똑히 보이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제 노예에게 화가 났을 때 자신에게서 시간을 얻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예에게 곧장 웃옷을 벗고 등을 내밀어 매를 맞으라고 명하고, 제 손으로 직접 때리려 했지만, 자기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깨닫자 들어 올린 손을 그대로 공중에 멈춘 채 막 내리칠 사람의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마침 들른 벗이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성난

사람을 벌하는 중일세."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얼이 빠진 듯 현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흉한 자세, 금방이라도 매질할 듯한 자세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벌할 사람을 따로 찾았으니 노예는 이미 잊은 것입니다. 그 뒤로 그는 집안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한번은 어떤 잘못에 몹시 화가 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우시포스[3], 자네가 저 종 녀석을 매로 다스려 주게.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네." 그는 다른 사람이라면 때렸을 바로 그 까닭으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가 나 있네. 마땅한 것보다 더 하고, 더 즐기며 하게 될 걸세. 제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저 종을 맡겨서는 안 되지." 플라톤조차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빼앗았는데, 화난 사람에게 복수를 맡기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가 나 있는 동안에는 무엇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허락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3 자기 자신과 싸우십시오. 분노를 이기려 들면 분노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분노를 감추고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으면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의 표시를 덮어 묻고, 되도록 분노를 숨기고 감춰 둡시다. 그러자면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분노는 튀어나와 눈에 불을 지르고 얼굴빛을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우리 밖으로 솟구쳐 나오게 두면, 분노가 우리 위에 올라섭니다. 분노를 가슴 가장 깊은 구석에 묻어 두어, 분노가 우리를 싣고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분노를 짊어지고 가게 합시다. 아니, 분노의 표시를 모두 거꾸로 돌립시다. 얼굴을 펴고, 목소리를 낮추고, 걸음을 늦춥시다. 바깥을 다듬다 보면 안도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아끼는 것이 화가 났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자신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켜 지적을 받곤 했지만, 숨긴 분노를 지적받는 것을 언짢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분노를 알아채되 아무도 그 분노를 맛보지 않았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벗들을 꾸짖을 권리를 스스로 취했듯이 벗들에게도 자기를 꾸짖을 권리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분노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벗들에게 부탁합시다. 우리가 가장 참기 어려워할 바로 그때 우리에게 가장 거리낌 없이 말해 주고, 우리 분노에 맞장구치지 말아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떨치고 우리에게 환심을 사는 이 악에 맞서, 우리가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제 주인일 때 도와줄 사람을 불러 둡시다. 술에 약하고 취했을 때의 무모함과 방자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잔치에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 달라고 식구들에게 일러 둡니다. 아플 때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겪어 본 사람들은 병이 났을 때 자기 말을 듣지 말라고 해 둡니다. 알고 있는 악덕에는 미리 걸림돌을 마련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려 두어, 아주 무겁고 갑작스러운 일에 흔들리더라도 분노를 느끼지 않거나, 뜻밖의 불의가 너무 커서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깊숙이 끌어내리고 제 아픔을 드러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본보기 가운데 몇 가지만 들어 보아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본보기들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분노가 막강한 사람들의 권력을 온통 휘두를 때 얼마나 큰 악이 되는지, 그리고 더 큰 두려움에 눌렸을 때 분노가 스스로를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14 술에 너무 빠진 캄비세스 왕[4]에게, 그가 가장 아끼던 신하 가운데 하나인 프렉사스페스가 술을 줄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왕을 따르니 왕이 취하는 것은 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정신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너도 알도록, 술을 마신 뒤에도 내 눈과 손이 제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 주마."

그러고는 여느 때보다 더 큰 잔으로 더 실컷 마시고, 이미 술에 취해 몸이 무거워지자, 자기를 나무란 신하의 아들에게 문지방 너머로 나가 왼손을 머리 위로 들고 서 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활을 당겨 바로 그 젊은이의 심장을 맞혔습니다. 심장을 겨누겠다고 미리 말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가슴을 갈라 심장에 박힌 화살촉을 보여 주고, 아버지를 돌아보며 이만하면 손이 꽤 정확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폴론이라도 그보다 정확하게 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신들이시여, 처지보다 마음이 더 노예인 저자를 벌하소서! 그런 일은 구경꾼이 된 것만으로도 지나쳤는데, 그는 그 일을 칭송했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아들의 가슴과 상처 아래서 아직 팔딱이는 심장을 아첨할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는 명예를 걸고 왕과 겨루며 한 번 더 쏘아 보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왕은 아버지의 몸에 대고 더 정확한 솜씨를 보여 주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오, 피에 젖은 왕이여! 모든 신하가 활을 돌려 겨누어 마땅한 자여! 잔치를 처형과 장례로 끝맺은 그 왕을 우리는 저주하겠지만, 그래도 그 화살은 쏜 것보다 칭송받은 것이 더 극악했습니다. 제 아들의 주검 앞에 서서, 자기가 지켜보았을 뿐 아니라 원인까지 되었던 그 살육 앞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처신했어야 했는지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분노는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을 욕하지 않았고, 아들의 심장만큼 제 심장도 꿰뚫린 것을 보면서도 불행한 사람이라면 으레 할 법한 말 한마디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삼켰다고 해도 옳을 것입니다. 화난 사람처럼 무슨 말이라도 했다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는 술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충고하던 때보다 그 불행 앞에서 더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다는 차라리 술을 마시는 편이 나은 사람, 손이 술잔에 붙들려 있어야 세상이 평화로운 사람에게 그런

충고를 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왕의 벗에게 좋은 충고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게 하는지 큰 참화로 보여 준 사람들의 무리에 끼게 되었습니다.

15 하르파고스[5]도 틀림없이 그와 비슷한 충고를 제 왕이자 페르시아인들의 왕에게 했을 것입니다. 왕은 그 말에 기분이 상해 하르파고스에게 그의 자식들을 요리해 차려 내놓고, 양념이 입에 맞느냐고 거듭 묻더니, 그가 제 불행으로 배를 가득 채운 것을 보자 자식들의 머리를 가져오게 하고 대접이 어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련한 그 사람은 말이 막히지도,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전하의 식탁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맛있습니다." 이 아첨으로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남은 음식을 먹으라는 초대를 받지 않은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제 왕이 한 짓을 단죄하지 말라는 것도, 그토록 끔찍한 괴물에게 걸맞은 벌을 찾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것을 얻어 내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에서 생겨나는 분노조차 감출 수 있고, 제 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도록 억누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슬픔을 억누르는 것은 이런 삶을 제비로 뽑아 왕의 식탁에 불려 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 곁에서는 그렇게 먹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 식구의 죽음 앞에서도 웃어야 합니다. 그런 목숨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비참한 노예 감옥을 위로하지도, 사형 집행인들의 명령을 견디라고 부추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종살이에서든 자유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제 목숨과 함께 불행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비참하다면, 그는 마음이 병들었고 제 잘못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벗들의 가슴을 화살로 겨누는 왕을 만난 사람에게도, 아비들에게 자식의 내장을 배불리 먹이는 주인을 둔 사람에게도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신음하느냐? 어느 적이 네 민족을 멸망시켜 너의 원수를 갚아 주기를, 아니면 멀리 있는 힘센 왕이 날아와 주기를 왜 기다리느냐? 어디로 눈을 돌리든 거기에 불행의 끝이 있다. 저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보이느냐? 그리로 내려가면 자유다. 저 바다, 저 강, 저 우물이 보이느냐? 자유가 그 밑바닥에 앉아 있다. 저 작고 바싹 마른 불길한 나무가 보이느냐? 거기에 자유가 매달려 있다. 네 목줄기, 네 목구멍, 네 심장이 보이느냐? 모두 종살이에서 빠져나갈 문이다. 내가 보여 주는 출구가 너무 힘들고 마음과 기운이 너무 많이 드느냐? 자유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고 묻느냐? 네 몸의 핏줄이라면 어느 것이든 그 길이다."

16 우리를 삶에서 내몰 만큼 견딜 수 없는 일이 없어 보이는 동안에는, 어떤 처지에 놓이든 분노를 멀리합시다.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분노는 해롭습니다. 분개는 모두 제 고통을 키울 뿐이고, 고집스럽게 버틸수록 명령은 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올가미를 몸부림쳐 떨칠수록 더 조이고, 새는 끈끈이를 놀라 털어 낼수록 깃털마다 더 묻힙니다. 아무리 꽉 조이는 멍에라도 순순히 끄는 소보다 버티는 소를 더 아프게 합니다. 엄청난 불행을 덜 방도는 하나뿐입니다. 견디고, 제게 닥친 필연에 따르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사람에게도 자기 격정을,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미쳐 날뛰고 고삐 풀린 격정을 억누르는 것이 이롭지만, 왕들에게는 더 이롭습니다. 분노가 시키는 만큼 운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망했고, 많은 사람을 해치며 휘두르는 권력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따로따로 신음하던 사람들을 같은 두려움이 하나로 묶으면 그 권력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이 어떤 때는 한 사람의 손에, 어떤 때는 모두의 손에 죽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고통이 그들의 분노를 한데 모으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왕이 분노를 왕의 표장처럼 휘둘렀습니다. 마고스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뒤 처음으로 페르시아와 동방의 넓은 땅을

차지한 다레이오스(다리우스)[6]가 그랬습니다. 그가 동방을 에워싼 스키타이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 이름 높은 노인 오이오바조스가 세 아들 가운데 하나만은 아버지를 위로하도록 남겨 두고 나머지 둘만 데려가 달라고 청했습니다. 다레이오스는 청한 것보다 더 많이 해 주겠다며 셋 모두 돌려보내 주겠다고 하고는, 아들들을 죽여 아버지 눈앞에 내던졌습니다. 셋을 모두 데려갔다면 잔인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크세르크세스[7]는 그보다 얼마나 너그러웠습니까! 다섯 아들의 아버지인 피티오스가 하나만 군역에서 빼 달라고 청하자, 원하는 아들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고른 아들을 두 동강 내어 길 양쪽에 하나씩 놓고, 이 제물로 군대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마땅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는 싸움에 지고 멀리 넓게 흩어져, 사방에 깔린 자기의 패망을 보며 제 병사들의 주검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17 이것은 학문도 문예도 몸에 배지 않은 야만인 왕들이 분노할 때 보인 사나움입니다. 이제 형님께 아리스토텔레스의 품에서 자란 알렉산드로스 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는 더없이 아끼던 벗이자 함께 자란 클레이토스[8]를 잔치 자리에서 제 손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첨이 모자라고, 자유로운 마케도니아인에서 페르시아식 종살이로 옮겨 가는 데 굼뜨다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는 마찬가지로 가까운 벗이던 리시마코스[9]를 사자에게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운 좋게 사자의 이빨을 벗어난 이 리시마코스는 그 일을 겪었으니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더 온화했습니까? 그는 로도스 사람인 벗 텔레스포로스의 몸을 사방으로 잘라 내어 귀와 코를 베어 버리고, 보기 드문 새 짐승처럼 우리에 가두어 오랫동안 먹였습니다. 잘리고 뭉개진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흉해졌습니다. 거기에 굶주림과 더러움, 제 똥오줌 속에 버려진 몸의 오물까지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좁은 우리

때문에 발 대신 써야 했던 무릎과 손에는 굳은살이 박이고, 옆구리는 벽에 쓸려 짓물러서, 찾아와 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모습은 끔찍한 만큼이나 역겨웠습니다. 형벌로 괴물이 되어 버린 그는 연민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이 사람과 아무리 닮지 않았다 해도, 그 일을 저지른 자는 사람과 더 닮지 않았습니다.

18 이런 포악함이 이방의 본보기에만 머물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밖에서 들어온 다른 악덕들과 함께 형벌과 분노의 야만까지 로마의 풍속으로 건너오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백성이 거리마다 조각상을 세워 주고 향과 포도주를 바치며 빌던 마르쿠스 마리우스[10]에게, 루키우스 술라는 다리를 꺾고, 눈을 파내고, 혀와 손을 자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상처를 낼 때마다 한 번씩 죽이는 것처럼 팔다리를 하나씩 천천히 찢어발겼습니다. 이 명령을 집행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이미 온갖 악행에 손을 익히고 있던 카틸리나 말고 누구였겠습니까? 그는 더없이 온화했던 퀸투스 카툴루스의 무덤 앞에서 마리우스를 조각조각 찢었으니, 그 온화한 사람의 유골에게 이보다 더 견디기 힘든 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쁜 본보기가 된 사람이지만 인민의 사랑을 받았고, 부당하게라기보다 지나치게 사랑받았던 그 사람이 그 유골 위로 한 방울씩 피를 흘렸습니다. 마리우스는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했고, 술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도 마땅했으며, 카틸리나는 그런 짓을 해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칼과 복수자의 칼을 똑같이 제 몸에 받아들인 국가는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옛일을 무엇 하러 뒤지겠습니까? 얼마 전 칼리굴라[11]는 아버지가 집정관을 지낸 섹스투스 파피니우스, 자기 재무관이자 자기 재산 관리인의 아들인 베틸리에누스 바수스, 그 밖에 원로원 의원과 로마 기사 여럿을 하루 동안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했습니다. 자백을 받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제 기분을 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잔인함이 지체 없이

요구하는 그 엄청난 쾌락을 미루는 것을 견디지 못해, 어머니의 정원에서 주랑과 강둑을 가르는 산책로를 부인들과 다른 원로원 의원들과 함께 거닐며, 등불 아래서 매질한 이들 가운데 몇을 목 베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습니까? 하룻밤이 어떤 사사로운 위험이나 나라의 위험을 몰고 왔단 말입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것쯤이야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적어도 실내 신발 차림으로 로마 인민의 원로원 의원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을!

19 그의 잔인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는 것도 지금 다루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곁길로 빠져 엉뚱한 데로 간다고 볼지도 모르지만, 이것 또한 여느 때보다 더 날뛰는 분노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는 원로원 의원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것도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온갖 것으로, 살을 조이는 밧줄과 발목 족쇄와 고문대와 불과 자기 얼굴로 그들을 고문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인가! 원로원 전체를 도륙할 궁리를 하고, 로마 인민에게 목이 하나뿐이어서 그토록 여러 곳 여러 때에 흩어진 제 범죄를 한 번의 칼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기를 바라던 자가 원로원 의원 셋을 못된 노예처럼 매와 불길 사이에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 밤에 하는 처형만큼 들어 보지 못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강도질은 어둠 속에 숨기게 마련이지만, 처벌은 널리 알려질수록 본보기가 되고 사람을 바로잡는 데 더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놀랄 그 일이 저 짐승에게는 날마다 하는 일이다. 그는 그러려고 살고, 그러려고 깨어 있고, 그러려고 밤을 새운다." 적어도 처형을 명한 모든 사람의 입에 해면을 쑤셔 넣어 막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라고 명한 사람은 그 말고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어 가는 사람에게 신음할 틈조차 남겨

주지 않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는 마지막 고통이 무슨 거리낌 없는 말을 내뱉을까, 듣기 싫은 말을 들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감히 그에게 들이댈 수 없는 죄목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면이 떨어지자 그는 가련한 사람들의 옷을 찢어 그 헝겊을 입에 쑤셔 넣으라고 명했습니다. 이 무슨 포악함입니까? 마지막 숨만은 쉬게 하라. 떠나가는 목숨에 빠져나갈 자리는 내주어라. 상처로 내보내지 않아도 되게 하라. 같은 날 밤 백인대장들을 집집이 보내 처형당한 사람들의 아버지들까지 죽인 일, 말하자면 인정 많은 사람이라 아버지들을 애도에서 풀어 준 일까지 덧붙이자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제가 그리려는 것은 칼리굴라의 포악함이 아니라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날뛸 뿐 아니라 민족 전체를 찢어발기고, 도시와 강과 고통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들까지 두들겨 팹니다.

20 페르시아의 한 왕은 이렇게 시리아에서 한 민족 전체의 코를 베었습니다. 그곳이 리노콜루라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12]. 머리를 통째로 베지 않았으니 그가 자비를 베풀었다고 보십니까? 그는 새로운 형벌을 즐긴 것입니다. 수명이 아주 길어서 장수족(마크로비오이)이라 불리는 에티오피아인들도 그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두 손 들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절을 보내와 거리낌 없이 대답했습니다. 왕들은 그런 대답을 모욕이라 부릅니다. 캄비세스는 그들에게 분을 품고 군량도 마련하지 않고 길도 알아보지 않은 채, 길 없는 곳과 메마른 땅으로 싸울 만한 무리를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첫 행군 구간도 지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떨어졌는데, 메마르고 거칠며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땅은 아무것도 대 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연한 잎사귀와 나무 끝눈으로, 다음에는 불에 그슬려 무르게 한 가죽과 필요에 쫓겨 먹을거리가 된 온갖 것으로

굶주림을 견뎠습니다. 모래벌판에서 뿌리와 풀마저 떨어지고 짐승조차 없는 텅 빈 황야가 나타나자, 그들은 제비를 뽑아 열 명에 하나씩 굶주림보다 더 참혹한 먹을거리로 삼았습니다. 군대의 일부를 잃고 일부를 먹어 치우고 나서도 분노는 여전히 왕을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제비뽑기에 불려 나갈까 두려워지자 그제야 물러나라는 신호를 내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저 귀한 새들은 고이 간직되었고, 잔치 도구들은 낙타에 실려 갔습니다. 그의 병사들이 누가 비참하게 죽고 누가 더 비참하게 살아남을지 제비를 뽑던 바로 그때에 말입니다.

21 캄비세스는 알지도 못하고 잘못도 없지만 그래도 느낄 줄은 아는 민족에게 화를 냈습니다. 키로스는 강에게 화를 냈습니다. 바빌론을 치러 가던 키로스는, 전쟁에서는 기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서둘러 진군하다가, 넓게 퍼져 흐르는 긴데스강을 걸어서 건너려 했습니다. 여름 볕에 물이 줄어 가장 얕아졌을 때조차 안전하게 건너기 어려운 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늘 왕의 수레를 끌던 흰 말 가운데 한 마리가 물살에 휩쓸려 가자 왕은 몹시 노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렬을 앗아 간 그 강을 여자들도 걸어서 밟고 건널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고는 전쟁 채비를 모두 그리로 옮겨, 강바닥을 180개의 물길로 나누어 360개의 시내로 흩어 놓고, 물이 여러 갈래로 흘러가 강바닥이 말라붙을 때까지 그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큰일에서는 큰 손실인 시간을 잃었고, 쓸데없는 일에 꺾인 병사들의 투지를 잃었으며, 채비가 안 된 적을 칠 기회를 잃었습니다. 적에게 선포한 전쟁을 강과 치르는 동안에 말입니다. 이 광란은, 달리 무어라 부르겠습니까, 로마인들에게도 닥쳤습니다. 칼리굴라는 헤르쿨라네움 땅에 있던 더없이 아름다운 별장을, 언젠가 제 어머니가 그곳에 갇혀 지냈다는 까닭으로 허물어 버렸고[13], 그 일로 도리어 그 별장을 이름나게

만들었습니다. 별장이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을 배로 그냥 지나쳐 갔지만, 이제는 왜 허물었는지 사람들이 묻기 때문입니다.

22 피해야 할 이런 본보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따라야 할 본보기, 절도 있고 온화한 본보기도 생각해야 합니다. 화낼 까닭도 모자라지 않았고 앙갚음할 힘도 모자라지 않았던 사람들의 본보기 말입니다. 안티고노스[14]가 두 병사를 끌어내라고 명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왕의 막사에 기대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즐겨 하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왕을 헐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 사이에 천막 휘장 하나뿐이었으니 안티고노스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휘장을 살짝 흔들고 말했습니다. "좀 더 멀리 가라. 왕이 듣겠다." 또 어느 날 밤에는 자기 병사 몇이 자기들을 이런 행군과 헤어날 수 없는 진창으로 끌고 왔다며 왕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장 고생하는 병사들에게 다가가, 누가 돕는 줄도 모르는 그들을 진창에서 끌어낸 뒤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이 비참한 꼴에 빠뜨린 안티고노스를 실컷 욕해라. 하지만 너희를 이 수렁에서 끌어낸 사람에게는 복을 빌어 주어라." 그는 같은 백성의 욕만큼이나 적의 욕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작은 요새에 포위되어 있으면서 지형만 믿고 적을 깔보아 안티고노스의 못생긴 모습을 두고 갖은 농담을 하며, 어떤 때는 작은 키를, 어떤 때는 납작한 코를 비웃자 그는 말했습니다. "내 진영에 실레노스[15]가 있다니 기쁘구나.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그는 이 입이 건 자들을 굶주림으로 굴복시킨 뒤 포로들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군대에 쓸모 있는 자들은 보병대에 나누어 넣고, 나머지는 경매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혀가 고약한 자들에게는 주인을 두는 편이 이롭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 그의 손자가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잔치 손님들에게 창을 던졌고, 앞서 말씀드린 두 벗 가운데 하나는 짐승에게, 하나는 자기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 가운데 사자에게 던져진 쪽이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이 악덕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리포스에게 다른 덕이 무엇이 있었든, 모욕을 참는 덕이 있었고, 그것은 왕국을 지키는 큰 도구였습니다. 지나치고 무례한 혀 때문에 "거침없이 말하는 자"라는 별명이 붙은 데모카레스[16]가 다른 아테네 사절들과 함께 필리포스를 찾아왔습니다. 필리포스는 사절단의 말을 너그럽게 들은 뒤 말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기뻐할 일로 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말해 보시오." 데모카레스가 말을 받았습니다. "왕이 목을 매는 것이오." 그토록 인정머리 없는 대답에 둘러선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필리포스는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는 저 테르시테스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돌려보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나머지 사절들은 아테네인들에게 전하시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도 벌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오만하다고 말이오."

신격 아우구스투스도 기억할 만한 일을 많이 하고 기억할 만한 말을 많이 남겼는데, 거기서 분노가 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역사가 티마게네스[17]는 황제를 두고, 그의 아내와 온 집안을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고, 그 말들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재담일수록 더 널리 퍼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여러 번 그에게 혀를 좀 더 조심해서 쓰라고 일렀지만, 그래도 그가 그치지 않자 자기 집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 뒤로 티마게네스는 아시니우스 폴리오의 집에 얹혀 늙어 갔고, 온 도시가 그를 서로 데려가려고 다투었으니, 황제의 집 문이 닫혔다고 다른 어떤 집 문도 그에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뒤에 쓴 역사책을 낭독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업적을 담은 책들은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황제와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와 벗으로 지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벼락 맞은 사람을 피하듯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높은 데서 떨어진 그를 품어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제는 이것을 참을성 있게 견뎠고, 그가 자기를 기리는 글과 자기 업적에 손을 댄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수를 손님으로 맞아들인 사람에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니우스 폴리오에게 한 말이라고는 "자네는 맹수를 기르는군." 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폴리오가 변명하려 하자 그것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즐기게, 폴리오, 마음껏 즐기게!" 폴리오가 "명하시면, 폐하, 당장 그자를 제 집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자 황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리라 생각하나? 자네들 둘을 화해시킨 사람이 바로 나인데?" 폴리오는 한때 티마게네스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그 화를 그친 까닭은 다름 아니라 황제가 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4 그러니 누구든 누가 건드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필리포스보다 힘이 센가? 그런데도 필리포스는 욕을 먹고도 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집 안에서 휘두르는 힘이 신격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에서 휘두른 힘보다 더 큰가? 그런데도 그는 자기를 헐뜯은 자에게서 물러나는 것으로 만족했다." 제 노예가 조금 큰 소리로 대꾸하고, 조금 고집스러운 얼굴을 하고, 제게까지 들리지도 않는 투덜거림을 했다고 해서 제가 채찍과 족쇄로 그 값을 치르게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제 귀를 거스르는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적도 용서했는데, 저는 게으르고 소홀하고 수다스러운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이는 나이로, 여자는 여자라는 까닭으로, 남은 자유인이라는 까닭으로, 집안사람은 허물없는

사이라는 까닭으로 너그럽게 봐줍시다. 이번에 처음 잘못했다면, 그동안 얼마나 오래 마음에 들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전에도 자주 잘못했다면, 오래 참아 온 것을 계속 참읍시다. 벗이라면 원치 않은 일을 한 것이고, 원수라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을 믿어 주고,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봐줍시다. 상대가 누구든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시다. 더없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신중한 사람도 그 조심성이 어느 순간 제풀에 빠져나가며, 아무리 원숙한 사람도 어쩌다 그 무게를 잃고 성급한 짓에 내몰리고, 아무리 남의 비위를 거스를까 조심하는 사람도 피하려다 도리어 거기에 빠진다고 말입니다.

25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사람들의 운도 휘청거린다는 것이 불행 속의 위안이 되었고, 왕궁에서도 때 이른 장례 행렬이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구석진 집에서 아들을 잃고 우는 것을 좀 더 담담하게 견뎠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권세도 불의를 피해 갈 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해를 입고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좀 더 담담하게 견딥니다. 더없이 분별 있는 사람들조차 잘못을 저지른다면, 누구의 잘못인들 그럴 만한 까닭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 의무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말에 얼마나 조심성이 없었는지, 술자리에서 얼마나 절제하지 못했는지 돌아봅시다. 그가 화가 나 있다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볼 말미를 줍시다. 그러면 스스로를 꾸짖을 것입니다. 끝내 그가 벌을 받아야 한다 해도, 우리가 그와 똑같이 앙갚음할 까닭은 없습니다. 자기를 건드리는 자들을 내려다보는 사람은 무리에서 벗어나 더 높이 선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얻어맞고도 느끼지 않는 것이 참된 위대함의 본모습입니다. 사나운 짐승은 개들이 짖어도 느긋하게 돌아볼 뿐이고, 파도는 거대한 바위에 부딪쳐도 헛되이 덤벼들 뿐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불의에도 흔들림

없이 버텨 낸 것이고, 화내는 사람은 이미 흔들린 것입니다. 방금 모든 불편함보다 높은 데 세워 둔 저 사람은 최고선(summum bonum)을 품에 꼭 안고서, 사람에게뿐 아니라 운에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너는 내 맑은 마음에 구름을 드리우기에는 너무 작다. 내 삶을 맡겨 다스리게 한 이성이 그것을 막는다. 불의보다 분노가 나를 더 해칠 것이다. 왜 더 해치지 않겠느냐? 불의에는 정해진 한도가 있지만, 분노가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알 수 없다."

26 "참을 수가 없다. 불의를 견디기란 괴롭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불의를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하면 분노와 불의를 둘 다 견디게 됩니다. 병자의 광포함과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 아이들의 버릇없는 손찌검은 왜 견딥니까? 그들이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결함 때문에 분별을 잃었든 무슨 상관입니까? 분별없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변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가? 그자는 벌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 하고 누군가 묻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그것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뉘우침이라는 형벌에 넘겨진 사람만큼 무거운 벌을 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닥치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인간사의 처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있는 결함을 한 사람에게 들씌우는 사람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인의 피부색은 제 동족 사이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붉은 머리를 틀어 묶은 것도 게르만족 사이에서는 사내에게 흉이 되지 않으니, 한 민족 모두에게 흔한 것을 한 사람에게서만 눈에 띄거나 흉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금 든 것들은 한 지방, 한 귀퉁이의 풍습이 감싸 줍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퍼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얼마나 더 정당한지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경솔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모두 갈팡질팡하고 불평 많고 야심에 차 있습니다. 어째서 더 부드러운 말로 온 세상의 종기를 감추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악합니다. 그러니 남에게서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든 저마다 제 품에서 찾아낼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창백함, 저 사람의 여윔을 꼬집습니까? 역병이 돈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더 너그러워집시다. 우리는 악인들 사이에서 사는 악인입니다. 우리를 평온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서로 너그럽게 봐주자는 약속입니다. "그자는 벌써 나를 해쳤는데, 나는 아직 그자를 해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벌써 누군가를 해쳤을 것이고, 앞으로도 해칠 것입니다. 이 시간이나 이날만 헤아리지 말고, 자기 정신의 상태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아직 아무 악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27 불의를 앙갚음하기보다 낫게 하는 편이 얼마나 더 낫습니까! 복수는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불의 하나에 아파하는 동안 숱한 불의에 몸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모두 해를 입은 시간보다 더 오래 화를 냅니다. 엉뚱한 쪽으로 비켜 가고 악덕에 악덕으로 맞서지 않는 편이 얼마나 더 낫습니까! 노새를 발로 걷어차고 개를 이빨로 물어 앙갚음하는 사람을 두고 누가 제정신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모른다."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우선, 사람이라는 것이 용서받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판관은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다음으로, 다른 짐승들이 분별이 없다는 까닭으로 분노를 피해 간다면, 분별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같은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점에서 말 못 하는 짐승과 다르다 한들, 짐승의 모든 잘못을 변호해 주는 바로 그것, 곧 정신의 어둠이 똑같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입니까?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그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한다 해도 믿을 까닭은 없습니다. 그는 또 잘못할 것이고, 다른 누가 그에게 잘못할 것이며, 평생을 잘못 속에서 뒹굴 것입니다.

사나운 것은 온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애도할 때 흔히 하는 말, 가장 잘 듣는 그 말을 분노할 때에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칠 것입니까, 아니면 영영 그치지 않을 것입니까? 언젠가는 그칠 것이라면, 분노에게 버림받기보다 분노를 버리는 편이 얼마나 더 낫습니까! 이 들끓음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입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얼마나 평화 없는 삶을 선고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늘 부어올라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실컷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자기를 들쑤실 까닭을 거듭 새로 찾아낸다 해도, 분노는 결국 저절로 물러가고 세월이 분노의 힘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분노가 제풀에 꺾이기보다 우리 손에 꺾이는 편이 얼마나 더 낫습니까!

28 이 사람에게 화를 내고, 다음에는 저 사람에게 화를 내십니다. 노예에게, 다음에는 해방 노예에게, 부모에게, 다음에는 자식에게, 아는 사람에게,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화를 내십니다. 마음이 나서서 말리지 않는 한, 화낼 까닭은 어디에나 넘쳐 나기 때문입니다. 광란은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또 다른 데로 훱쓸어 갈 것이고, 새로운 자극이 잇달아 생겨나면서 미쳐 날뛰는 일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불행한 사람이여, 대체 언제 사랑하시렵니까? 아, 그 좋은 시간을 나쁜 일에 얼마나 허비하십니까! 누구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 있을지, 그의 지위나 재산이나 몸에 어떤 상처를 낼 수 있을지 두리번거리기보다, 벗을 사귀고, 원수를 달래고, 나랏일을 돌보고, 집안일에 힘을 쏟는 편이 지금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더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맞붙는다 해도 다툼과 위험 없이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상대를 꽁꽁 묶어 받아 놓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견디게 할 수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는 사람이 힘을 너무 쓰다가 제 관절을 삐거나, 부러뜨린 이에 제 힘줄이 박히는 일이 잦습니다. 성마름은 아무 저항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조차 많은 사람의 손을 못 쓰게 하고 많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짓밟는 사람에게 아무 위험도 주지 않고 죽을 만큼 약하게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고통이 어떤 때는, 우연이 어떤 때는 약한 자를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또 우리가 화내는 일 대부분은 우리를 해친다기보다 언짢게 할 뿐이라면 어떻습니까? 누가 제 뜻을 가로막는 것과 제 뜻을 거들지 않는 것, 빼앗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가져가든 거절하든, 우리 희망을 끊어 버리든 미루든, 우리에게 맞서 하든 자기를 위해 하든, 남을 사랑해서 하든 우리를 미워해서 하든 똑같이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맞설 정당한 까닭뿐 아니라 훌륭한 까닭까지 있습니다. 누구는 아버지를, 누구는 형제를, 누구는 조국을, 누구는 벗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무랐을 일을 했다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한 일은 좋게 보면서 한 사람은 나쁘게 보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적 가운데서도 가장 용감한 사람, 조국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가장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을 우러러보며, 그런 시민, 그런 병사를 얻기를 바랍니다.

29 칭찬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연민을 받아 마땅한 바로 그 일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얼마나 더 추합니까! 갑자기 종살이로 떨어진 포로가 자유의 찌꺼기를 아직 붙들고 있어 더럽고 고된 일에 날래게 나서지 않는다고, 한가하게 지내다 굼떠져서 주인의 말과 수레를 뛰어서 따라가지 못한다고, 날마다 밤을 새우다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다고, 도시의 한가한 종살이에서 고된 일로 옮겨 와 농사일을 마다하거나 힘껏 하지 않는다고 미워한다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인지 하기 싫은 것인지 가려 봅시다. 화내기 전에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사람을 놓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첫 충동(impetus)을 따르고, 하찮은 일에 들쑤셨더라도 까닭

없이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무엇보다 부당하게도, 분노가 부당할수록 우리는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크게 화내는 것이 정당하게 화낸다는 증거인 것처럼 분노를 붙들고 키우기 때문입니다.

30 일의 첫머리부터 그것이 얼마나 가볍고 해롭지 않은지 꿰뚫어 보는 편이 얼마나 더 낫습니까! 말 못 하는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을 사람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찮고 헛된 일에 흔들립니다. 붉은빛은 황소를 성나게 하고, 독사는 그림자에도 고개를 쳐들며, 곰과 사자는 천 조각 하나에도 덤벼듭니다. 본디 사납고 미쳐 날뛰는 것들은 모두 헛것에 놀라 날뜁니다. 들뜨고 미련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의심만으로도 상처를 입어서, 때로는 조촐한 은혜를 불의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 은혜야말로 성마름의 가장 흔한, 적어도 가장 쓰라린 불씨입니다. 우리는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렸던 것보다, 또 남들이 받은 것보다 적게 주었다고 화를 내지만, 두 가지 모두 약이 가까이 있습니다. 남에게 더 많이 베풀었다면, 남과 견주지 말고 우리 몫을 즐깁시다. 더 행복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랐던 것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쩌면 마땅한 것보다 더 많이 바랐던 것입니다. 이 대목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곳입니다. 가장 해로운 분노, 가장 신성한 것까지 덮치는 분노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신격 율리우스는 원수보다 벗들의 손에 더 많이 찔렸습니다. 채울 수 없는 그들의 희망을 채워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채워 주고 싶어 했습니다. 승리를 그보다 너그럽게 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승리에서 나누어 줄 권한 말고는 아무것도 제 몫으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탐내는데, 그토록 염치없는 욕망을 어떻게 다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제 의자 둘레에서 칼을 빼 든 전우들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의 편을 누구보다 열렬히 지키던 틸리우스 킴베르[18],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죽고 나서야 폼페이우스파가 된 다른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런 일이 왕들의 무기를 왕들에게로 돌렸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까지 몰아붙여, 그들을 위해, 그들 앞에서 죽기로 맹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죽음을 꾀하게 만들었습니다.

31 남의 것을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몇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의 등 뒤로 얼마나 엄청난 시기가 뒤따르는지 잊은 채, 누가 우리를 앞질렀다고 신들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란 몹시 염치가 없어서, 많이 받고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불의로 여깁니다. "그는 내게 법무관직을 주었지만, 나는 집정관직을 바랐다. 12개의 권표를 주었지만, 정규 집정관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다. 내 이름으로 해를 세게 해 주었지만, 사제직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제단에 뽑혀 들어갔지만, 왜 하나뿐인가? 내 지위는 다 채워 주었지만, 재산에는 아무것도 보태 주지 않았다. 그가 내게 준 것은 누군가에게는 주어야 했던 것들이고, 자기 것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19] 차라리 받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머지는 기다리고,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직 바랄 것이 남아 있다는 것도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를 앞질렀다면, 벗의 마음속에서 첫째 자리를 차지했음을 기뻐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앞서 있다면, 뒤따르는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에게 가장 큰 악덕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까? 셈을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준 것은 크게, 받은 것은 작게 칩니다.

32 사람마다 다른 까닭으로 우리를 말리게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워서, 어떤 사람에게는 존경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화내지 맙시다. 가련한 종 녀석을 노예 감옥에 보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대단한 일을 해낸 셈이겠지요! 무엇 하러 서둘러 당장 매질하고 그 자리에서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미룬다고 그 권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명령할 수 있는 때가 오게 합시다. 지금은 분노의 명령에 따라 말할 것입니다. 분노가 떠나간 뒤에야 이 다툼이 얼마짜리인지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칼과 사형까지 들먹이고, 가벼운 채찍질로 다스려야 할 일을 사슬과 감옥과 굶주림으로 벌합니다. "우리를 해치는 듯 보이는 것들이 모두 얼마나 하찮고 비루하고 유치한지 들여다보라니!"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크나큰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투고 뛰어다니고 헐떡이는 까닭이 되는 이것들이 얼마나 낮고 천한지, 높고 장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임을 보라고 권하겠습니다.

33 가장 큰 아우성은 돈을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돈은 포룸을 지치게 하고, 아버지와 자식을 싸움 붙이고, 독을 타고, 자객에게도 군단에게도 칼을 쥐여 줍니다. 돈은 우리 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밤은 다툼으로 시끄럽고, 정무관의 재판석에는 사람들이 몰려들며, 왕들은 날뛰며 약탈하고, 오랜 세월 애써 세운 도시들을 무너뜨려 그 잿더미에서 금과 은을 뒤집니다. 구석에 놓인 돈 자루들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소리를 지르고, 재판정마다 송사의 웅성거림이 울리며, 먼 지방에서 불려 온 재판관들이 둘 가운데 누구의 탐욕이 더 정당한지 판결하려고 자리에 앉습니다. 돈 자루도 아니고 동전 한 줌이나 노예가 장부에 올린 데나리우스 한 닢 때문에, 상속자 없이 죽을 노인이 속이 터진다면 어떻습니까? 손발이 뒤틀려 셈할 손가락 하나 남지 않은 병든 고리대금업자가 천분의 일 이자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병이 발작하는 와중에도 보증을 들먹이며 제 동전 몇 닢을 받아 내려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창 파 들어가는 온갖 광산의 돈을 몽땅 제 앞에 가져다 놓고, 보물 창고에 감춰진 것을 모두 한가운데 쏟아 놓는다 해도, 그것도 탐욕이 잘못 파낸 것을 다시 땅속에 묻어 버린 그 보물까지 쏟아 놓는다 해도, 저는 그 엄청난 더미가 선한 사람의 이마를 찌푸리게 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물을 자아내는 것들을 얼마나 크게 웃어넘겨야 하겠습니까!

34 자, 이제 나머지도 하나하나 짚어 보십시오. 음식과 마실 것, 그것 때문에 허영으로 꾸민 사치스러운 차림, 모욕적인 말, 그다지 공손하지 않은 몸짓, 말 안 듣는 짐승과 게으른 노예, 남의 말을 두고 품는 의심과 고약한 풀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말까지 자연이 우리에게 저지른 불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볍지 않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일들은 가볍기 짝이 없고, 아이들을 싸움과 말다툼으로 몰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심각한 얼굴로 하는 일 가운데 진지한 것은 하나도 없고, 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이 분노하고 미쳐 날뛰는 것은 하찮은 것을 크게 치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내 유산을 빼앗으려 했다. 이자는 내가 오래 유언을 바라고 비위를 맞추던 사람에게 나를 헐뜯었다. 이자는 내 정부를 탐냈다." 사랑의 끈이 되어야 할 것, 곧 같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다툼과 미움의 원인이 됩니다. 좁은 길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지만, 넓게 트인 큰길에서는 온 백성이 지나가도 부딪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탐내는 것들은 작아서, 하나가 빼앗기지 않고는 다른 하나에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을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과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35 노예가, 해방 노예가, 아내가, 피호민이 말대꾸를 했다고 분개하십니다. 그러고는 집 안에서 없애 버린 자유를 나라에서 빼앗겼다고 불평하십니다. 또 물어보았는데 입을 다물면 고집을

부린다고 하십니다. 말하게도 하고, 입 다물게도 하고, 웃게도 내버려 두십시오! "주인 앞에서?" 하고 누군가 묻습니다. 아니, 한 집안의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왜 고함을 치십니까? 노예들이 떠든다고, 민회의 군중이 모인 자리에 외딴곳의 고요가 함께 있지 않다고, 왜 식사 도중에 채찍을 찾으십니까? 귀가 있는 것은 가락 맞고 부드럽고 달콤하게 다듬어진 소리만 받아들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도, 달래는 소리도 다투는 소리도,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사람의 목소리도 짐승이 으르렁대고 짖는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가련한 사람이여, 노예가 지르는 소리에, 놋그릇 부딪는 소리나 문 닫히는 소리에 왜 소스라치게 놀라십니까? 그토록 예민하더라도 천둥소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귀를 두고 한 이 말을 눈에도 옮겨 보십시오. 눈도 잘못 길들면 그에 못지않게 까다로워집니다. 얼룩 하나, 때 한 점, 덜 반짝이는 은그릇, 바닥까지 비치지 않는 연못물에도 언짢아합니다. 그런데 얼룩덜룩하고 갓 닦아 반짝이는 대리석이 아니면 못 견디고, 결이 촘촘하게 박힌 탁자가 아니면 못 견디며, 집 안에서는 황금보다 값진 것이 아니면 밟으려 하지 않는 바로 이 눈이, 밖에서는 울퉁불퉁하고 질척한 골목길과 마주치는 사람 대부분의 꾀죄죄한 모습과 공동 주택의 갉아 먹히고 갈라지고 기울어진 벽을 더없이 태연하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밖에서는 눈을 언짢게 하지 않는 것이 집 안에서는 눈을 들쑤시는 까닭이, 밖에서는 너그럽고 참을성 있는 생각이 집 안에서는 까다롭고 불평 많은 생각이 된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36 모든 감각을 굳건하게 길러야 합니다. 감각은 본디 참을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불러내 셈을 치르게 해야 할 마음이 감각을 망가뜨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섹스티우스[20]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밤에 쉬려고 물러나면 자기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너는 네 악을 무엇 하나 고쳤느냐? 어떤 악덕에 맞섰느냐? 어느 점에서 나아졌느냐?" 날마다 재판관 앞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분노는 그치거나 누그러질 것입니다. 하루를 통째로 털어 보는 이 습관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본 뒤에 찾아오는 잠은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깊고 거침이 없습니까! 마음이 칭찬을 받든 꾸지람을 받든, 자기를 살피는 파수꾼이자 남몰래 자기를 심사하는 감찰관이 되어 제 행실을 따져 본 뒤라면 말입니다. 저도 이 권한을 쓰며 날마다 제 앞에서 제 소송을 변론합니다. 등불이 치워지고, 제 버릇을 이미 아는 아내가 잠잠해지면, 저는 하루를 샅샅이 되짚고 제가 한 일과 한 말을 다시 재어 보며, 저 자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엇 하러 제 잘못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번엔 너를 용서한다. 그 토론에서 너는 너무 싸우듯이 말했다. 앞으로는 배우지 못한 자들과 맞붙지 마라.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자들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 저 사람에게는 마땅한 것보다 거리낌 없이 충고했다. 그래서 고쳐 주지 못하고 언짢게만 했다. 앞으로는 네 말이 옳은지만 보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옳은 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도 살펴라. 선한 사람은 충고받기를 기뻐하지만, 못된 자일수록 바로잡아 주는 사람을 가장 사납게 대한다."

37 "어떤 사람들의 잔치에서 네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던진 농담과 말들이 너를 건드렸다. 아무하고나 어울리는 술자리는 피하라는 것을 잊지 마라. 술이 들어가면 방자함이 더 풀린다. 맨정신일 때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네 벗이 어느 변호사나 부자의 문지기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았다. 들어가려는 그를 문지기가 밀어냈기 때문이다. 그러자 너도 그를 위해 그 하찮은 노예에게 화를 냈다. 그렇다면 너는 사슬에 매인 개에게도 화를 내겠느냐? 개도 실컷

짖다가 먹을 것을 던져 주면 순해진다. 멀찍이 물러나서 웃어라! 저 문지기는 송사꾼 무리가 에워싼 문턱을 지킨다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안다. 안에 누워 있는 저 사람도 자기가 행운아이고 복 받은 사람이라 여기며, 들어가기 어려운 문을 행복하고 힘 있는 사람의 표시로 여긴다.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문이 감옥 문이라는 것을 모른다. 견뎌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미리 마음에 새겨 두어라. 겨울에 춥다고, 바다에서 뱃멀미가 난다고, 길에서 덜컹거린다고 놀라는 사람이 있느냐? 마음은 미리 채비하고 맞이하는 일에는 굳세다. 덜 영예로운 자리에 앉았다고 너는 잔치를 연 주인에게, 손님을 부른 하인에게, 너보다 윗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자여, 긴 의자의 어느 쪽을 깔고 앉든 무슨 상관이냐? 방석 하나가 너를 더 훌륭하게 또는 더 추하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네 재능을 헐뜯었다고 너는 그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다. 너는 이런 법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즐겨 읽지 않는 엔니우스는 너를 미워했어야 하고, 호르텐시우스는 너와 원수가 되었어야 하며, 키케로는 네가 그의 시를 비웃었다면 네 적이 되었어야 한다. 선거에 나선 후보라면 표가 어떻게 나오든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38 누군가 모욕을 주었습니까? 스토아 철학자 디오게네스[21]가 받은 모욕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마침 분노를 두고 강론하고 있을 때, 버릇없는 젊은이가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부드럽고 지혜롭게 견디며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네. 하지만 화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 우리 카토는 얼마나 더 잘했습니까! 그가 법정에서 변론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기억하는 저 당파적이고 제멋대로인 렌툴루스가 걸쭉한 침을 잔뜩 모아 그의 이마 한가운데 뱉었습니다. 카토는 얼굴을 닦고 말했습니다. "렌툴루스,

그대에게 입(os)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틀렸다고 내가 모두에게 장담하겠소."[22]

39 노바투스 형님, 이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성마름을 느끼지 않거나, 성마름보다 위에 섭니다. 이제 남의 분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릴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낫게 하기도 바라기 때문입니다.

막 일어난 분노는 말로 달래려 들지 맙시다. 분노는 귀가 먹었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분노에게 말미를 줍시다. 약은 병이 누그러졌을 때 듣습니다. 부어오른 눈은 굳은 것을 움직여 더 성나게 할까 봐 건드리지 않고, 다른 병도 한창 들끓을 때는 손대지 않습니다. 병의 첫머리는 안정이 고칩니다. "저절로 그치려는 분노를 달래는 것이라면 그런 약이 무슨 소용인가!" 하고 누군가 말합니다. 첫째, 그 약은 분노를 더 빨리 그치게 합니다. 다음으로, 분노가 도지지 않게 지켜 줍니다. 감히 달래지 못하는 그 기세마저 슬쩍 속여 넘길 것입니다. 복수에 쓸 만한 도구는 모두 치우고, 화가 난 척하여 함께 원통해하는 조력자로서 조언에 더 무게를 싣고, 핑계를 엮어 시간을 끌며, 더 큰 벌을 찾는다는 구실로 당장의 벌을 미룰 것입니다. 갖은 수를 다 써서 광란에 쉴 틈을 줄 것입니다. 분노가 아주 거세면 거스를 수 없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불어넣고, 약하면 반가운 이야기나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 알고 싶은 마음으로 딴 데로 이끌 것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어떤 의사가 왕의 딸을 고쳐야 했는데 칼을 쓰지 않고는 고칠 수 없자, 부어오른 젖가슴을 부드럽게 찜질하는 척하면서 해면에 감춘 메스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약을 드러내 놓고 갖다 댔다면 마다했을 테지만, 미리 알지 못했기에 아픔을 견뎠습니다. 어떤 병은 속여야만 낫습니다.

40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의 성마름이 원수들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게 조심하시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의 큰마음과 많은 사람이 믿는 그대의 굳셈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하시오. 맹세코 나도 분하고, 이 원통함을 어디까지 품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나 때를 기다려야 하오. 그자는 벌을 받을 것이오. 이 일을 마음에 담아 두시오. 할 수 있게 되면 기다린 값까지 쳐서 갚아 주게 될 것이오." 화난 사람을 꾸짖는 것은 맞서 화를 내는 것이니 도리어 부추기는 일입니다. 이리저리 부드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다만 분노를 꺾어 버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라면 다릅니다. 신격 아우구스투스가 베디우스 폴리오의 집에서 식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베디우스의 노예 하나가 수정 잔을 깨뜨렸습니다. 베디우스는 그를 끌어내라고 명했는데, 흔한 죽음을 맞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못에 기르는 커다란 곰치들에게 던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사치를 부리려고 곰치를 기른다고 누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포악함이었습니다. 소년은 붙잡은 손을 빠져나와 황제의 발아래로 달아났습니다. 그가 청한 것은 다른 방도로 죽게 해 달라는 것, 물고기 밥만은 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황제는 듣도 보도 못한 잔인함에 마음이 움직여, 소년을 풀어 주라고 명하고, 수정 잔은 모두 자기 앞에서 깨뜨리고 연못은 메워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황제라면 벗을 그렇게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을 잘 썼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사람을 끌어내 새로운 형벌로 찢어발기라고 명하는 겐가? 자네 잔이 깨졌다고 사람의 창자를 찢어야 하나?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끌어내라고 명할 만큼 자네가 그리도 대단한가?" 이처럼 분노를 윗자리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호되게 다루어도 좋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분노, 더 큰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이제 고칠 수 없는 사납고 피에 굶주린 짐승 같은 분노에만 그렇게 하십시오.

41 마음에 평화를 줍시다. 이로운 가르침을 꾸준히 되새기고, 좋은 일을 하고, 오직 훌륭한 것(honestum) 하나만을 바라도록 정신을 기울이면 그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양심을 만족시키고 평판을 얻으려 애쓰지 맙시다. 평판이 나쁘게 따라온다 해도, 우리가 잘한 일 때문에 그렇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기세 좋은 사람을 우러르고, 대담한 사람이 존경을 받으며, 차분한 사람은 무기력하다고 여겨진다." 처음 볼 때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삶이 그것이 마음의 게으름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믿게 해 주면, 바로 그 대중이 그들을 존경하고 떠받듭니다. 그러니 이 흉측하고 적의에 찬 격정에는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거꾸로 온갖 악, 칼과 불만 있습니다. 분노는 부끄러움을 짓밟고 살육으로 손을 더럽혔으며, 자식들의 팔다리를 흩어 놓았고, 범죄가 닿지 않은 곳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명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분노가 굳어 미움이 되면 더는 고칠 수도 없습니다.

42 이 악을 떨쳐 버립시다. 정신을 깨끗이 하고, 아무리 가늘어도 어디든 붙어 있으면 다시 돋아날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냅시다. 분노는 누그러뜨릴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야 합니다. 나쁜 것에 무슨 알맞은 정도가 있겠습니까? 애쓰기만 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죽게 마련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든 스스로에게, 또 남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도록 태어난 것처럼 분노를 선포하고 더없이 짧은 생애를 흩어 버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훌륭한 즐거움에 쓸 수 있는 날들을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돌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삶은 그런 낭비를 감당할 수 없고, 허비할 시간도 없다. 왜 싸움판에 뛰어드느냐? 왜 다툼을 불러들이느냐? 왜 제 나약함을 잊고 엄청난 미움을 떠맡으며, 깨지기 쉬운 몸으로 남을 깨뜨리겠다고 일어서느냐? 머지않아 열병이나 다른

몸의 병이, 우리가 누그러질 줄 모르는 마음으로 벌이는 그 원한을 더는 벌이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머지않아 죽음이 끼어들어 가장 맹렬하게 맞붙은 한 쌍을 떼어 놓을 것이다. 왜 소란을 피우며 반란을 일으키듯 삶을 어지럽히느냐? 운명(fatum)이 머리 위에 서서 지나가는 날들을 셈하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네가 남의 죽음에 정해 둔 그때가 어쩌면 네 죽음 언저리일지도 모른다."

43 "차라리 짧은 삶을 거두어들여 너에게도 남들에게도 평온하게 만들지 그러느냐? 차라리 살아 있는 동안에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떠난 뒤에는 그리움을 받는 사람이 되지 그러느냐? 너를 너무 높은 데서 내려다보며 대하는 저 사람을 왜 끌어내리려 하느냐? 너를 향해 짖어 대는 저 사람, 낮고 업신여김받는 처지이지만 윗사람들에게는 신랄하고 성가신 저 사람을 왜 네 힘으로 짓밟으려 하느냐? 왜 노예에게, 주인에게, 왕에게, 피호민에게 화를 내느냐? 조금만 참아라. 보라, 너희를 똑같이 만들어 줄 죽음이 오고 있다. 우리는 아침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로 황소와 곰이 서로 묶여 싸우는 것을 흔히 보는데, 둘이 서로를 실컷 괴롭히고 나면 그들을 끝장낼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한다. 우리와 함께 묶인 누군가를 괴롭히지만, 이긴 자에게도 진 자에게도 끝은 다가오고 있고, 그것도 머지않았다. 차라리 얼마 남았든 남은 삶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내자. 우리 주검이 누구에게도 미움받으며 누워 있지 않게 하자. 이웃에서 불이야 하는 외침이 싸움을 말리는 일이 잦고, 들짐승이 나타나면 강도와 나그네가 갈라선다. 더 큰 두려움이 나타나면 작은 악과 씨름할 틈이 없다. 우리에게 싸움과 음모가 무슨 소용이냐? 네가 화를 내는 그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느냐? 네가 가만히 있어도 그는 죽을 것이다. 어차피 일어날 일을 하려고 든다면 헛수고다. 너는 말한다. '꼭 죽이고 싶은 것은 아니다. 추방이나 치욕이나 손해를 안겨 주고 싶을 뿐이다.'

원수에게 상처 입히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뾰루지 하나 나기를 바라는 사람을 나는 덜 용서한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악할 뿐 아니라 옹졸하기까지 하다. 가장 무거운 형벌을 생각하든 가벼운 형벌을 생각하든, 그가 벌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시간이나, 네가 남의 불행에서 못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 머지않아 우리는 이 숨을 뱉어 낼 것이다. 그때까지, 숨을 쉬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 있는 동안 인정을 가꾸자. 누구에게도 두려움이 되지 말고 위험이 되지 말자. 손실과 불의, 욕설과 빈정거림을 업신여기고, 잠깐의 불편은 큰마음으로 견디자. 흔히 말하듯 우리가 뒤돌아보고 몸을 돌리는 사이에 죽음은 벌써 와 있을 것이다."

---

1. 세네카의 형 마르쿠스 안나이우스 노바투스(뒷날의 갈리오).

2. 데모크리토스 단편 B3(딜스-크란츠). 그의 책 『평정에 관하여』의 첫머리로 전한다.

3. 플라톤의 조카. 플라톤이 죽은 뒤 아카데메이아를 이끌었다.

4.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 2세(재위 기원전 530~기원전 522). 프렉사스페스 이야기는 헤로도토스 『역사』 3.34~35에 나온다.

5.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의 신하. 왕의 명을 어기고 아기 키로스를 살려 둔 벌로 제 아들의 살을 먹었다(헤로도토스 『역사』 1.119). 아스티아게스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디아의 왕이었다.

6. 다레이오스 1세(재위 기원전 522~기원전 486). 캄비세스가 죽은 뒤 왕위를 가로챈 마고스(사제) 가우마타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오이오바조스 이야기는 헤로도토스 『역사』 4.84에 나온다.

7. 다레이오스의 아들(재위 기원전 486~기원전 465). 기원전 480년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살라미스에서 크게 졌다. 피티오스 이야기는 헤로도토스 『역사』 7.38~39에 나온다.

8. 알렉산드로스의 장군.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왕의 목숨을 구했으나, 기원전 328년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왕의 창에 찔려 죽었다.

9. 알렉산드로스의 장군으로, 뒤에 트라키아의 왕이 되었다. 아래의 텔레스포로스를 그렇게 다룬 것이 리시마코스다.

10. 마르쿠스 마리우스 그라티디아누스. 대(大)마리우스의 조카로, 법무관 시절 화폐 개혁으로 인기를 얻었다. 기원전 82년 술라의 살생부에 올라, 마리우스에게 몰려 자결한 퀸투스 카툴루스의 무덤 앞에서 카틸리나에게 죽었다.

11. 황제 칼리굴라(재위 37~41). 원문은 「가이우스 카이사르」.

12. 이집트와 시리아 경계에 있던 도시. 이름은 그리스어로 「코를 자른」이라는 뜻이다.

13. 칼리굴라의 어머니 대(大)아그리피나. 티베리우스의 미움을 사서 감금되었다가 추방지에서 죽었다.

14. 안티고노스 1세(외눈박이, 기원전 382 무렵~기원전 301). 알렉산드로스의 장군으로, 그가 죽은 뒤 왕을 칭했다. 다음 장에서 알렉산드로스를 그의 손자라고 한 것은 세네카의 착오다.

15.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늙은 정령. 들창코에 배불뚝이로 그려졌다.

16. 아테네의 웅변가로 데모스테네스의 조카다. 테르시테스는 호메로스 『일리아스』 2권에서 왕들에게 함부로 대들다 오디세우스에게 얻어맞은 못생긴 병사다.

17. 알렉산드리아 출신 역사가. 포로로 로마에 끌려왔다가 풀려났다. 아래 아우구스투스의 말 「맹수를 기르는군」은 원문에 그리스어 한 낱말로 적혀 있다.

18. 카이사르는 기원전 44년 3월 원로원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등에게 살해되었다. 틸리우스 킴베르는 카이사르의 편이었다가 음모에 가담해 맨 먼저 그를 붙잡았다.

19. 황제가 내리는 관직과 영예를 두고 하는 불평이다. 12개의 권표는 집정관의 표지이고, 정규 집정관은 한 해의 첫머리에 취임해 그해에 자기 이름을 붙였다. 해 도중에 갈마들어 들어서는 보궐 집정관은 그 영예를 누리지 못했다.

20. 퀸투스 섹스티우스. 아우구스투스 때 로마에서 학파를 연 철학자.

21. 바빌론의 디오게네스(기원전 230 무렵~기원전 150 무렵). 스토아 철학자로,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와는 다른 사람이다.

22. 카토는 소(小)카토(기원전 95~기원전 46). 라틴어 os는 「입」과 함께 「얼굴, 낯(뻔뻔함)」을 뜻해서, 렌툴루스를 두고 하던 말을 침 뱉은 일에 빗대어 비튼 것이다.

마르키아에게 보내는 위로

1 마르키아 부인, 부인께서 여느 악덕과 마찬가지로 여자 마음의 나약함에서도 멀찍이 벗어나 계시고 사람들이 부인의 행실을 무슨 옛 본보기처럼 우러러본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다면, 저는 감히 부인의 슬픔에 맞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내들조차 기꺼이 매달려 끌어안고 들어앉는 것이 슬픔이니까요. 또 이토록 불리한 때에, 이토록 적대적인 재판관 앞에서, 이토록 미움 사는 죄목을 두고, 부인이 운(fortuna)에게 무죄를 선고하시도록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게 믿음을 준 것은 이미 시험을 거친 부인의 굳센 마음과 큰 시련으로 증명된 부인의 덕(virtus)입니다.

부인께서 아버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은 아버님을 자식들 못지않게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점이라고는 아버님이 부인보다 오래 사시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뿐이었지요. 아니, 그것마저 바라셨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큰 효심은 좋은 관습을 거스르는 일도 더러 스스로에게 허락하니까요. 부인은 아버님 아울루스 크레무티우스 코르두스[1]의 죽음을 힘닿는 데까지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야누스의 앞잡이들에게 둘러싸인 처지에서 예속을 벗어날 길은 그것 하나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아버님의 결심을 거들지는 않으셨지만 지고 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눈물을 쏟으셨고, 신음은 삼키셨을지언정 밝은 얼굴로 덮어 감추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효심으로 꼽히던 그 시대에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조금이나마 틈이 생기자, 부인은 형벌을 받았던 아버님의 재능을 사람들이 다시 쓸 수 있도록 돌려놓으셨습니다. 아버님을 참된 죽음에서 건져 내셨고, 그 더없이 용감한 분이 제 피로 쓴 책들을 다시 공공의 기록 속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부인은 로마의 학문에 더없는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 큰 부분이 이미 불타 버렸기 때문입니다. 후손에게도 더없는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굽히지 않은 사실의 기록이 전해질 것이고, 그 값은 저자가 비싸게 치렀습니다. 아버님 자신에게도 더없는 공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의 일을 아는 것이 값진 일로 여겨지는 동안, 조상들의 행적으로 돌아가 보려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 동안, 로마의 사내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이미 목을 꺾고 세야누스의 멍에 아래로 끌려들 때 꺾이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재주와 마음과 손이 자유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 동안, 아버님의 기억은 살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인 웅변과 자유 때문에 망각 속에 내던져졌던 아버님을 부인께서 끌어내지 않으셨다면 나라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글은 지금 읽히고, 꽃피고, 사람들의 손에, 가슴에 받아들여져 어떤 세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 집행자들은 기억될 거리라고는 죄악 하나뿐인데, 그 죄악마저 머지않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인의 이 큰 도량(magnitudo animi)을 보았기에 저는 부인이 여자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고, 부인의 얼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이어진 슬픔이 한번 덮어씌운 뒤로 놓아주지 않는 그 얼굴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저는 몰래 다가가지도 않고, 부인의 마음을 슬쩍 속여 넘길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난 불행을 되살려 냈고, 이 상처 또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도록 그만큼 큰 상처가 아문

흉터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은 부드럽게 다루며 달래라고 하십시오. 저는 부인의 비탄과 맞붙어 싸우기로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말라 버린 그 눈, 바른대로 말하자면 이제는 그리움보다 버릇으로 흐르는 그 눈물을 저는 멈추게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인이 이 치료를 반기시는 가운데 그리하겠고, 그게 안 되면 부인이 싫다 하셔도 그리하겠습니다. 아드님 대신 살아남은 자리에 앉혀 두신 그 슬픔을 부인께서 아무리 붙잡고 끌어안으셔도 말입니다. 대체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해 볼 것은 다 해 보았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지친 벗들의 위로도, 부인과 인척 간인 위대한 분들의 권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님께 물려받은 보배인 학문마저 귀먹은 귀를 그냥 스쳐 지나가니, 그 위안은 헛되어 잠깐 마음을 붙들어 두는 데도 미치지 못합니다. 가장 큰 고난도 가라앉히는 시간이라는 저 자연의 약조차 오직 부인에게만은 힘을 잃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해가 지나가는데도 그 처음의 격렬함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애도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굳세어져, 이제는 오래 머문 덕에 제 권리를 얻었고, 마침내 그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악덕이 돋아날 때 눌러 두지 않으면 깊이 뿌리를 내리듯, 이 슬프고 비참하고 제 몸을 향해 날뛰는 마음도 끝내는 제 쓰라림을 먹고 자라며, 고통은 불행한 마음의 비뚤어진 쾌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치료에 나서고 싶었습니다. 아직 막 일어나는 기세였다면 순한 약으로도 다잡을 수 있었겠지요. 오래 묵은 것과는 더 세게 싸워야 합니다. 상처도 피가 아직 생생할 때는 쉽게 낫습니다. 썩어서 고약한 종기가 되고 나면, 그때는 지지고, 깊이 헤집고, 손가락을 넣어 더듬어야 합니다. 이토록 굳어 버린 슬픔을 이제 와서 비위를 맞추며 부드럽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부숴야 합니다.

2 누군가를 타이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가르침으로 시작해 본보기로 끝맺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관례를 바꾸는 편이 낫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다루어야 하니까요. 이치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나는 이름과 권위를 들이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려한 것에 넋을 잃는 사람의 마음은 권위가 붙들어 제멋대로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인 앞에 부인과 같은 여성이자 같은 시대를 산 두 사람의 가장 큰 본보기를 세워 보이겠습니다. 한 사람은 슬픔에 자기를 내맡겨 끌려다닌 여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불행을 당하고 더 큰 것을 잃었으면서도 제 불행이 저를 오래 다스리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곧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여인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아내 리비아는 둘 다 젊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아들이 장차 군주가 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옥타비아는 마르켈루스[2]를 잃었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아우구스투스가 기대기 시작한 젊은이, 제국의 짐을 그 어깨에 기대어 놓으려 한 젊은이였습니다. 마음이 날래고 재주가 힘찼으며, 그 나이와 그 재산을 생각하면 놀랄 만큼 검소하고 절제했고, 고생을 잘 견디고 쾌락을 멀리했습니다. 외삼촌이 그에게 무엇을 얹든, 말하자면 그 위에 무엇을 지어 올리든 넉넉히 받쳐 낼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무게에도 내려앉지 않을 주춧돌을 잘 고른 셈이었지요. 옥타비아는 평생토록 울고 탄식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도움이 될 말을 건네는 목소리는 하나도 들이지 않았고, 남이 마음을 딴 데로 돌려 주는 것조차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 매달려 온 마음을 거기에 못 박은 채, 장례 때의 모습 그대로 평생을 지냈습니다. 일어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일으켜 주는 것을 마다했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그치는 일을 자식을 두 번 잃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아들의 초상은 하나도 곁에 두려 하지 않았고, 누가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옥타비아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미워했고, 그중에서도 리비아에게 가장 사납게 굴었습니다. 자기에게 약속되었던 행운이 리비아의 아들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외로움을 벗 삼아 지내며 오라비조차 돌아보지 않았고, 마르켈루스를 기리려고 지은 시들과 그 밖에 학문이 바치는 영예를 물리쳤으며, 어떤 위로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엄숙한 의례에서 물러나, 오라비의 위대함이 너무 눈부시게 둘레를 비추는 그 처지마저 미워하며, 땅에 묻히듯 숨어 지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곁에 앉아 있는데도 상복을 벗지 않았으니, 식구 모두를 모욕한 셈입니다. 그들이 다 살아 있는데도 자식을 잃은 사람처럼 지냈기 때문입니다.

3 리비아는 아들 드루수스[3]를 잃었습니다. 장차 위대한 군주가 될 사람이었고, 이미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드루수스는 게르마니아 깊숙이 쳐들어가, 로마인이 있다는 것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곳에 로마의 군기를 꽂았습니다. 그는 원정 중에 죽었는데, 그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는 적들마저 존경을 바치며 서로 싸움을 멈추었고, 자기들에게 이로운 일을 감히 바라지도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맞은 이 죽음에 시민들과 속주들과 온 이탈리아의 크나큰 그리움이 더해졌습니다. 자치 도시와 식민 도시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장례의 예를 다하는 사이로 운구 행렬은 로마까지 이어졌고, 그 모습은 개선식을 꼭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입맞춤도, 숨을 거두는 입에서 나오는 반가운 마지막 말도 받지 못했습니다. 리비아는 먼 길을 따라 사랑하는 드루수스의 유해를 모시고 왔고, 온 이탈리아에 걸쳐 그토록 많은 화장 장작더미가 타오를 때마다 그만큼 여러 번 아들을 잃는 듯 슬픔이 덧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무덤에 안치하자마자 아들과 함께 제 슬픔도 내려놓았고, 황제가 무사히 살아 있는 터에 체면에 맞고 도리에 맞는 만큼만 슬퍼했습니다. 그 뒤로도 리비아는 사랑하는 드루수스의 이름을

기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자리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나 어디서든 아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 보았고, 아들 이야기를 하고 듣기를 무엇보다 좋아했습니다. 리비아는 아들의 기억과 함께 살았습니다. 기억을 슬픈 것으로 만들어 버린 사람은 그 기억을 붙들어 두지도, 자주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어느 본보기가 더 낫다고 보시는지 고르십시오. 앞의 본보기를 따르시겠다면 부인은 산 사람들 축에서 스스로를 빼내시게 됩니다. 남의 자식도, 부인의 자식도,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그 아들까지도 외면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들에게는 불길한 징조처럼 마주치실 것입니다. 점잖고 허락된 즐거움마저 부인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물리치실 것입니다. 햇빛 아래 미움을 받으며 들러붙어 계실 것이고, 어서 빨리 부인을 내던져 끝내 주지 않는다고 제 나이를 원수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쪽으로 이름난 부인의 마음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내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살기는 싫고 죽지는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더없이 훌륭한 이 여인의 본보기를 따라 좀 더 절도 있고 온화하게 처신하신다면, 부인은 고난 속에 머물지 않으실 것이고 고통으로 제 몸을 말려 죽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벌을 물리고 제 불행을 더 키우다니, 도대체 이 무슨 미친 짓입니까! 평생 지켜 오신 바른 행실과 삼가는 마음을 이 일에서도 보여 주십시오. 슬퍼하는 데도 절제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 젊은이는 이름을 부르거나 떠올릴 때마다 늘 부인을 기쁘게 해 드릴 자격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살아 계실 때 늘 그러셨듯 밝고 기쁜 얼굴로 어머니를 맞으러 나오시게 한다면, 부인은 그 아드님을 더 나은 자리에 모시는 셈이 됩니다.

4 그렇다고 부인을 더 독한 가르침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답지 않게 견디라고 명하거나, 장례를 치르는 바로

그날 어머니의 눈물을 말려 버리려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부인과 함께 중재인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따질 것은 슬픔이 커야 하느냐, 끝이 없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인께서 가까이 모셨던 율리아 아우구스타[4]의 본보기가 더 마음에 드시리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리비아가 자기가 택한 길로 부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불행이 가장 참을성 없고 사나운 첫 열기 속에서, 남편이 곁에 둔 철학자 아레이오스에게 자기를 위로하도록 맡겼고, 그 일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자기 슬픔으로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로마 인민보다, 버팀목 하나를 잃고 휘청이면서도 식구들의 애도에 꺾여서는 안 되던 아우구스투스보다, 아들 티베리우스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효심이 지극해서, 온 민족이 울어 준 그 쓰라린 장례에서도 리비아가 잃은 것은 자식의 수 하나뿐이라고 느끼게 해 주었지요. 제 생각에 아레이오스는 제 평판을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지키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율리아 부인, 저는 부군 곁을 늘 지켜 온 사람이라 두 분께서 세상에 내놓으시는 일뿐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신 움직임까지 다 압니다만, 제가 아는 한 부인께서는 오늘까지 누구도 부인을 탓할 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애쓰셨습니다. 그것도 큰일에서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까지 지키셨습니다. 군주를 누구보다 거리낌 없이 심판하는 것이 평판인데, 그 평판에게 용서를 바라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 하셨지요. 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많은 일을 용서해 주되 어떤 일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일에서도 늘 하시던 대로 하셔야 합니다. 덜 했더라면, 아니면 달리 했더라면 하고 나중에 바라게 될 일은 하나도 저지르지 마십시오."

5 "그다음으로 간곡히 청하오니, 벗들에게 까다롭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 부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드루수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는 것을 부인께서도 모르지는 않으시겠지요. 그토록 빛나던 젊은이를 잊으면 그분께 누가 되고, 입에 올리면 부인께 상처가 될까 봐서입니다. 우리는 물러나 한자리에 모이면 그분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그분이 받으실 만한 존경을 다해 기립니다. 그러나 부인 앞에서는 그분 이야기에 깊이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부인은 가장 큰 즐거움을 잃고 계십니다. 아드님을 기리는 칭송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인께서 그 칭송을 영원토록 늘이려 하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아드님 이야기가 오가는 말을 견디십시오. 아니, 오히려 불러들이십시오. 아드님의 이름과 기억에 귀를 활짝 여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면 위로의 말을 듣는 것까지 불행의 일부로 여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부인께서는 온몸을 한쪽으로만 기울이시고, 더 나은 것은 잊으신 채 부인의 처지를 나쁜 쪽에서만 바라보십니다. 아드님과 함께 지내던 날들과 반갑게 마주치던 순간들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어린 시절의 귀여운 응석으로도, 학업이 자라 가던 모습으로도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일의 마지막 모습만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는 끔찍함이 모자라기라도 한 듯 그 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쌓아 올리십니다. 부디 간청하오니,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그 더없이 비뚤어진 영예를 탐하지 마십시오. 또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풀리고 삶이 순풍을 타고 나아갈 때 굳세게 처신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잔잔한 바다와 순한 바람은 키잡이의 솜씨조차 드러내 주지 못합니다. 마음을 시험할 거센 무언가가 부딪쳐 와야 합니다. 그러니 무릎 꿇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발을 굳게 디디고 서서, 위에서 떨어진 짐이 무엇이든 떠받치십시오.

놀라시더라도 처음 들이닥치는 소리에만 놀라시면 됩니다. 담담한 마음만큼 운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아레이오스는 리비아에게 살아 있는 아들을 보여 주었고, 잃은 아들이 남긴 손주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6 마르키아 부인, 거기서 다룬 것은 부인의 사건이었고, 아레이오스가 곁에 앉아 준 사람도 부인이었습니다. 배역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가 위로한 사람은 부인입니다. 그러나 마르키아 부인, 이제껏 어떤 어머니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빼앗기셨다고 해 봅시다. 저는 부인을 어루만져 달래지도, 부인의 불행을 작게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울어서 운명(fatum)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 함께 웁시다. 하루하루를 모두 애도 속에 보내고, 밤마다 잠 못 이룬 채 슬픔으로 지새웁시다. 찢긴 가슴을 손으로 치고, 얼굴까지 할퀴며, 비탄이 도움이 된다면 온갖 잔인한 짓을 다 해 보게 둡시다. 그러나 아무리 가슴을 쳐도 죽은 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박혀 버린 몫이 어떤 비참함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면, 죽음이 앗아 간 것을 한번 붙들면 놓지 않는다면, 헛되이 버려지는 고통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키를 잡읍시다. 그 힘에 휩쓸려 엉뚱한 데로 떠내려가지 맙시다. 파도에 키를 빼앗기고, 펄럭이는 돛을 내버리고, 배를 폭풍에 내맡긴 키잡이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삼켜지는 순간에도 키 손잡이를 붙든 채 버틴 사람은 난파 속에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7 "하지만 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나치지 않은 동안이라면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때만이 아니라 떠나보낼 때에도 마음을 물어뜯는 아픔은 피할 수 없고, 가장 굳센 마음도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명한 것보다 생각(opinio)이 덧붙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말 못 하는 짐승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그리움은 얼마나 격렬하면서도 얼마나 짧습니까.

암소의 울음소리는 하루 이틀 들리다 말고, 암말이 넋을 잃고 이리저리 내닫는 것도 그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들짐승은 새끼의 발자취를 쫓아 숲을 헤매고 털린 굴로 몇 번이고 돌아오지만, 그 사나운 몸부림도 잠깐 사이에 꺼집니다. 새들도 빈 둥지 둘레를 요란하게 울어 대며 맴돌지만 금세 잠잠해져 다시 제 날갯길로 돌아갑니다. 제 새끼를 오래 그리워하는 짐승은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은 제 슬픔 곁에 붙어 서서 그것을 거들고, 느끼는 만큼이 아니라 작정한 만큼 아파합니다.

애도에 꺾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아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식을 잃는 똑같은 일이라도 남자보다 여자를, 온화하고 교양 있는 민족보다 야만인을,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을 더 깊이 할퀴어 놓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힘을 받은 것들은 누구에게나 같은 힘을 냅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어느 도시의 시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태웁니다. 쇠는 어떤 몸에서든 베는 힘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힘을 자연이 주었고, 자연은 사람을 가려 정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애도와 야망은 저마다 버릇에 물든 대로 다르게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을 두고 미리 품은 무시무시한 생각이 사람을 나약하고 참을성 없게 만듭니다.

8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시간이 흘러도 줄지 않는데, 고통은 긴 세월에 닳아 없어집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고, 날마다 들고일어나고, 약을 쓰면 오히려 끓어오르는 고통이라도, 사나운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데 무엇보다 효험 있는 시간이 결국 그 힘줄을 끊어 놓습니다. 마르키아 부인, 부인께는 지금도 크나큰 슬픔이 남아 있고, 이제는 굳은살까지 박인 듯합니다. 처음처럼 들끓는 슬픔이 아니라 끈질기고 완고한 슬픔입니다. 그래도 세월이 이것마저 조금씩 덜어 낼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실 때마다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지금 부인은 스스로를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슬퍼하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과 슬퍼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애도의 끝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끝내는 편이, 부인이 원치 않는데도 고통이 그치는 날을 넋 놓고 기다리기보다 그편이, 부인의 단아한 품성에 얼마나 더 어울리겠습니까! 부인께서 먼저 고통에게 절교를 선언하십시오.

9 "자연이 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째서 이토록 끈질기게 제 처지를 슬퍼하는가?" 나쁜 일이 닥치기 전에는 그런 일을 하나도 미리 떠올려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만은 면제받은 듯, 남들보다 평탄한 길에 들어선 듯 여기며, 남들이 당하는 불행을 보고도 그것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집 앞으로 그토록 많은 장례 행렬이 지나가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때 이른 장례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린 자식이 어른의 토가를 입을 날을, 군에 나갈 날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날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토록 많은 부자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것이 눈에 들어와도, 우리 재산 또한 똑같이 미끄러운 자리에 놓여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뜻밖의 일처럼 얻어맞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내다본 일은 부딪쳐 와도 힘이 덜합니다. 우리가 온갖 공격에 드러난 채 서 있고, 남들을 꿰뚫은 그 창들이 우리 둘레에서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벽이나, 적이 빽빽이 진을 치고 오르기도 가파른 곳으로 반쯤만 무장하고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각오하고, 화살과 투창과 함께 위에서 날아오는 저 돌들이 모두 자기 몸을 겨누고 던져진다고 여기십시오. 옆에서든 등 뒤에서든 누가 쓰러질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운아, 너는 나를 속이지 못한다. 마음을 놓거나 한눈판 틈에 나를 덮치지도 못한다. 네가 무엇을 꾸미는지 나는 안다. 네가 친 것은 다른 사람이지만 노린 것은 나였다." 언제 누가 자기

재산을 곧 잃을 것처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추방을, 궁핍을, 애도를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라고 일깨우면 누구든 불길한 징조처럼 뱉어 내고, 그런 일은 원수들의 머리 위로나 때를 못 가리고 일깨운 그 사람의 머리 위로나 떨어지라고 빌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보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대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아까운 빼어난 시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5]

저 사람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잃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결백도 칼끝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겪으리라 내다보지 못한 일을 겪을 때, 바로 이 착각이 우리를 속이고 나약하게 만듭니다. 앞일을 내다본 사람은 닥친 불행에서 힘을 빼앗습니다.

10 마르키아 부인, 우리 둘레에서 바깥에서 빌려 온 빛으로 반짝이는 것은 무엇이든, 자식이든 관직이든 재산이든, 넓은 안채든, 들어가지 못한 피호민들로 북적이는 현관이든, 빛나는 이름이든, 지체 높거나 아름다운 아내든, 그 밖에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운수에 매달린 모든 것은 남에게서 빌려 온 장식일 뿐입니다. 이 가운데 선물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대는 여기저기서 그러모아 주인에게 돌려줄 소품들로 꾸며집니다. 그중 어떤 것은 첫날에, 어떤 것은 이튿날에 되돌려지고, 끝까지 남는 것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것들 사이에 놓인 듯 우쭐해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는 빌려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몫은 쓰고 누리는 것뿐이고, 그 기한은 선물을 준 이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받은 것은 언제든 내줄 수 있게 챙겨 두었다가, 돌려 달라고 하면 불평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빌려준

사람에게 욕을 퍼붓는 것은 가장 못된 빚쟁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식구를 모두, 태어난 순서대로 우리보다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들이든 우리보다 먼저 가기를 스스로 바라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이들이든, 영원히 곁에 있으리라는 약속은커녕 오래 곁에 있으리라는 약속조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에게 자주 일러 주어야 합니다. 떠나갈 것처럼, 아니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운이 준 것은 무엇이든 보증인 없이 손에 넣은 물건처럼 지니십시오. 여러분, 자식에게서 즐거움을 낚아채십시오. 자식들도 여러분을 누리도록 내어 주십시오. 미루지 말고 모든 기쁨을 들이켜십시오. 오늘 밤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미를 너무 넉넉히 드렸군요. 지금 이 시각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적이 뒤에서 바짝 쫓아옵니다. 곧 이 일행은 흩어지고, 곧 함께 지내던 이 막사는 함성 한 번에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약탈당하는 판입니다. 가엾게도 여러분은 피란길 위에서 사는 법을 모르십니다.

아드님이 돌아가신 것이 슬프시다면, 그 탓은 아드님이 태어난 그때에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드님께는 죽음이 선고되었으니까요. 아드님은 이 법 아래 태어나셨고, 이 운명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줄곧 아드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운의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가혹하고 꺾을 수 없는 왕국에 들어와, 마땅한 일이든 마땅치 않은 일이든 운의 뜻대로 겪어야 합니다. 운은 우리 몸을 제멋대로, 모욕적으로, 잔인하게 다룰 것입니다. 누구는 불로 태울 것입니다. 벌로 갖다 대는 불일 때도 있고 치료로 갖다 대는 불일 때도 있습니다. 누구는 사슬로 묶을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떤 때는 적에게, 어떤 때는 같은 시민에게 맡길 것입니다. 누구는 벌거벗겨 정처 없는 바다에 내던지고, 파도와 싸우다 지친 그를 모래밭이나 해안에 뱉어 내지도 않고 어느 거대한 바다 짐승의 뱃속에 묻어 버릴 것입니다. 누구는 갖가지 병으로

바싹 말려 삶과 죽음 사이에 오래 붙잡아 둘 것입니다. 운은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이며 제 노예들을 돌보지 않는 여주인처럼, 벌을 줄 때도 상을 줄 때도 갈피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11 삶의 한 부분을 두고 울 까닭이 무엇입니까? 삶 전체가 울 일입니다. 묵은 불행을 미처 다 치르기도 전에 새 불행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절도 없이 견디는 여러분 여인들이야말로 절도를 지켜야 하고, 사람 가슴의 힘을 여러 슬픔에 고루 나누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와 모두의 처지를 이렇게 잊어버리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인은 죽을 몸으로 태어나셨고 죽을 자식들을 낳으셨습니다. 부인 자신이 썩고 흘러내리는 몸으로 병에 거듭 시달리면서, 그토록 무른 재료로 단단하고 영원한 것을 품었으리라고 바라셨습니까? 아드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부인께서 아드님보다 운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들도 서둘러 달려가는 그 결승점까지 아드님이 먼저 달려가셨다는 말입니다. 포룸에서 소송을 벌이고, 극장에서 손뼉을 치고, 신전에서 기도하는 저 모든 무리가 걸음만 다를 뿐 그리로 갑니다. 부인이 사랑하시는 것도, 우러르시는 것도, 업신여기시는 것도 똑같은 한 줌의 재가 평평하게 고를 것입니다. 분명 이것을 〈…〉[6] 델포이 신탁의 말로 전하는 저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내던져져도 깨지는 그릇입니다. 산산조각 나는 데 큰 폭풍은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부딪치든 부서집니다.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몸, 벌거벗고, 타고나기를 무기 하나 없고, 남의 도움이 아쉬우며, 운이 퍼붓는 온갖 모욕 앞에 내던져진 몸입니다. 팔뚝을 아무리 잘 단련해도 어느 짐승에게든 먹이가 되고 어느 짐승에게든 제물이 됩니다. 무르고 흘러내리는 것들로 엮여 있으면서 겉모양만 번듯하고, 추위도 더위도 수고도 견디지 못하며, 그렇다고 가만히 쉬기만 해도 썩어 들어갑니다. 제 먹을 것을

두려워하니, 모자라면 기운이 빠지고 넘치면 터져 버립니다.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게 지켜야 하고, 숨은 빌려 쉬는 듯 위태롭게 붙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느닷없이 귀를 때리는 큰 소리에도 떨어져 나갑니다. 늘 제 근심을 제가 먹여 키우는, 흠 많고 쓸모없는 몸입니다. 숨 한 번 꺽 막히면 그만인 죽음을 이런 몸에서 보고 우리가 놀란단 말입니까? 이것을 쓰러뜨리는 데 무슨 큰 공이 든단 말입니까? 냄새도, 맛도, 피로도, 잠 못 드는 밤도, 물도, 먹을 것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까지 이 몸에는 죽음을 부릅니다. 어디로 옮겨 가든 곧 제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아무 하늘이나 견디지 못하고, 낯선 물과 익숙지 않은 바람에, 아주 사소한 까닭과 탈에도 병이 납니다. 썩어 가는 병자이며, 울음으로 삶을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찮은 동물이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키며, 제 처지를 잊고 얼마나 큰 생각에 빠져듭니까! 사람은 죽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마음에 굴리며 손주와 증손주 대까지 일을 짜 둡니다. 그러나 그사이 먼 일을 꾀하는 그를 죽음이 덮치고, 노년이라 부르는 것도 고작 몇 해가 한 바퀴 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2 부인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이치(ratio)가 있다면, 그 고통은 부인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떠난 이가 입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드님을 잃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은 아드님에게서 아무 즐거움도 얻지 못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드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더 큰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무 즐거움도 얻지 못하셨다고 하신다면 부인의 손실은 그만큼 견딜 만해집니다. 사람은 아무 기쁨도 즐거움도 얻어 본 적 없는 것은 덜 그리워하니까요. 큰 즐거움을 얻으셨다고 인정하신다면, 빼앗긴 것을 두고 불평하실 것이 아니라 누린 것을 두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을 기르는 일 자체에서 이미 부인의 수고는 넉넉한 열매를

거두었으니까요. 강아지나 새나 마음을 달래 주는 하찮은 것들을 정성껏 기르는 사람도 말 못 하는 짐승들을 보고 만지고 그것들이 살갑게 굴 때 얼마간 즐거움을 누리는데, 자식을 기르는 사람에게 기르는 일 자체가 기른 보람이 아닐 리 없습니다. 그러니 아드님의 부지런함이 부인께 보탠 것이 하나도 없고, 아드님의 꼼꼼함이 부인을 위해 지켜 준 것이 하나도 없고, 아드님의 분별이 부인께 일러 준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아드님을 곁에 두셨다는 것, 아드님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 더 크게 누릴 수도 있었다." 그래도 아예 누리지 못한 것보다는 부인께 나은 일이었습니다. 잠시 운이 좋은 편과 한 번도 운이 좋지 못한 편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고르라고 한다면, 떠나갈 좋은 것이라도 누리는 편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편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부인께서는 어느 쪽을 바라셨겠습니까? 아들 하나의 머릿수와 이름만 채울 못난 자식을 두는 쪽입니까, 아니면 부인의 아드님처럼 그토록 바탕이 훌륭한 아들을 두는 쪽입니까? 일찍 분별이 들고, 일찍 효성스러웠고, 일찍 남편이 되고, 일찍 아버지가 되고, 일찍 온갖 의무(officium)를 살피고, 일찍 사제가 된 젊은이, 모든 일을 서두르듯 해치운 젊은이 말입니다. 크고도 오래가는 좋은 것을 함께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디게 오는 행운이 아니면 오래가지도,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불멸의 신들은 아드님을 부인께 오래 주지 않을 작정이었기에, 오래 공들여도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을 그런 아들을 곧바로 주었습니다.

신들이 부인을 골라 아들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숱한 무리를 두루 둘러보십시오. 어디서나 더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들도 이런 일을 겪었고, 군주들도 겪었습니다. 신화는 신들조차 이런 일에서 비켜 두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신들도

쓰러진다는 것이 우리 장례에 위안이 되라고 그리한 듯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두를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비참한 집을 꼽으셔도, 그보다 더 비참한 집에서 위안을 얻지 못할 만큼 비참한 집은 없을 것입니다. 맹세코 저는 부인의 품성을 그리 낮게 보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늘어놓아 보여 드리면 부인이 불행을 더 가볍게 견디시리라고 생각할 만큼 말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의 무리는 심술궂은 위안입니다. 그래도 몇 사람은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에게 흔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본보기를 모으는 것은 우스운 일이니까요. 거친 일을 담담하게 견뎌 누그러뜨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가장 운 좋은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루키우스 술라[7]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의 악랄함도, 적에게도 시민에게도 사납게 휘두른 그 용기도 꺾이지 않았고, 그가 아들을 잃은 뒤에 붙인 '운 좋은 자(felix)'라는 별명이 거짓으로 보이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술라는 그 별명을 붙이면서 사람들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풀린 그의 일은 바로 그 사람들의 불행 위에 서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신들의 시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술라가 그토록 운이 좋다는 것은 신들의 허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술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으로 넘겨 둡시다. 그가 무기를 잘 들었고 잘 내려놓았다는 것만은 그의 적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다루는 문제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가장 운 좋은 사람에게까지 닥치는 일은 가장 큰 악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13 제물을 바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피리 부는 사람에게 연주만 멈추게 하고 머리에서 화관을 벗었을 뿐 나머지 의식은 예법대로 마친 그 아버지를 그리스가 너무 우러르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관 풀빌루스[8]입니다. 풀빌루스는

문설주를 붙잡고 카피톨리움 신전을 봉헌하던 중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못 들은 척하고 신관의 엄숙한 기도문을 끝까지 읊었습니다. 신음 한 번 기도를 끊지 않았고, 아들의 이름이 귀에 들어온 그 순간에도 유피테르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첫날의 첫 충격조차 나라의 제단과 상서로운 봉헌 선언에서 그 아버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의 애도에 따로 끝을 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맹세코, 신들이 노했을 때조차 섬기기를 그치지 않은 그 사람은 그 기념할 만한 봉헌에도, 가장 높은 사제직에도 걸맞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집에 돌아가자 눈에 눈물을 가득 채웠고, 울먹이는 소리도 얼마간 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에게 해 주는 것이 관습인 일을 다 마치고 나서는 카피톨리움에서 보였던 그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파울루스[9]는 페르세우스를 사슬로 묶어 전차 앞에 세우고 끌고 간 그 더없이 이름난 개선식 무렵에, 두 아들은 남의 집에 양자로 내주었고 자기 곁에 남겨 둔 두 아들은 장사 지냈습니다. 남에게 빌려준 아들 가운데 스키피오가 있었으니, 곁에 남겨 둔 아들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로마 인민은 비어 있는 파울루스의 전차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파울루스는 인민 앞에서 연설하며,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고 신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 때문에 시기의 값을 치러야 한다면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아 치르게 해 달라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견뎠는지 보이십니까? 그는 자식을 잃은 것을 두고 스스로를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변화에 누가 그보다 더 흔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위안과 버팀목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래도 페르세우스는 슬퍼하는 파울루스를 보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14 이제 와서 위대한 사람들의 셀 수 없는 본보기를 하나하나 짚으며 부인을 데리고 다니고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하겠습니까? 운 좋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끝까지 집안의 모든 부분이 온전히 버티고 무엇 하나 어지러워지지 않은 집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 해나 하나 골라 그해의 정무관들을 불러 보십시오. 원하신다면 루키우스 비불루스와 카이사르[10]를 불러 보십시오. 서로 그토록 미워한 두 동료 사이에서 운만은 사이좋게 같은 길을 걸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용감하기보다 착한 사람이었던 루키우스 비불루스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병사들에게 놀림감이 된 끝에 죽었으니, 자식을 잃은 일 자체 못지않게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이 누구인지도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정관 임기 한 해 내내 동료에게 미움이 쏠리도록 집에 틀어박혀 있던 비불루스가, 두 아들의 장례 소식을 들은 이튿날 사령관으로서 늘 하던 소임을 보러 나섰습니다. 두 아들에게 하루보다 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정관 자리를 두고는 한 해 내내 애도한 사람이 자식들의 애도는 그토록 빨리 끝냈습니다. 카이사르는 브리타니아를 누비며 제 행운을 대양으로도 가둬 둘 수 없던 때, 나라의 운명까지 함께 끌고 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눈앞에는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자기 말고 다른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을 담담히 견디지 못하고 카이사르가 커 가는 것을 막으려 들 폼페이우스였고, 그에게는 카이사르가 커 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울 때조차 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카이사르는 사흘이 채 안 되어 사령관의 소임을 다시 보았고, 늘 모든 것을 이기던 그 속도로 슬픔도 빨리 이겼습니다.

15 다른 카이사르 집안 사람들의 장례를 무엇하러 늘어놓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운은 이따금 그들을 짓밟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인류에게 쓸모가 있게 하려는 듯합니다. 신들에게서 태어났고 신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조차 남의 운을 마음대로 하듯 제 운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니까요. 신격 아우구스투스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잃고 카이사르 집안의 그 많은 사람이 다 스러지자 입양으로 텅 빈 집안을 떠받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굳세게 견뎠습니다. 이미 자기 일이 걸려 있는 사람답게, 누구도 신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누구보다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답게 견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낳은 아들도, 입양한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몸소 연단에 서서 아들을 기리는 추도사를 했습니다. 시신을 눈앞에 두고, 신관의 눈이 시신을 보지 않도록 휘장 하나만 사이에 친 채 서 있었습니다. 로마 인민이 우는데도 그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세야누스에게, 자기가 얼마나 꿋꿋하게 식구를 잃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내보인 셈입니다.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이 불행이 비켜 가지 않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십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의 미덕도 그토록 많았고, 나라와 집안이 쌓아 준 영예도 그토록 많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폭풍은 돌고 돌며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휩쓸고, 모든 것을 제 것처럼 몰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부를 내놓게 해 보십시오. 값을 치르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6 부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압니다. "당신은 여자를 위로한다는 것을 잊고 남자들의 본보기만 늘어놓는다." 그러나 자연이 여자들의 타고난 바탕에 인색하게 굴어 그 덕을 좁게 줄여 놓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자들도 기운은 똑같고, 마음만 먹는다면 훌륭한 일을 해낼 힘도 똑같습니다. 길들기만 하면 고통과 수고도 똑같이 견딥니다. 신들이시여, 우리가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루크레티아와 브루투스가 로마인의 머리 위에서

왕을 끌어내린 도시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브루투스에게 빚졌고, 브루투스는 루크레티아에게 빚졌습니다. 적도 강물도 우습게 여긴 클로일리아의 빼어난 담력을 기려 하마터면 남자들 축에 올려 적을 뻔한 도시입니다. 클로일리아는 가장 사람이 붐비는 성스러운 길에서 말 탄 동상으로 앉아, 가마에 올라타는 우리 젊은이들을 꾸짖습니다. 여자에게까지 말을 선사한 이 도시에서 그런 꼴로 다니느냐고 말입니다. 식구를 꿋꿋하게 그리워한 여인들의 본보기를 들어 드리기를 바라신다면, 집집이 문을 두드리며 찾지 않겠습니다. 한 집안에서 코르넬리아 둘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스키피오의 딸이자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열두 번 아이를 낳았고, 그 열두 아이의 장례를 하나하나 치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야 태어난 줄도 죽은 줄도 나라가 몰랐으니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11]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라고는 인정할 텐데,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묻히지도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위로하며 가엾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코르넬리아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라쿠스 형제를 낳은 사람이오. 내가 운 나쁜 여자라고 말하는 날은 결코 없을 것이오." 둘째 코르넬리아는 리비우스 드루수스를 잃었습니다. 빼어난 재능을 지닌 이름난 젊은이로 그라쿠스 형제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숱한 법안을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채 자기 집 안에서 살해되었고, 누가 죽였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코르넬리아는 쓰라리고 원수도 갚지 못한 아들의 죽음을, 아들이 법안을 내놓던 그 담대함 그대로 담대하게 견뎠습니다. 마르키아 부인, 운이 스키피오 집안 사람들과 그 어머니들과 딸들에게 던지고 카이사르 집안을 겨누던 그 창을 부인에게만 거두지 않았다면, 이제는 운과 화해하시겠습니까?

삶은 갖가지 불행으로 가득하고 사납습니다. 그 불행과는 누구도 오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휴전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마르키아 부인, 부인은 자식 넷을 낳아 기르셨습니다. 빽빽한 대열에 던진 창은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토록 많은 식구가 시기도 손실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 놀랄 일입니까? "그러나 운은 이 점에서 더 불공평했다. 아들들을 빼앗아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골라서 빼앗아 갔다." 그러나 더 힘센 상대와 똑같이 나누었다면 결코 그것을 불의(iniuria)라고 하지 마십시오. 운은 부인께 딸 둘과 그 딸들이 낳은 손주들을 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잃은 아들은 잊으신 채 부인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그 아들조차, 운은 송두리째 빼앗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드님이 남긴 딸 둘이 부인 곁에 있습니다. 잘못 견디시면 큰 짐이 되고, 잘 견디시면 큰 위안이 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실 때 고통이 아니라 아드님을 떠올리시도록 마음을 이끄십시오. 농부는 바람에 뿌리째 뽑히거나 갑자기 휘몰아친 회오리에 꺾여 쓰러진 나무들을 보면, 그 나무들에서 남은 어린 가지를 돌보고 잃은 나무 자리에 곧바로 씨앗과 묘목을 심습니다. 그러면 잠깐 사이에 잃은 것보다 더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시간은 잃게 할 때만큼 자라게 할 때도 날래고 빠르니까요. 이제 부인의 메틸리우스가 남긴 이 딸들을 아드님 대신 세우시고, 빈자리를 채우시고, 한 가지 슬픔을 두 겹의 위안으로 덜어 내십시오. 하기야 잃은 것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없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빼앗긴 것을 그리워하느라 남은 것에 박하게 굽니다. 그러나 운이 사나울 때조차 부인을 얼마나 아껴 주었는지 헤아려 보신다면, 부인께 위안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손주와 두 딸을 돌아보십시오. 마르키아 부인, 이런 말도 해 보십시오. "운이 저마다 행실대로 주어지고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결코 따르지

않는다면 나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니 아무런 가림 없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이리저리 내던져진다."

17 "그래도 손수 길러 이제 막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버팀목이자 자랑이 된 젊은이를 잃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은 이러려고 태어났습니다. 잃고 죽고, 바라고 두려워하고, 남과 자기를 들볶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바라고, 무엇보다 나쁘게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끝내 알지 못하려고 태어났습니다.

누가 시라쿠사로 가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 봅시다. "앞으로 할 여행의 불편한 점과 즐거운 점을 모두 미리 알아 두고, 그다음에 배를 타시오. 그대가 감탄할 만한 것은 이렇소. 그대는 먼저 좁은 해협 하나로 이탈리아에서 잘려 나간 그 섬을 보게 될 것이오. 본디 뭍에 붙어 있었다고 알려진 섬이오. 바다가 갑자기 그리로 밀려들어"

"헤스페리아의 옆구리를 시칠리아에서 잘라 냈다."[12]

"그다음에는 바다에서 가장 게걸스러운 소용돌이 곁을 스치듯 지나가게 될 테니, 저 이야기 속의 카립디스를 보게 될 것이오. 남풍이 불지 않는 동안에는 잔잔히 누워 있지만, 그쪽에서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크고 깊은 아가리를 벌려 배들을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요. 노래에 그토록 자주 오르내린 아레투사 샘도 보게 될 것이오. 바닥까지 반짝이며 맑게 비치는 못에서 더없이 차가운 물을 쏟아 내는 샘이오. 그 물이 거기서 처음 솟아난 것인지, 아니면 땅속으로 스며든 강이 그 많은 바다 밑을 지나며 더 탁한 물과 섞이지 않고 고스란히 지켜져 거기서 다시 솟아난 것인지는 모르오. 자연이 함대를 지키려고 마련했거나 사람 손이 거들어 만든 항구 가운데 가장 잔잔한 항구도 보게 될 것이오. 아무리 큰 폭풍이 미쳐 날뛰어도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안전한 항구요. 아테네의 힘이 꺾인 곳, 바위를 끝없이 깊이 깎아 낸 그 천연의 감옥이

수천 명의 포로를 가두었던 곳도 보게 될 것이오. 거대한 도시 자체와, 여느 도시 여럿의 경계를 합친 것보다 넓은 땅과, 더없이 따뜻한 겨울과, 해가 얼굴을 내밀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는 날씨도 보게 될 것이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무덥고 몸에 해로운 여름이 겨울 하늘이 베푼 은혜를 망쳐 놓을 것이오. 거기에는 참주 디오니시오스[13]가 있을 것이오. 자유와 정의와 법을 멸망시킨 자요, 플라톤을 만난 뒤에도 권력을 탐하고 추방된 뒤에도 목숨을 탐한 자요. 그는 누구는 불태우고, 누구는 매질하고, 누구는 사소한 허물을 잡아 목을 베라 할 것이오. 욕정을 채우려고 사내든 여자든 불러들일 것이고, 왕의 방탕을 채우는 더러운 무리 속에서 한꺼번에 둘과 몸을 섞는 것으로도 모자랄 것이오. 그대를 끌어당길 만한 것과 겁을 주어 물리칠 만한 것을 모두 들었소. 그러니 배를 타든지 그만두든지 하시오." 이렇게 미리 일러 주었는데도 누가 시라쿠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면, 그는 자기 말고 누구를 탓하며 정당하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그 일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다 알고서 일부러 찾아간 사람인데요.

자연은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 네가 자식을 낳아 기른다면 잘생긴 자식을 둘 수도 있고 못생긴 자식을 둘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럿이 태어날 것이다. 그 가운데 누구는 조국을 구할 수도 있고 조국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 자식들이 큰 존경을 받아 그들 덕분에 아무도 감히 너를 욕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버릴 까닭은 없다. 그러나 자식들이 큰 추문을 일으켜 그들 자체가 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미리 생각해 두어라. 자식들이 너의 마지막 장례를 치러 주고 너를 기리는 추도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자식을 화장 장작더미에 올려놓게 될 사람처럼 마음의 채비를 해 두어라.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 부모가 뒤따라가는 장례치고 쓰라리지 않은 장례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자식을 낳아 기른다면, 신들을 모든 원망에서 풀어 주는 셈입니다. 신들은 무엇 하나 확실하게 약속한 적이 없으니까요.

18 자, 이 그림을 삶 전체에 들어서는 일에 견주어 보십시오. 시라쿠사에 가 볼지 망설이는 사람에게 저는 즐겁게 할 만한 것과 언짢게 할 만한 것을 모두 펼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태어날 때 제가 의논 상대로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신들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도시로 들어서려 하오. 모든 것을 끌어안고, 정해진 영원한 법으로 묶여 있으며, 지칠 줄 모르는 하늘의 소임을 돌리고 있는 도시요. 그대는 거기서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별 하나가 모든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날마다 도는 길로 낮과 밤의 길이를 매기고, 해마다 도는 길로 여름과 겨울을 고르게 나누는 해 말이오. 밤이면 달이 해의 뒤를 잇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오라비 해와 마주칠 때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을 빌려 오고, 어떤 때는 숨어 버리고 어떤 때는 얼굴을 다 드러낸 채 땅 위에 걸려, 차고 기울며 모습을 바꾸어 언제나 바로 전날과 다른 달이오. 다섯 별이 저마다 다른 길을 가며 곤두박질치듯 도는 우주를 거슬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이 별들이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거기에 민족들의 운이 걸려 있고, 길한 별이 오느냐 흉한 별이 오느냐에 따라 가장 큰 일도 가장 작은 일도 꼴을 갖추오. 그대는 모여드는 구름과 쏟아지는 비와 비껴 내리꽂히는 번개와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에 놀랄 것이오. 위의 구경거리에 물려서 땅으로 눈을 떨구면, 생김새가 다르고 놀라움도 다른 세상이 그대를 맞을 것이오. 이쪽에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평평하게 깔려 있고, 저쪽에는 눈 덮인 커다란 산줄기를 따라 솟아오른 봉우리들이 하늘 높이 서 있소. 강물은 떨어져 내리고, 한 샘에서 나온 물줄기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갈라져 흐르고, 높은 꼭대기에서는 숲이 흔들리며, 그 많은 숲에는 짐승들이 살고 새들이 서로 어긋나는 노래를

부르오. 도시들은 저마다 다른 자리에 앉아 있고, 땅이 험해 바깥과 떨어져 사는 민족들도 있소. 어떤 민족은 깎아지른 산속으로 숨어들고, 어떤 민족은 강기슭과 호숫가와 골짜기에 겁에 질려 흩어져 사오. 사람이 가꾸어 거둔 곡식이 있고, 가꾸는 이 없이 제멋대로 자란 나무들이 있소. 냇물은 풀밭 사이로 순하게 굽이쳐 흐르고, 아름다운 만과 안으로 휘어 들어가 항구를 이루는 해안이 있으며, 드넓은 바다 곳곳에 흩어진 그 많은 섬이 사이사이 끼어들어 바다를 나누오. 돌과 보석의 반짝임은 또 어떻소? 세찬 급류의 모래 사이로 흘러내리는 금은 어떻고, 땅 한가운데서, 또 바다 한가운데서 솟구치는 불기둥은 어떻소? 땅과 땅을 묶는 대양은 또 어떻소? 세 갈래 만으로 민족들이 이어 사는 땅을 가르고, 거침없이 마구 끓어오르는 대양 말이오. 그대는 바람 없이도 쉬지 않고 출렁이는 바닷물 위로 뭍의 것보다 훨씬 큰 짐승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어떤 것은 둔해서 남의 길잡이를 받아 움직이고, 어떤 것은 날래서 힘껏 젓는 노보다 빠르며, 어떤 것은 물을 들이켰다가 뿜어내어 그 앞을 지나는 배들을 크게 위태롭게 하오. 그대는 여기서 알지 못하는 땅을 찾아 나서는 배들을 보게 될 것이오. 사람의 대담함이 손대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대 자신도 구경꾼이면서 큰일을 꾀하는 사람들의 큰 몫이 될 것이오. 그대는 기술을 배우고 또 가르칠 것이오. 삶을 갖추어 주는 기술, 삶을 꾸며 주는 기술, 삶을 다스리는 기술 말이오. 그러나 거기에는 몸과 마음을 해치는 역병이 천 가지나 있을 것이오. 전쟁과 강도질과 독약과 난파가 있고, 날씨의 탈과 몸의 탈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쓰라린 그리움이 있고, 죽음이 있소. 그 죽음이 편안할지, 형벌과 고문을 거쳐 올지는 알 수 없소. 스스로 따져 보고 무엇을 바라는지 저울질해 보시오. 저 좋은 것들에 이르려면 이 나쁜 것들을 지나가야 하오." 살고 싶다고 대답하시겠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엇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아파하실 그런 삶에 들어서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약속한 대로 사십시오. "아무도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두고는 우리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삶의 조건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 삶 속으로 들이셨습니다.

19 이제 위안으로 넘어가기 위해, 먼저 무엇을 치료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슬퍼하는 사람을 흔드는 것은 사랑한 이를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 자체로는 견딜 만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살아 있는 동안 떠나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떠나 있을 사람을 두고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들을 볼 수 없게 되면서 그들과 누리던 모든 것도 빼앗기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고, 나쁜 일은 무엇이든 우리가 매긴 값만큼만 큽니다. 약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저 떠나 있다고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속입시다. 우리는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곧 뒤따라갈 우리가 그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흔드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나를 지켜 줄 사람도, 업신여김을 당할 때 편들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 떳떳하지는 않지만 참된 위안을 하나 들자면, 우리 나라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이 사람의 환심을 빼앗기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가져다줍니다. 예전에는 노년을 무너뜨리던 외로움이 이제는 노년을 권세로 이끌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미워하는 척하고 자식과 의절하며 제 손으로 자식 없는 처지를 만들어 내기까지 합니다.

부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압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은 내가 입은 손실 때문이 아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노예 하나 잃은 것처럼 언짢아하는 사람, 아들에게서 아들 자신 말고 다른 무엇을 돌아볼 겨를이 있는 사람은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다면 마르키아 부인, 무엇이 부인을 흔듭니까?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래 사시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이라면 부인은 늘

슬퍼하셨어야 합니다. 아드님이 언젠가 죽으리라는 것을 늘 알고 계셨으니까요. 죽은 이는 어떤 나쁜 일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승을 무섭게 만드는 것들은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죽은 이들을 기다리는 어둠도, 감옥도, 불타오르는 강물도, 망각의 강[14]도, 재판정과 피고들도, 그토록 활짝 풀려난 자유 속에 다시 나타나는 참주들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시인들이 장난삼아 지어내어 헛된 공포로 우리를 들쑤셔 놓은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우리의 불행이 넘어오지 못하는 경계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누워 있던 그 평정(tranquillitas) 속에 우리를 다시 눕혀 줍니다. 죽은 이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태어나지 않은 이도 가엾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선이나 악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무로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를 어떤 운에도 넘겨주지 않습니다. 악도 선도 무언가 재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입니다. 자연이 놓아 보낸 것을 운이 붙들 수는 없고, 없는 사람이 비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의 아드님은 종살이하는 경계 밖으로 나가셨고, 크고 영원한 평화가 아드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아드님은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재산을 걱정하지도 않으시고, 쾌락을 미끼로 마음을 갉아먹는 욕정의 가시에 찔리지도 않으십니다. 남의 행운을 시기하는 마음이 닿지도 않고, 자기 행운에 짓눌리지도 않으시며, 삼가는 그 귀가 어떤 욕설에 맞을 일도 없습니다. 나라의 재앙도, 집안의 재앙도 내다보실 일이 없습니다. 앞날을 걱정하며, 늘 더 불확실한 것에 매달린 결과에 목을 매지도 않으십니다. 아드님은 마침내 아무것도 몰아낼 수 없고 아무것도 겁줄 수 없는 곳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20 아, 제 불행을 모르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죽음을 자연의 가장 좋은 발명으로 기리지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행운을 가두어 지켜

주기도 하고, 재앙을 물리치기도 하고, 노인의 물림과 지침을 끝내 주기도 하고, 더 좋은 날을 바라던 젊은 시절을 꽃필 때 데려가기도 하고, 더 험한 고비에 이르기 전에 어린 시절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끝이요, 많은 이에게 약이요, 어떤 이에게는 소원이며, 부르기도 전에 찾아온 이들에게 누구보다 큰 은혜를 베풉니다. 죽음은 주인이 원치 않아도 노예를 종살이에서 놓아줍니다. 죽음은 포로들의 사슬을 풀어 줍니다. 죽음은 횡포한 권력이 나가지 못하게 막은 이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죽음은 늘 조국 쪽으로 마음과 눈을 두는 추방된 사람들에게, 누구 발밑에 묻히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운이 모두의 것을 고약하게 나누어 같은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 죽음은 모든 것을 평평하게 고릅니다. 죽음 뒤에는 누구도 남의 뜻대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속에서는 누구도 제 미천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마르키아 부인, 부인의 아버님이 간절히 바라신 것도 죽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어나는 것이 형벌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죽음이고, 불행이 아무리 을러대도 제가 무너지지 않게, 제 마음을 온전하고 제 주인으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제게는 상소할 곳이 있습니다. 저기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한 가지 꼴이 아니라 저마다 다르게 만든 십자가들입니다. 어떤 자들은 사람을 머리가 땅으로 가게 거꾸로 매달고, 어떤 자들은 음부로 말뚝을 박아 넣고, 어떤 자들은 두 팔을 가로대에 펼쳐 묶습니다. 고문용 밧줄이 보이고, 채찍이 보이고, 팔다리 마디마디마다 따로 고안해 낸 고문 기구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도 보입니다. 저기에는 피에 굶주린 적들도 있고 오만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죽음도 보입니다. 주인의 지배에 넌더리가 나면 한 걸음만 내디뎌 자유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라면 종살이도 괴롭지 않습니다. 삶이여,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죽음 덕분이다.

제때 오는 죽음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더 오래 산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제국의 자랑이요 버팀목이던 그 사람을 나폴리에서 병이 데려갔다면, 그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로마 인민의 제일인자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 덧붙는 바람에 제 높은 자리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자기 군단들이 눈앞에서 도륙되는 것을 보았고, 원로원이 맨 앞줄에 섰던 그 싸움에서 사령관 자신이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는 이집트인 사형 집행자를 보았고, 승자들에게도 신성하던 그 몸을 한낱 호위병의 칼에 내맡겼습니다. 설령 무사했다 해도 그는 목숨을 건진 것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왕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마르쿠스 키케로가 자기를 조국과 함께 겨누던 카틸리나의 비수를 피하던 그때 쓰러졌다면, 그는 나라를 해방하고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딸의 장례를 뒤따라 죽었더라도, 그때까지는 운 좋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시민들의 목을 겨누고 뽑아 든 칼날도, 살해당한 이들의 재산이 살인자들에게 나뉘어 피해자들이 제 돈으로 죽임을 당하는 꼴도, 집정관을 지낸 이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경매대에서 팔려 나가는 꼴도, 나라가 공공연히 살인을 청부하는 꼴도, 강도질과 전쟁과 약탈도, 그 많은 카틸리나들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쿠스 카토가 키프로스에서 왕의 유산을 처리하고 돌아올 때, 내전의 군자금으로 쓰일 바로 그 돈과 함께 바다가 그를 삼켜 버렸다면 그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아무도 카토 앞에서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리라는 명예만은 지니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몇 해 안

되는 세월이 덧붙는 바람에, 자기 자유만이 아니라 나라의 자유를 위해 태어난 그 사람이 카이사르를 피해 달아나고 폼페이우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때 이른 죽음은 아드님께 어떤 나쁜 일도 가져다주지 않았고, 오히려 온갖 나쁜 일을 견뎌야 하는 수고마저 덜어 드렸습니다.

21 "그래도 너무 일찍, 때 이르게 죽었다." 먼저, 아드님이 오래 살아남았다고 해 봅시다. 사람에게 허락된 가장 먼 데까지 나아갔다고 셈해 보십시오. 그래 봐야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을 살려고 태어나, 곧 뒤에 오는 이에게 자리를 내줄 몸으로, 우리에게 떠맡겨진 이 삶을 잠시 묵어 가는 여관처럼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 믿을 수 없이 빠르게 굴러가 버리는 우리 사람의 나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도시들이 지나온 세월을 셈해 보십시오. 오래되었다고 뽐내는 도시들조차 얼마나 짧게 서 있었는지 보실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모두 짧고 덧없으며, 끝없는 시간에서 한 조각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주 전체에 견주어 볼 때 도시와 민족과 강과 바다 둘레를 다 품은 이 땅을 한 점으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 수명은 온 시간에 견주면 한 점보다도 작은 몫입니다. 시간의 크기는 우주의 크기보다 큽니다. 우주는 시간의 길이 안에서 몇 번이고 거듭 제 길이를 재어 돌아오니까요. 그렇다면 아무리 늘려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늘려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 삶이 긴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넉넉할 때입니다. 오래 산 사람들, 그 노년이 기억에 전해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백십 년씩 헤아려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온 시간으로 놓아 보내고 나서, 누가 산 기간을 들여다보고 그가 살지 않은 기간과 견주어 보면, 가장 짧은 생애와 가장 긴 생애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드님은 아드님 자신에게는 때가 차서 떠나셨습니다. 살아야 할 만큼 사셨고, 그 뒤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노년은 하나가 아니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짐승은 열네 해 만에 지쳐 버리고, 사람에게는 첫 시기인 나이가 그 짐승에게는 가장 긴 수명입니다. 살 수 있는 몫은 저마다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너무 일찍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산 것보다 더 오래 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경계가 박혀 있습니다. 그 경계는 언제나 놓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고, 애써도 환심을 사도 더 밀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기십시오. 부인은 정해진 뜻에 따라 아드님을 잃으셨습니다. 아드님은 제 몫을 다 받아 가셨고

"주어진 생애의 결승점에 다다랐다."[15]

그러니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짓누르실 까닭이 없습니다. 아드님의 삶은 도중에 끊기지 않았습니다. 우연은 결코 사람의 햇수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저마다 약속받은 것은 다 치러집니다. 운명은 제 길을 가며 무엇 하나 보태지도, 한번 약속한 것에서 덜어 내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애씀도 헛됩니다. 누구든 첫날이 장부에 적어 준 만큼 받을 것입니다. 아드님은 처음 빛을 보신 그날부터 죽음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셨고, 운명에 점점 다가가셨으며, 젊음에 더해지던 바로 그 햇수가 삶에서 빠져나가던 햇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착각 속을 헤맵니다. 늙어 이미 허리가 굽은 사람만 죽음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갓난아기 때부터, 젊은 시절에도, 어느 나이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갑니다. 운명은 제 일을 합니다. 운명은 우리가 죽어 간다는 느낌을 우리에게서 빼앗고, 죽음은 더 쉽게 숨어들려고 삶이라는 이름 아래 몸을 숨깁니다. 유년은 아기 시절을 제 안으로 바꾸어 넣고, 청소년기는 유년을, 노년은 젊은이를 앗아 갔습니다. 잘 셈해 보면 자라는 것이 곧 잃는 것입니다.

22 마르키아 부인, 아드님이 살 수 있었던 만큼 오래 살지 못했다고 불평하십니까? 아드님께 더 오래 사는 것이 이로웠는지, 아니면 이

죽음이 아드님을 위한 배려였는지 부인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세월이 흘러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형편이 탄탄히 자리 잡고 뿌리내린 사람을 오늘날 누구 하나라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일은 흔들리고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만큼 쉽게 다치고 여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야말로 죽음을 바라야 합니다. 이토록 갈피없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지나간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치스러운 도시의 눈길 속에서 더없이 정숙하게 지켜 온 아드님의 그 아름다운 몸이 그 많은 병을 다 피해 노년까지 고운 모습을 다치지 않고 지켜 갈 수 있었으리라고 누가 부인께 보증하겠습니까?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천 가지 얼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곧은 재능도 젊은 날 품게 했던 기대를 노년까지 지켜 가지 못하고 대개는 엇나가 버립니다. 늦바람이라 더 추한 사치가 덮쳐 빛나던 시작을 더럽히기도 하고, 아니면 통째로 술집과 배에 엎어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가 걱정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불과 무너짐과 난파를 보태십시오. 산 사람의 뼈를 골라내고 내장 속까지 손을 통째로 집어넣고 부끄러운 곳을 고치느라 한 가지로 그치지 않는 아픔을 주는 의사들의 칼질도 보태십시오. 그다음에는 추방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루틸리우스보다 더 결백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우시지는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낸 상처로 꿰뚫린 가슴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카토보다 더 거룩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루 살펴보시면, 이런 삶의 품삯이 기다리고 있기에 자연이 일찍 안전한 곳으로 거두어들인 이들이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삶만큼 속임수가 많은 것도, 음험한 것도 없습니다. 맹세코, 모르는 채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운 좋은 일이라면,

그다음으로 좋은 일은 짧게 살다 떠나 서둘러 본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인께 가장 쓰라렸던 그때를 눈앞에 그려 보십시오. 세야누스가 부인의 아버님을 자기 피호민 사트리우스 세쿤두스에게 하사품처럼 내준 때 말입니다. 세야누스는 아버님이 한두 번 지나치게 거침없이 하신 말씀 때문에 아버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세야누스가 우리 목 위에 올려 앉혀지는 것도 아니고 제 발로 기어오르는 것을 아버님은 잠자코 견디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로원은 황제[16]가 불탄 뒤 다시 짓고 있던 폼페이우스 극장에 세야누스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코르두스는 이제야말로 극장이 정말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의 잿더미 위에 세야누스가 세워지고, 가장 위대한 사령관의 기념물 안에 배신한 병사가 신처럼 모셔지는데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고발장에 서명이 끝나자[17], 세야누스가 저 하나에게만 순하고 다른 모든 이에게는 사납게 굴도록 사람의 피로 길러 온 날카로운 사냥개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짖어 대며 벌써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셔야 했겠습니까? 살고자 하시면 세야누스에게 빌어야 했고, 죽고자 하시면 딸에게 빌어야 했는데, 둘 다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딸을 속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더 빼려고 목욕을 하시고는 무엇을 좀 드시겠다며 침실로 들어가셨고, 시중드는 아이들을 내보낸 뒤 드신 것처럼 보이려고 음식 얼마를 창밖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러고는 침실에서 이미 넉넉히 드셨다는 듯 저녁을 거르셨습니다. 이튿날도, 사흘째도 그리하셨습니다. 나흘째에는 몸이 쇠약해진 것만으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부인을 끌어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평생 이것 하나만은 너에게 숨겨 왔다만, 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고 이제 거의 절반쯤 왔다. 너는

나를 불러 돌려세워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러고는 빛을 모두 막으라 이르시고 어둠 속에 몸을 묻으셨습니다. 아버님의 결심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더없이 굶주린 늑대들의 아가리에서 먹잇감이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고발자들은 세야누스의 사주를 받아 집정관들의 재판석으로 몰려가 코르두스가 죽어 간다고 불평했습니다. 자기들이 몰아넣은 그 일을 가로막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 눈에는 코르두스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가 죽을 권리마저 빼앗을 것인가 하는 큰 문제가 심리에 올랐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는 사이, 고발자들이 다시 찾아가는 사이, 아버님은 이미 스스로를 방면하셨습니다. 마르키아 부인, 고약한 시대의 뒤바뀜이 얼마나 뜻밖에 들이닥치는지 보이십니까? 부인의 식구 가운데 누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우십니까? 하마터면 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뻔했는데요!

23 앞날은 모두 불확실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면 더 나쁜 쪽으로 기운다는 것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찍 놓여난 영혼에게는 하늘의 신들에게로 가는 길이 가장 쉽습니다. 찌꺼기도 무게도 가장 적게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굳어지기 전에, 땅의 것을 깊이 빨아들이기 전에 풀려난 영혼은 더 가볍게 제 근원으로 날아 돌아가고, 묻어 있던 때와 얼룩을 무엇이든 더 쉽게 씻어 냅니다. 큰 재능일수록 몸속에 머무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은 빠져나가고 뚫고 나가기를 갈망하며, 이 비좁은 데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온 누리를 떠돌며 높은 곳에 있고, 높은 데서 사람의 일을 내려다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외칩니다. 현자의 영혼은 온통 죽음 쪽으로 몸을 내밀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늘 그 갈망에 실려 바깥으로 뻗어 나간다고 말입니다[18].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르키아 부인, 젊은이에게서 노인의 분별(prudentia)을 보시고, 모든 쾌락을 이긴 마음, 흠 없이 다듬어지고 악덕을 모르는 마음을 보시고, 탐욕 없이 재산을, 야심 없이 관직을, 방탕 없이 즐거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부인은 그 아들을 오래도록 무사히 곁에 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습니까? 정점에 이른 것은 무엇이든 끝에 가깝습니다. 완전한 덕은 스스로를 낚아채 눈앞에서 사라지고, 처음에 무르익은 것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불은 밝게 타오를수록 빨리 꺼집니다. 더디고 잘 타지 않는 땔감에 붙어 연기에 묻힌 채 지저분하게 빛나는 불이 더 오래갑니다. 불을 인색하게 먹이는 그 까닭이 불을 붙들어 두기 때문입니다. 재능도 이처럼 빛날수록 짧습니다. 더 자랄 자리가 없으면 저물 때가 가까우니까요. 파비아누스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본 일이라며, 로마에 거구의 사내만 한 키를 지닌 소년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일찍 죽었고, 분별 있는 사람치고 그 아이가 곧 죽으리라고 미리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당겨 차지해 버린 그 나이에 실제로 이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나친 조숙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표시입니다. 자랄 것이 다 소진되면 끝이 다가옵니다.

24 아드님을 햇수가 아니라 덕으로 재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아드님은 충분히 오래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열네 살까지 후견인들의 보살핌을 받으셨지만, 어머니의 보살핌은 늘 받으셨습니다. 자기 집이 생긴 뒤에도 부인의 집을 떠나려 하지 않으셨고, 자식들이 아버지와 한집에 사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어하는 법인데 어머니와 한집에 사는 것을 끝까지 이어 가셨습니다. 키와 생김새와 단단한 체격을 보면 군영에서 나고 자란 사람 같았지만, 부인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군 복무를 마다하셨습니다. 마르키아 부인, 다른 집에 사는 어머니들이 자식을 얼마나 드물게 보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아들을

군대에 둔 어머니들에게는 그 숱한 해가 그저 사라지고 근심 속에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인께서 하나도 잃지 않으신 이 시간이 얼마나 넓었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드님은 한 번도 부인의 눈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의 눈길 아래서 빼어난 재능을 갈고닦으셨고, 많은 이의 발전을 침묵으로 눌러 버리는 수줍음만 가로막지 않았다면 할아버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셨을 것입니다. 보기 드물게 잘생긴 젊은이였지만, 사내들을 타락시키는 여자가 그토록 많은 데서도 누구에게 한 줄기 기대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뻔뻔하게도 유혹하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그때 아드님은 누구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이토록 깨끗한 품행 덕분에 아드님은 아직 아이티를 다 벗지 못한 나이에 사제직에 걸맞은 사람으로 여겨지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밀어주셨겠지만, 어머니라도 좋은 후보가 아니었다면 힘을 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덕을 바라보며 아드님을 품에 안듯 지니십시오! 이제 아드님은 오롯이 부인의 것이고, 이제는 아드님을 다른 데로 불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드님은 결코 부인께 걱정거리도, 슬픔거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좋은 아들에게서 부인이 슬퍼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부인은 이미 슬퍼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우연의 손길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부인께서 아드님을 누릴 줄만 아신다면, 아드님에게서 무엇이 가장 값졌는지 깨닫기만 하신다면 말입니다. 사라진 것은 아드님의 겉모습뿐이고, 그나마 아주 닮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아드님 자신은 영원하며 지금은 더 나은 처지에 계십니다. 자기 것이 아닌 짐을 벗어 버리고 자기 자신으로 남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들, 뼈와 힘줄과 그 위를 덮은 살갗과 얼굴과 시중드는 손과 그 밖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들은 영혼을 묶는 사슬이요 영혼을 가리는

어둠입니다. 영혼은 이것들에 깔리고, 숨이 막히고, 더럽혀지고, 참되고 제 것인 것에서 떨어져 거짓된 것 속에 내던져집니다. 영혼은 이 무거운 육신과 끝없이 싸웁니다. 끌려 내려가 가라앉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기가 내려온 그곳을 향해 애써 올라갑니다. 거기서는 영원한 안식이 영혼을 기다리고, 영혼은 뒤섞이고 탁한 것에서 벗어나 맑고 투명한 것을 바라봅니다.

25 그러니 아드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실 까닭이 없습니다. 거기 누워 있는 것은 아드님의 가장 못한 부분, 아드님 자신에게도 가장 성가셨던 부분인 뼈와 재일 뿐입니다. 그것은 옷이나 그 밖에 몸을 덮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아드님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드님은 온전한 채로, 땅 위에 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가 통째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서 잠시 머무르며 몸에 밴 악덕과 죽을 목숨으로 살며 묻은 녹을 모두 털어 내 깨끗해지신 뒤,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져 행복한 영혼들 사이를 달리고 계십니다. 거룩한 모임이 아드님을 맞이했습니다. 스키피오 집안과 카토 집안 사람들이 맞이했고, 마르키아 부인, 삶을 업신여기고 죽음의 은혜로 자유로워진 이들 사이에서 부인의 아버님이 맞이하셨습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모두와 피붙이이기는 하지만, 아버님은 새로운 빛에 기뻐하는 손자를 곁으로 끌어당겨 가까운 별들이 다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짐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되게 아는 이답게 기꺼이 자연의 비밀 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낯선 도시를 안내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고마운 존재이듯, 하늘의 원인을 묻는 손자에게는 집안 어른인 해설자가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손자에게 땅의 깊은 곳까지 눈길을 보내 보라고 하십니다. 높은 데서 두고 온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르키아 부인, 아버님과 아드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처신하십시오. 부인이 알던 그분들이 아니라 훨씬 드높아져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그분들의 눈앞에

말입니다. 무엇이든 비천하고 속된 생각을 하는 것을, 더 나은 쪽으로 바뀐 식구들을 위해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분들은 영원한 것들의 자유롭고 드넓은 공간으로 풀려나셨습니다. 그분들을 가로막는 바다도, 높은 산도, 길 없는 골짜기도, 바닥을 알 수 없는 시르티스의 여울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평평하고, 그분들은 쉽게 움직이고 거침이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꿰뚫어 지나고, 별들과 뒤섞여 지내십니다.

26 그러니 마르키아 부인, 저 하늘의 성채에서 부인의 아버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이 아드님께 지니셨던 만큼의 권위를 부인께 지니셨던 그분이, 내전을 슬퍼하며 써 내려가던 그 재능, 살생부를 만든 자들을 몸소 영원히 살생부에 올려 버린 그 재능이 아니라, 지금 몸이 높이 오르신 만큼 더 드높아진 재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딸아, 어찌하여 이토록 긴 슬픔이 너를 붙들고 있느냐? 어찌하여 참된 것을 이토록 모른 채 헤매느냐? 네 아들이 집안이 온전할 때 저도 온전한 몸으로 조상들 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네 아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여기다니. 운이 얼마나 거센 폭풍으로 모든 것을 뒤흔드는지 너는 모르느냐? 운과 거래를 가장 적게 한 사람 말고는 누구에게도 너그럽고 순하게 굴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느냐? 죽음이 조금만 더 일찍 닥쳐오는 불행에서 빼내 주었다면 더없이 운 좋은 사람이 되었을 왕들의 이름을 너에게 대 주랴? 생애에서 조금만 덜어 냈다면 그 위대함에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을 로마의 장군들을 대 주랴? 아니면 더없이 고귀하고 빛나는 사람들이 병사의 칼을 받으려고 목을 가지런히 내밀고 몸을 굽혔던 일을 들려주랴?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돌아보아라. 할아버지는 낯선 자객의 손에 목숨을 내맡기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내맡기지 않았고, 먹기를 끊어 내가 글에서 보였던 것만큼 담대한 사람임을 보여 주었다. 어찌하여

우리 집안에서 가장 운 좋게 죽은 아이가 가장 오래 애도를 받느냐?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깊은 밤에 둘러싸이지 않은 눈으로 본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너희 곁에는 바랄 만한 것도, 드높은 것도, 찬란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비천하고 무겁고 불안하며 우리 빛의 한 조각밖에 보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무기가 서로 맞부딪쳐 미쳐 날뛰지도 않고, 함대가 함대에 부서지지도 않으며, 부모를 죽이는 일을 꾸미지도 마음먹지도 않고, 포룸이 날마다 소송으로 시끄럽지도 않다는 것을 굳이 말해야 하겠느냐? 여기서는 어두운 데 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음은 드러나고 가슴속은 열려 있으며, 삶은 모두 앞에 공공연히 펼쳐지고, 모든 세월과 다가올 일을 다 내다본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한때 세상의 맨 끝 한구석에서 아주 적은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한 시대의 일을 엮어 쓰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많은 세기를, 그 많은 시대가 얽히고 이어진 흐름을, 세월이란 세월을 다 둘러볼 수 있다. 일어설 왕국과 무너질 왕국을, 큰 도시들이 쓰러지는 것을, 바다가 새 물길을 내는 것을 내다볼 수 있다. 네 그리움에 모두가 같은 운명을 진다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다면 들어 보아라. 지금 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것은 하나도 없다. 세월이 모든 것을 쓰러뜨리고 함께 끌고 갈 것이다. 세월은 사람만 가지고 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란 우연이 휘두르는 힘에서 얼마나 작은 몫이냐? 세월은 땅을, 지역을, 우주의 여러 부분을 가지고 놀 것이다. 산을 통째로 주저앉히고, 다른 곳에서는 새 바위를 높이 밀어 올릴 것이다. 바다를 들이켜고, 강줄기를 돌리고, 민족들 사이의 왕래를 끊어 인류의 사귐과 모임을 흩어 버릴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거대한 땅의 아가리로 도시들을 삼키고, 지진으로 뒤흔들고, 땅 밑 깊은 데서 역병의 독기를 뿜어 올리고, 홍수로 사람 사는 곳을 모조리 덮고, 땅덩이를 물에 잠가 모든 생명을 죽이고, 거대한 불길로 죽을 것들을 그을리고 태울 것이다. 그리고 우주가 새로

태어나려고 스스로를 끌 때가 오면, 이것들은 제 힘으로 서로를 쳐부수고, 별은 별과 부딪치며, 온 물질이 불타올라 지금 질서 있게 빛나는 모든 것이 하나의 불길 속에 타오를 것이다. 영원을 몫으로 받은 행복한 영혼인 우리도, 신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지어 올리기로 마음먹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거대한 붕괴에 보태지는 작은 조각이 되어 옛 원소들로 돌아갈 것이다."

---

1. 마르키아의 아버지인 역사가. 기원후 25년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기린 역사서 때문에 티베리우스의 근위대장 세야누스의 피호민들에게 고발당하자 스스로 굶어 죽었고, 그 책은 원로원의 결의로 불태워졌다.

2.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기원전 42~기원전 23). 옥타비아의 아들로, 외삼촌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와 혼인해 후계자로 여겨졌으나 열아홉 살에 병으로 죽었다.

3. 네로 클라우디우스 드루수스(기원전 38~기원전 9). 리비아가 첫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로 티베리우스의 아우다. 게르마니아 원정 중 말에서 떨어져 다친 끝에 죽었다. 이 대목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다.

4. 리비아. 아우구스투스의 유언으로 율리아 가문에 입양되어 율리아 아우구스타라고 불렸다. 아레이오스는 아우구스투스가 곁에 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철학자다.

5.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격언집』. 푸블릴리우스는 시리아 출신 해방 노예로, 카이사르 시대에 소극(마임) 작가로 이름을 떨쳤다.

6. 원문 결락.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던 격언이다.

7.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기원전 138~기원전 78). 내전에서 이겨 독재관이 되었고 정적들을 살생부에 올려 죽였다. 「펠릭스(운 좋은 자)」를 별명으로 삼았다.

8. 앞의 아버지는 크세노폰이다. 제물을 바치던 중에 아들 그릴로스가 만티네이아 전투(기원전 362년)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한다. 마르쿠스 호라티우스 풀빌루스는 기원전 509년 카피톨리움의 유피테르 신전을 봉헌했다.

9. 루키우스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 기원전 168년 피드나에서 마케도니아의 마지막 왕 페르세우스를 꺾고 개선식을 올렸다. 남의 집에 입양 보낸 아들 가운데 하나가 훗날 카르타고를 무너뜨린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다.

10. 기원전 59년에 함께 집정관을 지낸 마르쿠스 칼푸르니우스 비불루스(세네카는 루키우스라고 썼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 비불루스의 두 아들은 기원전 50년 이집트에 주둔하던 로마 병사들에게 죽었고,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는 폼페이우스의 아내로 있다가 기원전 54년 아이를 낳다 죽었다.

11. 그라쿠스 형제. 호민관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다 형 티베리우스는 기원전 133년, 아우 가이우스는 기원전 121년에 죽임을 당했고, 시신은 테베레강에 던져졌다.

12.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3.418. 헤스페리아(「서쪽 땅」)는 이탈리아를 가리킨다.

13.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와 그 아들 2세 모두 플라톤을 궁정에 불렀으며, 아들은 쫓겨난 뒤 코린트에서 여생을 보냈다.

14.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에 흐르는 망각의 강 레테. 세네카는 라틴어 이름으로 부른다.

15.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10.472. 투르누스의 죽을 날이 다가왔다고 유피테르가 하는 말이다.

16. 티베리우스. 폼페이우스 극장이 기원후 22년에 불탔을 때 원로원은 불길을 잡은 공을 기려 세야누스의 동상을 그 극장에 세우기로 결의했다.

17. 원문 손상. 고발장에 서명이 끝났다는 뜻으로, 뒤 구절은 사냥개들이 벌써 그를 덮치려 했다는 뜻으로 읽었다.

18. 플라톤 『파이돈』 64a, 67e. 철학자는 평생 죽음을 연습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세네카가 풀어 옮겼다.

행복한 삶에 관하여

1 갈리오 형님[1],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똑똑히 알아보려 하면 다들 눈앞이 흐려집니다. 행복한 삶(vita beata)에 이르기란 이토록 쉽지 않아서, 누구든 길을 잘못 들면 그 삶을 향해 서둘러 내달릴수록 그만큼 더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길이 거꾸로 이끄는 동안에는 빠르기가 곧 거리를 벌리는 까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 세워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느 길로 가야 그곳에 가장 빨리 닿을 수 있을지 둘러보아야 합니다. 길이 바르기만 하다면, 걸어가는 동안 날마다 얼마나 나아갔는지, 타고난 욕구가 우리를 떠미는 그곳에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지 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길잡이를 따르지 않고 제각기 다른 쪽으로 불러 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어지러운 외침을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동안에는, 삶은 헤매다가 닳아 없어지고 맙니다. 밤낮으로 건전한 정신을 얻으려 애쓴다 해도 짧은 삶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 정하되, 우리가 들어서려는 곳을 샅샅이 살펴본 노련한 사람 없이 정하지는 맙시다. 이 여행은 다른 여행과 사정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행에서는 뚜렷한 길이 나 있고 그 고장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서 길을 잃을 일이 없지만, 이 길에서는 가장 많이 밟히고 가장 붐비는 길일수록 가장 크게 속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축 떼처럼 앞선 무리를

뒤따라,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남들이 가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소문에 맞춰 자신을 꾸리는 것만큼 우리를 큰 화에 얽어 넣는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크게 찬동하며 받아들인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본보기가 많으면 좋은 것으로 쳐서, 이성이 아니라 남 닮기를 따라 사는 것 말입니다. 서로 위로 겹겹이 무너져 쌓이는 저 엄청난 더미가 여기서 생깁니다. 사람들이 몰려 서로 짓누르다 큰 압사가 벌어질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도 혼자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남을 끌고 넘어지며, 앞선 사람이 뒤따르는 사람의 파멸이 됩니다. 삶 전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남이 길을 잃는 원인이 되고 장본인이 됩니다. 앞사람에게 바싹 붙어 가는 것은 해롭습니다. 저마다 판단하기보다 믿기를 좋아하니, 삶을 두고는 한 번도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믿기만 하며, 손에서 손으로 넘겨받은 잘못이 우리를 휘돌리다가 곤두박질치게 합니다. 우리는 남의 본보기 때문에 망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중이 제 병을 감싸며 이성에 맞서 버티고 섰습니다. 그래서 민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변덕스러운 인기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법무관을 뽑아 놓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이 뽑혔다는 데 놀랍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칭찬했다가 같은 것을 나무랍니다. 머릿수로 결정하는 판단은 모두 이렇게 끝납니다.

2 행복한 삶을 논할 때 형님께서 원로원 표결 때처럼 "이쪽이 다수로 보인다"고 제게 답하실 일은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쁜 쪽입니다. 인간 세상은 더 나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들 만큼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군중이야말로 최악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가장 흔한 일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좋은 일인지를 찾읍시다. 진리를 가장 못되게 풀이하는 대중이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영원한 행운을 누리는 자리에 앉혀 줄지를 찾읍시다. 제가 말하는 대중에는 외투 차림도 화관 차림도 들어갑니다. 저는 몸을 감싼 옷의 빛깔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고는 눈을 믿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낼 더 낫고 더 확실한 빛이 제게 있습니다. 마음의 선은 마음이 찾아내게 합시다. 그 마음이 언젠가 숨을 돌리고 제 안으로 물러날 틈을 얻는다면, 아, 그 마음은 스스로에게 고문당한 끝에 얼마나 솔직하게 자백하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한 일은 차라리 하지 않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한 말을 되새기면 말 못 하는 이들이 부럽다. 내가 빌었던 것은 하나같이 원수들이 나를 저주하며 빌 만한 것이었다. 신들이여, 내가 두려워한 것은 내가 탐낸 것보다 얼마나 가벼웠던가! 나는 많은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가, 악인들 사이에도 화해라는 것이 있다면, 미움을 풀고 화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 자신과는 아직 벗이 되지 못했다. 군중 위로 나를 끌어올리고 무슨 재주로든 눈에 띄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그래서 한 일이라고는 화살 앞에 나를 내세우고 악의에게 물어뜯을 곳을 내보인 것 말고 무엇이 있는가? 웅변을 칭찬하는 자, 재산을 좇는 자,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는 자, 권력을 떠받드는 자, 저들이 보이느냐? 모두가 원수이거나, 같은 말이지만 원수가 될 수 있는 자들이다. 감탄하는 무리가 큰 만큼 시기하는 무리도 크다. 어째서 차라리 남에게 내보일 것이 아니라 내가 써 보며 느낄 수 있는 좋은 것을 찾지 않는가? 사람들이 구경하고, 걸음을 멈추고 서서 보고, 넋을 잃고 서로에게 가리키는 저것들은 겉만 번쩍일 뿐 속은 비참하다."

3 겉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고르며 보이지 않는 쪽이 더 아름다운 것을 찾읍시다. 그것을 캐냅시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찾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손을 뻗어야 하는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둠 속을 걷는 사람처럼 바로 곁에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바로 그것에 번번이 발이 걸려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형님을 이리저리 에둘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건너뛰겠습니다. 그것들을 늘어놓는 데도, 논박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견해를 받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견해라고 할 때, 저는 스토아학파의 이름난 어른 가운데 누구 한 사람에게 저를 묶어 두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의견은 따르고, 어떤 이에게는 의견을 나누어 표결하자고 요구할 것이며[2], 어쩌면 맨 나중에 지명되어 앞사람들이 정한 것 가운데 무엇 하나 반대하지 않고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은 모든 스토아학파가 뜻을 같이하는 대로 자연에 동의합니다.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연의 법과 본보기에 따라 자신을 빚어 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란 자기 본성에 맞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다음과 같은 정신이 아니면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그 건강이 늘 제 것인 정신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굳세고 힘차며, 더없이 훌륭하게 견디고, 때에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제 몸과 몸에 딸린 것들을 돌보되 안달하지 않고, 삶을 꾸리는 다른 것들도 부지런히 챙기되 어느 것에도 넋을 잃지 않으며, 운(fortuna)에게서 받은 선물을 부리되 그 종노릇은 하지 않는 정신 말입니다.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형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쑤시거나 겁주는 것들을 몰아내면 끝없는 평정(tranquillitas)과 자유가 뒤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쾌락(voluptas)과 〈…〉[3] 대신에, 하찮고 깨지기 쉬우며 그 추악함 때문에 도리어 해로운 것들 대신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크나큰 기쁨

(gaudium)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평화와 마음의 조화, 온화함을 곁들인 도량이 들어섭니다. 사나움은 모두 나약함에서 나옵니다.

4 우리의 선은 달리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같은 말이 아닌 다른 말로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군대라도 때로는 넓게 펼쳐지고 때로는 좁게 모이며, 가운데를 오목하게 휘어 양 날개를 앞으로 내밀기도 하고 정면을 곧게 펴서 늘어서기도 하지만, 어떻게 진을 치든 그 힘은 같고 같은 편에 서서 싸우려는 뜻도 같습니다. 그와 같이 최고선(summum bonum)의 정의도 어떤 때는 길게 풀어 펼칠 수 있고, 어떤 때는 짧게 거두어 한데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최고선은 우연한 일들을 내려다보며 덕(virtus)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든, "최고선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 세상일에 밝고, 행동할 때 차분하며, 깊은 인정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살핀다"라고 하든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해도 좋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말고는 무엇도 선이나 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훌륭한 것(honestum)을 섬기고 덕에 만족하는 사람, 우연한 일에 우쭐하지도 꺾이지도 않는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선을 알지 못하는 사람, 쾌락을 업신여기는 것을 참된 쾌락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더 멀리 나가 보고 싶으시다면, 뜻을 조금도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지킨 채 같은 것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이렇게 부르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롭고 꼿꼿하며 겁 없고 흔들림 없는 마음, 두려움 밖에, 욕망 밖에 놓인 마음, 오직 훌륭함만을 선으로, 오직 추함만을 악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행복한 삶에서 아무것도 덜어 내지도 보태지도 못하며 최고선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한 채 오갈 뿐인 하찮은 잡동사니로 보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바탕 위에 선 사람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끊이지 않는 쾌활함과 깊은 데서 솟아나는 깊은

즐거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것을 기뻐하고 제 집 안에 있는 것보다 큰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찮고 시시하며 오래가지도 못하는 이 보잘것없는 몸의 움직임을 내주고 이것들을 얻는다면, 어찌 넉넉히 보상받은 셈이 아니겠습니까? 쾌락 아래에 놓이는 날, 그는 고통 아래에도 놓입니다. 더없이 미덥지 못하고 더없이 제멋대로인 주인인 쾌락과 고통이 번갈아 차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해로운 종살이를 하게 될지 형님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향해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 자유를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운을 개의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때 저 값을 매길 수 없는 선이 솟아납니다. 안전한 곳에 자리 잡은 정신의 고요와 드높음, 잘못을 몰아내고 참된 것을 알게 되어 얻는 크고 흔들림 없는 기쁨, 상냥함과 활짝 펴진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는 이것들을 선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선에서 피어난 것으로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5 내친김에 너그럽게 정의해 보자면, 이성 덕분에 욕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돌도 두려움과 슬픔이 없고, 가축도 그에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행운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운이 좋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무딘 본성과 자기를 모르는 무지 때문에 가축과 짐승 축에 떨어진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 놓으십시오. 이 사람들과 저것들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저것들에게는 이성이 아예 없고, 이 사람들에게는 비뚤어진 이성, 저 자신을 해치는 데만 영리하고 그릇된 쪽으로만 재주를 부리는 이성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밖으로 내던져진 사람은 누구도 행복하다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이란 바르고 확실한 판단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그때에야 정신은 맑고 모든 악에서 풀려납니다. 그 정신은 찢기는 상처뿐 아니라 꼬집히는 따끔함까지 피했으며, 한번 선 자리에

언제까지나 서 있을 것이고, 운이 성내며 덤벼들 때조차 제자리를 지켜 낼 것입니다. 쾌락으로 말하자면,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온갖 길로 스며들며, 달콤한 손길로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를 통째로 또 부분부분 꾀어내려고 이것저것 잇달아 들이민다 해도, 사람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은 인간이라면 누가 밤낮으로 간지럼을 받으며 마음을 내버려 둔 채 몸만 돌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6 "하지만 마음에도 마음 나름의 쾌락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있으라고 하십시오. 사치와 쾌락을 판정하는 심판으로 앉아 있으라고 하십시오.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실컷 채우고, 지나간 일을 돌아보며 시들어 버린 쾌락을 떠올리고, 예전 쾌락에 들뜨면서 벌써 앞으로 올 쾌락을 노리고, 제 희망을 차곡차곡 늘어놓고, 몸이 지금 배불리 먹고 늘어져 있는 동안 생각은 앞날로 먼저 보내라고 하십시오. 그럴수록 그 마음은 제 눈에 더 비참해 보일 것입니다. 선 대신 악을 고르는 것은 미친 짓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으며, 앞으로 올 것을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탐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판단이 바른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만족하며 제 처지와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성 덕분에 제 형편 전부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7 최고선이 배 속에 있다고 말한 사람들조차 그것을 얼마나 추한 자리에 두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쾌락을 덕에서 떼어 낼 수 없다고 하면서, 즐겁게 살지 않고는 누구도 훌륭하게 살 수 없고 훌륭하게 살지 않고는 즐겁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한 멍에에 함께 묶을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쾌락을 덕에서 떼어 낼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모두 덕에서 비롯하니, 여러분이 사랑하고 탐하는 것들도

덕의 뿌리에서 자라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둘이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면, 즐겁지만 추한 것도, 더없이 훌륭하지만 거칠어서 고통을 치러야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덧붙이십시오. 쾌락은 더없이 추한 삶에도 찾아오지만 덕은 나쁜 삶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쾌락 때문에 불행합니다. 쾌락이 덕과 섞여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덕은 쾌락 없이 지낼 때가 많지만 쾌락을 아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째서 서로 닮지 않은 것, 아니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한데 짜 맞추려 합니까? 덕은 높고 우뚝하며 왕다운 것, 꺾이지 않고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쾌락은 낮고 비굴하며 나약하고 덧없는 것, 사창가와 싸구려 술집을 초소 삼고 집 삼는 것입니다. 덕은 신전에서, 포룸에서, 원로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벽 앞에 버티고 서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햇볕에 그을리고 손에 굳은살이 박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쾌락은 대개 숨어 있고, 목욕탕과 한증막과 조영관의 눈을 피하는 곳 언저리에서 어둠을 찾아다닙니다. 물렁하고 맥이 빠졌으며, 물 타지 않은 포도주와 향유에 흠뻑 젖었고, 창백하거나 화장을 하고 분칠로 송장처럼 단장한 모습입니다. 최고선은 죽지 않습니다. 떠날 줄을 모르고, 물리는 일도 뉘우치는 일도 없습니다. 곧은 정신은 결코 돌아서지 않고 스스로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가장 좋은 정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쾌락은 가장 즐거운 바로 그때 꺼져 버립니다. 품이 넓지 않아 금세 차오르고, 곧 싫증이 나며, 첫 기세가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움직임을 본성으로 삼는 것은 결코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몹시 빨리 왔다가 지나가고, 쓰는 바로 그 순간에 사라질 것에는 아무런 실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쾌락은 끝나는 곳을 향해 내달리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을 바라봅니다.

8 게다가 쾌락은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깃들고, 추한 자들이 제 수치를 즐기는 것도 훌륭한 사람들이 빼어난 일을 즐기는 것 못지않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은 가장 즐거운 삶이 아니라 가장 좋은 삶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쾌락이 바르고 선한 뜻의 길잡이가 아니라 길동무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길잡이로는 자연을 삼아야 합니다. 이성은 자연을 지켜보고 자연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은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밝히겠습니다. 몸이 타고난 것들과 자연에 맞는 것들을 하루만 빌려 받은 것, 곧 달아날 것으로 여기고 정성껏, 그러나 겁내지 않고 지켜 간다면,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바깥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몸을 즐겁게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군영의 보조군이나 경무장병 같은 자리에 둔다면, 그때에야 그것들은 정신에 쓸모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섬겨야지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바깥 것들에 더럽혀지지도 꺾이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우러르며,

"제 마음을 믿고 어느 쪽이 되든 채비를 갖춘"[4]

삶의 장인이어야 합니다. 그의 자신감에는 앎이 따르고, 그의 앎에는 의연함이 따라야 합니다. 한번 옳다고 정한 것은 그대로 남고, 그가 내린 결정에는 고쳐 쓴 자국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차분하고 질서가 잡혀 있으며, 하는 일마다 상냥하면서도 당당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성은 감각에 자극을 받아 거기서 첫 실마리를 얻습니다. 달리 무엇에서 출발할 수도, 진리를 향해 박차고 나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은 다시 제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물을 품은 우주도, 우주를 다스리는 신도 바깥으로 뻗어 나가지만 결국 사방에서 안으로, 제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 감각을 따라 감각을 거쳐 바깥

것들에게로 뻗어 나갔다가도, 감각과 자기 자신을 모두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로 뭉쳐 스스로와 어긋나지 않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고, 생각과 파악과 확신에서 갈라지지도 머뭇거리지도 않는 저 확실한 이성이 태어납니다. 이 이성이 스스로를 정돈하고 제 부분들과 뜻을 맞추어, 말하자면 한 화음을 이루었을 때 최고선에 닿았습니다. 이제 비뚤어진 것도, 미끄러운 것도, 부딪치거나 휘청거릴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이성은 무엇이든 제 명령대로 할 것이고 뜻밖의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 쉽고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꽁무니를 빼는 일 없이 좋은 결과로 나아갈 것입니다. 꾸물거림과 망설임은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고선은 마음의 화합이라고 담대하게 밝혀도 좋습니다. 뜻이 맞고 하나가 된 곳에 여러 덕이 있게 마련입니다. 악덕은 서로 다툽니다.

9 "하지만 당신도 덕에서 무슨 쾌락이라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덕을 섬기는 것 아닌가." 하고 그는 말합니다. 우선, 덕이 쾌락을 가져다준다 해도 그 때문에 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은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쾌락도 덤으로 줍니다. 덕은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덕의 수고는 다른 것을 구하면서도 쾌락까지 손에 넣을 뿐입니다. 곡식을 심으려고 갈아엎은 밭에 꽃 몇 송이가 섞여 피어도, 그 들풀이 아무리 눈을 즐겁게 한들 그것을 바라고 그 많은 수고를 들인 것은 아닙니다. 씨 뿌린 사람의 목적은 따로 있었고, 꽃은 덤으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쾌락은 덕의 보수도 아니고 덕의 이유도 아니며, 덧붙어 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즐겁기 때문에 덕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덕이 마음에 들면 즐겁기도 합니다. 최고선은 판단 그 자체에, 가장 좋은 정신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신이 제 몫을 다 채우고 제 경계로 자신을 둘렀을 때 최고선은 완성되고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체 바깥에 아무것도 없듯이, 끝 너머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제가 덕을 구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잘못 짚었습니다.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은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까? 덕 그 자체입니다. 덕에게는 그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덕은 덕 자체가 보상입니다. 이것으로는 크기가 모자랍니까? "최고선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굳셈이고, 앞을 내다보는 힘이며, 드높음이고 건강이며, 자유이고 조화이며 품위다"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이 모든 것을 거기에 견주어야 할 더 큰 무언가를 아직도 요구합니까? 왜 제게 쾌락을 들먹입니까? 저는 사람의 선을 찾고 있지 배의 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배라면 가축과 들짐승의 배가 더 넉넉합니다.

10 "당신은 내 말을 모르는 척한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훌륭하게 살지 않고서는 누구도 즐겁게 살 수 없다고 말한다. 말 못 하는 짐승이나 제 선을 먹이로 재는 자들에게는 그런 삶이 주어질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똑똑히 그리고 공공연히 증언한다. 내가 즐겁다고 부르는 이 삶은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는 쾌락을 가장 넘치도록 누리는 자가 바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 못된 짓에는 즐거운 것이 넘쳐 난다는 것, 마음 자체가 비뚤어진 쾌락을 여러 가지로 지어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거만함, 지나친 자부심, 남들 위로 부풀어 오른 교만, 앞뒤 가리지 못하는 눈먼 제 것 사랑, 하찮고 유치한 일로 날뛰는 들뜸이 있고, 또 독설과 남을 모욕하며 즐거워하는 오만, 게으름, 그리고 사치에 녹아 흐느적거리다 제 안에서 잠들어 버리는 나태한 마음의 풀어짐이 있습니다. 덕은 이 모든 것을 흩어 버리고, 귀를 잡아당겨 정신이 들게 하며, 쾌락을 들이기 전에 값을 매겨 보고, 들이기로 한 쾌락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들여놓을 뿐이고, 쾌락을

누리는 데서가 아니라 절제하는 데서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절제는 쾌락을 줄이니 최고선에 해가 되겠군요. 당신은 쾌락을 끌어안고, 저는 억누릅니다. 당신은 쾌락을 누리고, 저는 씁니다. 당신은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저는 선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일을 쾌락 때문에 하고, 저는 아무 일도 쾌락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11 제가 아무 일도 쾌락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저는 저 현자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에게만 쾌락을 허락하는 그 현자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이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쾌락이 그 위에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수고와 위험과 궁핍에, 사람의 삶을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는 그 숱한 위협에 맞서겠습니까? 그토록 무른 적에게 진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마주 보고, 어떻게 고통을 견디며, 어떻게 세상이 무너지는 굉음과 그토록 많은 사나운 적을 견디겠습니까? "그는 쾌락이 권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자, 쾌락이 얼마나 많은 것을 권할지 보이지 않습니까? "쾌락은 덕과 짝지어져 있으니 추한 것은 아무것도 권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이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선이 되려고 파수꾼이 필요한 최고선이란 대체 어떤 것입니까? 또 덕이 쾌락을 뒤따른다면 어떻게 쾌락을 다스리겠습니까? 따르는 것은 복종하는 자의 일이고 다스리는 것은 명령하는 자의 일인데, 명령하는 것을 뒤에 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학파에서 덕은 참 훌륭한 소임을 맡았습니다. 주인보다 먼저 쾌락의 맛을 보는 시식 노예 노릇 말입니다! 덕을 그토록 모욕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곁에서도 덕이 여전히 덕인지는 나중에 따져 보겠습니다. 덕은 제자리를 내주면 제 이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본론으로 돌아가, 쾌락에 에워싸인 사람들, 운이 제 선물을 모조리 쏟아부은 사람들, 그러나 악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여럿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멘타누스와

아피키우스[5]를 보십시오. 그들 말마따나 땅과 바다의 좋은 것을 샅샅이 긁어모으고, 온 세상 짐승들을 식탁 위에 사열하듯 늘어놓는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장미 꽃잎을 깐 높은 자리에서 제 잔칫상을 내려다보며, 노랫소리로 귀를, 구경거리로 눈을, 맛난 요리로 혀를 즐겁게 합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찜질로 온몸을 간질이고, 그동안 코마저 쉬지 않도록, 사치의 넋에 제사를 올리는 그 자리에 갖가지 향을 배어들게 합니다. 이들이 쾌락 속에 산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좋을 리 없습니다. 선이 아닌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12 "그들의 삶이 나쁜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숱하게 끼어들고 서로 어긋나는 생각들이 정신을 들쑤시기 때문이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저 어리석고 변덕스러우며 늘 뉘우침의 매를 맞을 처지에 있는 자들이 큰 쾌락을 맛보기는 합니다. 그러니 그때 그들은 건전한 정신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이나 온갖 괴로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사람이 그렇듯 즐거운 광기에 빠져 웃으며 날뛴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현자들의 쾌락은 느슨하고 조촐하며 거의 맥이 빠져 있고, 눌려 있어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 발로 찾아와도 대접받지 못하며, 맞는 사람이 반기며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현자들은 진지한 일 사이에 놀이와 농담을 끼워 넣듯 쾌락을 삶에 섞어 넣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울리지 않는 것을 잇고 쾌락을 덕에 얽어매는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런 잘못으로 그들은 가장 못된 자들에게 아첨하는 셈입니다. 쾌락에 빠져 늘 트림을 하며 취해 있는 자는, 쾌락은 덕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자기가 쾌락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아는 만큼 덕과도 함께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고는 제 악덕에 지혜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숨겨야 할 것을 내놓고 자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은 에피쿠로스에게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악덕에 빠진 자들이 제 방탕을 철학의 품에 숨기고, 쾌락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그 쾌락이, 맹세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술기 없이 맑고 메마른 것인지 그들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날아들어 제 욕정을 감싸 줄 변호와 덮개를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 속에서 지니고 있던 단 하나의 선,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마저 잃습니다. 전에는 얼굴을 붉히던 것을 칭송하고 악덕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추한 게으름에 훌륭한 이름표까지 붙고 나면 젊은이는 다시 일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쾌락을 그렇게 칭송하는 것이 해로운 까닭은, 훌륭한 가르침은 안에 숨어 있고 타락시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13 저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겠지만 말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바르며, 가까이 다가가 보면 엄격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쾌락은 작고 보잘것없는 데로 좁혀지고, 우리가 덕에게 정해 주는 법을 그는 쾌락에게 정해 줍니다. 그는 쾌락에게 자연에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넉넉한 것이 사치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른 한가함과, 먹고 싶은 욕심과 정욕을 번갈아 채우는 것을 행복이라 부르는 자는 누구든 나쁜 짓에 좋은 보증인을 찾습니다. 그는 듣기 좋은 이름에 이끌려 그 학파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들은 쾌락이 아니라 제가 들고 온 쾌락을 따릅니다. 그리고 제 악덕이 가르침과 닮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머뭇거리지도 숨지도 않고 악덕에 몸을 맡기며, 그때부터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탕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파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말, 에피쿠로스학파가 추악한 짓의 스승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겠습니다. 그 학파는 평판이 나쁩니다.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오명이다."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학파는 겉모습부터가 뒷말을 낳고 나쁜 기대를 부추깁니다. 용감한 사내가 부인네 옷을 입은 꼴입니다. 정절은 굳건하고, 사내다움은 멀쩡하며, 몸을 추한 짓에 내준 적도 없는데, 손에는 작은북[6]이 들려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간판을 고르고, 그 이름부터 마음을 북돋는 글귀를 내걸어야 합니다. 지금 걸려 있는 간판은 악덕이 찾아낸 것입니다.

덕에 다가선 사람은 누구든 고귀한 바탕을 타고났음을 보여 준 셈입니다. 쾌락을 좇는 사람은 맥이 풀리고 꺾여서 사내다움을 잃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쾌락을 가려 주어, 어떤 쾌락은 자연스러운 욕구 안에 머물고 어떤 쾌락은 곤두박질치듯 내달리며 끝이 없어서 채울수록 더 채울 수 없게 되는지 알게 해 주지 않으면, 그는 추한 짓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자, 덕이 앞장서게 하십시오. 그러면 발걸음마다 안전할 것입니다. 쾌락은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덕에는 지나칠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덕 안에 절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크기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성을 본성으로 받은 존재에게 이성보다 더 나은 무엇을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짝이 마음에 든다면, 그런 길동무와 함께 행복한 삶에 이르는 것이 마음에 든다면, 덕이 앞장서고 쾌락은 뒤따르며 그림자처럼 몸 언저리를 맴돌게 하십시오. 가장 높은 여주인인 덕을 쾌락의 시녀로 넘겨주는 것은 큰 것을 하나도 품지 못하는 마음이나 하는 짓입니다.

14 덕이 맨 앞에 서서 깃발을 들게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쾌락을 누릴 것입니다. 다만 쾌락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쾌락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졸라 얻어 낼 수는 있어도 억지로 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에게 선봉을 내준 자들은 둘 다 잃었습니다. 덕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쾌락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쾌락이

그들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쾌락이 모자라면 시달리고 넘치면 숨이 막히며, 쾌락에게 버림받으면 비참하고 쾌락에 파묻히면 더 비참하니, 시르티스 바다에 갇혀 어떤 때는 마른 모래톱에 버려지고 어떤 때는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다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일은 지나친 무절제와 눈먼 집착 때문에 일어납니다. 선 대신 악을 좇는 사람에게는 손에 넣는 것이 위험합니다. 들짐승은 애써 위험을 무릅써야 사냥할 수 있고, 잡은 뒤에도 마음 놓고 둘 수 없습니다. 주인을 물어뜯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큰 쾌락도 그렇습니다. 큰 쾌락은 큰 악이 되어 버렸고, 사로잡힌 쾌락이 도리어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쾌락이 많고 클수록, 대중이 운 좋은 사람이라 부르는 그는 그만큼 더 작아지고 더 많은 주인의 노예가 됩니다. 이 비유에 조금 더 머물러 보겠습니다. 짐승의 굴을 뒤쫓는 사람이

"올가미로 들짐승을 사로잡는 일"[7]

그런 일을 대단하게 여기며, 또

"개 떼를 풀어 넓은 숲을 에워싸는 일"에 빠져

짐승의 발자취를 바짝 쫓느라 더 나은 일을 내팽개치고 숱한 의무를 저버리듯이, 쾌락을 좇는 사람도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첫째가는 자유마저 소홀히 여기며 그 자유를 배를 채우는 값으로 치러 버립니다. 그는 쾌락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쾌락에게 팔아넘깁니다.

15 "그래도 덕과 쾌락을 하나로 섞어서, 훌륭하면서 동시에 즐거운 것으로 최고선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 막는가?" 하고 그는 묻습니다. 훌륭한 것의 일부는 훌륭한 것일 수밖에 없고, 최고선이 제 안에서 더 나은 부분과 닮지 않은 무언가를 본다면 제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덕에서 솟아나는 기쁨조차 선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선의 일부는 아닙니다. 즐거움과 평정도 더없이 아름다운 원인에서 생겨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선이지만 최고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최고선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덕과 쾌락을 짝지어 동업하게 하는 사람은, 그것도 대등하게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한쪽 선의 연약함으로 다른 쪽에 있는 기운을 모조리 무디게 하고, 자기보다 더 귀한 것을 모를 때에만 꺾이지 않는 저 자유를 멍에 아래로 보내 버립니다. 그에게는 운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종살이입니다. 그다음에는 불안하고 의심 많고 겁에 질린 삶, 우연을 두려워하고 순간순간 때의 흐름에 매달리는 삶이 뒤따릅니다. 당신은 덕에게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토대를 주지 않고, 구르는 바닥 위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을 기다리는 것만큼, 몸과 몸을 건드리는 것들의 변덕만큼 잘 구르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쾌락과 고통이 바늘 끝으로 콕콕 찌를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신에게 복종하고, 무슨 일이 닥치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제게 닥친 불행을 너그럽게 풀이하면서 운명(fatum)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 있는 한 조국을 잘 지키지도, 조국의 원수를 갚지도, 벗들을 위해 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최고선은 어떤 힘으로도 끌어내릴 수 없는 곳, 고통도 희망도 두려움도, 최고선의 권리를 깎아내리는 어떤 것도 다가갈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덕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비탈은 덕의 걸음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덕은 굳건히 버티고 서서, 무슨 일이 닥치든 견딜 뿐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절이 아무리 험해도 그것이 자연의 법임을 알고, 좋은 병사처럼 상처를 견디고 흉터를 셀 것이며, 창에 꿰뚫려 죽어 가면서도 자신이 목숨을 바치는 사령관을 사랑할 것입니다. 덕은 저 오랜 가르침을 마음에 품을 것입니다. "신을 따르라." 그러나 불평하고 울부짖고 신음하는 사람도 결국 명령받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고, 싫어도 끌려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따라가지 않고 끌려가다니 이 무슨 미친 짓입니까! 맹세코 그것은 무언가가 모자라거나

모진 일이 닥쳤다고 괴로워하는 것만큼,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닥치는 일들, 곧 병과 죽음과 몸이 상하는 일과 그 밖에 옆에서 불쑥 인간의 삶으로 뛰어드는 일들에 놀라거나 분개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제 처지를 모르는 짓입니다. 우주의 짜임새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담대하게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이 서약에 묶여 있습니다. 죽게 마련인 인간의 일들을 견디고,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약 말입니다. 우리는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16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덕은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먼저, 덕으로도 악덕으로도 생기지 않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아무것도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권합니다. 다음으로, 악 앞에서도 선에서 비롯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허락되는 데까지 신을 본뜨라고 권합니다. 이 원정을 치른 대가로 덕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엄청나고 신들의 것과 맞먹는 것을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고, 아무것도 아쉽지 않으며, 자유롭고 안전하며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 보든 헛되지 않고, 무엇도 가로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어떤 거스르는 일도, 생각과 바람에 어긋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만으로 행복하게 살기에 충분한가?" 완전하고 신적인 덕이라면 어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넘치고도 남습니다. 모든 욕망 밖에 놓인 사람에게 무엇이 모자랄 수 있겠습니까? 제 것을 모두 제 안에 거두어들인 사람에게 바깥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덕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이미 멀리 나아갔다 해도, 아직 인간사 한가운데서 씨름하며 저 매듭과 죽을 몸에 매인 모든 사슬을 풀어 가는 동안에는 운이 얼마간 너그럽게 봐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이들은 단단히 묶이고 꽉 조여 있으며, 사지가 찢기도록 묶여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위쪽으로 나아가 자신을 더 높이 끌어올린 사람은 느슨한 사슬을 끌고 다닙니다. 아직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미 자유인이나 다름없습니다.

17 그러니 철학을 향해 늘 짖어 대는 자들 가운데 누가 버릇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째서 사는 것보다 말을 더 용감하게 하는가? 어째서 윗사람 앞에서는 말을 낮추고, 돈을 꼭 있어야 할 도구로 여기며, 손해를 보면 흔들리고, 아내나 벗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눈물을 떨구며, 평판을 돌아보고, 고약한 뒷말에 마음이 상하는가? 어째서 당신의 시골 땅은 자연스러운 쓰임에 필요한 것보다 더 잘 가꾸어져 있는가? 어째서 당신이 정한 규칙대로 먹지 않는가? 어째서 당신의 세간은 그리 번쩍이는가? 어째서 당신 집에서는 당신보다 나이 많은 포도주를 마시는가? 어째서 금붙이를 늘어놓는가? 어째서 그늘밖에 줄 것 없는 나무를 심는가? 어째서 당신 아내는 부잣집 한 채 값을 귀에 달고 다니는가? 어째서 시동들에게 값비싼 옷을 입히는가? 어째서 당신 집에서는 시중드는 일이 하나의 기술이 되어, 은그릇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놓지 않고 솜씨 있게 차려 놓으며, 고기 써는 일을 가르치는 선생까지 두는가?" 원한다면 이것도 보태십시오. "어째서 바다 건너에까지 땅을 두었는가? 어째서 다 알지도 못할 만큼 많이 두었는가? 어째서 그토록 부끄럽게도, 몇 안 되는 노예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무심하거나, 아니면 기억으로는 다 알아 둘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노예를 거느리며 사치를 부리는가?" 그 욕설에는 나중에 제가 거들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 탓으로 꾸짖겠습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는 현자가 아니며, 당신의 심술에 먹이를 주자면, 앞으로도 현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맞먹으라고 요구하지 말고, 악한 자들보다 낫기만 하라고 요구하십시오. 날마다 제 악덕을 조금씩 덜어 내고 제 잘못을 꾸짖는 것,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건강에 이르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제 통풍에는 약이라기보다 진통제를 지어 바르며, 발작이 드물게 오고 덜 쑤시기만 해도 만족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발에 대면, 절름발이 여러분, 저는 날랜 달음질꾼입니다. 이 말은 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온갖 악덕의 깊은 바다 한복판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8 "당신은 말 따로, 삶 따로다." 하고 말하겠지요. 심보 고약하기 짝이 없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원수로 여기는 여러분, 이 비난은 플라톤에게도, 에피쿠로스에게도, 제논에게도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가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덕을 말하지 저를 말하지 않습니다. 악덕을 꾸짖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제 악덕을 꾸짖습니다. 할 수 있게 되면 마땅히 살아야 할 대로 살겠습니다. 독을 듬뿍 바른 그 심술도 저를 가장 좋은 것에서 물러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뿌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그 독도 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고 아는 삶을 꾸준히 칭송하고, 덕을 우러러 섬기며, 아득히 떨어진 채 기어서라도 덕을 따라갈 것입니다. 루틸리우스도 카토[8]도 신성하게 여기지 않은 악의가 무엇 하나 건드리지 않고 남겨 두기를 기다리란 말입니까? 견유학파 데메트리오스[9]조차 넉넉히 가난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의 눈에 너무 부자로 보일까 봐 마음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데메트리오스는 더없이 굳세게 자연의 모든 욕구와 싸운 사람이고, 다른 견유학파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가지는 것을 스스로 금했을 뿐 아니라 달라고 하는 것까지 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가 충분히 궁핍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들 말대로라면 그가 공언한 것은 덕에 대한 앎이 아니라 궁핍에 대한 앎이었던 셈입니다.

19 에피쿠로스학파 철학자 디오도로스는 며칠 전에 제 손으로 삶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제 목을 그은 것이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따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일을 광기로, 어떤 이들은 무모함으로 보려 합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행복하게, 선한 양심으로 가득 차서, 삶을 떠나며 스스로에게 증언했습니다. 항구에 닻을 내린 채 보낸 생애의 고요를 기리고, 여러분이 듣기 싫어한 그 말, 마치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듯이 들린 그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살았고, 운이 내게 정해 준 길을 끝까지 달렸다."[10]

여러분은 남의 삶을 두고, 남의 죽음을 두고 시비를 벌이고, 무언가 빼어난 공덕으로 위대해진 사람들의 이름만 들리면 낯선 사람을 만난 작은 개들처럼 짖어 댑니다. 아무도 선해 보이지 않는 편이 여러분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의 덕이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꾸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시샘하며 빛나는 것을 여러분의 추레함과 견주지만, 그런 짓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손해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덕을 따르는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음탕하고 야심에 차 있다면, 덕이라는 이름조차 미워하는 여러분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도 제가 하는 말을 실천하지 않고 제 말을 본보기로 삼아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용감하고 거대하며 인간 세상의 모든 폭풍을 벗어나는 것들이니, 놀랄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떼어 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 손으로 제 몸에 못을 박아 넣는 그런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형벌로 끌려가더라도 저마다 기둥 하나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벌하는 이 사람들은 욕망의 수만큼 많은 십자가에 사지가 찢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험담을 늘어놓고, 남을 모욕하는 데는 재치가 넘칩니다. 그들에게 이럴 여유가 있다고 믿어 줄 수도 있겠지만, 형틀에 매달린 채 구경꾼에게 침을 뱉는 자들도 있는 법입니다.

20 "철학자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들은 말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정신으로 생각해 내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해냅니다. 말한 만큼 행하기까지 한다면야 그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좋은 말과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찬 가슴을 업신여길 까닭은 없습니다. 이로운 공부는 결실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힘쓰는 것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가파른 길에 나선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오르지 못한다 한들 놀랄 일이 무엇입니까? 사내라면, 떨어지더라도 큰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십시오.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힘을 바라보며 높은 곳에 오르려 애쓰고, 크나큰 마음을 갖춘 사람들조차 이룰 수 없을 만큼 큰일을 마음에 품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죽음을, 죽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와 같은 얼굴로 바라보겠다. 아무리 큰 수고라도 마음으로 몸을 떠받치며 그 수고를 따르겠다. 재산은 곁에 있든 없든 똑같이 업신여기겠다. 재산이 다른 데 쌓여 있다고 더 침울해하지 않고, 내 둘레에서 번쩍인다고 더 의기양양해하지 않겠다. 운이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느끼지 않겠다. 온 땅을 내 것인 듯 보고, 내 것을 모두의 것인 듯 보겠다. 나는 남들을 위해 태어났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겠고, 그 까닭으로 자연에 감사하겠다. 자연이 내 일을 이보다 더 잘 처리해 줄 수 있었겠는가? 자연은 나 하나를 모두에게 주었고, 모두를 나 하나에게 주었다. 내가 무엇을 가지든 인색하게 지키지도 헤프게 뿌리지도 않겠다. 잘 베푼 것만큼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없다고 믿겠다. 은혜는 수로도 무게로도 재지 않고,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로만 달아 보겠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면 무엇이든 결코 많다고 여기지 않겠다. 무엇 하나 평판 때문에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양심 때문에 하겠다. 나 혼자 알고 하는 일도 뭇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믿겠다. 먹고 마시는 일은 자연의

욕구를 끄는 데서 그치고, 배를 채웠다 비우는 데까지 가지 않겠다. 벗들에게는 즐거운 사람이 되고, 원수들에게는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다. 청을 받기 전에 들어주고, 훌륭한 청이라면 먼저 마중을 나가겠다. 온 우주가 내 조국이고 신들이 그 수호자임을 알겠다. 신들이 내 위와 내 둘레에 서서 내 행동과 말을 살피는 감찰관임을 알겠다. 언제가 되었든 자연이 내 숨을 돌려 달라고 하든 이성이 숨을 놓아 보내든, 나는 선한 양심과 좋은 공부를 사랑했고, 누구의 자유도, 무엇보다 내 자유를 나 때문에 줄어들게 한 적이 없음을 증언하며 떠나겠다." 이것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원하고, 시도하는 사람은 신들에게로 가는 길을 걷습니다. 참으로 그는 끝까지 붙들지 못한다 해도 "크나큰 모험을 하다가 떨어졌을"[11] 뿐입니다.

여러분이 덕과 덕을 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 해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병든 눈은 해를 두려워하고, 밤짐승은 눈부신 낮을 싫어하여 해가 막 떠오르면 얼이 빠져 저마다 제 굴을 찾아 흩어지고, 빛이 무서워 어느 틈바구니에든 숨어 버립니다. 실컷 신음하고, 그 불행한 혀를 선한 사람들을 헐뜯는 데 놀리십시오. 입을 벌리고 물어뜯으십시오. 이빨 자국을 내기보다 이빨이 부러지는 편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21 "어째서 저 사람은 철학에 힘쓴다면서 그토록 부유하게 사는가? 어째서 재산은 업신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재산을 쌓아 두는가? 삶은 업신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살아가는가? 건강은 업신여겨야 한다면서 왜 그토록 정성껏 돌보고 되도록 좋은 건강을 바라는가? 추방은 빈 이름일 뿐이라 여기며 '고장을 바꾸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인가?' 하고 말하면서, 왜 할 수만 있으면 조국에서 늙어 가는가? 긴 세월과 짧은 세월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왜 막는 것이 없으면 수명을 늘리고 아주 늙어서도 평온하게 푸르름을 누리는가?" 그는 이런 것들을 업신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떠나가면 근심 없이 배웅할 뿐입니다. 운이 재산을 맡겨 둘 곳으로, 돌려줄 때 투덜대지 않을 사람보다 더 안전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르쿠스 카토는 쿠리우스와 코룬카니우스[12]를, 은 조각 몇 개만 지녀도 감찰관에게 죄가 되던 그 시대를 칭송했지만, 그 자신은 40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크라수스보다는 틀림없이 적었지만 감찰관 카토보다는 많았습니다. 견주어 보면, 그가 증조부를 앞지른 폭이 크라수스에게 뒤진 폭보다 더 컸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산이 굴러들어 왔더라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자는 우연히 주어지는 어떤 선물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재산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있는 편을 바랍니다. 재산을 마음에 들이지 않고 집에 들입니다. 가진 재산을 내치지 않고 잘 간수하며, 제 덕을 펼칠 더 큰 재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2 그런데 현자가 제 마음을 펼쳐 보일 재료가 가난보다 재산 속에 더 많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가난 속에서는 덕이 오직 한 가지, 굽히지 않고 짓눌리지 않는 것뿐이지만, 재산 속에서는 절제와 후함과 알뜰함과 살림을 꾸리는 솜씨와 통 큰 씀씀이가 넓게 트인 들판을 얻습니다. 현자는 키가 아주 작더라도 자신을 업신여기지 않겠지만, 그래도 키가 크기를 바랄 것입니다. 몸이 여위었거나 눈 하나를 잃었어도 건강하게 지내겠지만, 그래도 몸이 튼튼하기를 더 바랄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안에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는 병을 견디겠지만 건강을 바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전체에 견주면 작아서 으뜸가는 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덜어 낼 수 있는데도, 덕에서 솟아나는 끝없는 즐거움에 무언가를 보태 주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현자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그를 흐뭇하게 합니다. 뱃사람에게 순풍이, 맑게 갠 날이, 동지 무렵 추위 속의 볕바른 자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게다가 현자라면, 그러니까 덕만을 유일한 선으로 삼는 우리 학파의 현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도 악도 아닌 것(indifferentia)이라 부르는 이것들에 얼마간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것에는 얼마간의 존중을, 어떤 것에는 큰 존중을 줍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산은 더 나은 것들 가운데 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나를 비웃는가? 재산은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같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가?" 하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같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까? 재산이 제게서 흘러나가 버리면, 재산은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재산이 떠나가면 넋이 나가고, 당신 자신마저 잃고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제게 재산은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당신에게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결국 재산은 제 것이지만, 당신은 재산의 것입니다.

23 그러니 철학자에게 돈을 금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누구도 지혜에게 가난이라는 형벌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철학자도 넉넉한 재산을 가질 것입니다. 다만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도, 남의 피로 물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더러운 돈벌이 없이 얻은 재산, 들어올 때만큼 나갈 때도 떳떳하고, 심술궂은 자가 아니면 아무도 그 때문에 한숨짓지 않는 재산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풀려 보십시오. 저마다 제 것이라 부르고 싶은 것은 많아도 누구도 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 그 재산은 떳떳합니다. 현자는 운이 베푸는 호의를 밀어내지 않을 것이고, 떳떳하게 모은 재산을 자랑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랑할 거리가 하나 있기는 할 것입니다. 집을 활짝 열어 온 시민을 제 재산 사이로 들여놓고 "누구든 제 것을 알아보거든 가져가시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오, 위대한 사람이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부자입니다! 제 말은 이렇습니다. 마음 놓고 근심 없이 사람들에게 뒤져 보게 하고, 아무도 그의 집에서 손댈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한다면, 그는 담대하게, 드러내 놓고 부자로 살아도 됩니다. 현자는 잘못 들어오는 돈이라면 데나리우스 한 닢도 제 문턱 안에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의 선물이자 덕의 열매인 큰 재산이라면 내치지도 문밖에 세워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재산이 좋은 자리에 깃드는 것을 왜 시샘하겠습니까? 오게 하고,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는 재산을 뽐내지도 숨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뽐내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 하는 짓이고, 숨기는 것은 큰 보물을 품듯 재산을 품속에 감추는 겁 많고 옹졸한 마음이 하는 짓입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재산을 집에서 내쫓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어라 말하며 내쫓겠습니까? "너희는 쓸모없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재산을 쓸 줄 모른다." 하겠습니까? 제 발로도 길을 갈 수 있지만 수레에 오르기를 더 바라듯이, 현자는 가난하게 살 수 있어도 부유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갖되, 가볍고 언제든 날아가 버릴 것으로 여기며, 남에게도 자기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는 베풀 것입니다. 왜 귀를 쫑긋 세우십니까? 왜 품을 벌리십니까? 그는 선한 사람들에게, 또는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들어온 것뿐 아니라 나간 것도 셈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답게, 더없이 신중하게 가장 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 베풀 것입니다. 바르고 납득할 만한 까닭이 있을 때 베풀 것입니다. 잘못 준 선물은 부끄러운 낭비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의 품은 쉽게 열리지만 구멍이 나 있지는 않아서, 많은 것이 나가되 아무것도 흘러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4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우연과 충동에 따라 흩뿌리지 않고 생각을 거쳐 나누어 준다면, 그 일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미리 베풀어 두고, 이

사람에게는 받은 것을 갚습니다. 이 사람은 돕고, 저 사람은 가엾게 여깁니다. 가난에 끌려 내려가거나 가난에 매여 지내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면 살림을 갖춰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자라더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더라도 여전히 모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내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억지로라도 안겨 줄 것입니다. 이 일에서는 소홀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베풀 때만큼 장부에 빚을 많이 적어 넣는 때가 없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돌려받으려고 베푸는가?" 하고 당신은 말합니다. 아니, 잃지 않으려고 베풉니다. 베푼 것은 돌려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지만 돌려받을 수는 있는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은혜는 땅속 깊이 묻어 둔 보물처럼 맡겨 두어,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파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부자의 집 자체가 선을 베풀 재료를 얼마나 많이 품고 있습니까! 후함을 토가 입은 시민에게만 베풀라고 누가 말합니까? 자연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라고 제게 명합니다. 그들이 노예든 자유인이든, 자유인으로 태어났든 해방 노예든, 법에 따라 해방되었든 벗들 앞에서 해방되었든,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은혜를 베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돈은 제 집 문턱 안에서도 흘러 퍼지며 후함을 펼칠 수 있습니다. 후함(liberalitas)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자유인(liber)에게 갚아야 할 것이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현자에게서 후함은 추하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일이 결코 없고, 지쳐 헤매다가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고도 가득 찬 샘에서 흐르듯 흘러나오지 못하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 훌륭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을 까닭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새겨 두십시오. 지혜를 배우는 사람과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릅니다.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더없이 훌륭하게 말하오.

그러나 아직 숱한 악 가운데서 뒹굴고 있소. 내가 세운 규범대로 나를 다그칠 일은 아니오. 나는 바로 지금 나를 만들고 빚으며 거대한 본보기를 향해 나를 끌어올리는 중이니, 내가 세운 목표만큼 나아가거든 그때 말과 행동이 맞아떨어지라고 요구하시오." 그러나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선의 꼭대기에 다다른 사람은 다르게 대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먼저, 그대는 그대보다 나은 사람들을 두고 판결을 내릴 처지가 아니오. 나는 이미 악한 자들의 눈 밖에 났소. 그것이 내가 바르다는 증거요.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명을 아끼지 않으니 그대에게도 해명하겠소. 내가 무엇을 내세우는지, 무엇을 얼마로 쳐주는지 들어 보시오. 나는 재산이 선이라는 것을 부정하오. 재산이 선이라면 사람을 선하게 만들 것이오.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은 선이라 부를 수 없으니, 나는 재산에게 그 이름을 주지 않소. 그래도 재산은 가질 만하고 쓸모 있으며 삶에 큰 편의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인정하오."

25 "그렇다면 내가 왜 재산을 선 가운데 넣지 않는지, 재산을 가질 만하다는 데는 우리 둘 다 뜻이 같은데 재산을 두고 내가 그대들과 무엇을 달리하는지 들어 보시오. 나를 더없이 호화로운 집에 두어 보시오. 금붙이와 은붙이를 아무 데나 막 쓰는 곳에 두어 보시오.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자신을 우러러보지 않을 것이오. 그것들은 내 곁에 있어도 내 바깥에 있기 때문이오. 나를 수블리키우스 다리[13]로 옮겨 거지들 틈에 내던져 보시오. 동냥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무리 가운데 앉았다고 해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는 않을 것이오. 죽을 수 있는 힘이 모자라지 않은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 모자란들 무슨 상관이겠소?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오? 나는 다리보다 저 화려한 집을 택하겠소. 나를 번쩍이는 세간과 사치스러운 살림 가운데 두어 보시오. 내 겉옷이 부드럽고 손님들 자리에 자줏빛 천이 깔린다고 해서 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운 좋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오. 내 잠자리를 바꿔 보시오. 지친 목을 건초 한 줌에 누이고, 낡은 아마포를 기운 자리로 속이 비어져 나오는 원형 경기장 방석 위에 누워 자더라도 조금도 더 비참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오? 나는 맨어깨나 반쯤 드러난 몸보다는 자줏빛 단을 두른 토가에 두툼한 털옷을 걸친 채로 내 마음이 어떤지 보여 주는 편을 택하겠소'[14]. 날마다 바라는 대로 일이 풀리고 새 축하가 앞의 축하에 잇달아 겹친다 해도, 그 때문에 우쭐하지 않을 것이오. 이 시절의 호의를 거꾸로 뒤집어 보시오. 손실과 애도와 갖가지 습격이 사방에서 내 마음을 때리고, 불평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한 시도 없다 해도, 그 때문에 더없이 비참한 일들 가운데서 나를 비참한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그 때문에 어느 날을 저주하지도 않을 것이오. 내게는 어떤 날도 불길한 검은 날이 되지 않도록 미리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오.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오? 나는 고통을 억누르기보다 기쁨을 누그러뜨리는 편을 택하겠소."

저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온 민족의 정복자로 만들어 보시오. 리베르[15]의 저 호사스러운 수레가 해 뜨는 곳에서 테베까지 개선하는 나를 태우고 가게 하고, 페르시아의 왕들이 내게 법을 청하게 해 보시오. 사방에서 나를 신이라 부르며 맞이할 때, 나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깊이 생각할 것이오. 이 드높은 꼭대기에 곧바로 곤두박질치는 뒤바뀜을 이어 붙여, 내가 남의 들것에 실려 오만하고 사나운 승리자의 개선 행렬을 꾸미는 전리품이 되게 해 보시오. 그래도 나는 남의 수레 뒤에 끌려가면서 내 수레 위에 서 있을 때보다 더 비굴해지지 않을 것이오.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오? 그래도 나는 사로잡히기보다 이기는 편을 택하겠소. 나는 운의 왕국 전체를 업신여기겠지만, 고를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더 나은 것을 가지겠소. 내게 오는 것은 무엇이든 선한 것이 되겠지만, 나는 더 수월하고 더

즐거우며 다루는 사람을 덜 괴롭힐 것이 오기를 바라오. 그대는 수고 없는 덕이 있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오. 다만 어떤 덕에는 박차가, 어떤 덕에는 고삐가 필요하오. 내리막에서는 몸을 붙들어야 하고 오르막에서는 밀어 올려야 하듯이, 어떤 덕은 내리막에 있고 어떤 덕은 비탈을 오르오. 인내와 용기와 끈기, 그 밖에 모진 일에 맞서 운을 굴복시키는 덕이라면 무엇이든 비탈을 오르며 버티고 맞붙어 싸운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소? 그렇다면 어떻소? 후함과 절제와 온화함이 내리막을 간다는 것도 그만큼 분명하지 않소? 이런 덕에서는 마음이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붙들고, 저런 덕에서는 마음을 있는 힘껏 북돋우고 다그치오. 그러니 가난에는 싸울 줄 아는 더 굳센 덕을 쓰고, 재산에는 발을 조심스레 디디며 제 무게를 버티는 더 신중한 덕을 쓸 것이오.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 나는 피와 땀으로 시험받는 덕보다 더 평온하게 펼칠 수 있는 덕을 쓰는 편을 택하겠소. 그러니 나는 말과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오." 현자는 말합니다. "그대들이 내 말을 다르게 듣고 있소. 그대들 귀에는 말소리만 닿을 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묻지 않소."

26 "우리 둘 다 재산을 갖고 싶어 한다면, 어리석은 나와 현자인 당신이 무엇이 다른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재산은 현자의 집에서는 종살이를 하고, 어리석은 자의 집에서는 주인 노릇을 합니다. 현자는 재산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재산이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재산을 영원히 차지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재산에 길들고 들러붙지만, 현자는 재산 한가운데서 있을 때 가장 깊이 가난을 미리 익힙니다. 사령관은 평화를 아무리 믿더라도 전쟁에 대비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선포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불에 타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처럼 여기는 아름다운 집 때문에 오만해지고, 모든

위험을 넘어섰고 운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다 삼켜 버릴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여기는 재산 때문에 넋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재산을 가지고 한가하게 놀며 그 위험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성안에 갇힌 야만인들이 공성 기계를 몰라서, 성을 에워싼 적들이 애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멀리서 짜 맞추는 것들이 무엇에 쓰일지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제 살림 속에서 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불행이 사방에서 덮쳐 와 이제라도 값진 전리품을 앗아 가려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현자의 재산을 빼앗더라도 현자의 것은 모두 그대로 남겨 둘 것입니다. 현자는 지금 있는 것으로 즐겁게 살고, 앞날에는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소크라테스가, 아니면 인간사를 대하는 마음이 그와 같고 그만한 힘을 지닌 다른 누군가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굳게 다짐한 것은 그대들의 생각에 맞춰 내 삶의 걸음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오. 늘 하던 말을 사방에서 퍼부어 보시오. 나는 그대들이 욕을 한다고 여기지 않고, 더없이 가엾은 갓난아기들처럼 울어 댄다고 여기겠소."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악덕에 물들지 않은 마음이 그에게 남을 꾸짖으라고 명하는데, 미워해서가 아니라 고쳐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이런 말을 덧붙일 것입니다. "그대들의 평판에 내가 마음이 쓰이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대들 때문이오. 덕을 떠들썩하게 미워하고 덕에 시비를 거는 것은 좋은 희망을 스스로 내던지는 짓이기 때문이오. 그대들은 내게 아무런 불의도 저지르지 못하오. 제단을 뒤엎는 자들이 신들에게 불의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과 같소. 그러나 해를 끼치지 못한 곳에서도 나쁜 뜻과 나쁜 속셈은 드러나는 법이오. 나는 그대들의 헛소리를 견디오.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위대한 유피테르가 시인들의 허튼소리를 견디듯이 말이오. 시인들 가운데 누구는 유피테르에게 날개를 달았고, 누구는 뿔을 달았고, 누구는

밤마다 집을 비우는 간통자로 그렸으며, 누구는 신들에게 잔인한 자로, 누구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자로, 누구는 자유민 소년들을, 그것도 제 핏줄을 납치하는 자로, 누구는 아비를 해치고 남의 왕국과 아버지의 왕국을 빼앗은 자로 그렸소. 그런 이야기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그런 신들을 믿게 되면 죄짓는 부끄러움을 덜어 준 것뿐이오. 그대들의 말이 나를 조금도 다치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대들을 위해 충고하겠소. 덕을 우러러보시오. 오랫동안 덕을 따르며 자기가 따르는 것은 무언가 위대하고 날마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믿으시오. 덕을 신처럼, 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제처럼 섬기시오. 그리고 거룩한 글이 언급될 때마다 '말을 삼가라(favete linguis)'는 말을 지키시오. 이 말은 흔히들 생각하듯 호의(favor)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불길한 말소리 하나 끼어들지 않고 제사를 바르게 치르도록 침묵을 명하는 말이오. 그 명령은 그대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오. 저 신탁에서 무슨 말이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고 들어야 하기 때문이오. 누가 시스트룸을 흔들며 신의 명령이라고 거짓말을 할 때, 제 팔을 긋는 데 능숙한 누가 손을 살짝 들어 팔과 어깨를 피로 물들일 때, 어떤 여자가 무릎으로 길을 기어가며 울부짖고, 아마포 옷을 입은 노인이 월계수 가지와 대낮의 등불을 앞세우고 어느 신이 노했다고 외쳐 댈 때[16], 그대들은 몰려들어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넋 나감을 부추기며 그가 신에게 들렸다고 단언하오."

27 보십시오. 소크라테스가 저 감옥에서 외칩니다. 그가 들어감으로써 정결하게 하고 어떤 원로원 의사당보다 더 존귀하게 만든 그 감옥에서 말입니다. "이 무슨 광란이오? 덕을 헐뜯고 거룩한 것을 악담으로 더럽히다니, 신들과 사람들에게 원수 된 이 본성은 대체 무엇이오? 할 수 있거든 선한 사람들을 칭송하고, 그럴 수 없거든 그냥 지나가시오. 그 추악한 방종을 부리는 것이 그리도 좋거든 그대들끼리

서로 덤벼드시오. 그대들이 하늘을 향해 미쳐 날뛸 때, 나는 그대들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하지 않겠소. 헛수고를 한다고 말하겠소. 나도 한때 아리스토파네스에게 웃음거리를 대 주었고, 희극 시인 무리 전체가 독 묻은 익살을 내게 쏟아부었소. 그러나 내 덕은 바로 그 공격 덕분에 더 빛나게 되었소. 덕은 끌려 나와 시험받는 것이 이롭기 때문이오. 덕의 힘을 건드려 보고 느낀 사람들만큼 덕이 얼마나 큰지 잘 아는 사람은 없소. 부싯돌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그것을 내리치는 사람이 가장 잘 아오. 나는 얕은 바다에 홀로 남은 바위처럼 나를 내놓소. 파도는 어느 쪽에서 밀려오든 그 바위를 쉬지 않고 때리지만, 그렇다고 바위를 제자리에서 밀어내지도, 그 숱한 세월 동안 거듭 들이쳐서 닳게 하지도 못하오. 뛰어들어 보시오. 덤벼 보시오. 나는 견딤으로써 그대들을 이기겠소. 단단하고 꺾을 수 없는 것에 부딪치는 것은 무엇이든 제 힘을 제 손해로 쓰게 되오. 그러니 그대들의 화살이 박힐 만한 무르고 잘 휘어지는 재료나 찾아보시오."

"그런데 그대들은 남의 허물을 뒤지고 아무에게나 판결을 내릴 만큼 한가하오? '어째서 이 철학자는 이리 넓은 집에 사는가? 어째서 이 철학자는 이리 호화롭게 먹는가?' 그대들은 온몸이 숱한 종기로 뒤덮였으면서 남의 뾰루지를 살피오? 흉한 옴이 온몸을 갉아 먹는 사람이 더없이 아름다운 몸에 난 점이나 사마귀를 비웃는 꼴이오. 플라톤에게는 돈을 구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돈을 받았다고, 데모크리토스에게는 돈을 돌보지 않았다고, 에피쿠로스에게는 돈을 다 써 버렸다고 비난하시오. 나에게는 알키비아데스와 파이드로스[17]를 들이대시오. 그대들이 우리 악덕을 흉내 낼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날, 그대들은 더없이 행복해지겠구려! 차라리 그대들 자신의 악을 둘러보지 그러오? 어떤 것은 바깥에서 날뛰고 어떤 것은 바로 그대들의 오장육부 속에서 불타며 사방에서 그대들을 찔러 대고 있지 않소? 그대들이 제

처지를 잘 모른다 해도, 인간의 형편은 나은 사람들을 헐뜯는 데 혀를 놀릴 만큼 그대들에게 한가한 시간이 남아돌 지경은 아니오."

28 "그대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들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소. 원형 경기장이나 극장에 앉아 있는 동안 집에는 이미 초상이 났는데 그 불행을 아직 전해 듣지 못한 숱한 사람들처럼 말이오. 그러나 나는 높은 데서 내다보며, 어떤 폭풍이 조금 뒤에 먹구름을 터뜨리려고 그대들 위에 걸려 있는지, 어떤 폭풍이 이미 바싹 다가와 그대들과 그대들의 것을 휩쓸어 가려 하는지 보고 있소. 그뿐이오? 그대들이 잘 느끼지 못한다 해도, 지금도 어떤 회오리바람이 그대들의 마음을 휘감아 돌리고 있지 않소? 똑같은 것을 피했다가 쫓게 하며, 때로는 하늘 높이 들어 올렸다가 때로는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18]"

---

1. 세네카의 형 마르쿠스 안나이우스 노바투스. 웅변가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가 되어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이름을 얻었다. 「분노에 관하여」도 그에게 바친 글이다.

2. 원로원 표결 관행. 의원은 앞사람이 낸 안건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따로 표결하자고 요구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의견을 말하는 의원은 앞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덧붙여 제안할 수 있었다.

3. 원문 일부가 빠졌다.

4.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2.61. 거짓말로 트로이인들을 속이러 온 그리스인 시논을 두고 한 말이다.

5. 노멘타누스는 호라티우스의 풍자시에 나오는 이름난 탕아다. 아피키우스(마르쿠스 가비우스 아피키우스)는 티베리우스 시대의 미식가로, 재산을 먹는 데 탕진하고 남은 돈으로는 살 수 없다며 독을 마시고 죽었다.

6. 키벨레 여신을 섬기는 거세한 사제들이 치던 손북. 사내답지 못함의 표지로 여겨졌다.

7. 베르길리우스 『농경시』 1.139~140. 이 시구와 아래의 둘째 시구가 그 두 행이다.

8. 루틸리우스는 푸블리우스 루틸리우스 루푸스. 청렴한 관리였으나 기원전 92년 모함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되었다. 카토는 공화정을 지키다 우티카에서 자결한

소(小)카토(기원전 95~기원전 46)다.

9. 1세기 로마의 견유학파 철학자. 세네카의 벗이다.

10.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4.653. 아이네이아스에게 버림받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한 말이다.

11.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2.328. 아버지 태양신의 수레를 몰다 떨어져 죽은 파에톤의 묘비명이다.

12. 마니우스 쿠리우스 덴타투스와 티베리우스 코룬카니우스. 기원전 3세기에 검소함으로 이름난 로마인들이다. 감찰관 카토는 소카토의 증조부인 대(大)카토, 크라수스는 로마에서 손꼽히던 부자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다.

13. 테베레강에 놓인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다리. 거지들이 모여 구걸하던 곳이다.

14. 원문 손상. 「 두툼한 털옷을 걸친 」 (gausapatus)과 「 반쯤 드러난 」 (semitectis)으로 고쳐 읽었다.

15. 리베르는 디오니소스(바쿠스)의 라틴 이름이다. 동방을 정복하고 테베로 개선했다고 전한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손상된 원문을 고쳐 읽은 것이다.

16. 시스트룸은 이시스 숭배에서 흔들던 금속 딸랑이다. 팔을 그어 피를 내는 자는 벨로나 여신의 사제를, 아마포 옷을 입은 노인은 이시스의 사제를 가리킨다.

17. 소크라테스와 가까웠던 아테네의 젊은이들. 비판자들은 이들과의 관계를 들어 소크라테스를 헐뜯었다.

18. 이 뒤로 원문이 전하지 않는다.

여가에 관하여

1 〈…〉[1] 한목소리로 우리에게 악덕을 권하네. 다른 어떤 이로운 일을 꾀하지 않는다 해도, 물러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걸세. 우리는 저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테니 말일세. 게다가 가장 훌륭한 사람들 곁으로 물러나, 우리 삶을 맞춰 나갈 본보기를 하나 고를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것은 여가(otium)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일세. 아직 여린 판단을 대중의 힘을 빌려 비틀어 버리는 자가 끼어들지 않을 때에야 한번 옳다고 정한 것을 지켜 낼 수 있네. 그때에야 삶이 고르고 한결같은 가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지금 우리는 서로 어긋나는 목표들로 그 삶을 갈가리 찢어 놓고 있네. 다른 나쁜 일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것은 우리가 악덕마저 바꾼다는 것일세.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악에 머무는 일조차 주어지지 않네. 이것이 마음에 들었다가 저것이 마음에 들고, 우리의 판단이 비뚤 뿐 아니라 가볍기까지 하다는 것도 우리를 괴롭히네.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것을 붙잡았다 저것을 붙잡고, 찾던 것을 버리고 버린 것을 다시 찾으며, 욕망과 후회 사이를 번갈아 오가네. 우리는 온통 남의 판단에 매달려 있어서, 칭찬하고 찾을 만한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길이 좋은지 나쁜지도 길 자체로 따지지 않고 발자국이 얼마나 많은지로 따지네. 그 발자국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의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말일세.

자네는 내게 말하겠지. "세네카, 그게 무슨 말인가? 당신은 당파를 저버리는가? 당신네 스토아학파는 분명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삶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놓지 않을 것이고, 모두의 이로움을 위해 애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늙은 손으로나마 원수에게도 도움을 베풀 것이다. 우리는 어느 나이에도 군역을 면제해 주지 않으며, 저 더없이 말 잘하는 시인의 말처럼'"

"흰머리 위에 투구를 눌러쓴다."[2]

"'우리는 죽기 전에는 무엇 하나 한가하게 두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형편이 허락한다면 죽음마저 한가하지 않게 한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제논의 본영 한복판에서 에피쿠로스[3]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늘어놓는가? 당파가 싫어졌다면 안에서 배신하느니 차라리 떳떳하게 저쪽으로 넘어가지 그러는가?" 지금으로서는 자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네. "내가 내 지휘관들을 닮게 처신하는 것 말고 자네가 무엇을 더 바라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나는 그들이 나를 보낸 곳이 아니라 그들이 앞장서 이끌고 간 곳으로 가겠네."

2 이제 내가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자네에게 증명하겠네. 그들 자신도 자기 가르침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니 말일세. 그리고 설령 내가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본보기를 따른다 해도 나는 넉넉히 변명이 될 걸세. 내 말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네. 첫째, 누구든 아주 젊은 나이부터 진리를 관조(contemplatio)하는 데 온몸을 바치고, 사는 이치를 찾고, 남의 눈을 피해 그것을 닦을 수 있다는 것. 둘째, 복무를 다 마치고 나이가 기운 사람은 더없이 정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다른 활동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4]일세. 베스타 신녀[5]들처럼 말일세. 신녀들은 햇수를 나누어 맡은 일을 바꾸어 가며, 제의를 치르는 법을 배우고, 다 배우면 가르치네.

3 이것이 스토아학파의 뜻에도 맞는다는 것을 보여 주겠네. 제논이나 크리시포스의 말에 어긋나는 짓은 하나도 하지 않겠다고 내가 스스로에게 법을 정해서가 아니라, 사안 자체가 내가 그들의 의견 쪽으로 걸어가 표를 던지도록 허락하기 때문일세. 늘 한 사람만 따르는 사람은 원로원 의원이 아니라 파당의 졸개이니 말일세. 모든 것이 이미 밝혀져서 진리가 누구나 인정하도록 훤히 드러나 있고, 우리가 학설에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우리는 가르치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찾고 있네.

이 문제에서 가장 크게 갈라서는 두 학파가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일세. 그러나 둘 다 서로 다른 길로 우리를 여가로 보내네. 에피쿠로스는 말하네. "현자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나랏일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제논은 말하네. "현자는 무엇이 막지 않는 한 나랏일에 나설 것이다."[6] 한쪽은 원칙으로 여가를 구하고, 다른 쪽은 까닭이 있을 때 구하네. 그런데 그 까닭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네. 나라가 너무 썩어서 도울 수 없을 때, 악한 자들에게 장악되었을 때, 현자는 쓸데없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아무 보탬도 되지 못할 일에 자신을 바치지 않을 걸세. 그에게 권위나 힘이 모자라서 나라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건강이 그를 가로막을 때, 그는 금 간 배를 바다에 띄우지 않듯, 몸이 약한 사람이 군대에 이름을 올리지 않듯,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아는 길에는 들어서지 않을 걸세. 그러니 아직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도 어떤 폭풍을 겪기 전에 안전한 곳에 머물러, 곧바로 훌륭한 학문에 몸을 맡기고 흠 없는 여가를 누릴 수 있네. 더없이 조용히 사는 사람도 닦을 수 있는 덕을 가꾸면서 말일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일세.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그렇지 못하면 몇 사람에게, 그렇지 못하면 가까운 이들에게, 그렇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남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그는 모두의 일을 하는

것이네.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은 자기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나아졌다면 이롭게 할 수 있었을 모든 사람을 해치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남들에게 이로울 것을 마련한다는 바로 그 일로 남들을 이롭게 하네.

4 두 나라를 마음에 품어 보세. 하나는 크고 참으로 모두의 것인 나라, 신들과 사람들을 아우르는 나라일세. 거기서 우리는 이 구석이나 저 구석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나라의 경계를 해가 지나는 길로 잰다네. 다른 하나는 태어난 처지가 우리를 그 명부에 올린 나라일세. 이것은 아테네인의 나라이거나 카르타고인의 나라이거나 그 밖의 어떤 도시일 텐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만의 나라일세. 어떤 이들은 두 나라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에 동시에 힘을 쏟고, 어떤 이들은 작은 나라에만, 어떤 이들은 큰 나라에만 힘을 쏟네. 이 큰 나라에는 여가 속에서도 이바지할 수 있네. 아니, 오히려 덕이란 무엇인가, 덕은 하나인가 여럿인가,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본성인가 기술인가를 탐구하면서 여가 속에서 더 잘 이바지할 수 있는지도 모르네. 바다와 땅과 바다와 땅 사이에 깃든 것을 아우르는 이것은 하나뿐인가, 아니면 신이 이런 몸체를 여럿 흩뿌려 놓았는가. 만물이 생겨나는 물질은 빈틈없이 이어지고 꽉 차 있는가, 아니면 낱낱이 떨어져 있고 단단한 것들 사이에 빈 곳이 섞여 있는가. 신의 자리는 어디인가. 신은 자기 작품을 바라보기만 하는가, 아니면 손수 다루는가. 신은 바깥에서 작품을 감싸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전체에 깃들어 있는가. 우주는 불멸하는가, 아니면 무너지게 마련이고 한때를 위해 생겨난 것들 가운데 하나로 셈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관조하는 사람이 신에게 무슨 이바지를 하느냐고? 신의 그 위대한 작품들이 증인 없이 남지 않게 하네.

5 우리는 흔히 최고선은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하네. 자연은 우리를 두 가지를 위해, 곧 사물을 관조하기 위해서도 행동(actio)하기

위해서도 낳았네. 이제 앞에서 말한 것을 증명해 보세. 또 어떤가? 누구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지, 온갖 이야기에 얼마나 들뜨는지 스스로 돌아본다면 이것은 증명된 셈이 아니겠는가? 어떤 이들은 숨겨지고 먼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단 하나의 보수를 바라고 바다를 건너며 머나먼 여행의 고생을 견디네. 이것이 사람들을 구경거리로 모여들게 하고, 이것이 닫힌 것을 파헤치고 감춰진 것을 캐내고 옛일을 들추고 야만족의 풍습을 귀동냥하게 만드네. 자연은 우리에게 호기심 많은 성품을 주었고, 자기 솜씨와 아름다움을 잘 알기에 우리를 이 거대한 구경거리들의 구경꾼으로 낳았네. 그토록 크고, 그토록 빛나고, 그토록 섬세하게 그려지고, 그토록 반짝이며 갖가지로 아름다운 것들을 아무도 없는 곳에 내보인다면 자연은 자기 열매를 잃어버릴 테니 말일세. 자연이 그저 눈에 띄는 데 그치지 않고 찬찬히 구경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려면,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었는지 보게. 자연은 우리를 자기 한가운데에 세우고 모든 것을 둘러볼 수 있게 해 주었네. 자연은 사람을 똑바로 세웠을 뿐 아니라, 관조에 알맞게 만들려고, 떠오르는 데서 지는 데로 미끄러지는 별들을 눈으로 따라가며 온 하늘과 함께 얼굴을 돌릴 수 있도록 머리를 높이 두고 잘 돌아가는 목 위에 얹었네. 그런 다음 낮에 여섯, 밤에 여섯 별자리를 꺼내 보이며 자기 몸 어느 한 곳도 펼쳐 보이지 않은 데가 없게 했네. 눈앞에 내놓은 이것들로 나머지 것들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보지도, 있는 그대로의 크기로 보지도 못하네. 그러나 우리의 눈길은 탐구할 길을 스스로 열고 참된 것의 주춧돌을 놓아, 탐구가 드러난 것에서 어두운 것으로 건너가 우주 자체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를 찾아내게 하네. 저 별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낱낱의 것들이 저마다 제 몫으로 갈라지기 전에 우주 전체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가라앉고 뒤섞인 것을 어떤 이치가 갈라놓았는가. 누가

사물에 자리를 정해 주었는가. 무거운 것은 제 본성대로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날아올랐는가, 아니면 물체의 무게와 쏠림 말고 더 높은 어떤 힘이 하나하나에 법을 정해 주었는가. 사람이 신성한 숨(spiritus)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증명하는 그 말, 곧 별들의 한 조각, 말하자면 불꽃 몇 점이 땅으로 뛰어내려 낯선 곳에 붙들려 있다는 말은 참인가.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성벽을 뚫고 나가며, 보여 주는 것을 아는데 만족하지 않네. 생각은 이렇게 말하지. "나는 우주 너머에 있는 것을 캐묻는다. 그것은 끝없이 깊은 허공인가, 아니면 그것 또한 제 경계에 갇혀 있는가. 바깥에 놓인 것들은 어떤 모습인가. 모양 없이 뒤섞여 사방으로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도 어떤 질서에 따라 나뉘어 있는가. 그것들은 이 우주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우주는 빈 곳에서 굴러가는가. 생겨난 것과 생겨날 모든 것을 짓는 재료는 쪼갤 수 없는 알갱이인가, 아니면 그 물질은 이어져 있고 전체에 걸쳐 바뀔 수 있는가. 원소들은 서로 반대되는가, 아니면 다투지 않고 서로 다른 길로 한데 어울리는가." 이런 것을 탐구하도록 태어난 사람이, 시간을 몽땅 제 것으로 차지한다 해도 받은 시간이 얼마나 적은지 헤아려 보게. 그가 마음이 물러서 무엇 하나 빼앗기지 않고 소홀해서 무엇 하나 흘려보내지 않는다 해도, 자기 시간을 더없이 인색하게 지키며 인간 수명의 마지막 끝까지 나아가고, 자연이 정해 준 몫에서 운이 아무것도 흔들어 떨어뜨리지 않는다 해도, 불멸하는 것을 알기에는 사람은 너무도 죽게 마련인 존재일세. 그러니 내가 나를 통째로 자연에 바치고 자연을 우러르고 섬긴다면, 나는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일세. 그런데 자연은 내가 두 가지를 다 하기를, 행동도 하고 관조에도 힘쓰기를 바랐네. 나는 둘 다 하네. 관조조차 행동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말일세.

6 "그러나 쾌락 때문에 관조에 나섰는지, 끝없이 관조만 이어 가는 것 말고는 관조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관조는 달콤하고 저만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자네는 말하네. 이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네. 자네가 어떤 마음으로 시민의 삶을 사는지도, 늘 들떠 있어서 인간사에서 신의 일로 눈을 돌릴 시간을 한 번도 내지 않는지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덕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재능을 가꾸지도 않은 채 일만 좇으며 앙상한 노동만 내놓는 것이 조금도 칭찬할 만하지 않듯이(이 둘은 서로 섞이고 엮여야 하네), 행동 없이 여가 속에 내던져져 배운 것을 한 번도 보여 주지 않는 덕도 불완전하고 힘없는 선일세. 덕이 자기가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일에서 시험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도 써서 궁리한 것을 현실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그러나 현자 자신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면,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것이라면, 그가 자기 자신과 함께 지내는 것쯤은 허락해 주지 않겠는가? 현자는 어떤 마음으로 여가에 물러나는가? 그때에도 뒷사람들에게 이로울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물러나네. 제논과 크리시포스가 군대를 이끌고 관직을 지내고 법률을 제안했더라면 했을 일보다 더 큰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우리일세. 그들은 법률을 한 도시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었네. 그러니 이런 여가가 선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을 까닭이 무엇인가? 그 여가로 그는 다가올 세대를 바로 세우고,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 지금 있는 사람과 앞으로 있을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데 말일세. 요컨대 묻겠네.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포스와 제논은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살았는가? 자네는 서슴없이 대답하겠지. 그들은 살아야 한다고 말한 그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구도 나랏일을 맡지 않았네. "그들에게는 나랏일을 맡는 사람이 흔히 갖추는 처지도 지위도 없었다."

하고 자네는 말하네. 그래도 그들은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네. 자기들의 고요가 남들의 분주한 뜀박질과 땀보다 사람들에게 더 이롭게 할 길을 찾아냈네. 그러니 그들은 공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도 많은 일을 한 사람들로 보였네.

7 게다가 삶에는 세 가지가 있어서,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나은지를 두고 흔히 따지네. 하나는 쾌락에, 하나는 관조에, 하나는 행동에 바치는 삶일세. 먼저 서로 다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한 다툼과 화해 없는 미움을 내려놓고, 이 모든 삶이 저마다 다른 이름을 달고서도 같은 곳에 이른다는 것을 보세. 쾌락을 옹호하는 사람도 관조 없이 살지 않고, 관조에 몸 바친 사람도 쾌락 없이 살지 않으며, 행동에 삶을 바친 사람도 관조 없이 살지 않네. "어떤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 덧붙은 것인지는 크게 다르다." 하고 자네는 말하네. 크게 다르다고 해 두세. 그래도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 있지 않네. 앞사람은 행동 없이 관조하지 않고, 이 사람은 관조 없이 행동하지 않으며, 우리가 다 함께 나쁘게 보기로 한 저 셋째 사람도 게으른 쾌락이 아니라 이성으로 자기에게 단단히 다져 놓은 쾌락을 옹호하네. 그러니 이 쾌락의 학파조차 행동하는 것일세. 왜 행동하지 않겠는가? 에피쿠로스 자신도, 쾌락 뒤에 후회가 닥치려 하거나 더 큰 고통 대신 더 작은 고통을 택할 수 있다면, 때로는 쾌락에서 물러나 고통마저 찾아가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관조가 모두의 마음에 든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일세. 다른 이들은 관조를 목적으로 찾지만, 우리에게 관조는 잠시 닻을 내리는 곳이지 항구가 아닐세.

8 여기에 이것도 보태게. 크리시포스의 법칙에 따르면 여가 속에 사는 것이 허락된다는 것일세. 여가를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르라는 말이네. 우리 학파는 현자가 아무 나라에나 나서지는

않으리라고 말하네. 그런데 누구에게나 나라가 없게 될 것이라면, 나라가 현자를 저버려서든 현자가 나라를 저버려서든 현자가 어떤 길로 여가에 이르는지가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까다롭게 찾는 사람에게는 나라가 늘 없을 걸세. 현자가 어느 나라에 나서야 하는지 묻겠네. 소크라테스가 단죄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죄를 피하려고 달아난[7] 아테네인의 나라인가? 시기가 덕을 짓누르는 나라인가? 현자가 이런 나라에는 나서지 않으리라고 자네는 말하겠지. 그러면 현자는 카르타고인의 나라로 나서겠는가? 끊임없이 내분이 일고, 자유가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정한 것과 선한 것이 더없이 값싸고, 적에게는 사람의 것이 아닌 잔인함을, 제 백성에게마저 적에게 하듯 잔인함을 보이는 나라에? 이 나라도 그는 피할 걸세. 나라를 하나하나 살펴보려 해도, 현자를 견딜 수 있는 나라도, 현자가 견딜 수 있는 나라도 하나도 찾지 못할 걸세. 우리가 그려 보는 나라를 찾을 수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여가가 꼭 필요해지기 시작하네. 여가보다 앞세울 수 있었던 단 하나가 어디에도 없으니 말일세. 누가 항해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는, 난파가 잦고 키잡이를 엉뚱한 쪽으로 몰아가는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이는 바다에서는 배를 몰지 말라고 한다면, 나는 그가 항해를 칭찬하면서도 내게 닻줄을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8]

---

1. 앞부분이 전하지 않는다. 수신인의 이름도 남아 있지 않으나 세레누스로 본다.

2.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9.612. 이탈리아 토박이 누마누스가 트로이 사람들 앞에서 제 겨레의 굳셈을 자랑하는 대목이다.

3. 에피쿠로스(기원전 341~기원전 270)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본 학파를, 키티온의 제논(기원전 334 무렵~기원전 262 무렵)은 스토아학파를 세웠다. 뒤에 나오는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포스는 제논의 뒤를 이은 스토아학파의 수장들이다.

4. 원문 손상. 「마음을 다른 활동으로 돌린다」는 뜻으로 읽었다.

5. 로마의 화덕 여신 베스타를 섬기던 여사제들. 서른 해를 섬기며 처음 열 해는 배우고, 다음 열 해는 제의를 치르고, 마지막 열 해는 가르쳤다.

6. 현자는 정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에피쿠로스의 말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 10.119에, 현자는 무엇이 막지 않는 한 정치에 나선다는 말은 같은 책 7.121에 크리시포스의 말로 전한다.

7.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 아테네에서 불경죄로 고발당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인이 철학에 두 번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며 칼키스로 떠났다고 전한다.

8. 이 뒤로 원문이 전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

1 세네카 선생님, 제 안을 들여다보니 어떤 악덕들은 훤히 드러나 있어서 손으로 붙잡을 수 있을 정도였고, 어떤 것들은 더 흐릿하게 깊숙이 숨어 있었으며, 어떤 것들은 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되돌아왔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성가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기회만 생기면 덮쳐 오는 적과 같아서, 전쟁 때처럼 대비하고 있을 수도 없고 평화로울 때처럼 마음을 놓고 있을 수도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 안에서 무엇보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이런 상태입니다(의사에게 털어놓듯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것들에서 정말로 벗어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다시 거기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나쁘지는 않지만 몹시 투정 많고 까다로운 상태에 놓여 있어서, 앓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덕은 처음에는 여리고 시간이 흘러야 단단해지고 힘이 붙는다고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다. 겉모양을 꾸미려고 애쓰는 것들, 이를테면 지위와 웅변의 명성과 그 밖에 남의 지지에 기대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야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참된 힘을 기르는 것도, 남의 마음에 들려고 분칠로 꾸민 것도, 오랜 세월이 차츰 빛깔을 입혀 줄 때까지 여러 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저는 사물에 굳건함을 더해 주는 습관이 이 악덕을 제 안에 더

깊이 박아 넣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오래 함께 지내면 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 바른 쪽으로 힘차게 기울지도 못하고 그릇된 쪽으로 기울지도 않는 이 마음의 나약함이 어떤 것인지는, 한 번에 보여 드리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보여 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제게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릴 테니, 병의 이름은 선생님께서 찾아 주십시오. 고백하건대 저는 검소함을 무척 사랑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꾸민 침상은 싫고, 옷궤에서 꺼내 온 옷, 무거운 누름틀과 숱한 압착으로 억지로 광을 낸 옷도 싫습니다. 집에서 지은 값싼 옷, 간수하느라 마음 졸일 것도 없고 입을 때 조심할 것도 없는 옷이 좋습니다. 하인들이 차리느라 애쓰거나 넋을 놓고 바라볼 필요가 없는 음식이 좋습니다. 여러 날 전부터 주문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차려 내지 않아도 되는 음식,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쉬우며 먼 데서 들여오거나 값비싼 것이 하나도 없고, 어디서든 떨어지지 않으며 재산에도 몸에도 짐이 되지 않고 들어간 길로 도로 나오지 않을 음식이 좋습니다. 손질도 안 된 시중꾼, 투박한 집 노예가 좋고, 장인의 이름 하나 붙지 않은 시골 아버지의 묵직한 은그릇이 좋습니다. 나뭇결 무늬가 화려해서 눈길을 끄는 것도 아니고 멋쟁이 주인들의 손을 차례로 거쳐 온 도시에 이름난 것도 아닌, 그저 쓰려고 놓아 둔 식탁이 좋습니다. 손님 누구의 눈길도 쾌락으로 붙잡지 않고 시기로 달아오르게 하지도 않는 식탁 말입니다. 이런 것이 그토록 마음에 들다가도, 어느 부잣집 시동들의 호사스러운 차림새가 제 눈을 부시게 합니다. 행렬에 나설 때보다 더 공들여 차려입고 금붙이로 꾸민 노예들, 번쩍이는 하인 떼, 발로 밟는 바닥마저 값비싼 집, 구석구석 재물을 흩뿌려 놓아 천장까지 번쩍이는 집, 그리고 사라져 가는 재산을 쫓아다니며 그 길동무가 되는 무리가 그렇습니다. 바닥까지 맑게 비치며

잔치 자리를 감돌아 흐르는 물이며, 그 무대에 걸맞은 잔칫상은 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검소하게 묵어 지내다 나온 저를 사치가 눈부신 빛으로 에워싸고 사방에서 요란하게 울려 댑니다. 눈이 조금 비틀거립니다. 사치에 맞서 저는 눈보다 마음을 더 쉽게 치켜듭니다. 그래서 물러 나오기는 하지만 더 나빠져서가 아니라 더 우울해져서 나오고, 제 하찮은 살림살이 사이를 걸을 때도 예전처럼 고개를 높이 들지 못합니다. 남모르게 마음이 쓰리고, 저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슬그머니 듭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저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저를 흔들어 놓지 않는 것도 하나 없습니다.

스승들의 명령을 따라 나랏일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관직과 권표를 맡고 싶어지는데, 물론 자줏빛 옷이나 권표 다발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벗들과 친척들과 모든 시민에게,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더 쓸모 있고 더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기꺼이, 그러나 서툴게 제논과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포스[1]를 따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나랏일에 나서지 않았지만, 제자를 나랏일로 보내지 않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흔들림에 익숙지 않은 마음이 무언가에 부딪히면, 사람 사는 데 흔하디흔한 부당한 일을 만나거나 일이 쉽게 풀리지 않거나 대단치도 않은 일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저는 여가로 돌아섭니다. 가축도 지쳤을 때 집으로 가는 걸음이 더 빨라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제 삶을 담장 안에 가두고 싶어집니다. 그토록 큰 값에 걸맞은 것을 돌려줄 사람도 없는데 누구에게도 하루를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붙어 스스로를 가꾸며, 남의 일이나 심판의 눈치를 볼 일은 하지 않고, 공적인 근심도 사적인 근심도 없는 평정(tranquillitas)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힘찬 글을 읽어 마음이 다시 일어서고 고귀한 본보기들이 박차를 가하면 포룸으로 뛰어들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목소리를, 저

사람에게는 손길을 빌려주고 싶어집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도 돕겠다고 애쓰기는 하면서, 포룸에서 잘못 얻은 성공에 우쭐해진 누군가의 오만을 꺾어 주고 싶어집니다.

학문에서도, 맹세코 저는 사물 자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말하며, 말은 사물에 맡겨 두어 사물이 이끄는 대로 꾸밈없는 글이 따라가게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 갈 글을 지어서 무엇 하겠느냐? 후세가 너를 두고 입 다물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일은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너는 죽으려고 태어났다. 조용한 장례가 번거로움이 덜하다. 그러니 시간을 채우려거든 떠벌리려고가 아니라 너 자신이 쓰려고 소박한 문체로 무언가를 써라. 그날그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수고가 덜 든다." 그러다가 생각이 커져서 마음이 들어 올려지면, 마음은 말에 욕심을 내고, 숨결이 높아지는 만큼 말도 높이 하고 싶어 안달하며, 글은 사물의 위엄에 걸맞게 솟아오릅니다. 그때는 규칙도, 더 엄격하던 판단도 잊고서 저는 더 높이 휩쓸려 가, 이미 제 것이 아닌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더 길게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건전한 정신(bona mens)의 이 나약함이 저를 따라다닙니다. 저는 제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두렵고, 더 걱정스럽게는 늘 떨어질 것처럼 매달려 있지나 않을까, 그리고 제가 꿰뚫어 보는 것보다 사정이 더 나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제 집안일은 너그러운 눈으로 보고, 호의는 늘 판단을 가로막으니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지혜에 이르렀다고 여기지만 않았더라면, 자기 안의 어떤 것은 못 본 척하고 어떤 것은 눈을 감고 건너뛰지만 않았더라면 지혜에 이를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이 제 아첨보다 남의 아첨이라고 여기실 까닭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자기 자신에게 바른말을 했습니까? 칭찬하고 비위 맞추는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맞장구를 쳐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제 이 흔들림을 멈출 약이 있으시다면, 제가 선생님께 평정을 빚질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위험하지도 않고 큰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하소연하는 것을 꼭 맞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폭풍이 아니라 뱃멀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떤 병이든 떼어 내 주시고, 뭍을 눈앞에 두고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2 세레누스, 참으로 나는 오래전부터 속으로 혼자 묻고 있었네. 자네의 이런 마음 상태를 무엇에 견주어야 할까 하고. 내가 찾은 가장 가까운 본보기는 오랫동안 무겁게 앓다가 벗어난 사람들일세. 그들은 그사이 가벼운 기척과 사소한 탈에도 움찔하고, 병의 찌꺼기는 떨쳐 냈는데도 의심에 시달리며, 이미 나았으면서도 의사에게 손을 내밀어 맥을 짚게 하고, 몸에 조금만 열이 나도 병이 도졌다고 트집을 잡지. 세레누스, 이들의 몸은 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한 데 아직 덜 익숙한 것일세. 폭풍이 지나가 잠잠해진 바다에도 여전히 떨림과 일렁임이 남아 있는 것과 같네. 그러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그 더 혹독한 처방, 곧 어떤 때는 자신을 가로막고 어떤 때는 자신에게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엄하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일이 아닐세. 마지막에 오는 처방, 곧 자신을 믿고, 사방으로 내달리는 숱한 사람들의 엇갈린 발자국에도, 바로 그 길 언저리를 헤매는 이들의 발자국에도 이끌리지 않은 채 자기가 바른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 일일세. 자네가 바라는 것은 크고도 가장 높은 것, 신에 가까운 것, 곧 흔들리지 않는 것일세.

마음의 이 한결같은 자리를 그리스 사람들은 에우티미아(euthymia)[2]라고 부르네. 이에 관해서는 데모크리토스가 쓴 빼어난 책이 있지. 나는 이것을 평정이라고 부르네. 그들의 낱말 모양을 흉내 내어 옮길 필요는 없으니 말일세. 지금 다루는 사물 자체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어 명칭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힘을 지녀야 하네. 그러니 우리가 찾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하면 늘 고르고 순탄하게 흘러가며, 자신에게 너그럽고, 제 것을 기쁘게 바라보며, 이 기쁨을 끊지 않고 잔잔한 상태에 머물러 스스로를 치켜올리지도 내리누르지도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일세. 그것이 평정일세. 어떻게 하면 평정에 이를 수 있는지 두루 살펴보세. 자네는 모두에게 내놓은 약에서 원하는 만큼 덜어 가게. 그사이 이 악덕을 통째로 한가운데에 끌어내 놓아야 하네. 그러면 저마다 그 가운데 자기 몫을 알아볼 걸세. 동시에 자네는, 그럴듯한 직업에 매여 거창한 간판 아래 허덕이며 원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자기 겉치레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자기에게 싫증을 내는 자네가 겪는 수고가 얼마나 덜한지 알게 될 걸세.

모두 같은 처지에 있네. 변덕과 싫증과 끊임없이 뜻을 바꾸는 버릇에 시달려 늘 떠나온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맥없이 늘어져 하품만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잠 못 드는 사람처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자세를 고치다가 지쳐서야 쉬는 사람들도 보태게. 그들은 삶의 꼴을 자꾸 고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상태에 머무는데, 바꾸기 싫어서가 아니라 새로 하기에는 굼뜬 늙음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일세. 변덕이 덜한 것이 의연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인 사람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시작한 대로 사는 사람들도 보태게. 그 밖에도 저마다의 특성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 악덕이 낳는 결과는 하나, 자기 자신이 싫어지는 것일세. 이것은 마음이 고르지 못한 데서, 또 소심하거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에서 생기네. 바라는 만큼 감히 하지 못하거나, 해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을 희망 쪽으로 기울이는 경우 말일세. 그들은 늘 불안정하고 흔들리네. 매달려 사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들은 온갖 길로 소원을 좇고, 부끄럽고 어려운 짓도 스스로 가르치고 강요하네. 그러다 수고에 보상이 없으면 헛된 치욕이 그들을 괴롭히네.

그들은 그릇된 것을 바랐다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바랐다는 것을 괴로워하지. 그러면 시작한 일에 대한 후회와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마음의 들썩임이 슬그머니 스며드네. 욕망을 다스릴 수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일세. 또 제대로 풀리지 않는 삶의 머뭇거림과, 무너진 소원들 사이에서 굳어 가는 마음의 녹도 스며드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고생만 하고 보람 없는 불행이 싫어 여가와 홀로 하는 공부로 달아났을 때 더 무거워지네. 나랏일을 향해 들떠 있고 무언가 하고 싶어 하며 본디 가만있지 못하는 마음은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니 말일세. 물론 자기 안에 위안거리가 별로 없으니 그럴 수밖에. 그래서 분주한 일이 바삐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주던 즐거움을 빼앗기면 마음은 집도, 고독도, 벽도 견디지 못하고, 홀로 남은 자신을 마지못해 바라보네.

여기서 그 싫증과 자기혐오가 생기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의 뒤척임이 생기며, 제 여가를 우울하고 병든 마음으로 견디는 일이 생기네. 특히 그 까닭을 털어놓기가 부끄러워 수치심이 괴로움을 안으로 몰아넣으면, 좁은 데 갇힌 욕망이 나갈 길을 찾지 못해 스스로를 목 졸라 죽이네. 여기서 비탄과 무기력이 생기고, 갈피를 못 잡는 정신에 천 갈래 물결이 이네. 정신은 희망이 막 싹틀 때는 그 희망에 매달려 들뜨고, 희망이 꺾이면 우울해지지. 여기서 제 여가를 미워하며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투덜대는 그 심정이 생기고, 남이 잘되는 것을 무엇보다 원수처럼 여기는 시기가 생기네(불행한 게으름은 질투를 먹여 기르고, 자기가 올라서지 못했으니 모두 무너지기를 바라네). 그다음에는 남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일에는 절망한 끝에, 마음은 운에 성을 내고 시대를 원망하며 구석으로 숨어들어 제 형벌을 품고 앉아 있네. 자기 자신이 지겹고 싫어지는 동안 말일세. 사람의 마음은 본디 날쌔고 움직이기를 좋아하네. 스스로를 들쑤시고 딴 데로 끌고 갈 거리라면

무엇이든 반기는데, 성품이 가장 나쁜 사람일수록 더 반기지. 그런 성품은 분주한 일에 기꺼이 닳아 없어지네. 어떤 종기는 해로울 손길을 찾고 만져 주면 좋아하며, 흉한 옴은 무엇이든 긁어 덧나게 하는 것을 반기네. 이와 똑같이, 욕망이 나쁜 종기처럼 터져 나온 이런 정신에게는 수고와 시달림이 쾌락이라고 나는 말하겠네. 우리 몸도 어떤 고통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있지. 아직 지치지도 않은 옆구리를 이리저리 돌려 눕고, 이렇게 저렇게 자세를 바꾸어 바람을 쐬는 일 말일세. 호메로스의 그 아킬레우스가 그렇지. 어떤 때는 엎드리고 어떤 때는 드러누워 갖가지 자세를 취하네. 아무것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바꾸는 것을 약처럼 쓰는 것, 그것이 환자의 버릇일세.

그래서 정처 없는 여행에 나서고, 바닷가를 떠돌고, 늘 지금 있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변덕은 어떤 때는 바다로, 어떤 때는 뭍으로 나서며 제 힘을 시험해 보네. "이번엔 캄파니아로 가자." 곧 호사스러운 것이 싫어지지. "거친 데를 보자. 브루티움과 루카니아의 숲을 누비자." 그래도 황량한 곳 한가운데서 무언가 아늑한 것을 찾게 되네. 거친 땅의 오랜 황량함에 지친 사치스러운 눈이 쉴 데가 있어야 하는 것일세. "타렌툼으로 가자. 이름난 항구와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 옛날의 그 많은 사람도 넉넉히 먹여 살리던 땅이 있다…… 이제 로마로 발길을 돌리자. 박수 소리와 함성이 너무 오래 귀에서 멀어졌다. 이제는 사람의 피도 좀 즐기고 싶다." 여행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여행을 떠나고, 구경거리는 구경거리로 바뀌네. 루크레티우스가 말하듯이

"이렇게 누구나 늘 자기 자신에게서 달아난다."[3]

그러나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달아난들 무슨 소용인가? 그는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고, 가장 귀찮은 길동무가 되어 자신을 몰아붙이네. 그러니 우리가 시달리는 것은 장소의 탓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네. 우리는 무엇이든 견디기에는 너무 약해서, 수고도,

쾌락도, 자기 자신도, 그 무엇도 오래 참지 못하네. 이것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도 있네. 목표를 자주 바꾸다 보니 늘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고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를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삶도 우주 자체도 싫증 나기 시작한 것일세. 그리고 사치에 물러 버린 자들의 그 탄식이 슬며시 떠오르지. "언제까지 똑같은 것인가?"

3 이 싫증에 맞서 무슨 도움을 써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지 자네는 묻는군. 아테노도로스[4]가 말하듯, 가장 좋은 것은 일을 하고 나랏일을 다루고 시민의 의무를 맡아 자신을 붙들어 두는 것일세. 어떤 이들은 햇볕을 쬐고 운동하고 몸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운동선수에게는 자기가 오로지 바친 팔 힘과 기운을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르는 것이 단연 가장 이롭듯이, 나랏일의 겨룸에 마음을 대비하는 우리에게는 일하고 있는 것이 단연 가장 아름다운 일이네. 시민들과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로 뜻을 세우고 의무 한가운데에 자신을 둔 사람은, 힘닿는 대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맡아 보며 단련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니 말일세.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네. "사람들의 야심이 이토록 미쳐 날뛰고 바른 것을 더 나쁘게 비트는 무고꾼이 이토록 많아 순박함이 안전하지 못하고, 언제나 일이 풀리기보다 가로막는 것이 더 많을 터이니, 포룸과 공적인 삶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큰마음은 사사로운 자리에서도 마음껏 펼칠 곳이 있다. 사자와 짐승의 기세는 우리에 갇혀 꺾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하는 가장 큰일은 물러나 있는 데서 이루어진다. 다만 어디에 여가를 숨기든, 재능과 목소리와 조언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숨어 있어야 한다. 나라를 이롭게 하는 사람은 후보자를 이끌어 내고 피고를 변호하고 전쟁과 평화를 두고 의견을 내는 사람만이 아니다.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사람, 좋은 가르침이 이토록 드문 때에 마음에

덕을 심어 주는 사람, 돈과 사치를 향해 내달리는 사람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다른 것은 못 해도 적어도 늦추어 주는 사람도 사사로운 자리에서 나랏일을 한다. 외국인과 시민 사이의 소송을 맡은 법무관이나 도시 법무관으로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좌관이 일러 준 말을 읊어 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지, 경건이란, 인내란, 용기란, 죽음을 업신여기는 것이란, 신들을 안다는 것이란 무엇인지, 떳떳한 양심이 얼마나 값없이 얻는 좋은 것인지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큰일을 한단 말인가? 그러니 의무에서 빼낸 시간을 학문에 바친다 해도 그것은 탈영도 아니고 임무를 마다하는 것도 아니다. 전열에 서서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지키는 사람만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 덜 위험하기는 해도 한가하지는 않은 초소를 맡아 보초를 서는 사람, 무기고를 관리하는 사람도 복무한다. 이런 소임은 피를 흘리지는 않아도 복무 연수에 들어간다. 학문으로 돌아오면 삶에 대한 모든 싫증을 벗어날 것이고, 낮이 지겨워 밤이 오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에게 짐이 되지도 남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벗으로 끌어들일 것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덕은 아무리 이름 없이 묻혀 있어도 결코 숨지 않고 제 표지를 내보낸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그 발자취를 따라 덕을 찾아낼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귐을 끊고 인류와 인연을 끊고 오직 자기 안으로만 돌아앉아 산다면, 아무 공부도 없는 이 고독에는 할 일이 없는 궁핍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는 어떤 건물은 세우고 어떤 건물은 허물기 시작할 것이고, 바다를 밀어내고, 땅의 생김새를 거슬러 물을 끌어오고, 자연이 쓰라고 준 시간을 엉망으로 나누어 쓸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시간을 아껴 쓰고 어떤 이는 헤프게 쓴다. 어떤 이는 셈을 치를 수 있게 쓰고, 어떤 이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쓰는데,

이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오래 살았다는 것을 나이 말고는 아무것으로도 증명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4 친애하는 세레누스, 내가 보기에 아테노도로스는 시대에 너무 굽혔고 너무 빨리 물러섰네. 나도 때로는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네. 그러나 물러서더라도 한 걸음씩 천천히, 군기를 지키고 군인의 체면을 지키면서 물러서야 하네. 무기를 든 채 항복하는 자들이 적에게도 더 존중받고 더 안전하게 지내는 법일세. 덕과 덕을 닦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네. 운이 이겨서 일할 길을 끊어 버리면 곧바로 등을 돌려 무기를 버리고 숨을 데를 찾아 달아날 일이 아닐세. 운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 어디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말일세. 오히려 의무에는 조금 덜 나서고, 가려서 나라에 쓸모 있을 일을 찾아야 하네. 군 복무가 막혔는가? 관직에 나서면 되네. 사사로운 몸으로 살아야 하는가? 변론가가 되면 되네. 침묵하라는 명을 받았는가? 말없이 곁에 서 주는 것으로 시민들을 도우면 되네. 포룸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위험한가? 집에서, 구경거리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좋은 동무, 믿음직한 벗, 절제 있는 손님 노릇을 하면 되네. 시민의 의무를 잃었는가? 사람의 의무를 다하면 되네. 우리가 큰마음으로 한 도시의 성벽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온 세상과 사귀도록 내보내며 우주를 우리 조국이라고 선언한 것은, 덕에 더 넓은 들판을 내주기 위해서였네. 재판석이 자네에게 닫혔는가, 연단에도 민회에도 나서지 못하게 되었는가? 뒤를 돌아보게. 얼마나 넓은 땅이, 얼마나 많은 민족이 펼쳐져 있는지. 큰 부분이 아무리 막혀도 더 큰 부분이 남지 않을 만큼 막히는 일은 결코 없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자네 탓이 아닌지 보게. 자네는 집정관이나 프리타니스나 케릭스나 수페스[5]가 되어서만 나랏일을 하려 하네. 사령관이나 천부장이 아니면 군에 복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남들이 맨 앞줄을 차지하고 제비가 자네를 맨 뒤 셋째

대열에 세운다 해도, 거기서 목소리로, 격려로, 본보기로, 기개로 싸우게. 두 손이 잘려도 꿋꿋이 서서 함성으로 거드는 사람은 싸움터에서 제 편에 보탤 것을 찾아내네. 자네도 그와 같이 하게. 운이 자네를 나라의 맨 앞자리에서 밀어냈다 해도 그래도 서서 함성으로 거들고, 누가 목을 조르더라도 그래도 서서 침묵으로 거들게. 선한 시민의 수고는 결코 쓸모없지 않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지. 얼굴빛으로, 끄덕임으로, 말없는 꿋꿋함으로, 걸음걸이만으로도 그는 이롭게 하네. 어떤 약은 맛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냄새만으로 효험을 내듯이, 덕은 멀리서도, 숨어서도 이로움을 퍼뜨리네. 활개를 치며 제 권리를 마음껏 쓰든, 남의 허락을 받아야 나설 수 있어 돛을 줄여야 하든, 한가하게 말없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든, 활짝 열려 있든, 어떤 모습이든 덕은 이롭게 하네. 잘 쉬는 사람의 본보기가 별로 쓸모없다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그러니 우연한 걸림돌이나 나라의 형편 때문에 활동하는 삶이 막힐 때마다 여가와 일을 섞는 것이 단연 가장 좋네. 모든 것이 다 막혀 훌륭한 행동이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는 일은 결코 없으니 말일세.

5 서른 참주가 아테네를 찢어발기던 때보다 더 비참한 도시를 자네는 찾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가장 훌륭한 시민 천삼백 명을 죽였고, 그러고도 그치지 않았네. 잔인함이 스스로를 부추겼지. 가장 경건한 법정인 아레오파고스가 있고, 원로원과 원로원을 닮은 민회가 있던 그 도시에서, 날마다 사형 집행인들의 음울한 모임이 열렸고 불행한 의사당은 참주들로 비좁았네. 호위병 수만큼 참주가 있는 도시가 쉴 수 있었겠는가? 자유를 되찾으리라는 희망조차 마음에 떠오를 수 없었고, 그토록 거대한 악의 힘에 맞설 약이 들어설 자리도 보이지 않았네. 그 비참한 도시가 하르모디오스[6]를 그렇게 많이 어디서 얻겠는가?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한가운데 있었네. 그는 슬퍼하는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나라에 절망한 사람들을 북돋우고, 재산 때문에 떠는 부자들에게는 위험한 탐욕을 너무 늦게 뉘우친다고 나무랐네. 그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서른 주인 사이를 자유롭게 걸어 다니며 위대한 본보기를 몸소 보여 주었지. 그런데 아테네는 바로 그 사람을 감옥에서 죽였네. 참주 무리를 거리낌 없이 조롱하던 사람의 자유를 자유가 견디지 못했네. 이것으로 자네는 알 걸세. 짓밟힌 나라에서도 현자가 나설 기회가 있고, 번영하는 행복한 나라에서도 방자함과 시기와 천 가지 다른 게으른 악덕이 판을 친다는 것을.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나오든, 운이 어떻게 허락하든 그에 따라 우리는 활개를 펴기도 하고 움츠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움직일 것이고 두려움에 묶여 굳어 있지는 않을 걸세. 아니, 사방에서 위험이 닥쳐오고 둘레에 무기와 사슬이 덜그럭거려도 덕을 부딪쳐 깨뜨리지도 숨기지도 않는 사람이야말로 사내일 걸세. 자신을 묻어 버리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니 말일세. 내 생각에 쿠리우스 덴타투스는 살아 있으면서 죽은 사람으로 지내느니 차라리 죽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네. 죽기 전에 산 사람의 수에서 빠지는 것은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지. 그러나 다루기 힘든 때에 나랏일을 만나거든, 여가와 학문에 더 많은 몫을 떼어 주고, 위험한 항해에서처럼 이따금 항구를 찾아야 하네. 일이 자네를 놓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네가 먼저 일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네.

6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다음에 우리가 맡으려는 일을, 그다음에 그 일을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살펴야 하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가늠해 보아야 하네. 우리는 대개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세. 누구는 언변을 믿다가 넘어지고, 누구는 자기 재산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재산에 요구하고, 누구는 허약한 몸을 고된 의무로 짓눌렀네. 어떤 이들의 수줍음은 굳센 얼굴이 필요한 나랏일에 맞지 않고, 어떤 이들의 고집은 궁정에

어울리지 않네. 어떤 이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소한 분개에도 무모한 말을 내뱉네. 어떤 이들은 재치를 억누를 줄 몰라 위험한 농담을 삼가지 못하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보다 고요가 더 이롭네. 사납고 참을성 없는 성품은 해가 될 거침없는 말을 부추기는 것들을 피해야 하네. 자네의 본성이 일을 하는 데 더 맞는지, 한가로운 공부와 관조에 더 맞는지 따져 보고, 재능의 힘이 이끄는 쪽으로 기울어야 하네. 이소크라테스는 에포로스가 역사서를 쓰는 데 더 쓸모 있으리라고 여겨, 그를 손으로 붙잡아 포룸에서 끌어냈네. 억지로 시킨 재능은 제대로 응하지 않네. 본성이 거스르면 수고는 헛되지.

다음으로 우리가 손대려는 일 자체를 가늠하고, 우리 힘을 시도하려는 일과 견주어 보아야 하네. 하는 사람의 힘이 늘 일보다 커야 하네. 지는 사람보다 큰 짐은 그를 짓누를 수밖에 없지. 게다가 어떤 일은 크다기보다 새끼를 쳐서 많은 일을 몰고 오네. 새롭고 갖가지인 분주함이 생겨날 이런 일은 피해야 하네. 거리낌 없이 돌아 나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도 안 되네. 끝을 낼 수 있거나 적어도 끝을 바랄 수 있는 일에 손을 대고, 하다 보면 점점 넓어져 정해 둔 데서 끝나지 않는 일은 내버려 두어야 하네. 사람도 반드시 가려야 하네.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쏟을 만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잃는 시간이 그들에게 보람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해 준 일을 도리어 자기들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로 셈하네. 아테노도로스는 그 대가로 자기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을 사람의 집에는 저녁 초대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네. 그러니 벗들이 베푼 호의를 식탁 한 번으로 갚아 셈을 맞추는 사람들, 요리 접시를 하사금처럼 세며 마치 남의 체면을 세워 주려고 폭식하는 듯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훨씬 더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네는 알 걸세. 그들에게서 증인과 구경꾼을 빼 보게. 남몰래 먹는 술집 음식은 그들을 즐겁게 하지 못할 걸세……

7 그러나 믿음직하고 다정한 우정만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없을 걸세. 어떤 비밀이든 안심하고 내려놓을 가슴이 마련되어 있다면, 자네 자신의 양심보다 덜 두려운 양심을 지닌 이들, 말로 근심을 달래 주고, 생각으로 계획을 풀어 주고, 쾌활함으로 슬픔을 흩어 주고, 얼굴만 보아도 즐거운 이들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물론 우리는 그런 벗을 될 수 있는 대로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고를 걸세. 악덕은 슬금슬금 기어 다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로 뛰어 옮고, 닿기만 해도 해를 끼치기 때문일세. 그러니 역병이 돌 때 이미 병에 걸려 열이 펄펄 끓는 사람 곁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네. 위험을 끌어들여 그 숨결만으로도 앓게 될 테니 말일세. 그와 같이 벗의 성품을 고를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덜 물든 사람을 들이도록 애써야 하네. 병자에게 성한 사람을 섞는 것이 병의 시작일세. 그렇다고 현자가 아니면 따르지도 끌어들이지도 말라고 자네에게 이르는 것은 아닐세.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는가? 가장 덜 나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 대접을 받네. 자네가 플라톤 같은 이들, 크세노폰 같은 이들, 소크라테스에게서 난 그 풍성한 제자 무리 가운데서 선한 사람을 찾는다 해도, 아니면 카토의 시대에 살 수 있다 해도, 더 운 좋게 고를 기회는 좀처럼 없었을 걸세. 카토의 시대는 카토와 같은 시대에 태어날 만한 사람을 많이 낳았지만(그만큼 어느 때보다 못된 자들, 가장 큰 범죄를 꾸민 자들도 많이 낳았네. 카토를 알아보게 하려면 두 무리가 다 필요했지. 자기를 인정해 줄 선한 사람들도, 자기 힘을 시험할 악한 자들도 있어야 했네), 지금은 선한 사람이 이토록 드무니 덜 까다롭게 골라야 하네. 그래도 무엇보다 우울하고 모든 것을 한탄하는 사람, 무엇이든 투정의 핑계로 삼기 좋아하는 사람은 피해야 하네. 믿음과 호의가 아무리 한결같다 해도, 늘 들떠 있고 모든 것에 앓는 소리를 내는 길동무는 평정의 적일세.

8 이제 재산으로 넘어가세. 재산은 인간의 고난을 낳는 가장 큰 바탕일세.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모든 것, 곧 죽음과 병과 두려움과 그리움과 고통과 수고를 견디는 일을, 돈이 우리에게 안기는 불행과 견주어 보면 이쪽이 훨씬 무거울 걸세. 그러니 갖지 않는 것이 잃는 것보다 얼마나 덜 괴로운지 생각해 보아야 하네. 그러면 가난은 잃을 거리가 적은 만큼 괴로움의 거리도 적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부자들이 손실을 더 담담하게 견딘다고 생각한다면 자네는 틀렸네. 몸이 가장 크든 가장 작든 상처의 아픔은 같으니 말일세. 비온[7]은 재치 있게 말했네. 대머리든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든 머리털을 뽑히면 아프기는 마찬가지라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도 그렇다는 것, 둘이 겪는 괴로움은 같다는 것을 알아 두게. 둘 다 돈이 몸에 들러붙어서 뜯겨 나가면 아프지 않을 수 없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얻지 않는 것이 잃는 것보다 견디기 쉽고 수월하네. 그래서 자네는 운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운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보다 더 즐거운 것을 보게 될 걸세. 큰마음을 지닌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보고, 자기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게 만들었네. 자네는 그것을 가난이니 궁핍이니 빈털터리니 부르고, 안온함에 무슨 치욕스러운 이름이든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게.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다른 사람을 자네가 내게 찾아 준다면, 나는 이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구두쇠와 사기꾼과 강도와 노예 납치범들 사이에서 해를 입을 수 없는 단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왕위나 다름없네. 디오게네스의 행운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멸의 신들의 처지도 의심할 수 있을 걸세. 신들에게는 농장도 정원도 없고, 남의 소작인이 부치는 값비싼 땅도, 포룸에서 굴리는 큰 이자도 없으니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산에 넋을 잃는 사람이여, 누구든 부끄럽지 않은가? 자, 우주를 돌아보게. 신들은 벌거벗은 채 모든 것을 주면서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네. 우연히 얻은 것을 모두 벗어던진 이 사람을 자네는 가난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불멸의 신들과 닮았다고 보는가? 폼페이우스보다 더 부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폼페이우스의 해방노예 데메트리오스를 자네는 더 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사령관에게 군대 수를 보고하듯 날마다 그에게 노예 수가 보고되었는데, 그에게는 진작부터 하인 둘과 좀 넓은 방 하나가 재산이었어야 했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하나뿐인 노예가 달아났을 때, 누가 그 노예가 있는 곳을 일러 주었는데도 데려올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겼네. 그는 말했지. "마네스가 디오게네스 없이 살 수 있는데 디오게네스가 마네스 없이 살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내게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들리네. "운아, 네 일이나 보아라. 디오게네스에게는 이제 네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노예가 달아났다. 아니, 내가 자유인이 되어 떠났다." 노예들은 입을 옷과 먹을 것을 달라고 하네. 몹시 탐욕스러운 짐승들의 그 많은 배를 채워 주어야 하고, 옷을 사 주어야 하고, 손버릇 고약한 손들을 감시해야 하고, 울며 투덜대는 자들의 시중을 받아야 하지.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고, 빚진 것이라고는 가장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상대, 곧 자기 자신에게뿐인 사람은 얼마나 더 운이 좋은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으니, 적어도 재산을 줄여서 운이 저지르는 불의에 덜 드러나야 하네. 싸움터에서는 자기 방패 안으로 웅크릴 수 있는 몸이, 넘쳐흘러 그 크기 때문에 사방에서 상처를 받는 몸보다 더 다루기 쉽네. 돈의 가장 좋은 정도는 가난에 떨어지지도 않고 가난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것일세.

9 그런데 이 정도를 마음에 들어 하려면 먼저 검소함을 마음에 들어 해야 하네. 검소함이 없으면 어떤 재산도 넉넉하지 않고, 검소함이 있으면 어떤 재산도 넉넉히 펼쳐지지. 더구나 약은 가까이 있고, 검약을 불러들이기만 하면 가난도 저절로 부로 바뀔 수 있네. 겉치레를

멀리하고, 물건은 장식이 아니라 쓰임으로 재는 데 익숙해지세. 음식은 배고픔을, 마실 것은 목마름을 다스리게 하고, 정욕은 필요한 만큼만 흐르게 하세. 제 팔다리에 기대는 법을 배우고, 옷차림과 먹을거리는 새 유행이 아니라 조상들의 풍습이 권하는 대로 맞추는 법을 배우세. 절제를 키우고, 사치를 누르고, 명예욕을 다독이고, 성마름을 누그러뜨리고, 가난을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고, 검약을 가꾸는 법을 배우세. 많은 사람이 그것을 부끄러워하더라도 말일세. 자연스러운 바람에는 적은 값으로 마련한 처방을 쓰고, 고삐 풀린 희망과 앞날로 쏠리는 마음은 사슬로 묶듯 붙들어 두고, 부를 운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구하도록 힘쓰는 법을 배우세. 불행이 이토록 갖가지이고 고르지 못하니, 큰 돛을 펼치는 사람에게 폭풍이 많이 몰아치지 않을 만큼 그것을 다 물리칠 수는 없네. 화살이 헛되이 떨어지도록 살림을 좁게 줄여야 하네. 그래서 때로는 추방과 재앙이 약이 되기도 했고, 더 가벼운 불편으로 더 무거운 병이 낫기도 했네. 마음이 가르침을 잘 듣지 않고 더 부드럽게 다스릴 수 없을 때, 가난과 치욕과 몰락을 써서 돌보는 것이 왜 안 되겠는가? 악은 악으로 막는 법일세. 그러니 사람 무리 없이도 저녁을 먹을 수 있고, 더 적은 노예의 시중을 받고, 옷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마련하고, 더 좁은 집에 사는 데 익숙해지세. 경주와 원형 경기장의 겨룸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이 경주로에서도 안쪽으로 바짝 붙어 돌아야 하네. 가장 자유인다운 지출인 학문에 드는 돈도 절도가 있을 때에만 이치에 맞네. 주인이 평생 목록조차 다 읽지 못할 셀 수 없는 책과 서고가 무슨 소용인가? 책 무더기는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기보다 짓누르네. 많은 저자 사이를 헤매느니 몇몇 저자에게 몸을 맡기는 편이 훨씬 낫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책 4만 권이 불탔네[8]. 왕실의 부를 보여 주는 가장 아름다운 기념물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도 있겠지. 리비우스도 그랬네. 그는 그것이 왕들의 고상한 취향과 정성이 낳은

빼어난 작품이었다고 말하네. 그러나 그것은 고상한 취향도 정성도 아니고 학문을 핑계 삼은 사치였네. 아니, 학문을 핑계 삼은 것조차 아니었지. 그들은 공부를 하려고가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책을 모았으니 말일세. 아이들이 배우는 글조차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책이 공부의 도구가 아니라 식당의 장식인 것과 같네. 그러니 책은 넉넉할 만큼만 마련하고, 하나도 겉치레로 사들이지 말게. "그래도 코린트 청동 그릇이나 그림판에 돈을 쏟아붓느니 여기에 쓰는 편이 더 점잖지 않은가." 하고 자네는 말하는군. 지나친 것은 어디서나 악덕일세. 시트론 나무와 상아로 만든 책장을 탐내고, 이름 없는 저자나 평판 나쁜 저자의 책을 모아들이고, 수천 권의 책 사이에서 하품을 하며 두루마리의 머리 장식과 제목만 즐기는 사람을 용서할 까닭이 자네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가장 게으른 자들의 집에서 자네는 온갖 연설집과 역사서가 천장까지 쌓인 책장을 보게 될 걸세. 이제는 목욕탕과 욕장 사이에 서고까지 집에 꼭 있어야 할 치장거리처럼 번쩍번쩍 꾸미니 말일세. 학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 잘못한 것이라면 나도 기꺼이 용서하겠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모아들인 거룩한 천재들의 작품을 저자들의 초상과 함께 진열해 벽을 꾸미려고 사들이네.

10 그러나 자네가 어떤 힘든 삶에 빠져, 자네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의 운이나 자네 개인의 운이 자네에게 풀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올가미를 씌웠다고 하세. 족쇄를 찬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리를 묶은 무게와 거치적거림을 견디기 힘들어하지만, 분개하지 말고 참기로 마음먹으면 필연이 꿋꿋이 견디는 법을, 습관이 쉽게 견디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나쁜 일을 원망거리로 만들기보다 가볍게 여기려 한다면, 어떤 삶에서든 즐거움과 숨 돌릴 틈과 기쁨을 찾게 될 걸세. 자연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 가운데 이보다 큰 것은 없네.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으려고 태어나는지 알고 있던 자연은 재앙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습관을 찾아내, 가장 무거운 것도 금세 익숙하게 만들어 주었네. 역경이 거듭되어도 처음 맞을 때만큼 아프다면 아무도 버티지 못할 걸세. 우리는 모두 운에 묶여 있네. 어떤 이의 사슬은 금으로 되어 느슨하고, 어떤 이의 사슬은 꽉 조이고 지저분하지.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인가? 같은 감옥이 모두를 에워쌌고, 남을 묶은 사람도 묶여 있네. 그가 왼손에 찬 사슬이 더 가볍다고 자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말일세. 어떤 이는 관직에, 어떤 이는 재산에 묶여 있네. 어떤 이는 높은 가문에 짓눌리고, 어떤 이는 미천함에 짓눌리네. 어떤 이의 머리 위에는 남의 명령이, 어떤 이의 머리 위에는 자기 명령이 있네. 어떤 이는 추방이, 어떤 이는 사제직이 한곳에 붙들어 두네. 모든 삶은 예속일세. 그러니 자기 처지에 익숙해지고, 그 처지를 되도록 원망하지 말고, 그 둘레에 있는 편한 것은 무엇이든 붙잡아야 하네. 담담한 마음이 위안을 찾지 못할 만큼 쓰라린 것은 없네. 작은 땅도 솜씨 있게 나누어 쓰는 사람의 손에서는 여러 쓰임으로 넓어지고, 아무리 비좁은 터라도 잘 배치하면 살 만해지는 일이 흔하네. 어려움에 이성을 들이대게. 거친 것도 부드러워지고 좁은 것도 넓어지며, 무거운 것도 솜씨 있게 지는 사람에게는 덜 짓누르네.

또 욕망을 멀리까지 내보내지 말고, 가까운 데까지만 나가도록 허락하세. 욕망은 완전히 가두어 두는 것을 참지 못하니 말일세. 이룰 수 없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내버려 두고 가까이 있어 우리의 희망을 부추기는 것을 좇되, 모든 것이 똑같이 가볍다는 것, 바깥으로는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똑같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 두세. 더 높이 서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세. 높아 보이던 곳은 깎아지른 벼랑일세.

한편 고르지 못한 제비 때문에 아슬아슬한 자리에 놓인 사람들은, 본디 오만한 것들에서 오만을 덜어 내고 자기 운을 될 수 있는 대로 평지로 끌어내림으로써 더 안전해질 걸세. 떨어지지 않고서는 내려올 수

없는 꼭대기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어야 하는 사람도 많네. 그러나 그들은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며, 자기들은 들어 올려진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증언해야 하네. 그들은 정의와 온화함과 인정과 너그럽고 넉넉한 손길로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해 많은 방책을 마련해 두어야 하네. 그 방책을 믿고 더 근심 없이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마음의 물결에서 우리를 지켜 줄 것은, 늘 불어나는 데 한계를 정해 두고, 그칠 때를 운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훨씬 못 미친 데서 스스로 멈추는 것일세. 그러면 어떤 욕망은 마음을 벼려 주되, 한계가 있으니 마음을 끝없고 불확실한 데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걸세.

11 내 이 말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 어중간한 사람, 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현자에게 하는 말이 아닐세. 현자는 겁먹고 조심조심 걸을 필요가 없네. 그는 자기를 굳게 믿어서, 운에 맞서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않고 운에게 결코 자리를 내주지 않을 걸세. 그가 운을 두려워할 데도 없네. 노예와 재산과 지위뿐 아니라 제 몸과 눈과 손,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빌려 쓰는 것으로 셈하며, 빌려 받은 사람처럼 살다가 돌려 달라고 하면 슬퍼하지 않고 돌려줄 사람이기 때문일세.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안다고 해서 자기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네. 오히려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맡겨 둔 것을 지키듯, 모든 일을 그토록 성실하게, 그토록 신중하게 할 걸세. 그러다 돌려 달라는 명이 떨어지면 운에게 투덜대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걸세. "내가 차지하고 지녔던 것에 감사하오. 나는 큰 품삯을 치르며 그대의 것을 가꾸었소. 그러나 그대가 명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주고 물러나겠소. 아직도 그대의 것을 내가 지니기를 바란다면 지키겠소. 다른 뜻이라면, 나는 은그릇과 돈과 집과 노예들을 돌려주고 되돌려 놓겠소." 우리에게 먼저 맡겼던 자연이 우리를

부른다면 자연에게도 이렇게 말하세. "그대가 준 것보다 더 나은 영혼을 도로 받으시오. 나는 핑계를 대지도 꽁무니를 빼지도 않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내게 그대가 준 것을, 나는 기꺼이 이렇게 마련해 두었소. 가져가시오." 자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그리 힘든가? 잘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잘 살지도 못할 걸세.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이것의 값을 깎아 내리고 목숨을 하찮은 것 가운데 하나로 셈해야 하네. 키케로가 말하듯[9], 우리는 검투사들이 어떻게든 목숨을 구걸하려 들면 미워하고, 목숨을 업신여기는 기색을 보이면 응원하네.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 두게. 겁먹고 죽는 것이 죽음을 부르는 때가 많으니 말일세. 놀이판을 벌여 즐기는 운은 이렇게 말하지. "이 못나고 벌벌 떠는 짐승아, 내가 너를 무엇에 쓰려고 살려 두겠느냐? 목을 내밀 줄 모르니 너는 더 많이 베이고 찔릴 것이다. 그러나 목을 움츠리지도 손으로 막지도 않고 담대하게 칼을 받는 너는 더 오래 살고 더 깔끔하게 죽을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결코 하지 못할 걸세. 그러나 잉태되는 그 순간 이미 이것이 정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약정대로 살고, 같은 마음의 힘으로 다른 것도 해낼 걸세. 닥치는 일 가운데 어느 것도 갑작스럽지 않게 하는 것 말일세.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일어날 것처럼 내다봄으로써 그는 모든 불행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네. 불행은 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새로운 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근심 없이 좋은 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나 무겁게 닥치네. 병, 포로가 되는 일, 무너짐, 불.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갑작스럽지 않네. 자연이 나를 얼마나 소란스러운 동거인들 틈에 가두었는지 나는 알고 있었네. 내 이웃에서 곡소리가 얼마나 자주 울렸던가. 때 이른 장례 행렬 앞에서 횃불과 밀랍 초가 얼마나 자주 내 집 문턱을 지나갔던가. 무너지는 건물이 옆에서 굉음을 낸 적도 많았네. 포룸이, 원로원이, 대화가 나와 맺어 준 많은 사람을 밤 하나가 앗아 가,

맞잡았던 벗들의 손을 끊어 놓았네. 늘 내 둘레를 떠돌던 위험이 언젠가 내게 다가왔다고 해서 내가 놀라겠는가? 사람들 대부분은 배를 타려 하면서 폭풍을 생각하지 않네. 좋은 말이라면 나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쁘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네. 푸블릴리우스는 비극과 희극의 재능을 지닌 사람들보다도 힘찬 사람이었는데, 소극의 시시한 짓거리와 맨 꼭대기 관람석을 겨냥한 말을 그만둘 때면 희극 무대의 막은 물론이고 비극 배우의 높은 장화보다도 힘찬 말을 여럿 했고, 이런 말도 했네.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10]

누구든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기고, 날마다 넘쳐 나는 남의 불행을 모두 자기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는 듯이 바라본다면, 공격받기 훨씬 전에 무장을 갖출 걸세. 위험을 겪고 나서야 위험을 견디도록 마음을 갖추는 것은 너무 늦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자네는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런데 왜 아닌가? 가난과 굶주림과 구걸이 뒤를 따르지 않는 부가 어디 있는가? 자줏빛 단을 두른 토가와 복점관의 지팡이와 귀족의 신발끈 뒤로 누추함과 낙인과 천 가지 오점과 더없는 멸시가 따라오지 않는 지위가 어디 있는가? 몰락과 짓밟힘과 새 주인과 망나니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왕국이 어디 있는가? 이것들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네. 왕좌와 남의 무릎 사이에는 한 시간의 한순간밖에 없네. 그러니 어떤 처지든 뒤집힐 수 있고, 누구에게 닥친 일이든 자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게. 자네는 부자인가? 폼페이우스보다 더 부자인가? 오랜 친척이자 새로 그를 손님으로 맞은 칼리굴라가 그의 집을 닫으려고 그에게 황궁 문을 열어 주었을 때, 그에게는 빵도 물도 없었네[11]. 제 땅에서 솟아 제 땅으로 흘러드는 강을 그토록 많이 가졌던 그가 낙숫물을 구걸했네. 그는 친척의 궁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었고, 그동안 상속자는 굶어 가는

그를 위해 국장을 도급 주고 있었네. 자네는 가장 높은 관직을 지냈는가? 세야누스[12]만큼 높은 관직, 그만큼 뜻밖의 관직, 그만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관직을 지냈는가? 원로원이 그를 호위해 간 바로 그날 인민은 그를 갈가리 찢었네. 신들과 사람들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쌓아 주었는데, 망나니가 갈고리로 끌고 갈 것조차 남지 않았네. 자네는 왕인가? 자네를 크로이소스에게 보내지는 않겠네. 그는 명령을 받고 자기 화장 장작더미에 올랐다가 불이 꺼지는 것을 보았고, 왕국뿐 아니라 자기 죽음보다도 오래 살아남았네. 로마 인민이 두려워하던 그해 안에 구경거리로 삼은 유구르타에게 보내지도 않겠네. 우리는 아프리카의 왕 프톨레마이오스와 아르메니아의 왕 미트리다테스가 칼리굴라의 감옥에 갇힌 것을 보았네[13]. 하나는 추방되었고, 하나는 더 믿을 만하게 추방되기를 바랐네. 오르락내리락하는 일들이 이토록 뒤집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모두 일어날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자네는 역경에게 힘을 내주는 셈일세. 먼저 내다본 사람은 누구나 그 힘을 꺾어 놓았는데도 말일세.

12 다음으로 할 일은 쓸데없는 일에 애쓰지 않고, 쓸데없이 애쓰지도 않는 것일세. 다시 말해, 이룰 수 없는 것을 탐내지 않고, 이룬 뒤에 많은 땀을 흘리고 나서야 우리 욕망이 헛되었음을 뒤늦게 깨닫지 않는 것, 곧 수고가 아무 성과 없이 헛되지 않고 성과가 수고에 걸맞지 않은 것도 아니게 하는 것일세.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 것이 부끄러우면 대개 슬픔이 뒤따르니 말일세. 이리저리 쏘다니는 버릇을 잘라 내야 하네. 사람들 대부분이 남의 집과 극장과 포룸을 떠도는 것처럼 말일세. 그들은 남의 일에 끼어들어 늘 무언가 하는 사람처럼 보이네. 그런 사람이 집을 나설 때 "어디 가오? 무슨 생각이오?" 하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걸세. "맹세코 나도 모르오. 누구든 만나 보고 무엇이든 하겠소." 그들은 목적 없이 떠돌며 일거리를 찾고, 정해 둔 일이 아니라

맞닥뜨린 일을 하네. 그들의 걸음은 생각도 없고 헛되네. 나무를 기어오르는 개미들이 빈손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는 것과 같지. 많은 사람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사는데, 그것을 들뜬 게으름이라 부른대도 틀린 말은 아닐 걸세. 불이라도 난 듯 달려가는 어떤 이들을 보면 딱한 마음이 들 걸세. 그들은 마주치는 사람들을 마구 떠밀며 자기도 남도 넘어뜨리는데, 그렇게 달려가는 곳이라고는 답례하지도 않을 누군가에게 인사하러 가거나, 모르는 사람의 장례 행렬을 따르러 가거나, 소송을 일삼는 사람의 재판에, 결혼을 일삼는 사람의 약혼식에 가는 것이고, 남의 가마를 따라다니다 어떤 데서는 직접 메기까지 하네. 그러고는 쓸데없는 피로에 지쳐 집으로 돌아와서, 왜 나갔는지, 어디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맹세하고는 이튿날 똑같은 발자국을 따라 다시 헤맬 걸세. 그러니 모든 수고는 어딘가를 향하고 어딘가를 바라보아야 하네. 들뜬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미친 사람을 흔드는 것과 같은 사물의 거짓 형상일세. 미친 사람들조차 아무 희망 없이 움직이지는 않으니 말일세. 무언가의 겉모습이 그들을 부추기는데, 사로잡힌 정신은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네. 무리를 불리러 나서는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헛되고 가벼운 까닭들이 이와 똑같이 온 도시로 끌고 다니네. 해가 뜨면 수고할 거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를 내몰고, 그는 숱한 집 문턱에 헛되이 부딪치며 이름 알리는 노예들에게 일일이 인사하고, 많은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그 누구보다 자기 집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기가 가장 어렵네. 이 악에서 가장 흉한 악덕이 생기네. 엿듣는 버릇, 공적인 일이든 사사로운 일이든 캐내는 버릇, 말하기도 듣기도 위험한 숱한 일을 아는 버릇 말일세.

13 데모크리토스가 이렇게 말을 꺼낸 것도 이것을 따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평정 속에 살려는 사람은 사사로이도 공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물론 쓸데없는 일을 두고 한 말일세. 필요한 일이라면 사사로이도 공적으로도 많은 일뿐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떤 엄숙한 의무도 우리를 부르지 않을 때는 행동을 삼가야 하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운의 손에 맡기는 때가 많네. 운은 되도록 드물게 시험하고, 늘 운을 생각하되 운의 신의에 기대어 자기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배를 타겠다." "무엇이 가로막지 않는 한 법무관이 되겠다." "무슨 일이 끼어들지 않는 한 장사가 잘되겠지." 이것이 우리가 현자에게는 뜻밖의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까닭일세. 우리는 그를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서 빼내는 것일세. 모든 일이 그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그가 생각한 대로 그에게 일어나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먼저, 무언가가 자기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두었네. 성공을 꼭 약속하지 않은 욕망이라면, 그것이 꺾여도 그 아픔은 마음에 더 가볍게 닿을 수밖에 없네.

14 우리는 또 자신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정해 둔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우연이 이끄는 데로 옮겨 가야 하며, 계획이나 처지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네. 다만 고요에 가장 해로운 악덕인 변덕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한에서 말일세. 운이 걸핏하면 무언가를 비틀어 빼앗아 가는 고집은 불안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는 변덕은 그보다 훨씬 무겁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과 아무것도 참을 수 없는 것, 둘 다 평정에 해롭네. 무엇보다 마음을 바깥의 모든 것에서 자기 안으로 불러들여야 하네. 마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기뻐하고, 제 것을 우러르고, 남의 것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물러나 자기에게 몸을 붙여야 하네. 손실을 느끼지 말고, 역경도 너그럽게 해석해야 하네. 우리 제논은 난파 소식을 듣고 자기 것이 모두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네. "운이 나더러 짐을 덜고 철학을 하라는구나." 어떤 참주가 철학자 테오도로스[14]에게 죽이겠다고, 그것도 묻어 주지 않겠다고 으르자 테오도로스는 말했네. "그대가 흐뭇해할 거리가 있구려. 피 한 종지가 그대 손에 달렸으니. 묻히는 일로 말하자면, 내가 땅 위에서 썩든 땅 밑에서 썩든 내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참 어리석소." 율리우스 카누스[15]는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고,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조차 그를 우러르는 데 걸림이 되지 않는 사람이네. 그가 칼리굴라와 오래 말다툼을 벌이고 물러 나올 때 그 팔라리스가 그에게 말했네. "어리석은 희망으로 우쭐하지 마라. 너를 끌고 가라고 명해 두었다." 카누스는 대답했네. "고맙습니다, 더없이 훌륭하신 폐하."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니 말일세. 죽음이 은혜가 될 만큼 잔인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 주며 그를 모욕하려 했을까? 아니면 날마다 벌이는 광기를 나무란 것일까? 자식을 잃은 사람들도,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도 그에게 감사를 올렸으니 말일세. 아니면 그것을 해방으로 여겨 기꺼이 받아들인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는 큰마음으로 대답했네. 누군가는 말할 걸세. "그 뒤에 칼리굴라가 그를 살려 두라고 명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카누스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네. 이런 명령에서 칼리굴라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는 다 알려져 있었으니 말일세. 형 집행까지 남은 열흘 동안 그가 아무 근심 없이 지냈다는 것을 자네는 믿겠는가? 그 사람이 한 말, 한 일, 그가 얼마나 평정했는지는 믿기지 않을 정도일세. 그는 말판 놀이를 하고 있었네. 죽을 사람들의 행렬을 끌고 가던 백인대장이 그도 일으켜 세우라고 명하자, 부름을 받은 그는 말을 세어 보고 놀이 동무에게 말했네. "내가 죽은 뒤에 그대가 이겼다고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러고는 백인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네. "내가 한 수 앞섰다는 것을 증언해 주게." 카누스가 그

판에서 논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는가? 그는 놀려 준 것일세. 벗들은 이런 사람을 잃게 되어 슬퍼했네. 그는 말했네. "왜 슬퍼하오? 그대들은 영혼이 불멸하는지 묻고 있지 않소. 나는 곧 알게 될 것이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진리 탐구를 멈추지 않고 자기 죽음을 연구 거리로 삼았네. 그를 모시던 철학자가 그를 따라가고 있었고, 우리의 신이신 황제께 날마다 제물을 바치던 언덕이 멀지 않았을 때 그 철학자가 물었네. "카누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오? 마음이 어떠하오?" 카누스가 대답했네. "그 가장 빠른 순간에 영혼이 자기가 나간다는 것을 느끼는지 지켜보기로 했소." 그리고 무언가 알아내면 벗들을 찾아다니며 영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 주겠다고 약속했네. 보게, 폭풍 한가운데의 평정을! 보게, 영원에 걸맞은 마음을! 자기 운명을 진리를 증명하는 데 불러들이고, 그 마지막 계단에 서서도 떠나가는 영혼을 캐묻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만이 아니라 죽음 자체에서도 무언가를 배우는 마음을! 이보다 오래 철학한 사람은 없네. 위대한 사람은 서둘러 지나쳐서는 안 되고 정성껏 이야기해야 하네. 가장 빛나는 이여, 칼리굴라가 저지른 학살의 큰 몫이여, 우리는 그대를 모든 기억에 넘겨주겠소!

15 그러나 사사로운 슬픔의 까닭을 떨쳐 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닐세. 때로는 인류에 대한 미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공한 범죄의 숱한 무리가 눈앞에 나타나니 말일세. 순박함이 얼마나 드물고, 결백함이 얼마나 낯설며, 믿음은 이로울 때가 아니면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정욕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똑같이 밉살스럽다는 것, 야심이 이제는 제 경계 안에 머물지 못해 추함으로 번쩍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은 밤으로 내몰리고, 바랄 수도 없고 지녀 봐야 이롭지도 않은 덕들이 뒤집어진 듯 어둠이 몰려오네. 그러니 우리는 대중의 모든 악덕이 밉살스럽지 않고 우스워 보이도록 마음을 돌려야 하고, 헤라클레이토스보다 데모크리토스를 본받아야 하네.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울었고, 데모크리토스는 웃었지. 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비참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였네. 그러니 모든 것을 가볍게 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견뎌야 하네. 삶을 비웃는 것이 삶을 한탄하는 것보다 더 사람답네. 게다가 인류를 비웃는 사람이 인류를 두고 슬퍼하는 사람보다 인류에게 더 잘하는 것이네. 웃는 사람은 좋은 희망을 얼마쯤 남겨 두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잡을 수 없다고 절망한 것을 어리석게 울고 있으니 말일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보다 웃음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마음을 지녔네. 그는 마음의 가장 가벼운 격정을 일으킬 뿐이고, 이 거창한 차림새 가운데 어느 것도 크다거나 엄숙하다거나, 비참하다고조차 여기지 않으니 말일세. 우리를 즐겁게도 슬프게도 하는 것들을 저마다 하나하나 떠올려 보게. 그러면 비온이 한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알 걸세. 인간사는 모두 그 시작인 잉태와 몹시 닮았고, 그들의 삶은 잉태된 순간보다 더 거룩하거나 엄숙할 것이 없다고 말일세. 그러나 웃음에도 눈물에도 빠지지 않고 대중의 풍습과 인간의 악덕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낫네. 남의 불행에 괴로워하는 것은 끝없는 비참이고,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답지 못한 쾌락이니 말일세. 누가 아들 장례를 치른다고 따라 울고 얼굴을 꾸며 보이는 것이 쓸데없는 인정이듯이, 자기 불행 앞에서도 관습이 아니라 자연이 요구하는 만큼만 슬픔에 내주도록 처신해야 하네. 많은 사람이 남에게 보이려고 눈물을 흘리고, 구경꾼이 없을 때마다 눈이 말라 있네. 모두 우는데 자기만 울지 않는 것을 추하다고 여기는 것이지. 남의 생각에 매달리는 이 악이 어찌나 깊이 박혔는지, 가장 꾸밈없는 것인 슬픔마저 꾸며 내는 것이 되고 말았네.

16 이제 마땅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근심에 빠뜨리곤 하는 부분이 이어지네. 선한 사람들의 최후가 나쁠 때, 곧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죽어야 하고, 루틸리우스가 추방되어 살아야 하고, 폼페이우스와 키케로가 자기들의 피호민에게 목을 내밀어야 하고[16], 덕의 살아 있는 형상인 그 카토가 칼 위에 엎어지며 자기 자신과 나라가 끝났음을 함께 세상에 알려야 할 때, 운이 그토록 부당한 보상을 내준다는 데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네. 가장 선한 사람들이 가장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저마다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견뎠는지 보게. 그들이 용감했다면 그들의 기개를 그리워하게. 여자처럼, 비겁하게 죽었다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들은 덕이 자네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거나, 비겁함을 아쉬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용감하게 죽어서 남을 겁쟁이로 만든다면 그보다 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칭송받을 만한 사람은 몇 번이고 칭송하며 말하세. "그만큼 더 용감하고 그만큼 더 운 좋은 그대여! 그대는 온갖 불행과 시기와 병에서 벗어났소. 감옥에서 나왔소. 신들은 그대를 나쁜 운을 겪어 마땅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소. 운이 더는 무엇 하나 손댈 수 없어야 할 사람으로 보았소." 그러나 몸을 빼고 죽음 앞에서도 삶을 돌아보는 자들은 붙잡아 끌어내야 하네. 나는 기뻐하는 사람을 두고도, 우는 사람을 두고도 울지 않을 걸세. 앞사람은 내 눈물을 스스로 닦아 주었고, 뒷사람은 제 눈물로 어떤 눈물도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들었네. 헤라클레스가 산 채로 불탄다고, 레굴루스가 숱한 못에 찔린다고, 카토가 제 상처를 다시 찢는다고 내가 울겠는가? 이들은 모두 잠깐의 시간을 치르고 영원해지는 길을 찾아냈고, 죽음으로 불멸에 이르렀네.

17 자네가 근심스럽게 자신을 꾸미며 누구에게도 꾸밈없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근심의 거리일세. 많은 사람의 삶이 그렇게 꾸며지고 과시하려고 마련되어 있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일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들킬까

두려워하네. 누가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근심에서 결코 풀려나지 못하네. 우리 뜻과 달리 우리를 발가벗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니와, 그토록 자신을 꾸미는 데 성공한다 해도, 늘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의 삶은 즐겁지도 근심 없지도 않네. 그러나 자기 품행에 아무것도 덮어씌우지 않는, 꾸밈없이 그 자체로 소박한 순박함은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가! 하지만 모든 것이 모두에게 드러나면 이런 삶도 업신여김을 받을 위험이 있네. 가까이 다가간 것은 무엇이든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일세. 그러나 덕은 눈앞에 가까이 놓인다고 값어치가 떨어질 위험이 없고, 끝없이 꾸미느라 괴로워하느니 순박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편이 낫네. 그래도 여기에 절도를 두세. 꾸밈없이 사는 것과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크게 다르네.

또 자기 안으로 자주 물러나야 하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잘 가라앉혀 둔 것이 흐트러지고, 격정이 되살아나며, 마음속에 아직 약하고 덜 아문 것은 무엇이든 다시 덧나기 때문일세. 그래도 고독과 사람들 속, 이 둘을 섞고 번갈아 오가야 하네. 고독은 우리에게 사람을 그리워하게 하고, 사람들 속은 우리 자신을 그리워하게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약이 될 걸세. 무리가 싫어지면 고독이 고쳐 주고, 고독이 지겨워지면 무리가 고쳐 주네.

정신을 늘 똑같이 팽팽하게 붙들어 두지 말고 놀이로 불러내야 하네. 소크라테스는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카토는 나랏일에 지친 마음을 술로 풀었으며, 스키피오는 개선장군의 그 군인다운 몸을 가락에 맞추어 움직였네. 지금 걸음걸이조차 여자의 나긋함을 넘어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처럼 몸을 꺾으며 흐늘대지 않고, 옛날의 그 사내들이 놀이와 축제 때 늘 그랬듯 사내답게 뛰며 춤추었지. 적이 본다 해도 체면이 깎이지 않을 춤이었네. 마음에 휴식을 주어야

하네. 쉬고 나면 더 낫고 더 날카롭게 일어설 걸세. 기름진 밭에 억지로 소출을 요구해서는 안 되듯이(쉬지 않는 풍요는 금세 밭을 메마르게 할 걸세), 끊임없는 수고는 마음의 기세를 꺾을 걸세. 조금 풀어 주고 늦춰 주면 마음은 힘을 되찾을 걸세. 쉼 없는 수고에서는 마음이 무디어지고 늘어지는 일이 생기네.

놀이와 농담에 어떤 자연스러운 쾌락이 없다면 사람들의 욕망이 그토록 거기로 쏠리지 않을 걸세. 그러나 그것을 너무 자주 쓰면 마음에서 모든 무게와 힘을 앗아 갈 걸세. 잠도 기운을 되찾는 데 꼭 필요하지만, 밤낮으로 이어 간다면 죽음이 될 걸세. 무언가를 늦추는 것과 아예 풀어 버리는 것은 크게 다르네. 입법자들은 사람들이 나라 전체로 즐거워하도록 강제하려고 축제일을 정했네. 수고 사이에 꼭 필요한 숨 고르기를 끼워 넣은 셈이지. 또 판단력이 뛰어난 어떤 이들은 다달이 정해진 날에 스스로 쉬는 날을 주었고, 어떤 이들은 날마다 하루를 여가와 근심으로 나누었네. 위대한 웅변가 아시니우스 폴리오가 그랬다고 우리는 기억하네. 열째 시가 지나면 어떤 일도 그를 붙잡아 두지 못했고, 새로운 근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 시간 뒤로는 편지조차 읽지 않은 채 그 두 시간 동안 하루 내내 쌓인 피로를 내려놓았지. 어떤 이들은 한낮에 일을 끊고 오후에는 가벼운 일을 미루어 두었네. 우리 조상들도 열째 시가 지나면 원로원에서 새 안건을 내지 못하게 했네. 병사는 보초를 나누어 서고, 원정에서 돌아온 병사들에게는 밤 근무가 면제되네. 마음을 너그럽게 대하고 때때로 여가를 주어야 하네. 여가가 마음에 양식과 힘이 되도록.

또 탁 트인 길을 거닐어, 맑은 하늘 아래 숨을 크게 쉬며 마음이 북돋워지고 높아지게 해야 하네. 때로는 수레를 타고 여행하며 고장을 바꾸는 것도,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좀 넉넉하게 마시는 것도 활력을 줄 걸세. 때로는 취하는 데까지 가도 좋네. 우리를 잠기게 할 만큼이 아니라

가라앉힐 만큼만. 술은 근심을 씻어 내고 마음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으며, 어떤 병을 고치듯 슬픔도 고쳐 주네. 리베르[17]가 포도주를 찾아낸 신으로 불리는 것은 혀를 함부로 놀리게 해서가 아니라, 근심의 예속에서 마음을 풀어 주고(liberat), 자유롭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무슨 일에든 더 대담하게 만들기 때문일세. 그러나 자유처럼 술도 절도가 있어야 몸에 좋네. 사람들은 솔론과 아르케실라오스가 술을 즐겼다고 믿고, 카토는 취한다는 비난을 받았네. 그러나 그들이 카토를 추하게 만들기보다는 그 비난을 훌륭한 것으로 만들기가 더 쉬울 걸세. 그렇다고 자주 그래서는 안 되네. 마음이 나쁜 버릇을 들이지 않도록. 그래도 때로는 마음을 들뜸과 자유로 끌어내고 침울한 맑은 정신을 잠시 치워 두어야 하네. 그리스 시인의 말처럼 "때로는 미치는 것도 즐겁다"고 믿든, 플라톤의 말처럼 "제정신인 사람이 시의 문을 두드려 봐야 헛일이다"라고 믿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광기가 섞이지 않은 위대한 재능은 없었다"[18]고 믿든 마찬가지일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위대한 것, 남들 위에 서는 것을 말할 수 없네. 마음이 흔하고 익숙한 것을 업신여기고 거룩한 영감에 들려 더 높이 솟아올랐을 때에야 비로소 죽게 마련인 사람의 입보다 더 웅장한 무언가를 노래하네. 마음이 제정신으로 있는 한 드높은 것, 가파른 데 놓인 것에는 닿을 수 없네. 마음은 익숙한 것에서 떨어져 나와 솟구쳐야 하고, 재갈을 물어뜯으며 마부를 끌고 달려, 혼자서는 오르기를 두려워했을 곳까지 그를 데려가야 하네.

더없이 친애하는 세레누스, 평정을 지켜 주고 되찾아 주며 슬그머니 스며드는 악덕에 맞서 줄 것들을 자네는 이제 갖추었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게. 미끄러지는 마음을 팽팽하고 끊임없는 보살핌이 둘러싸 지키지 않는다면, 흔들리기 쉬운 것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넉넉히 굳세지 못하네.

1. 키티온의 제논(기원전 334 무렵~기원전 262 무렵)은 스토아학파를 세웠고, 클레안테스와 크리시포스가 차례로 그 뒤를 이어 학파를 이끌었다.

2. 에우티미아는 「마음이 좋은 상태」라는 뜻의 그리스어다. 데모크리토스(기원전 460 무렵~기원전 370 무렵)의 책 『평정에 관하여』는 전하지 않는다. 13장 첫머리의 인용은 세네카가 이 책의 첫 문장으로 소개하는 것이다(딜스·크란츠 단편 B3).

3. 루크레티우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3.1068.

4. 타르소스 출신의 스토아 철학자(기원전 74 무렵~기원후 7). 아우구스투스의 스승이었다.

5. 프리타니스는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의 집행관, 케릭스는 아테네의 전령관, 수페스는 카르타고의 최고 행정관이다.

6. 서른 참주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진 아테네에 스파르타의 힘을 업고 들어선 과두 정권이다(기원전 404~기원전 403). 하르모디오스는 기원전 514년 참주 히피아스의 아우 히파르코스를 죽여 참주 살해자로 기려졌다.

7. 보리스테네스의 비온(기원전 3세기 전반). 날카로운 재담으로 이름난 견유풍의 철학자.

8. 기원전 48년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싸울 때 불탔다. 리비우스의 이 대목은 전하지 않는다.

9. 키케로 『밀로 변론』 92.

10.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격언집』. 「마르키아에게 보내는 위로」 9장에도 인용된 구절이다.

11. 황제 칼리굴라(재위 37~41). 원문은 「가이우스」. 여기 나오는 폼페이우스는 대(大)폼페이우스의 후손으로 칼리굴라의 친척인데,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12. 루키우스 아일리우스 세야누스. 티베리우스의 근위대장으로 권세를 휘두르다 31년 원로원 회의장에서 체포되어 그날로 처형되었고, 주검은 군중에게 짓밟혔다.

13.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 왕 키로스에게 사로잡혀 화형대에 올랐으나 비가 불을 꺼 살아났다고 전한다(헤로도토스 『역사』 1.86~87). 누미디아 왕 유구르타는 기원전 104년 마리우스의 개선식에 끌려 나왔다. 마우레타니아 왕 프톨레마이오스는 40년 칼리굴라에게 죽었고, 아르메니아 왕 미트리다테스는 칼리굴라에게 갇혔다가 추방되었다.

14. 키레네의 테오도로스(기원전 4세기 말). 무신론자라는 별명으로 불린 철학자. 여기의 참주는 트라키아 왕 리시마코스다.

15. 칼리굴라에게 처형된 스토아 철학자. 팔라리스는 청동 황소에 사람을 넣어 구워 죽였다는 시칠리아 아크라가스의 참주로, 여기서는 칼리굴라를 빗대어 부른 말이다. 뒤의 「우리의 신이신 황제」도 살아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한 칼리굴라를 비꼰 말이다.

16. 푸블리우스 루틸리우스 루푸스는 청렴한 관리였으나 기원전 92년 억울한 재판으로 추방되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서 예전 부하의 손에, 키케로는 자기가 변호해 준 적이 있는 사람의 손에 죽었다고 전한다. 카토는 기원전 46년 우티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7. 리베르(Liber)는 포도주의 신(그리스의 디오니소스)을 부르는 로마 이름인데, 「자유로운」이라는 뜻의 낱말과 소리가 같다. 세네카는 이것을 「풀어 준다(liberat)」와 엮어 말놀이를 한다.

18. 그리스 시인의 말은 출처 미상. 플라톤의 말은 『파이드로스』 245a,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문제집』 30.1에 가까운 내용이 있다.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1 파울리누스 공, 인간은 대부분 자연이 인색하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겨우 잠깐 살도록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마저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급하게 흘러가 버려서, 아주 드문 몇 사람을 빼면 모두가 막 살아 보려고 채비하는 참에 삶에게 버림받는다는 불평이지요. 사람들이 온 인류에게 닥친 불행이라 여기는 이 일을 두고 탄식한 것은 군중이나 생각 없는 무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사람들도 같은 심정에서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가 "인생은 짧고 기술은 길다"[1] 하고 외친 것도 그래서이고, 아리스토텔레스[2]가 현자답지 않게 자연을 상대로 시비를 벌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는 자연이 짐승들에게는 오백 년, 천 년을 살 만큼 너그럽게 수명을 베풀면서, 그토록 많고 큰일을 하도록 태어난 인간에게는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끝을 세워 두었다고 따졌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허비했을 뿐입니다. 삶은 충분히 길며, 통째로 잘 쓰기만 한다면 가장 큰일을 이루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삶이 사치와 게으름 속에 새어 나가고 어떤 좋은 일에도 쓰이지 않으면, 마침내 마지막 필연이 등을 떠밀 때에야 우리는 가는 줄도 몰랐던 삶이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받은 게 아니라 짧게 만들었고, 삶이 모자란 게 아니라 헤프게 써 버립니다. 왕에게나 어울릴 막대한 재산도 나쁜 주인 손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흩어지지만 변변찮은 재산이라도 좋은 관리인에게 맡겨지면

쓰는 만큼 불어나듯이, 우리 생애도 잘 꾸려 가는 사람에게는 넓게 열려 있습니다.

2 우리는 왜 자연을 두고 불평합니까? 자연은 너그럽게 베풀었습니다. 삶은 쓸 줄만 알면 깁니다. 그런데 누구는 채울 줄 모르는 탐욕에 붙들려 있고, 누구는 쓸데없는 수고에 공연히 바지런을 떱니다. 누구는 술에 절어 있고, 누구는 게으름에 굳어 있습니다. 누구는 늘 남의 판단에 매달린 야망에 지쳐 가고, 누구는 장사하려는 성급한 욕심에 끌려 이익을 바라고 온 땅과 온 바다를 떠돕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 나가고 싶은 욕망에 시달려, 늘 남의 위험을 노리거나 제 위험을 걱정합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는 윗사람을 받드느라 스스로 택한 종살이로 삶을 갉아먹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남의 처지를 탐내거나 제 처지를 불평하느라 붙잡혀 있었고, 대부분은 어떤 확실한 목표도 좇지 않은 채 갈팡질팡하고 변덕스러우며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경박함에 떠밀려 새 계획에서 새 계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디로 길을 잡아야 할지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아 시들시들 하품만 하다가 운명에 덜미를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위대한 시인이 신탁처럼 한 말이 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는 것은 삶의 작은 부분뿐이다."[3] 나머지 시간은 모두 삶이 아니라 그저 시간일 뿐입니다. 악덕이 사방에서 밀어닥쳐 둘러싸고는, 다시 일어서거나 눈을 들어 참된 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악덕은 욕망에 잠기고 박힌 사람들을 짓눌러, 한 번도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잠깐 쉴 틈이 생겨도, 바람이 그친 뒤에도 너울이 이는 깊은 바다처럼 그들은 출렁거리며, 욕망에서 놓여나 여가를 누리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제가 그 해악이 누구 눈에도 뻔한 이들만 두고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그 행운을 보려고 몰려드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 좋은 것들에 숨이 막힙니다. 재물이 짐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웅변과, 날마다 재주를 뽐내려는 조바심에 피가 마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없는 쾌락으로 낯빛이 창백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레에 몰려든 피호민 무리 때문에 자유로운 틈이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컨대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이런 이들을 모두 훑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변호인을 부르고, 이 사람은 법정에 나와 거들고, 저 사람은 재판에 걸려 위태롭고, 저 사람은 변론하고, 저 사람은 재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기 몫으로 되찾지 않고, 저마다 서로를 위해 닳아 없어집니다.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이들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들을 가르는 표지가 이런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받들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받든다는 것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의 분개는 더없이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찾아가 뵈려 했는데 윗사람들이 틈을 내주지 않았다며 그 거만함을 불평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틈을 내주지 않는 사람이 감히 남의 오만을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 윗사람은, 불평하는 이가 누구든, 거만한 얼굴로나마 이따금 그를 돌아보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를 곁에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거나 자기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안을 두고 누구에게 공치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 때 그는 남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3 일찍이 빛났던 모든 천재가 이 한 가지에 뜻을 모은다 해도, 인간 정신을 덮은 이 어둠에는 아무리 놀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 땅을 누가 차지하는 것은 결코 참지 못하고, 경계를 두고 조금만 다툼이 생겨도 돌과 무기를 들고 달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는 남들이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아니, 장차 그 삶을 차지할 사람들을 손수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제 돈을 나누어 주려는 사람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저마다 제 삶은 얼마나 많은 이에게 나누어 줍니까! 재산을 지키는 데는 인색하면서, 시간을 잃는 문제가 되면 탐욕을 부려도 훌륭하다 할 단 하나의 것에서 더없이 헤프게 굽니다. 그러니 노인들 무리에서 아무나 하나 붙잡고 말해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인간 수명의 끝자락에 이르셨습니다. 백 번째 해, 아니 그 이상이 어르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지나온 생애를 불러내 셈을 맞춰 보십시오. 그 세월 가운데 빚쟁이가, 애인이, 권세 있는 후원자가, 피호민이 얼마를 빼앗아 갔는지, 아내와의 다툼이, 노예들을 다스리는 일이, 인사치레로 온 도시를 쏘다닌 일이 얼마를 앗아 갔는지 따져 보십시오. 우리가 제 손으로 불러들인 병도 더하고, 쓰이지 않고 그냥 놓여 있던 시간도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헤아리시는 햇수보다 실제로 가지신 햇수가 적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어르신이 언제 계획을 굳게 지키셨는지, 정해 둔 대로 흘러간 날이 얼마나 드물었는지, 언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쓰셨는지, 언제 얼굴빛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언제 마음이 두려움에 떨지 않았는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잃는지 어르신은 느끼지도 못하시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르신의 삶을 앗아 갔는지, 헛된 슬픔과 어리석은 기쁨과 걸신들린 욕망과 달콤한 사교가 얼마나 빼앗아 갔는지, 어르신 몫으로 남은 것이 얼마나 적은지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르신이 설익은 채로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입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한 번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지 살피지도 않습니다. 가득 차서 넘쳐 나는 곳간에서 꺼내 쓰듯 허비하지만, 그러는 사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든 일에든 내어 준 바로 그날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죽을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죽지 않을 사람처럼 탐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쉰 살이 되면 물러나 여가를 누리겠다. 예순 살이 되면 소임에서 풀려나겠지." 그런데 대체 누구를 더 긴 삶의 보증인으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그 일들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삶의 찌꺼기를 자기 몫으로 남겨 두고, 아무 일에도 쓸 수 없는 시간만을 건전한 정신에 바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만두어야 할 때에야 살기 시작하다니, 얼마나 늦습니까? 건전한 계획을 쉰 살, 예순 살로 미루고, 몇 사람 이르지도 못한 나이에서 삶을 시작하려 하다니, 어찌 이토록 어리석게 죽을 운명을 잊을 수 있습니까?

4 가장 권세 있고 높이 오른 사람들의 입에서 여가를 바라고, 칭송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보다 앞세우는 말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안전하기만 하다면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바깥에서 아무것도 건드리거나 뒤흔들지 않아도 높은 운은 제풀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신격 아우구스투스는 신들이 누구보다 많은 것을 베풀어 준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쉼을 달라고 빌고 나랏일에서 놓여나기를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무엇이든 늘 여가를 바라는 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리라는 생각이, 헛된 것일지언정 달콤한 위안이 되어 그의 수고를 달래 주었습니다. 원로원에 보낸 어느 편지에서 그는 자기의 휴식이 위엄을 잃지도, 지난날의 영광에 어긋나지도 않으리라고 약속했는데, 저는 그 편지에서 이런 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약속하기보다 이루는 편이 더 보기 좋다. 그래도 몹시도 바라는 그때를 향한 열망에 이끌려, 일의 즐거움은 아직 더디 오니 말의 달콤함에서라도 쾌락을 조금 미리 맛보려 한다." 여가는 그토록 대단한 것으로 보였기에, 그는 실제로 누릴 수 없으니 생각으로라도 미리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음을 보던 사람, 사람들과 민족들에게 운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 자기의 위대함을 벗어 던질 그날을 더없이 기쁘게 그려 보았습니다. 그는 온 땅에 번쩍이는 그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짜내는지, 얼마나 많은 남모를 근심을 감추고 있는지 겪어 보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과, 다음에는 동료들과, 마지막에는 인척들과 무기로 결판을 내야 했고, 바다와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마케도니아, 시칠리아, 이집트, 시리아와 아시아, 거의 모든 해안을 전쟁에 쫓겨 돌아다녔고, 로마인끼리 죽이느라 지친 군대를 바깥 전쟁으로 돌렸습니다. 그가 알프스를 평정하고 평화로운 제국 한가운데 섞여 있던 적들을 굴복시키는 동안, 라인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도나우강 너머로 국경을 넓히는 동안, 바로 로마 도성 안에서는 무레나, 카이피오, 레피두스, 에그나티우스[4], 그 밖의 자들이 그를 노려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미처 다 피하기도 전에, 딸과, 간통을 서약처럼 맺어 한패가 된 숱한 귀족 청년들이 이미 기력이 꺾인 그의 노년을 겁에 질리게 했고, 파울루스와, 또다시 안토니우스와 함께 두려워해야 할 여자도 그랬습니다[,5]. 그는 이 종기들을 팔다리째 잘라 냈지만 다른 종기가 또 돋아났습니다. 피가 너무 많아 무거운 몸이 늘 어딘가 터지듯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가를 바랐고, 그 바람과 생각 속에서 그의 수고는 잦아들었습니다. 남의 바람을 이루어 줄 수 있던 사람의 바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5 마르쿠스 키케로는 카틸리나 같은 자들, 클로디우스 같은 자들, 폼페이우스 같은 자들, 크라수스 같은 자들, 일부는 드러난 적이고 일부는 미덥지 못한 벗인 자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그는 나라와 함께 흔들리며 가라앉는 나라를 붙들다가 끝내 쓸려 나갔고, 순조로울 때는 편안하지 못했고 어려울 때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까닭 없이는 아니지만 끝도 없이 칭송했던 바로 그 집정관 시절을 그는

얼마나 자주 저주했습니까! 아버지 폼페이우스는 이미 패했고 아들은 아직 히스파니아에서 꺾인 무기를 다시 일으키고 있을 때, 아티쿠스에게 보낸 어느 편지[6]에서 그는 얼마나 애처로운 말을 쏟아 냅니까! "내가 여기서 무얼 하느냐고 그대가 물었소? 투스쿨룸의 내 별장에서 반쯤 자유로운 몸으로 머물고 있소." 그는 이어서 다른 말들도 덧붙이는데, 지난 생애를 한탄하고, 지금을 불평하고, 앞날에 절망하는 말들입니다. 키케로는 자기를 반쯤 자유로운 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맹세코 현자는 결코 그토록 비천한 이름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반쯤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고, 늘 온전하고 단단한 자유를 누리며,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며 누구보다 높이 설 것입니다. 운 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6 리비우스 드루수스[7]는 날카롭고 격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이탈리아에서 몰려든 엄청난 무리에 둘러싸여 새 법안과 그라쿠스 형제 같은 해악을 일으켰지만, 일이 어떻게 끝날지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밀고 나갈 수도 없었고, 한번 시작한 이상 내버려 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줄곧 바람 잘 날 없던 자기 삶을 저주하며, 자기 혼자만은 어린아이 때조차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 후견을 받는 소년으로 아이들이 입는 자줏빛 단의 토가를 걸치고 있을 때부터 감히 재판관들에게 피고들을 잘 봐 달라고 부탁하고 법정에 자기 영향력을 끼쳐 넣었는데, 그 힘이 어찌나 컸던지 몇몇 판결은 그가 억지로 빼앗아 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토록 때 이른 야망이 어디까지 터져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토록 일찍 영근 대담함이 개인에게나 나라에나 큰 해악으로 번지리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선동을 일삼고 법정을 짓눌러 온 그가 어려서부터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불평한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타구니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는데, 그 죽음이 스스로 택한 것이었는지 의심한 사람은 있었으나, 제때 온 죽음이었는지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더없이 운 좋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자기 생애의 모든 행적을 미워하며 자기에 대해 참된 증언을 남긴 사람들을 더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불평으로 남들도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말이 터져 나오고 나면 격정은 다시 버릇으로 미끄러져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맹세코 여러분의 삶은 천 년을 넘어선다 해도 더없이 좁게 오그라들 것입니다. 그런 악덕들은 어떤 세월이든 삼켜 버릴 것입니다. 자연은 서둘러 달아나게 해도 이성은 늘여 놓을 수 있는 이 시간마저 여러분에게서는 빨리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빠른 이것을 붙잡지도 못하고, 붙들어 두지도 못하며, 늦추지도 못하고, 쓸모없고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떠나가게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술과 정욕 말고는 아무 일에도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꼽습니다. 이들보다 더 추하게 분주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광의 헛된 그림자에 붙들려 있더라도 그나마 그럴듯하게 헤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 성마른 사람들, 부당한 미움이나 부당한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줄줄이 들어 보아도, 그들은 모두 더 사내답게 죄를 짓습니다. 배와 정욕에 몸을 내던진 자들의 타락은 추합니다. 이런 자들의 시간을 모두 털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셈을 하고, 얼마나 오래 남을 노리고, 얼마나 오래 두려워하고, 얼마나 오래 남을 받들고, 얼마나 오래 남의 받듦을 받는지, 자기 재판과 남의 재판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이제는 그 자체가 의무가 되어 버린 연회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겪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분주한 사람은

어떤 일도 잘 해낼 수 없다는 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웅변도, 교양 학문도 그렇습니다. 여러 갈래로 끌려다니는 마음은 깊이 있는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밀어 넣은 것처럼 모두 도로 뱉어 내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사람이 가장 못 하는 일은 사는 일입니다. 어떤 일도 사는 법보다 알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은 어디에나 많고, 그 가운데 어떤 기술은 아주 어린아이들도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익힌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는 법은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하며, 더 놀라실지 모르지만 죽는 법도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합니다. 숱한 위대한 사람들이 거치적거리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재물과 의무와 쾌락을 끊은 뒤, 늘그막에 이르기까지 오직 사는 법을 아는 데만 힘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대부분은 아직 모르겠다고 고백하며 삶을 떠났습니다. 하물며 저런 자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자기 시간에서 아무것도 덜어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헤맴을 넘어선 위대한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더없이 깁니다. 그 삶이 얼마나 넓게 펼쳐졌든 통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묵혀 두거나 놀려 두지 않았고, 아무것도 남의 손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간을 더없이 아끼는 이 파수꾼은 자기 시간과 맞바꿀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많은 부분을 군중에게 빼앗긴 이들에게는 모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언젠가 자기 손해를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큰 행운에 짓눌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피호민 무리 속에서, 소송 변론 중에, 또는 다른 점잖은 비참함 속에서 이따금 "나는 살 틈이 없다!" 하고 외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왜 살 틈이 없겠습니까? 자기에게 불러들이는 이들은 하나같이 불려 가는 사람을 그 자신에게서 앗아 갑니다. 저 피고는 며칠을 앗아 갔습니까? 저 관직

후보자는 며칠을? 상속자들을 묻어 내느라 지친 저 노파는 며칠을? 유산을 노리는 자들의 탐욕을 부추기려고 병든 척하는 저 사람은 며칠을? 여러분을 벗으로가 아니라 행차의 구색으로 거느리는 저 권세 있는 벗은 며칠을 앗아 갔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삶의 날들을 하나하나 따져 셈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곁에 남은 날이 아주 적고, 그나마 버려진 찌꺼기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권표를 얻은 사람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며 줄곧 "이 한 해는 언제나 지나가려나?"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기를 주관하게 되어 그 제비가 자기에게 떨어진 것을 대단하게 여겼으면서도 "언제나 이 일에서 벗어나려나?" 하고 말합니다. 어떤 변호인은 온 포룸에서 서로 모셔 가려 다툴 만큼 인기가 있어, 엄청난 군중이 몰려 그의 목소리가 닿지도 않는 곳까지 가득 메우는데도 "언제쯤 법정이 쉬려나?" 하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 삶을 재촉하며, 앞날을 그리워하고 지금을 지겨워하느라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든 다 자기에게 쓰고, 날마다 마지막 날처럼 꾸려 가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어느 한 시간이 그에게 무슨 새로운 쾌락을 가져다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물리도록 맛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우연한 운이 원하는 대로 정하게 두십시오. 삶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무언가를 더할 수는 있어도 덜어 낼 수는 없습니다. 더한다 해도 이미 배부르고 가득 찬 사람에게 음식을 조금 더 주는 것과 같아서, 바라지는 않아도 받아 넣기는 합니다. 그러니 흰머리나 주름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오래 살았다고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는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오래 있었을 뿐입니다. 사나운 폭풍이 항구를 나서자마자 덮쳐 이리저리 휘몰고, 사방에서 미쳐 날뛰는 바람이 번갈아 같은 바다를 빙빙 돌게 한 사람을 두고 오래 항해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는 오래 항해한 것이 아니라 오래 휘둘렸을 뿐입니다.

8 저는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청하고, 청을 받은 사람들이 선선히 내주는 것을 볼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양쪽 다 시간을 청한 목적만 바라볼 뿐 시간 그 자체는 어느 쪽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청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값진 것을 두고 장난을 칩니다. 그것이 형체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값싼 것으로, 아니 거의 값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받는 녹봉이나 하사금은 더없이 귀하게 받고, 그 대가로 자기 수고나 일손이나 정성을 빌려줍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무도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공짜로 받은 것처럼 헤프게 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병들어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다가오면 의사의 무릎을 붙잡고, 사형을 두려워하게 되면 살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내놓을 채비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 안에서 격정이 이토록 서로 어긋납니다! 지나간 햇수처럼 앞으로 남은 햇수도 저마다 눈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남은 해가 얼마 없음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떨겠으며, 그 햇수를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정해진 것은 아무리 적어도 나누어 쓰기 쉽습니다.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것일수록 더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몹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햇수의 일부라도 내줄 수 있다고 곧잘 말합니다. 그들은 내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구나 상대에게 보태 주지도 못한 채 자기에게서만 덜어 냅니다. 그러나 덜어 낸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손실을 견딜 만하게 여깁니다. 아무도 세월을 되돌려 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생애는 시작한 길을 그대로 갈 것이고, 제 길을 되돌리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 소란도 피우지 않고, 제 빠르기를 아무것도 일깨워 주지 않으며, 소리 없이 미끄러져 갈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도, 인민의

호의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날 내보내진 그대로 달려가며, 어디에서도 길을 돌리지 않고, 어디에서도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분주하고, 삶은 서두릅니다. 그러는 사이 죽음이 닥칠 것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에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9 분별을 자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생각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공들여 분주합니다. 더 잘 살려고 삶을 들여서 삶을 마련합니다. 생각을 먼 앞날까지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삶을 가장 크게 잃는 길은 미루는 일입니다. 미루기는 다가오는 날을 하나하나 앗아 가고, 더 먼 것을 약속하면서 지금 있는 것을 빼앗습니다. 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내일에 매달려 오늘을 잃습니다. 운의 손에 놓인 것은 계획하면서, 자기 손에 놓인 것은 놓아 버리십니다.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어디까지 손을 뻗으십니까? 앞으로 올 것은 모두 불확실한 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십시오.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시인이 외치며, 신이 내린 떨림에 사로잡힌 듯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가엾은 인간들에게서 생애의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맨 먼저 달아난다."[8]

"왜 머뭇거리느냐?" 하고 시인은 말합니다. "왜 꾸물거리느냐? 붙잡지 않으면 달아난다." 그런데 붙잡는다 해도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의 빠르기와는 시간을 쓰는 빠르기로 겨루어야 하고, 늘 흐르지는 않을 급류에서 물을 긷듯 서둘러 길어 올려야 합니다. 시인이 가장 좋은 세월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한 것도, 끝없이 늘어놓는 계획을 나무라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시간이 이토록 달아나는데 왜 근심 없이 느긋하게, 욕심이 시키는 대로 달과 해를 길게 줄지어 늘어놓으십니까? 시인은 하루를 두고, 그것도 바로 지금 달아나는 이

하루를 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가엾은 인간들, 곧 분주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날마다 맨 먼저 달아난다는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노년이 덮쳐 누르고, 그들은 아무 채비도 없이 무방비로 노년에 이릅니다. 아무것도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노년에 떨어졌고, 노년이 날마다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이 이야기나 책 읽기나 무언가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다 왔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같은 걸음으로 쉼 없이 더없이 빠르게 걸어가는 이 삶의 길도 분주한 사람들에게는 끝에 이르러서야 보입니다.

10 제가 내세운 것을 여러 부분과 논증으로 나누어 펼치려 한다면, 분주한 사람들의 삶이 더없이 짧다는 것을 증명할 거리가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파비아누스[9]는 강단에 들어앉은 철학자가 아니라 참되고 옛사람다운 철학자였는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격정과는 섬세한 논변이 아니라 기세로 싸워야 하고, 자잘한 상처가 아니라 돌격으로 적의 전열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는 말꼬리 잡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격정은 짓뭉개야지 꼬집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면, 그저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합니다. 삶은 세 때로 나뉩니다. 지나간 때, 지금, 앞으로 올 때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내는 때는 짧고, 앞으로 보낼 때는 불확실하며, 이미 보낸 때는 확실합니다. 이미 보낸 때야말로 운이 권리를 잃은 때이며, 누구의 뜻에도 다시 맡겨질 수 없는 때입니다. 분주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잃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나간 날을 돌아볼 틈이 없고, 틈이 있다 해도 후회할 일을 떠올리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낸 시간으로 마음을 돌리기를 꺼리고 그 시간을 다시 들추어 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지금의 쾌락이 뚜쟁이처럼 꾀어

슬그머니 넘어갔던 악덕들까지도 다시 들추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코 속지 않는 자기 자신의 감찰을 받으며 모든 일을 해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기꺼이 지난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야심에 차서 많은 것을 탐냈고, 오만하게 깔보았고, 제멋대로 이겼고, 음험하게 속였고, 탐욕스럽게 빼앗았고, 헤프게 쏟아부은 사람은 자기 기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간 가운데 거룩하게 바쳐진 부분으로서,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을 넘어서 있고 운의 왕국 바깥으로 빼내어져 있어서, 가난도, 두려움도, 병의 습격도 이것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어지럽혀질 수도 빼앗길 수도 없으며, 이것을 가진 것은 영원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하루하루뿐이고, 그것도 한순간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의 날들은 여러분이 명하기만 하면 모두 다가와, 마음대로 살펴보고 붙들어 두도록 내어 줄 것입니다. 분주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틈이 없습니다. 근심 없고 고요한 정신이라야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두루 오갈 수 있습니다. 분주한 사람들의 마음은 멍에를 멘 것처럼 몸을 돌려 뒤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깊은 구렁으로 사라져 갑니다. 받아서 간직할 그릇이 밑에 받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소용없듯이,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고일 자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금 가고 구멍 난 마음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지금이라는 때는 더없이 짧아서, 어떤 이들에게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것은 늘 달려가며 흐르고 곤두박질칩니다. 오기도 전에 이미 없어지고, 늘 쉬지 않고 움직여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 우주나 별들처럼 지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분주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은 붙잡을 수도 없을 만큼 짧은 지금이라는 때뿐인데, 그마저 여러 일에 끌려다니는 그들에게서 빠져나갑니다.

11 끝으로, 그들이 얼마나 짧게 사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기를 바라는지 보십시오. 늙어 빠진 노인들이 몇 해만 더 달라고 빌며 구걸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더 젊다고 꾸며 대고,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달래며, 그렇게 하면 운명까지 함께 속일 수 있다는 듯 기꺼이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병이 그들에게 죽을 운명임을 일깨우면,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며 죽어 갑니까. 삶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 나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리석어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외치고, 이번 병에서 살아나기만 하면 여가 속에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누리지도 못할 것을 얼마나 헛되이 마련했는지, 그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허사로 돌아갔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갖 일에서 멀리 떨어져 삶을 보내는 사람들의 삶이 어찌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서는 아무것도 남에게 넘겨지지 않고, 아무것도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으며, 아무것도 운에게 내맡겨지지 않고, 아무것도 소홀함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아무것도 선심을 쓰느라 덜려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쓸데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삶 전체가 고스란히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짧아도 넉넉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 오든 현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확고한 걸음으로 죽음을 향해 갈 것입니다.

12 공께서는 제가 누구를 분주한 사람이라 부르는지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 닫을 때 개를 풀어야 비로소 재판정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만 두고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실 일은 아닙니다. 자기 패거리 속에서 더 그럴듯하게 짓밟히거나 남의 패거리 속에서 더 업신여김을 받으며 짓밟히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 인사치레가 제 집에서 불러내 남의 집 문간에 부딪히게 하는 사람들, 법무관의 창 아래 벌어지는 경매에서 언젠가 곪아 터질 부끄러운 이익을 좇느라 바쁜 사람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여가마저 분주합니다. 별장에서나

자기 침상에서나, 한적한 곳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피해 물러났는데도 스스로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들의 삶은 여가로운 삶이 아니라 게으른 분주함이라 불러야 합니다. 몇 사람의 광기 때문에 값비싸진 코린트 청동 그릇을 안달이 날 만큼 꼼꼼하게 매만지느라 하루의 대부분을 녹슨 쇳조각에 쏟는 사람을 여가를 누린다고 하시겠습니까? 레슬링장에 앉아 (아, 이런 망측한 일이! 우리는 로마의 악덕만으로 시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들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차를 끄는 짐승 떼를 나이와 털빛에 맞추어 짝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 나온 운동선수들을 먹여 기르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뿐입니까? 이발사 앞에서 몇 시간씩 보내는 사람들을 여가를 누린다고 하시겠습니까? 지난밤 사이 무엇이 자랐으면 뽑아내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두고 의논을 벌이고,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가지런히 하거나 빠져서 모자라는 머리를 이쪽저쪽에서 이마로 끌어모으는 동안 말입니다. 이발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마치 진짜 사내의 머리를 깎는 것처럼 얼마나 화를 냅니까! 갈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려 나가거나, 무엇 하나라도 차례에서 벗어나 놓이거나, 모든 머리카락이 제 고리 모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불같이 성을 냅니까! 이들 가운데 자기 머리카락보다 차라리 나라가 어지러워지기를 바라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안전보다 머리 모양을 더 걱정하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훌륭하기보다 맵시 있기를 더 바라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빗과 거울 사이에서 분주한 이런 자들을 여가를 누린다고 하시겠습니까? 노래를 짓고 듣고 익히느라 애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연이 더없이 좋고 더없이 단순하게 곧은 길로 내도록 만든 목소리를 더없이 게으른 가락의 굽이굽이로 비틀고, 손가락으로는 늘 속으로 어떤 노래의 박자를 짚으며 두드리고, 진지한 일, 때로는 슬픈 일에 불려 나가서도 소리 없이 흥얼거리는 것이 들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여가가 아니라 게으른 분주함입니다. 맹세코 이런 자들의 연회도 저는 한가한 시간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달하며 은그릇을 늘어놓는지, 시중드는 사내종들의 옷자락을 얼마나 꼼꼼히 걷어 올려 매는지, 멧돼지 요리가 요리사 손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신호가 떨어지면 털 없는 노예들이 얼마나 재빨리 제 일을 하러 흩어지는지, 새들을 너무 크지 않은 조각으로 얼마나 솜씨 있게 썰어 내는지, 불쌍한 어린 노예들이 취객들의 침을 얼마나 꼼꼼히 닦아 내는지를 보면 말입니다. 이런 일로 그들은 우아하고 호사롭다는 평판을 낚으려 합니다. 그들의 나쁜 버릇은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들을 따라다녀서, 그들은 마시는 일도 먹는 일도 허세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가마와 들것에 실려 이리저리 다니고, 그 나들이를 거를 수 없다는 듯 정해진 시각마다 나서는 사람들도 여가를 누리는 사람으로 꼽지 마십시오. 언제 목욕하고 언제 헤엄치고 언제 저녁을 먹어야 하는지 남이 일러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나약한 마음의 무기력에 풀어져서, 자기가 배고픈지조차 스스로 알지 못할 지경입니다. 호사에 절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삶과 인간다운 습관을 잊어버리는 것을 호사라 불러도 된다면) 목욕탕에서 사람들 손에 들려 나와 의자에 놓였을 때 "나 이제 앉았느냐?" 하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앉았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 있는지, 보고 있는지, 여가를 누리는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더 불쌍한지, 모르는 척했다면 더 불쌍한지 쉽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정말로 잊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잊은 척하기도 합니다. 어떤 악덕은 행운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여겨져 그들을 즐겁게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은 너무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의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광대극이 사치를 꾸짖으려고 거짓말을 잔뜩 꾸며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맹세코

광대극이 지어내는 것보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 한 가지에는 재주가 넘치는 이 시대에 믿기지 않는 악덕이 하도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는 오히려 광대극이 게으르다고 나무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호사에 빠져 그토록 죽은 거나 다름없이 되어서, 자기가 앉았는지조차 남의 말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여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는 병자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입니다. 자기 여가를 느낄 줄도 아는 사람이 여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이 어떤 자세인지 알려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이 반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13 장기 놀이나 공놀이나 햇볕에 몸을 굽는 일에 삶을 다 써 버린 사람들을 하나하나 쫓아가자면 끝이 없습니다. 쾌락에 일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은 여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학문을 파느라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애써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큰 무리를 이룹니다. 오디세우스가 노잡이를 몇이나 거느렸는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쓰였는지, 또 둘이 같은 작가의 작품인지, 그 밖에 이런 종류의 것을 줄줄이 캐묻는 것은 그리스인들의 병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마음속에 담아 두어도 혼자만 아는 마음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고, 늘어놓으면 더 박식해 보이기는커녕 더 성가셔 보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쓸데없는 것을 배우려는 이 헛된 열의가 로마인들에게도 덮쳤습니다. 요즈음 저는 어떤 사람이 로마의 장군들 가운데 누가 무엇을 처음 했는지 늘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전에서 처음 이긴 사람은 두일리우스이고, 개선 행렬에 처음 코끼리를 끌고 간 사람은 쿠리우스 덴타투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참된 영광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시민이 이룬

업적의 본보기 언저리에서 맴돌기는 합니다. 이런 지식은 쓸모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럴듯한 헛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두는 지식이기는 합니다. 누가 처음으로 로마인들을 배에 오르게 설득했는지 캐묻는 사람들도 너그럽게 봐줍시다. 그 사람은 클라우디우스였는데, 바로 이 일로 카우덱스(caudex)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옛사람들은 판자 여러 장을 이어 붙인 것을 카우덱스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공문서 판을 코덱스라 하고, 지금도 옛 관습대로 테베레강으로 식량을 실어 나르는 배를 코디카리아라고 부릅니다. 발레리우스 코르비누스가 처음으로 메사나를 정복했고, 발레리우스 집안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도시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옮겨 받아 메사나라고 불렸는데, 차츰 사람들이 글자를 바꿔 부르는 바람에 메살라가 되었다는 것도 물론 쓸모 있는 이야기라고 쳐 둡시다. 그러나 루키우스 술라가 처음으로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 놓고 내보였으며(그전에는 묶인 채로 내보냈습니다), 그 사자들을 해치우라고 보쿠스 왕이 창잡이들을 보내 주었다는 것까지 누구에게 마음 쓰라고 허락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너그럽게 넘어가 준다 칩시다. 폼페이우스가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코끼리 열여덟 마리의 싸움을 벌이며 죄인들을 전투하듯 맞붙게 했다는 것이 무슨 좋은 일과 상관이 있습니까? 나라의 제일인자요, 전하는 말로는 옛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남달리 선량했다는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수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억할 만한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서로 싸워 죽는다고? 모자란다. 갈가리 찢긴다고? 모자란다. 거대한 짐승 떼에 짓이겨지게 하라!" 이런 일은 차라리 잊히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랬다면 훗날 어떤 권력자도 그것을 배워 더없이 비인간적인 일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큰 행운은 우리 정신에 얼마나 짙은 어둠을 드리웁니까! 그는 다른 하늘 아래 태어난 짐승들에게 비참한 사람들을 무리 지어 내던지고, 그토록 어울리지 않는 동물들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로마

인민이 보는 앞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을 때 자기가 자연을 넘어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자신이 그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만들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알렉산드리아의 배신에 속아 가장 비천한 노예의 칼에 찔리도록 몸을 내맡겼고, 그제야 자기 별명이 헛된 허풍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10]. 그러나 제가 벗어났던 자리로 돌아가, 같은 주제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이 공을 들이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메텔루스가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인들을 무찌르고 개선식을 올릴 때 로마인 가운데 오직 그만이 사로잡은 코끼리 120마리를 전차 앞에 끌고 갔다는 것, 술라가 로마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도성의 신성한 경계선(pomerium)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에게는 속주의 땅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땅을 얻었을 때에만 경계선을 넓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편이, 그 사람이 단언한 대로 아벤티누스 언덕이 경계선 밖에 있는 까닭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 곧 평민이 그곳으로 물러났기 때문이거나 레무스가 그곳에서 새점을 쳤을 때 새들이 좋은 징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또 거짓말로 가득 차 있거나 그 비슷한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를 아는 것보다 더 쓸모 있겠습니까? 설령 그들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말하고 보증까지 서듯 적는다고 인정해 준다 해도, 이런 것이 누구의 잘못을 줄여 주겠습니까? 누구의 욕망을 눌러 주겠습니까? 누구를 더 용감하게, 더 정의롭게, 더 너그럽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 파비아누스는 이런 학문에 얽매이느니 차라리 아무 학문에도 손대지 않는 편이 나은 게 아닌지 이따금 의심스럽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14 모든 사람 가운데 지혜에 시간을 내는 사람들만이 여가를 누리는 사람이며, 그들만이 삽니다. 그들은 자기 생애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월을 자기 생애에 보탭니다. 그들보다 앞서 흘러간 햇수가 모두

그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더없이 배은망덕하지 않다면, 거룩한 가르침을 세운 저 빛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를 위해 삶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 덕분에 어둠 속에서 빛으로 파내어진 더없이 아름다운 것들에 이릅니다. 어떤 시대도 우리에게 닫혀 있지 않고 우리는 모든 시대에 들어갈 수 있으니, 도량을 넓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다면 거닐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논쟁하고, 카르네아데스와 함께 의심하고, 에피쿠로스와 함께 쉬고, 스토아학파와 함께 인간의 본성을 이겨 내고, 견유학파와 함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모든 시대와 어울리도록 허락하는데, 어찌 이 짧고 덧없는 한때를 떠나, 헤아릴 수 없고 영원하며 우리보다 나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에 온 마음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인사치레로 쏘다니며 자기와 남을 들볶는 저 사람들은, 실컷 미친 듯 굴고, 날마다 모든 이의 문턱을 밟고 다니며 열린 문은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삯을 바라는 아침 문안 인사를 들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닌 끝에, 이토록 거대하고 갖가지 욕망으로 갈가리 찢긴 도시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만나 볼 수 있겠습니까? 잠이나 사치나 무정함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래 애태우게 하다가 바쁜 척하며 그들 곁을 휙 지나쳐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피호민으로 가득 찬 안뜰로 나오기를 피하고 집 안의 어두운 뒷문으로 빠져 달아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치 속이는 것이 내쫓는 것보다 덜 매정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어젯밤 술기운에 반쯤 졸며 무거운 몸으로, 남의 잠을 기다리려고 제 잠을 깨고 나온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천 번은 속삭여 준 이름을 입술을 겨우 들어 더없이 거만한 하품과 함께 되뇌어 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논,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그 밖에 훌륭한 학문을 이끈 이들,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를 날마다 더없이 가까운 벗으로

두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의무에 힘쓰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틈을 내주지 않는 이가 없고, 찾아온 사람을 더 행복하게, 자기를 더 따르게 하여 돌려보내지 않는 이가 없으며,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밤에도 낮에도 모든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다.

15 이들 가운데 누구도 죽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모두가 죽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우리의 햇수를 깎아 먹지 않고, 오히려 자기 햇수를 보태 줍니다. 이들 가운데 누구와 나누는 말도 위험하지 않고, 누구와 맺는 우정도 목숨을 위협하지 않으며, 누구를 받드는 일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들에게서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마음껏 길어 가는 것을 이들이 막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피호민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년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든 아주 큰일이든 함께 의논할 사람들, 날마다 자기 일을 물어볼 사람들, 모욕 없이 참된 말을 들려주고 아첨 없이 칭찬해 줄 사람들, 자기를 그들과 닮게 빚어 갈 본보기가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부모를 만날지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우연히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더없이 고귀한 천재들의 집안이 있으니, 어느 집안에 들고 싶은지 고르십시오. 그러면 이름만 물려받는 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까지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 재산은 쩨쩨하게 인색하게 지킬 필요가 없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이들이 영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고, 아무도 끌어내려지지 않는 자리로 들어올려 줄 것입니다. 죽을 운명을 늘리는, 아니 불멸로 바꾸는 방도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관직과 기념비, 야망이 결의로 명령하거나 공사로 쌓아 올린 것은 무엇이든 금세 무너집니다. 오랜 세월은 무엇이든 허물고

옮겨 놓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거룩하게 바친 것은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세대도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며, 다음 세대와 그 뒤로 이어지는 세대가 늘 그것에 공경을 더할 것입니다. 시샘은 가까운 것에 붙어 다니고, 멀리 있는 것은 오히려 순수하게 우러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자의 삶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두는 경계가 그를 가두지는 못합니다. 그만이 인류의 법에서 풀려나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신을 섬기듯 그를 섬깁니다. 어떤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그는 그것을 기억으로 붙잡습니다. 지금 와 있습니까? 그것을 씁니다. 앞으로 올 것입니까? 그것을 미리 붙잡습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의 삶을 길게 만듭니다.

16 지난 일을 잊고, 지금 일을 소홀히 하고, 앞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생애는 더없이 짧고 더없이 불안합니다. 끝에 이르러서야 그 가엾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토록 오래 분주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따금 죽음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들이 긴 삶을 산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격정에 시달리고 바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들이 자주 죽음을 바라는 것도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 약속한 저녁 시각이 올 때까지 시간이 더디 간다고 불평한다는 것도 그들이 오래 산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어쩌다 분주한 일이 그들을 떠나면 그들은 여가 속에 남겨져 안달하며, 그 여가를 어떻게 써서 흘려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든 분주할 거리를 찾아 나서고, 그 사이에 끼인 시간은 모두 무겁게 여깁니다. 맹세코, 검투 경기 날짜가 공표되었을 때나 다른 구경거리나 쾌락을 즐길 날이 정해져 기다릴 때, 그사이의 날들을 건너뛰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라는 일이 미뤄지는 시간이 모두

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는 시간은 짧고 쏜살같으며, 자기 잘못 때문에 훨씬 더 짧아집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도망치듯 옮겨 다니며 한 가지 욕망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낮은 긴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반대로 창녀의 품에서나 술로 지새우는 밤은 얼마나 짧게 여겨집니까! 그래서 시인들의 광기도 이야기로 인간의 헤맴을 부추깁니다. 그들은 유피테르가 동침의 쾌락에 홀려 밤을 두 배로 늘렸다고 그렸습니다. 우리 악덕을 신들이 만들었다고 내세우고, 신의 본보기를 들어 병든 마음에 핑곗거리가 있는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 우리 악덕에 불을 지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토록 비싸게 사들이는 밤이 이런 자들에게 어찌 더없이 짧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밤을 기다리느라 낮을 잃고, 날이 샐까 두려워 밤을 잃습니다.

17 그들의 쾌락조차 불안하고 갖가지 두려움으로 들썩입니다. 한창 기뻐 날뛸 때 불안한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랴?" 이런 심정 때문에 왕들은 자기 권력을 두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처지가 높다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닥칠 끝에 겁을 먹었습니다. 더없이 오만한 페르시아 왕[11]은 드넓은 들판에 군대를 펼쳐 놓고 그 수를 세지 못해 넓이로 헤아리게 되자, 백 년 안에 저 많은 젊은이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울던 바로 그 사람이 그들을 운명 앞으로 내몰 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다에서, 어떤 이는 땅에서, 어떤 이는 싸움에서, 어떤 이는 도주 중에 잃고, 그가 백 번째 해를 걱정해 주던 그들을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다 써 버릴 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마저 불안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은 단단한 까닭에 기대고 있지 않아서, 생겨날 때의 그 헛됨 그대로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 인정하기에도 비참한 시간은 어떻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우쭐대며 사람 위로 올라서는 이런

시간마저 순수하지 못한데 말입니다. 가장 큰 좋은 것일수록 불안하며, 가장 좋은 운만큼 믿을 수 없는 운도 없습니다. 행운을 지키려면 또 다른 행운이 있어야 하고, 이루어진 바람을 위해 또 빌어야 합니다. 우연히 찾아온 것은 모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높이 솟아오른 것일수록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질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큰 수고로 얻은 것을 더 큰 수고로 지키는 이들의 삶은 더없이 짧을 뿐 아니라 더없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애써서 얻고, 얻은 것을 근심하며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은 전혀 셈에 넣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주함이 옛 분주함을 대신하고, 희망이 희망을, 야망이 야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비참함의 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의 재료만 바꿉니다. 우리 관직이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남의 관직이 더 많은 시간을 앗아 갑니다. 후보로서 애쓰기를 그만두었습니까? 이제는 남을 밀어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고발하는 수고를 내려놓았습니까? 재판하는 수고를 떠맡습니다. 재판관 노릇을 그만두었습니까? 이제는 재판장이 됩니다. 남의 재산을 삯 받고 관리하다가 늙었습니까? 이제는 자기 재산에 매여 지냅니다. 마리우스가 군화를 벗었습니까? 집정관 자리가 그를 들볶습니다. 퀸크티우스[12]가 독재관 임기를 서둘러 마치려 합니까? 그는 다시 쟁기 곁에서 불려 나올 것입니다. 스키피오[13]는 그런 큰일을 맡기에 아직 여물지 않은 나이에 카르타고인들을 치러 갈 것입니다. 한니발을 이기고 안티오코스를 이기고, 자기 집정관 시절을 빛내고 아우의 집정관 자리를 보증한 그는, 자기가 마다하지 않았다면 유피테르 곁에 모셔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구원자를 시민들의 분란이 들볶을 것이고, 젊어서는 신들과 맞먹는 영예를 마다했던 그가 늙어서는 오기 어린 추방살이를 뽐내는 데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운 좋은 일로 생기는 걱정이든 비참한 일로 생기는 걱정이든 그 까닭은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분주함에 떠밀려 갈 것이고, 여가는 결코 누리지 못한 채 늘 바라기만 할 것입니다.

18 그러니 친애하는 파울리누스 공, 뭇사람에게서 몸을 빼내십시오.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 많이 시달리셨으니, 이제 마침내 더 고요한 항구로 물러나십시오.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맞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폭풍을 일부는 사사로이 견디시고 일부는 나랏일로 몸소 떠안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되고 어지러운 증거들로 공의 덕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가 속에서 그 덕이 무엇을 하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생애의 더 큰 부분, 틀림없이 더 좋은 부분을 나라에 바치셨으니, 이제 시간의 얼마쯤은 공 자신을 위해서도 쓰십시오. 제가 공을 게으르고 무기력한 쉼으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 안에 있는 생기 넘치는 천성을 모두 잠이나 군중이 아끼는 쾌락 속에 가라앉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물러나 근심 없이 지내시면서 다루실 일, 지금까지 그토록 힘써 다루신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찾으실 것입니다. 공께서는 온 세계의 장부를 남의 것처럼 깨끗하게, 자기 것처럼 꼼꼼하게, 나라의 것처럼 경건하게 관리하십니다[14]. 미움을 피하기 어려운 소임에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말을 믿으십시오. 나라 곡물의 장부보다 자기 삶의 셈을 아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큰일을 넉넉히 감당할 그 기개를, 영예롭기는 하나 행복한 삶(vita beata)에는 별로 맞지 않는 직무에서 되찾아 오십시오. 그리고 공께서 어려서부터 교양 학문을 그토록 갈고닦으신 것이 수천 말의 곡물을 잘 맡아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께서는 자신에게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아끼는 사람들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짐을 나르는 데는 굼뜬 짐승이 혈통 좋은 말보다 훨씬 알맞습니다. 그 고귀한 날램을 무거운 짐으로 짓누른 사람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더구나

그토록 큰 짐 앞에 몸을 던지시는 것이 얼마나 근심스러운 일인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공께서 상대하시는 것은 사람의 배입니다. 굶주린 인민은 이치를 듣지 않고, 공정함으로 누그러지지 않으며, 어떤 간청에도 굽히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 칼리굴라[15]가 죽던 그 며칠 사이(죽은 자에게도 감각이 있다면, 그는 로마 인민이 살아남은 채 자기가 떠나는 것을 몹시도 원통해했을 것입니다), 남은 식량은 기껏해야 이레나 여드레 치뿐이었습니다! 그가 배를 이어 다리를 놓고 제국의 힘을 가지고 놀던 동안, 포위당한 사람들에게도 닥치는 마지막 불행, 곧 먹을 것이 바닥나는 일이 닥쳐 있었습니다. 미치광이에 이방인이며 불행하게 오만했던 왕을 흉내 낸 대가로, 로마는 파멸과 굶주림에, 그리고 굶주림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의 붕괴에 거의 이를 뻔했습니다. 그때 나라의 곡물을 맡았던 사람들은 돌과 칼과 불을, 그리고 칼리굴라를 맞닥뜨려야 할 처지에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속에 숨은 그 큰 불행을 더없이 감쪽같이 덮어 두었습니다. 물론 까닭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은 환자가 모르게 고쳐야 하며, 많은 이에게는 자기 병을 안 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9 이런 더 고요하고, 더 안전하고, 더 큰 일로 물러나십시오! 곡물이 실어 나르는 자들의 속임수와 소홀함에 상하지 않고 곳간에 옮겨 담기는지, 습기를 머금어 썩거나 뜨거워지지 않는지, 부피와 무게가 맞는지 살피시는 일과, 이 거룩하고 숭고한 일에 다가가 신의 재료가 무엇인지, 신의 즐거움과 처지와 모습은 어떠한지, 공의 영혼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몸에서 풀려난 우리를 자연이 어디에 두는지, 이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은 무엇이 한가운데서 떠받치고, 가벼운 것들은 무엇이 위에 매달아 두며, 불은 무엇이 꼭대기로 날라 가고, 별들은 무엇이 제 차례에 맞춰 떠오르게 하는지, 그 밖에도 엄청난 경이로 가득 찬 일들을 알아 가시는 일이, 공께서는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을 뒤로하고

정신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피가 아직 뜨거울 때, 기운이 있을 때 더 나은 것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공을 기다리는 것은 많은 훌륭한 학문, 여러 덕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일, 욕망을 잊는 일, 사는 법과 죽는 법을 아는 지혜, 그리고 세상일에서 물러난 깊은 고요입니다.

20 분주한 사람들의 처지는 모두 비참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이들은 자기 일도 아닌 일로 애쓰는 사람들, 남의 잠에 맞춰 자고 남의 걸음에 맞춰 걸으며,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할 사랑과 미움마저 남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 삶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싶다면, 그 삶에서 자기 것인 부분이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 고관의 자줏빛 토가를 벌써 여러 번 걸친 사람을 보거나 포룸에 이름이 자자한 사람을 보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삶을 대가로 치르고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해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게 하려고 자기 햇수를 모두 닳아 없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야망의 꼭대기에 기어오르기도 전에 처음 발버둥 칠 때 이미 생애가 끝나 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 가지 치욕을 거치며 위엄의 정점까지 기어오르고 나서, 결국 자기가 묘비명을 얻으려고 애썼다는 비참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노년을 젊은 날처럼 새 희망에 맞추어 꾸리다가, 크고 염치없는 일을 꾀하는 도중에 기력이 다해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소송인들을 위해 법정에서 늙도록 변론하며 무지한 구경꾼들의 맞장구를 낚다가 숨이 끊어진 사람은 추합니다. 일하느라 지치기보다 사느라 먼저 지쳐서 소임을 보다가 쓰러진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장부를 받다가 죽어 가는데, 오래 기다리게 한 상속자가 그를 비웃는 사람도 부끄럽습니다. 제게 떠오르는 본보기 하나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투란니우스[16]는 꼼꼼하기 이를 데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흔 살이 넘어 칼리굴라에게서 청하지도

않은 퇴임 허락을 받자, 자기를 침상에 눕히고 둘러선 식솔들에게 죽은 사람처럼 곡을 하게 했습니다. 온 집안이 늙은 주인의 여가를 애도했고, 그에게 일이 되돌아오고 나서야 슬픔을 그쳤습니다. 분주한 채로 죽는 것이 그토록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입니다. 일할 힘보다 일하고 싶은 욕망이 더 오래갑니다. 그들은 몸의 쇠약함과 싸우며, 노년이 자기들을 밀쳐 낸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로는 노년을 괴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법은 쉰 살부터는 병사로 징집하지 않고, 예순 살부터는 원로원 의원을 소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법에서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여가를 얻어 내기를 더 어려워합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이 끌려가고 서로를 끌어가며, 서로의 쉼을 깨뜨리고, 서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동안, 삶은 열매도, 쾌락도, 마음의 어떤 진보도 없이 흘러갑니다. 아무도 죽음을 눈앞에 두지 않고, 누구나 희망을 먼 곳에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삶 너머의 일까지 미리 정해 둡니다. 거대한 무덤, 공공 건물의 봉헌, 화장 장작더미 앞에서 열 검투 시합, 허세 부리는 장례 행렬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맹세코, 이런 자들의 장례는 아주 잠깐 산 사람처럼 횃불과 촛불을 밝히고 치러야 합니다'[17].

---

1. 히포크라테스, 『잠언』 1.1. 여기서 「기술」은 의술을 말한다.

2. 키케로는 같은 불평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테오프라스토스의 말로 전한다(『투스쿨룸 대화』 3.69).

3. 출처 미상. 세네카는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만 한다.

4. 모두 아우구스투스를 죽이려다 발각된 자들이다. 삼두 정치가 레피두스의 아들 레피두스는 기원전 30년, 무레나와 카이피오는 기원전 23년 무렵, 에그나티우스 루푸스는 기원전 19년에 음모를 꾸몄다.

5.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는 기원전 2년 여러 귀족 청년과 간통한 일이 드러나 추방되었다. 그 정부 가운데 하나인 율루스 안토니우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아들이어서, 율리아를 안토니우스와 손잡았던 클레오파트라에 빗댄 말이다.

파울루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손녀 율리아의 남편 루키우스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로, 반역을 꾀했다고 전한다. 여러 비판본은 이 자리를 「율루스」로 읽는다.

6. 아티쿠스는 키케로의 벗 티투스 폼포니우스 아티쿠스다.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에서 지고 죽었고, 그 아들 그나이우스는 히스파니아에서 다시 군대를 모았다가 기원전 45년 문다에서 졌다. 세네카가 인용한 구절은 지금 전하는 편지에 없다.

7. 마르쿠스 리비우스 드루수스. 기원전 91년 호민관으로 이탈리아 동맹시 주민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 등을 냈다가 자기 집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

8. 베르길리우스 『농경시』 3.66~67.

9. 파피리우스 파비아누스. 세네카가 젊은 시절에 배운 철학자이자 웅변가다.

10.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55년 자기 극장을 봉헌하며 코끼리 싸움을 벌였다. 기원전 48년 파르살루스에서 카이사르에게 진 뒤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신하들 손에 죽었다. 그의 별명 마그누스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11. 크세르크세스. 그리스 원정길에 군대를 바라보며 백 년 뒤면 이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 있지 않으리라며 울었다고 헤로도토스가 전한다(『역사』 7.45~46).

12. 루키우스 퀸크티우스 킨키나투스. 기원전 458년 밭을 갈다가 독재관으로 불려 나가 적을 물리치고, 보름 남짓 만에 자리를 내놓고 밭으로 돌아갔다고 전한다.

13. 대(大)스키피오, 곧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자마에서 한니발을 이겼고, 아우 루키우스가 집정관일 때 그 부관으로 나가 안티오코스 3세를 이겼다. 카피톨리움의 유피테르 곁에 그의 상을 세우자는 것을 마다했고, 말년에는 정적들의 고발에 맞서 리테르눔으로 물러나 그곳에서 죽었다.

14. 파울리누스는 로마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는 곡물 관리관이었다.

15. 황제 칼리굴라(재위 37~41). 원문은 「가이우스 카이사르」. 기원후 39년 바이아이와 푸테올리 사이 바다에 배를 이어 다리를 놓고 건넜는데,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헬레스폰토스에 배다리를 놓은 일을 흉내 냈다고들 했다.

16. 섹스투스 투란니우스.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오래 곡물 관리관을 지냈다.

17. 로마에서는 어려서 죽은 아이의 장례를 밤에 횃불과 촛불을 밝히고 치렀다.

폴리비우스에게 보내는 위로

1 〈…〉[1] 우리 삶에 견주면 단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허물어 낳아 준 곳으로 도로 불러들이는 자연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덧없습니다. 죽을 손이 지은 것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일곱 불가사의도, 그리고 뒷날의 야심이 그보다 훨씬 놀라운 것을 쌓아 올렸다면 그것까지도, 언젠가는 땅바닥까지 허물어진 모습으로 눈에 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오래가는 것도 드뭅니다. 저마다 부서지는 모양이 다르고 끝나는 길도 갖가지이지만, 시작한 것은 무엇이든 끝이 납니다. 어떤 이들은 우주에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불경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신의 일과 인간의 일을 모두 품은 이 우주 전체도 어느 날 흩어져 옛 혼돈과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든 나서서 목숨 하나하나를 두고 통곡해 볼 테면 해 보라지요. 카르타고와 누만티아와 코린트[2]의 잿더미를, 그리고 더 높은 데서 무너진 무엇이 있다면 그것까지 애도해 보라지요. 떨어질 곳조차 없는 이 우주마저 사라질 터인데 말입니다. 누구든 나서서, 언젠가 그토록 엄청난 죄악마저 저지를 운명(fatum)이 자기만은 봐주지 않았다고 불평해 보라 하십시오. 모든 것을 같은 끝으로 불러들이는 자연의 이 필연 앞에서 자기 한 사람과 제 식구만은 따로 비켜 두기를 바라고, 우주에마저 닥쳐오는 파멸에서 어느 한 집만은 빼내려 들 만큼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 가장 큰 위안은 앞서 간 모든 사람이 겪었고 뒤에 올 모든 사람이 겪을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연은 가장 가혹하게 만든 것을 모두에게 똑같이 만들어, 운명의 잔인함을 공평함으로 달래려 한 듯합니다.

2 이것도 공께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의 슬픔은 공께서 그리워하시는 분에게도, 공 자신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헤아려 보시는 일입니다. 헛된 일을 오래 끌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슬퍼해서 무엇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제 처지를 울고 남은 눈물을 모두 공의 처지를 위해 쏟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집안의 슬픔으로 이미 말라 버린 이 두 눈에서도, 그것이 공께 보탬이 되기만 한다면 아직 흘릴 것을 찾아내겠습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함께 하소연합시다. 아니, 이 소송을 아예 제 일로 떠맡겠습니다. "만인이 보기에 더없이 불공정한 운(fortuna)이여, 그대는 지금껏 이분만은 품에 감싸 두는 듯했소. 이분은 그대가 베푼 선물 덕에 크나큰 존경을 받으셨고, 누구에게도 드물게 주어지는 일이지만 그 행운(felicitas)은 시기를 비켜 갔소. 그런데 보시오. 그대는 황제[3]께서 무사하신 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이분에게 찍어 눌렀소. 사방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살핀 끝에, 그대의 일격에 열려 있는 곳은 이 한 곳뿐임을 알아챈 것이오.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돈을 빼앗겠소? 이분은 한 번도 돈에 매인 적이 없소. 지금도 힘닿는 대로 돈을 멀리 물리치고, 그토록 쉽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돈에서 얻으려는 가장 큰 소득은 돈을 업신여기는 일이오. 벗들을 빼앗겠소? 이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잃은 벗의 자리에 다른 벗을 쉽게 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었소. 황제의 집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을 내가 본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나 벗으로 두면 이롭지만 그보다도 벗으로 두고 싶은 사람은 이분 하나뿐이었던 듯하오. 좋은 평판을 빼앗겠소? 이분의 평판은 그대조차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하오. 건강을

빼앗겠소? 이분의 마음은 교양 학문에 터를 잡아 몸의 어떤 고통보다도 높이 솟아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알고 있었소. 이분은 그 학문 속에서 자랐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태어났다고 할 만한 분이오. 목숨을 빼앗겠소? 그래 봐야 얼마나 해를 끼치겠소! 명성은 이분의 재능에 더없이 긴 수명을 약속했소. 이분은 몸소 애써 자신의 더 나은 부분으로 살아남고, 빛나는 웅변의 작품들을 지어 죽음에서 스스로를 건져 냈소. 글이 조금이라도 존중받는 한, 라틴어의 힘이나 그리스어의 우아함이 버티고 서 있는 한, 이분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 숨 쉴 것이오. 이분은 그들의 재능에 자신을 견주었소. 이분의 겸손이 이 말을 마다한다면, 그들 곁에 자신을 붙여 두었다고 해 두겠소. 그래서 그대는 이분을 가장 크게 해칠 길로 오직 이것 하나를 생각해 낸 것이오. 사람은 나을수록, 아무 가림 없이 날뛰고 은혜를 베푸는 순간에도 두려워해야 할 그대를 더 자주 견디는 법이니 말이오. 그대의 너그러움이 여느 때처럼 아무렇게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치를 따라 찾아간 듯 보이던 이분 하나쯤, 이런 불의에서 지켜 주는 것이 그대에게 무에 그리 어려웠단 말이오!"

3 괜찮으시다면 이 하소연에 하나를 더 보탭시다. 막 자라기 시작하던 참에 꺾여 버린 그 젊은이의 타고난 바탕 말입니다. 그분은 공을 형으로 둘 만한 분이었습니다. 공께서는 설령 못난 아우를 두셨더라도 그 아우 때문에 조금도 괴로움을 겪지 않으셔야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분을 칭송합니다. 공을 보아 그리워하고, 그분 자신을 보아 칭찬합니다. 그분에게는 공께서 기꺼이 내 아우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만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께서는 덜 착한 아우에게도 좋은 형이 되셨겠지만, 그분에게서는 공의 우애(pietas)가 알맞은 바탕을 만나 훨씬 거리낌 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분의 권세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분은 공이 형이라는 것을

내세워 누구를 을러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공의 겸손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을 빚으셨고, 공께서 식구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자 얼마나 큰 짐인지 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아, 가혹한 운명이여, 어떤 덕(virtus)에도 공정하지 않은 운명이여! 공의 아우님은 자신의 행운을 미처 알기도 전에 세상에서 빠져나가셨습니다. 제 분노가 모자라다는 것을 압니다. 큰 슬픔에 걸맞은 말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무엇이든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다시 하소연해 봅시다. "이토록 불의하고 이토록 난폭한 운이여, 그대는 무엇을 바랐소? 그대의 너그러움을 그토록 빨리 뉘우쳤단 말이오? 형제들 한가운데로 덮쳐 들어 그토록 피비린내 나는 약탈로 더없이 화목한 무리를 줄여 놓고, 훌륭한 젊은이들로 그토록 빼곡히 찬 집, 어느 형제 하나 못난 이가 없는 집을 뒤흔들어 아무 까닭 없이 그 가운데 하나를 떼어 가다니, 이 무슨 잔인함이오! 그렇다면 모든 법도에 맞춘 결백도 소용없고, 옛사람의 검소함도 소용없고, 더없는 행운 속 더없는 권세를 쥐고도 지켜 온 절제도 소용없고, 꾸밈없고 탈 없는 학문 사랑도 소용없고, 어떤 얼룩도 묻지 않은 정신도 소용없단 말이오? 폴리비우스 공[4]께서 슬픔에 잠기셨소. 아우 하나를 잃고서 남은 아우들을 두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깨우치시고는, 자기 슬픔을 달래 주는 바로 그 위안들마저 두고 떨고 계신다오. 이 무슨 몹쓸 짓이오! 폴리비우스 공께서 슬픔에 잠기셨소. 황제께서 그토록 아끼시는데도 무언가에 괴로워하신단 말이오! 고삐 풀린 운이여, 그대가 노린 것은 틀림없이 이것이었소. 황제께서도 그대에게서 누구 하나 지켜 주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 말이오."

4 운명은 오래 탓할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운명은 가혹하게, 꿈쩍도 않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누구도 욕설로, 누구도 눈물로, 누구도 변론으로 운명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운명은 누구에게도

무엇 하나 봐주거나 덜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보탬도 되지 않는 눈물을 아낍시다. 이 슬픔은 저승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기보다 우리를 저승 사람들 곁에 보태기가 더 쉬울 테니까요. 슬픔이 우리를 괴롭힐 뿐 돕지 않는다면 되도록 빨리 내려놓아야 하고, 헛된 위안과 슬퍼하고 싶어 하는 어떤 쓰라린 욕망에서 마음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우리 눈물에 이성이 끝을 맺어 주지 않으면 운은 결코 끝을 맺어 주지 않습니다. 자, 죽을 인간들을 모두 둘러보십시오. 어디에나 울 거리가 넉넉하고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고된 가난이 날마다 일터로 불러내고, 누구는 쉴 줄 모르는 야심이 들쑤시고, 누구는 그토록 바라던 재산을 두려워하며 제 소원 때문에 괴로워하고, 누구는 외로움이, 누구는 늘 현관을 에워싼 군중이 괴롭힙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 있어서 괴로워하고, 저 사람은 자식을 잃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에게는 슬퍼할 까닭보다 눈물이 먼저 바닥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며 맨 처음 하는 일이 울음이기를 바란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약속했는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며 태어나고, 뒤따르는 세월도 모두 이 첫머리와 장단을 맞춥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주 해야 하는 일은 절도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등 뒤에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이 버티고 있는지 돌아보며, 눈물을 그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껴 두어야 합니다. 이토록 자주 쓰는 것만큼 아껴야 할 것은 없습니다.

5 이것도 공께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께서 슬픔을 바치시는 듯 보이는 바로 그분에게 그 슬픔이 누구보다도 달갑지 않다는 것을 헤아려 보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공께서 괴로워하시기를 바라지 않으시거나, 공께서 괴로워하시는 줄을 모르십니다. 그러니 이런 의무(officium)에는 아무 이치가 없습니다. 받는 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쓸데없고, 느낀다면 달갑지 않은 일이니까요. 온 세상에 공의

눈물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공께 품지 않는 마음을 공의 아우님께서 품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공을 괴롭혀 해치고, 공의 일에서, 곧 학문과 황제에게서 공을 떼어 놓으려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공을 형으로 여겨 다정히 따르셨고, 어버이로 여겨 공경하셨고, 윗사람으로 여겨 받드셨습니다. 그분은 공께 그리움이 되기를 바라시지, 괴로움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죽은 이에게 무슨 느낌이라도 남아 있다면 공의 아우님께서 끝나기를 바라실 그 슬픔에 몸을 녹여 버리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마음을 알기 어려워 보이는 다른 아우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미심쩍은 채로 두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공께서 그치지 않는 눈물로 괴로워하시기를 아우가 바란다면, 그는 공의 이런 정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바라지 않는다면, 두 분 모두에게 들러붙은 슬픔을 놓아 버리십시오. 정 없는 아우라면 이토록 그리워할 까닭이 없고, 정 깊은 아우라면 이토록 그리워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애가 이토록 확실히 드러난 아우님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이 불행이 공께 쓰라리고, 어떻게든 공을 괴롭히고, 이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될 공의 두 눈을 그칠 줄 모르는 눈물로 흐리고 또 말려 버린다면, 그분께는 그보다 쓰라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공의 우애를 이토록 쓸모없는 눈물에서 떼어 놓는 데는, 운이 끼친 이 불의를 꿋꿋이 견디는 본보기를 다른 아우님들께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들은 형세가 기울면 일부러 쾌활한 척하고 꾸민 기쁨으로 역경을 가립니다. 장군의 꺾인 마음을 본 병사들이 저희도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공께서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속마음과 다른 얼굴을 쓰십시오. 할 수 있다면 슬픔을 송두리째 던져 버리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안으로 감추고 눌러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우님들이 공을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그분들은 공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이든 훌륭하다고 여기시고, 공의 얼굴에서 마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공께서는 그분들의 위안이자 위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께서 자신의 비탄에 몸을 맡기신다면 그분들의 비탄을 막아 내실 수 없습니다.

6 공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무엇 하나 남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되새기시면, 그것도 공을 지나친 애도에서 막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가가 공께 큰 배역을 씌웠습니다. 공께서는 그 배역을 지키셔야 합니다. 공을 둘러싼 저 위로객 무리는 모두 공의 마음을 캐묻고 꿰뚫어 봅니다. 그 마음이 슬픔에 맞설 힘이 얼마나 되는지, 공께서 순경을 솜씨 있게 누릴 줄만 아시는지 아니면 역경도 사내답게 견디실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공의 눈을 지켜봅니다. 격정을 감출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 자유롭습니다. 공께는 마음 놓고 숨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은 공을 환한 빛 한가운데 세워 두었습니다. 공께서 이 상처를 입고 어떻게 처신하셨는지, 맞자마자 무기를 내려놓으셨는지 아니면 제자리를 지키셨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황제의 총애가 공을 높은 지위로 들어 올렸고, 공의 학문이 공을 그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천한 일도, 비굴한 일도 공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자신을 내맡겨 갉아먹히는 것만큼 비굴하고 아녀자 같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애도 속에서도 아우님들께 허락되는 것이 공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공의 학문과 인품을 두고 굳어진 평판이 공께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께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이든 허락되기를 바라셨다면 모든 사람의 얼굴을 공께로 돌려세우지 마셨어야 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만큼 해내셔야 합니다. 공의 재능이 낳은 작품을 칭찬하고 베껴 쓰는 사람들, 공의 처지는 필요 없어도 공의 재능은 필요한 그 모든 사람이 공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완숙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에 어긋나는 일을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공께 감탄하던 많은 사람이 그 감탄을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공께는 한없이 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낮까지 잠을 늘이는 것도, 일의 소란을 피해 고요한 시골의 여가로 달아나는 것도, 고된 소임의 자리를 쉼 없이 지키느라 지친 몸을 즐거운 여행으로 추스르는 것도, 갖가지 구경거리에 마음을 붙들어 두는 것도, 하루를 마음대로 짜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 구석에 처박혀 사는 사람에게도 허락되는 많은 것이 공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높은 처지란 무거운 예속입니다. 공께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수천수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 많은 청원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서 몰려드는 산더미 같은 일을 차례대로 가려, 더없이 위대한 군주의 마음에 올릴 수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께는 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는 많은 사람의 말을, 위태로운 처지에서 더없이 온화하신 황제의 연민(misericordia)에 닿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주시려면 공의 눈물부터 말리셔야 합니다.

7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직 가벼운 약으로 공을 도울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어지시거든 황제를 생각하십시오. 황제께서 공께 베푸시는 총애에 공께서 얼마나 큰 충성과 얼마나 큰 근면을 빚지셨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이야기가 전하는 대로 정말 그런 이가 있다면, 어깨로 우주를 떠받친다는 그 거인과 마찬가지로 공께도 허리를 굽히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신 황제께도 바로 그 때문에 허락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분이 깨어 계시기에 만인이 편히 잠들고, 그분이 수고하시기에 만인이 여가를 누리고, 그분이 애쓰시기에 만인이 즐거움을 맛보고, 그분이 분주하시기에 만인이 한가롭습니다. 황제께서는 온 세상에 자신을 바치신 날부터

자신을 자신에게서 빼앗으셨습니다. 쉼 없이 제 궤도를 펼쳐 가는 별들처럼, 그분께는 멈추어 서는 것도, 무엇 하나 자기 일을 하는 것도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공께도 같은 필연이 지워져 있습니다. 공께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학문을 돌아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황제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동안 공께서는 쾌락에도, 슬픔에도, 다른 무엇에도 자신을 나누어 주실 수 없습니다. 공께서는 자신을 송두리째 황제께 빚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것도 보태십시오. 공께서는 황제께서 공의 목숨보다 소중하시다고 늘 공언하시니, 황제께서 무사하신 한 운을 탓하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이분이 무사하시면 공의 식구도 무사하고, 공께서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공의 눈은 말라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기쁨에 차 있어야 합니다. 공께는 이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이분이 모든 것을 대신하십니다. 더없이 염치 있고 더없이 정 깊은 공의 마음씨와는 거리가 먼 일이겠습니다만, 이분이 무사하신데도 무엇 하나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하신다면 공께서는 자신의 행운에 감사할 줄 모르시는 셈입니다.

8 이제 더 강하지는 않지만 더 친숙한 약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슬픔을 두려워하셔야 할 때는 댁으로 물러나 계실 때입니다. 공께서 섬기시는 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동안에는 슬픔이 공께 다가갈 길을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황제께서 공 안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계실 테니까요. 그러나 그분 곁을 떠나시면 슬픔은 때를 만난 듯 공의 외로움을 노리고 숨어 있다가, 쉬고 있는 공의 마음으로 조금씩 기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때도 학문에서 비워 두지 마십시오. 그럴 때야말로 그토록 오래 그토록 충실하게 사랑해 오신 문학이 공께 은혜를 갚게 하시고, 그럴 때야말로 문학이 공을 자기의 사제이자 숭배자로 되찾아 가게 하십시오. 그럴 때야말로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가 공

곁에 오래 머물게 하십시오. 그들이 인류에게 공을 세운 만큼, 공께서도 그들이 글을 지어 바친 독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알기를 바라시어 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을 세우셨습니다[5]. 그들에게 지켜 달라고 맡기신 시간은 모두 안전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공의 황제께서 이루신 업적을 힘닿는 대로 엮으십시오. 그 업적이 황실 안 사람의 입으로 대대로 전해지도록 말입니다. 역사를 다듬고 엮는 일에서 그분 자신이 공께 재료도 주시고 본보기도 되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의 재능들이 아직 손대 본 적 없는 일, 곧 짧은 이야기와 이솝 우화[6]까지 공 특유의 맵시로 엮어 보시라고 권할 엄두는 감히 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세차게 얻어맞은 마음이 그토록 빨리 이런 가벼운 학문으로 다가가기는 어렵겠지요.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 글에서 이런 느슨한 글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마음이 이미 굳세어져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증거로 여기십시오. 무거운 글에서는 마음이 아직 앓고 저 자신과 씨름하고 있더라도, 다루는 일 자체의 엄숙함이 마음을 슬픔에서 불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를 펴고 궁리해야 하는 가벼운 글은 마음이 이미 모든 면에서 제자리를 잡기 전에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무거운 소재로 마음을 단련하시고, 그다음에 가벼운 소재로 누그러뜨리셔야 합니다.

9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공께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 때문에 슬퍼하는가, 떠난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가? 나 때문이라면 애정을 내세우던 말은 무너진다. 훌륭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변명이 되던 슬픔이 제 이익을 돌아보는 순간 우애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우를 애도하면서 이해득실의 셈을 따지는 것만큼 선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은 없다.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한다면 이 둘 가운데 하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죽은 이에게 아무 느낌도 남지 않는다면, 내 아우는 삶의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태어나기 전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 어떤 악도 겪지 않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겪지 않는다. 다시는 괴로워할 일 없는 사람을 두고 내가 괴로워하기를 그치지 못하다니, 이 무슨 광기인가? 죽은 이에게 무슨 느낌이라도 남는다면, 지금 내 아우의 영혼은 오랜 감옥에서 풀려난 듯 마침내 제 주인이 되어 기뻐 뛰놀며 자연의 장관을 누리고, 인간의 일은 모두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그토록 오래 헛되이 그 이치를 찾던 신의 일은 더 가까이에서 바라본다. 그렇다면 행복하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 하나인 사람을 그리워하며 나는 왜 이리 여위어 가는가? 행복한 사람을 두고 우는 것은 시샘이요, 없는 사람을 두고 우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니면 아우님이 막 쏟아져 내리던 그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듯 보여서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우님이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시거든,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분노가 그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병이 그분을 짓누르지 않을 것이고, 의심이 그분을 들쑤시지 않을 것이고, 남이 잘되는 것을 늘 적대하며 갉아먹는 시기가 그분을 뒤쫓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이 그분을 애태우지 않을 것이고, 제 선물을 금세 남에게 옮겨 주는 운의 변덕이 그분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셈해 보시면 그분은 빼앗긴 것보다 면제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분은 재물도, 공의 위세와 자신의 위세도 누리지 못하시고, 은혜를 받지도 베풀지도 못하십니다. 그것을 잃었으니 불행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으니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운이 넉넉히 마련된 사람보다 운이 필요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돈, 지위, 권세, 그 밖에 인류의 눈먼 욕망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 숱한 것들, 그럴듯하지만 속이는 쾌락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은 애써야 지닐 수 있고 시기 속에서 남의 눈에 띕니다. 결국 그것들은 자기가 꾸며 주는 사람마저 짓누릅니다. 이롭기보다 위협이 되고,

미끄럽고 불확실해서 결코 단단히 붙잡히지 않습니다. 앞날을 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도, 큰 행운을 지키는 일 자체가 근심입니다. 진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믿고자 하신다면, 삶이란 모두 형벌입니다. 우리는 깊고 잠잠할 날 없는 이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바다는 밀물과 썰물로 오가며, 갑자기 불어나 우리를 들어 올렸다가 더 크게 덜어 내며 끌어내리고 쉴 새 없이 뒤흔듭니다. 우리는 단단한 자리에 한 번도 서지 못하고, 매달려 출렁이다가 서로 부딪치고, 때로는 난파하며,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이토록 폭풍이 잦고 온갖 풍랑에 드러난 바다를 항해하는 이들에게 죽음 말고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을 시샘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쉬고 계십니다. 마침내 자유롭고, 마침내 안전하며, 마침내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떠나신 뒤에도 황제께서는 온 자손과 함께 살아 계시고, 공께서도 다른 형제분들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운이 그분에게 베풀던 호의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전에, 운이 아직 꼿꼿이 서서 두 손 가득 선물을 쌓아 주고 있을 때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탁 트인 자유로운 하늘을 누리십니다. 낮고 움푹한 곳에서 솟구쳐, 사슬에서 풀린 영혼들을 복된 품에 받아들이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곳으로 날아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을 자유로이 거닐며 자연의 온갖 좋은 것을 더없는 즐거움으로 두루 바라보십니다. 공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우님은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맑은 빛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함께 갑니다. 그런데 왜 운명을 두고 웁니까? 그분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앞서 가셨을 뿐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죽어야 한다는 필연 그 자체에 큰 행운이 있습니다. 하루 앞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이 이토록 어둡고 감추어져 있는데, 죽음이 공의 아우님을 시샘한 것인지 보살핀 것인지 누가 알아맞히겠습니까?

10 모든 일에 공정하신 공이시니, 그런 아우를 잃으신 것은 공께 불의가 가해진 것이 아니라 그토록 오래 그분의 우애를 누리고 즐기도록 허락받은 은혜였다고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 공께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에 대한 결정을 준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사람은 불공정하고, 받은 것을 이득으로 치지 않고 돌려준 것을 손해로 치는 사람은 탐욕스럽습니다. 즐거움이 끝난 것을 불의라 부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지금 곁에 있는 좋은 것만 열매로 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나간 것에서 안식을 얻을 줄 모르고, 떠나간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떠나간 것은 끝날까 봐 두려워할 일이 없으니까요. 모든 즐거움은 흐르고 지나가며 오기도 전에 거의 다 빼앗겨 금세 우리를 떠나는데, 지금 지니고 눈앞에 보는 것만 누린다고 여기고 같은 것을 지녔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는 사람은 자기 기쁨을 너무 좁게 가둡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나간 때로 보내, 언젠가 우리를 즐겁게 했던 것을 무엇이든 되불러 와 자주 생각하며 어루만져야 합니다. 즐거움은 곁에 있을 때보다 기억 속에서 더 오래, 더 충실하게 머뭅니다. 그러니 더없이 훌륭한 아우를 두셨던 일을 가장 큰 복으로 꼽으십시오! 얼마나 더 오래 둘 수 있었을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두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자연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형제를 그리했듯이 공께도 그분을 아주 넘겨준 것이 아니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때가 되었다 싶을 때 도로 찾아갔고, 공께서 흡족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법을 따랐습니다. 누가 빌린 돈을 갚았다고 언짢아한다면, 그것도 이자 없이 쓰라고 받은 돈을 갚았다고 언짢아한다면, 불의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자연은 공의 아우님께 삶을 주었고 공께도 주었습니다. 자연이 제 권리를 써서 마음에 둔 사람에게서 빌려준 것을 조금 일찍 거두어 갔다 해도, 조건을 다 알려 둔 자연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은 자연이 무엇인지

걸핏하면 잊고 누가 일깨워 주지 않으면 제 몫을 결코 기억하지 못하는, 죽을 인간 마음의 탐욕스러운 희망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좋은 아우를 두셨던 일을 기뻐하시고, 비록 바라시던 것보다 짧았더라도 그분과 함께 지내며 누린 날들을 고맙게 여기십시오. 그런 아우를 두셨던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고, 잃으신 것은 사람의 일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아우가 너무 짧게 주어졌다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래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11 "그러나 아우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때에 빼앗겼다." 누구나 쉽게 믿는 제 마음에 속고, 아끼는 것을 두고는 그것이 죽는다는 것을 일부러 잊는 마음에 속습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도 자기 필연을 면제해 주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 두었습니다. 날마다 아는 이와 모르는 이의 장례 행렬이 우리 눈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딴 데 정신을 팔고 있다가, 평생 닥쳐온다고 일러 준 일을 느닷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러니 그것은 운명의 불공정이 아니라 무엇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 정신의 비뚤어짐입니다. 정신은 주인의 호의로 잠시 들어와 있던 곳에서 밀려나면 분개합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대한 사람다운 말을 한 사람은 얼마나 더 공정했습니까. "나는 그 애를 낳았을 때 이미 그 애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다."[7] 이런 사람에게서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난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새로운 소식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가 죽음으로 가는 길일 뿐인 인간이 죽는 것이 무엇이 새롭겠습니까? "나는 그 애를 낳았을 때 이미 그 애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는 더 큰 분별과 더 큰 기개가 담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 애를 안아 들어 길렀다." 우리는 모두 그 일을 위해 안아 들려 길러집니다. 삶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질 것을

기뻐하고,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줍시다. 운명은 누구는 이때, 누구는 저때 붙잡아 갈 뿐 아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무장한 채 서 있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은 늘 기다려야 합니다. 장군들과 장군의 자손들, 여러 번 집정관을 지내거나 개선식을 올려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이 가차 없는 운명의 몫을 다하고 떠난 일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국은 왕들과 함께 통째로, 백성은 겨레와 함께 저마다 운명을 맞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 모든 것이 마지막 날을 바라봅니다. 모두에게 같은 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누구는 한창 달리는 도중에 버리고, 누구는 막 들어서는 문턱에서 내버리고, 누구는 늙을 대로 늙어 이미 지쳐서 나가기를 바라는데도 좀처럼 놓아 주지 않습니다. 때는 저마다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곳으로 갑니다. 죽음의 법을 모르는 것이 더 어리석은지, 그 법을 거부하는 것이 더 뻔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공께서 재능을 다해 애쓰신 덕에 널리 알려진 그 시들을, 두 시인 가운데 어느 쪽 것이든 손에 들어 보십시오. 공께서는 그 시들을 풀어 옮기셨는데, 운율의 짜임은 물러났어도 그 아름다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시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원작의 모든 미덕이 낯선 말 속으로 공을 따라오게 하셨으니까요. 그 글에서 어느 권을 펼치든, 인간사의 변화무쌍함과 알 수 없는 불행과 이런저런 까닭으로 흐르는 눈물의 본보기를 숱하게 보여 주지 않는 권은 없을 것입니다. 공께서 얼마나 큰 기세로 웅장한 말을 우레처럼 울리셨는지 읽어 보십시오. 갑자기 기운을 잃고 그토록 장대한 글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부끄러워지실 것입니다. 공의 글을 본보기 삼아 감탄하던 사람이 누구든, 그토록 연약한 마음이 어떻게 그토록 웅대하고 단단한 글을 품어 냈는지 묻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12 차라리 공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에서 눈을 돌려 공을 위로하는 이 많고 큰 것들로 향하십시오. 훌륭한 아우님들을 돌아보십시오. 부인을 돌아보십시오. 아드님을 돌아보십시오. 운은 이 모든 이의 무사함을 대가로 이만큼만 떼어 가기로 공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공께서 기대어 쉬실 분이 많습니다. 슬픔 하나가 이토록 많은 위안보다 공께 더 무겁다는 소리를 모두에게 듣는 오명에서 벗어나십시오. 공께서는 그분들이 모두 공과 함께 충격을 받으신 것을 보시고, 그분들이 공을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학식과 재능이 모자랄수록 공께서 이 공동의 불행에 더 굳게 맞서셔야 합니다. 슬픔을 여럿이 나누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됩니다. 슬픔이 여러 사람에게 나뉘니 공께는 작은 몫만 남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공 앞에 황제를 모셔 오기를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제국은 무기보다 은혜로 얼마나 더 잘 지켜지는지 보여 주시는 동안, 그분이 인간사를 보살피시는 동안에는 공께서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실 염려가 없습니다. 이분 한 분 안에 공을 지켜 줄 것도, 위로해 줄 것도 넉넉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눈물이 눈에 차오를 때마다 그 눈을 황제께로 돌리십시오. 더없이 위대하고 더없이 빛나는 신성을 바라보면 눈물이 마를 것입니다. 그분의 광채가 공의 눈을 부시게 하여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분께 붙박인 채 떨어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밤낮으로 바라보시며 한 번도 마음을 떼신 적 없는 이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분을 운에 맞설 변호인으로 부르셔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사람들 모두에게 그토록 온화하고 그토록 자애로우시니, 벌써 많은 위안으로 공의 그 상처를 덮어 주시고, 공의 슬픔을 막아 줄 많은 것을 쌓아 주셨으리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이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 해도, 황제께서는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하기만

해도 그 자체로 공께 가장 큰 위안이 되시지 않습니까? 남신과 여신들께서 이분을 오래도록 이 땅에 빌려주시기를! 이분이 신격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에 이르시고, 그 햇수는 넘어서시기를! 죽을 인간들 사이에 계시는 동안 자기 집안의 누구도 죽을 운명임을 느끼지 않으시기를! 아드님이 로마 제국을 다스릴 사람임을 오랜 세월에 걸쳐 확인하시고, 아드님이 아버지의 뒤를 잇기에 앞서 아버지와 나란히 다스리는 것을 보시기를! 그분의 집안이 그분을 하늘로 모셔 가는 날은 더디 오고, 우리 손자 대에 가서야 알려지기를!

13 운이여, 이분에게서만은 손을 거두소서. 이분에게는 이롭게 하실 때 말고는 힘을 드러내지 마소서! 오래도록 병들고 시달린 인류를 이분이 고치게 해 주시고, 앞선 군주의 광기가 뒤흔들어 놓은 것을 모두 이분이 제자리로 되돌려 바로 세우게 해 주소서! 나락으로 곤두박질쳐 어둠 속에 잠겨 있던 세상에 빛을 비춘 이 별이 영원히 빛나게 하소서! 이분이 게르마니아를 평정하시고 브리타니아를 열어젖히시며, 선대의 개선식을 다시 올리시고 새 개선식도 올리시게 하소서! 그 개선식을 저도 구경하게 되리라고, 그분의 여러 덕 가운데 으뜸 자리를 차지하는 관용(clementia)이 약속해 줍니다. 그분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마음도 없이 내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던지신 적조차 없습니다. 운에 떠밀려 쓰러지는 저를 붙들어 주셨고, 곤두박질치는 저를 신성한 손길로 부드럽게 가누어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를 위해 원로원에 탄원하셨고, 제게 목숨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제 목숨을 청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8]. 그 일은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제 사건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정의가 제 사건이 옳음을 꿰뚫어 보시든, 그분의 관용이 제 사건을 옳게 만들어 주시든 말입니다. 제가 죄 없음을 아시든 죄 없기를 바라시든, 제게는 똑같이 그분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사이 제 비참함을 크게 위로해

주는 것은 그분의 연민이 온 세상을 두루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그 연민은 제가 박혀 있는 바로 이 구석에서도 여러 해 동안 폐허에 묻혀 있던 많은 사람을 파내어 빛 속으로 데려갔으니, 저 하나만 지나쳐 가리라고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언제 도와야 할지는 그분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제게 오시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폐하, 폐하의 관용은 얼마나 복된지요! 폐하의 치하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얼마 전 칼리굴라[9] 치하에서 나라의 으뜸가는 사람들이 살던 것보다 더 평온한 삶을 누립니다. 그들은 떨지 않고, 시시각각 칼을 기다리지 않으며, 배가 보일 때마다 겁에 질리지도 않습니다. 폐하 덕분에 그들은 날뛰는 운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고, 그 운이 나아지리라는 희망과 지금의 평온을 함께 얻었습니다. 벼락 맞은 사람마저 우러러 받드는 벼락이야말로 가장 정의로운 벼락임을 폐하께서는 아셔도 좋습니다.

14 그러니 만인의 위안이신 이 군주께서는, 제 생각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면, 벌써 공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토록 큰 상처에 더 큰 약을 발라 주셨을 것입니다. 벌써 온갖 길로 공을 북돋아 주셨고, 공을 마음의 평온으로 이끌 본보기를 그 놀라운 기억력으로 모두 들려주셨고, 모든 현자의 가르침을 몸에 밴 그 언변으로 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 위로하는 역할을 그분보다 잘 맡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신탁에서 내려온 듯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닐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위가 공의 슬픔이 지닌 힘을 모두 짓눌러 꺾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께서 공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이 그토록 무거운 불의를 안기려고 골라낸 사람이 자네 하나만은 아닐세. 온 세상 어느 집도 통곡 소리 없이 지금 있거나 예전에 있었던 적은 없네. 흔한 본보기는 건너뛰겠네. 그런 본보기는 더 작다 해도 셀 수 없이 많지. 자네를 나라의 연표와 연대기로 데려가겠네.

황제 집안의 안채를 가득 채운 이 조상들의 얼굴상이 모두 보이는가? 이 가운데 집안의 불행으로 이름이 나지 않은 얼굴은 하나도 없네. 시대의 자랑으로 빛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식구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지 않은 이도, 식구들이 마음을 찢으며 그리워하지 않은 이도 하나도 없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10]의 이야기를 해 무엇 하겠나? 그는 추방지에서 형제의 죽음을 전해 들었네. 형제를 감옥에서 빼내 준 그 형제도 운명에서는 빼낼 수 없었지. 아프리카누스의 우애가 공정한 법마저 얼마나 참지 못했는지는 모두가 보았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관리의 손에서 형제를 낚아챈 바로 그날, 한낱 사인의 몸으로 호민관에게까지 맞서 그 조치를 가로막았으니 말일세. 그래도 그는 형제를 지켜 냈을 때와 똑같이 큰마음으로 형제를 그리워했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11]의 이야기를 해 무엇 하겠나? 그는 거의 같은 때에 아버지의 개선식과 두 아우의 장례를 지켜보았네. 아직 앳된 젊은이, 거의 소년이었는데도, 그는 파울루스의 개선식 바로 그 위로 집안이 무너져 내린 그 갑작스러운 황폐를 견뎠네. 로마에 스키피오가 끊이지 않고 카르타고는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했을 만큼 큰 기개로 말일세."

15 "두 루쿨루스[12]의 우애가 죽음으로 갈라진 이야기를 해 무엇 하겠나? 폼페이우스 집안'[13] 이야기는 또 무엇 하겠나? 날뛰는 운은 그들에게 한꺼번에 같은 파멸로 쓰러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네.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는 먼저 누이를 떠나보냈네. 그 누이가 죽자 그토록 단단히 묶여 있던 로마의 평화가 풀려 버렸지. 그는 또 훌륭한 형도 떠나보냈네. 운이 그 형을 높이 들어 올린 것은 아버지를 내던진 만큼 높은 데서 그를 내던지려는 것이었지. 그런데도 이 불행을 겪은 뒤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는 슬픔을 감당해 냈을 뿐 아니라 전쟁까지 감당해 냈네. 죽음으로 갈라진 형제의 본보기는 사방에서 셀 수 없이 떠오르네.

아니, 오히려 형제 한 쌍이 함께 늙어 가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지. 그러나 나는 우리 집안의 본보기로 만족하겠네. 운이 황제들의 눈물마저 탐냈다는 것을 안다면, 운이 누구에게 슬픔을 안겼다고 불평할 만큼 분별없고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걸세. 신격 아우구스투스는 더없이 아끼던 누이 옥타비아를 잃었네. 자연은 하늘을 마련해 둔 그 사람에게서조차 애도해야 하는 필연을 거두어 주지 않았지. 아니, 그는 온갖 사별에 시달렸네. 자기 뒤를 잇도록 준비해 둔 누이의 아들[14]도 잃었지. 그의 슬픔을 하나하나 세지 않더라도, 그는 사위들도 자식들도 손자들도 잃었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동안 자기가 사람임을 그만큼 뼈저리게 느낀 이는 죽을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었네. 그래도 무엇이든 품을 수 있던 그의 가슴은 그 많고 큰 슬픔을 다 받아들였고, 신격 아우구스투스는 바깥 민족들뿐 아니라 슬픔까지 이긴 승리자가 되었네. 내 어머니의 외삼촌 신격 아우구스투스의 손자 가이우스 카이사르[15]는 갓 청년이 되었을 무렵 파르티아 전쟁을 준비하던 중에 더없이 아끼던 아우 루키우스를 잃었네. 청년의 제일인자가 같은 청년의 제일인자를 잃은 것이지. 그는 뒷날 몸에 입은 상처보다 훨씬 무거운 상처를 그때 마음에 입었지만, 그 둘을 모두 더없이 정 깊게, 또 더없이 용감하게 견뎠네. 내 숙부인 황제[16]는 자기 아우이자 내 아버지인 드루수스 게르마니쿠스를 품에 안고 입 맞추며 잃었네. 내 아버지는 게르마니아의 깊숙한 곳을 열어젖히고 더없이 사나운 민족들을 로마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던 참이었지. 그래도 숙부는 자신뿐 아니라 남들의 애도에도 절도를 지키게 했네. 슬퍼할 뿐 아니라 넋이 나가서 저희 드루수스의 시신은 저희가 모셔야 한다고 나선 온 군대를 로마의 애도 법도로 되돌려 놓았지. 군대에서 지켜야 할 것은 싸우는 규율만이 아니라 슬퍼하는 규율이기도 하다고 판단한 걸세. 자기 눈물을 먼저 누르지 않았다면 남의 눈물을 다스리지 못했을 걸세."

16 "내 할아버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이긴 사람 말고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네. 그가 국가를 바로 세우던 때, 삼두의 권력을 쥐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두 동료를 빼면 모든 것이 자기 아래에 있다고 보던 바로 그때, 아우가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네[17]. 고삐 풀린 운아, 너는 인간의 불행을 가지고 혼자 무슨 놀음을 벌이느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자기 시민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자리에 앉아 있던 바로 그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아우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니! 그래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다른 모든 역경을 견딜 때와 같은 도량으로 이 비통한 상처를 견뎠네. 그에게 애도란 스무 개 군단의 피로 아우의 넋을 기리는 것이었지. 그러나 다른 본보기는 모두 건너뛰고, 나 자신이 겪은 다른 장례도 입에 올리지 않겠네. 운은 두 번이나 형제를 잃는 슬픔으로 나를 덮쳤고, 두 번 다 내가 상처는 입어도 꺾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네. 나는 형 게르마니쿠스를 잃었네. 정 깊은 형제가 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틀림없이 알 걸세. 그래도 나는 내 정을 다스려, 좋은 아우에게 마땅히 요구될 일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군주로서 비난받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네."

그러니 만백성의 아버지께서 공께 이런 본보기를 들려주시며, 운에게는 신성한 것도 손대지 못할 것도 하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운은 장차 신들을 찾아 데려갈 바로 그 집안에서 감히 장례 행렬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 운이 무엇을 잔인하게 하든 불공정하게 하든 누구도 놀라지 마십시오. 달랠 길 없는 포악함으로 신들의 자리마저 그토록 자주 장례로 더럽힌 운이, 평범한 집안을 상대로 무슨 공평함이나 절제를 알겠습니까? 우리 입으로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입으로 운을 꾸짖는다 해도 운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하소연을 물리치고 제 뜻대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운은 인간사에서 늘 이러했고 앞으로도 이러할 것입니다. 감히 하지 못한 일을 남긴 적이 없고, 손대지 않은 것을 남겨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늘 그래 왔듯 더욱 난폭하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입니다. 신전을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집에도 감히 해를 끼치러 들어가, 월계수로 꾸민 문에 검은 상복을 입힐 것입니다. 운이 아직 인류를 없애 버리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아직 로마의 이름을 너그러이 돌아보고 있다면, 나라의 기원과 기도로 이것 하나만은 얻어 냅시다. 무너진 인간사에 내려 주신 이 군주께서 모든 인간에게 그러하듯 운에게도 신성한 분이 되시기를! 운이 그분에게서 관용을 배우고, 모든 군주 가운데 가장 온화하신 그분께만은 온화해지기를!

17 그러니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분들, 하늘에 받아들여졌거나 하늘에 가장 가까운 분들을 모두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분들에게서도 손을 거두지 않는 운이 공께도 손을 뻗을 때 평온한 마음으로 견디셔야 합니다. 슬픔을 견디고 이겨 내는 그분들의 굳건함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에게 신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 허락되는 데까지 말입니다. 다른 일에서는 지위와 가문의 차이가 크다 해도, 덕은 모두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덕은 자신을 덕에 걸맞다고 여기는 사람이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공께서는 그분들을 가장 잘 본받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이 불행을 비켜 가지 못한 것에 분개할 수도 있었지만, 이 한 가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을 불의가 아니라 죽을 존재의 법으로 판단했고, 닥친 일을 너무 쓰라리고 거칠게도, 나약하고 아녀자처럼도 견디지 않았습니다. 자기 불행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견디지 못하는 것은 사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운이 형제와 누이를 빼앗아 간 황제들을 두루 살펴본 마당에, 이 사람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황제의 반열에서 도려내야 마땅한 사람, 자연이 인류를 파멸시키고

욕보이려고 내놓은 사람, 그가 불태우고 송두리째 뒤엎은 제국을 지금 더없이 온화하신 군주의 관용이 되살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누이 드루실라[18]를 잃었을 때,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슬퍼하는 것도 군주답게 할 줄 몰랐던 그 인간 칼리굴라는 시민들의 눈길과 만남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누이의 장례에 오지도 않았고, 누이에게 마땅한 예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알바의 별장에서 주사위와 놀이판과 그런 흔해 빠진 소일거리로 그 쓰라린 죽음의 아픔을 덜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수치여! 누이를 애도하는 로마 군주의 위안이 주사위 노름이었다니! 바로 그 칼리굴라는 미친 듯이 변덕을 부려, 수염과 머리를 길렀다 깎았다 하며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해안을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누이를 애도받게 하고 싶은지 숭배받게 하고 싶은지 끝내 정하지 못했고, 누이에게 신전과 신의 자리를 세워 주던 바로 그 무렵 내내 충분히 슬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없이 잔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순조로운 일에 우쭐해 인간의 분수를 넘어 부풀어 오를 때와 똑같이 절제 없는 마음으로 불행의 타격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본보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때에 맞지 않는 놀이로 슬픔을 딴 데로 돌리거나, 꾀죄죄하고 지저분한 몰골로 슬픔을 부추기거나, 남의 불행을 즐기는 더없이 비인간적인 위안으로 슬픔을 달래는 짓 말입니다.

18 공께서는 평소의 습관을 하나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께서 사랑하기로 정하신 학문은 행운을 가장 훌륭하게 드높이고 재앙을 가장 쉽게 덜어 주며, 사람에게 가장 큰 꾸밈이자 가장 큰 위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학문 속으로 더 깊이 잠기십시오. 이제 학문을 마음의 성벽처럼 두르시어, 슬픔이 공의 어느 쪽에서도 들어올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우님에 대한 기억도 공의 글로 기념비를 세워 길이 남기십시오. 인간사에서 어떤 폭풍도 해칠 수 없고 어떤 세월도

갉아먹을 수 없는 작품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 밖에 돌을 쌓아 올리고 대리석을 무더기로 세우거나 흙무덤을 높다랗게 쌓아 이루어진 것들은 오래 이어 가지 못합니다. 그것들 자체도 사라지니까요. 죽지 않는 것은 재능이 남긴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아우님께 아낌없이 베푸시고, 그 안에 아우님을 모셔 두십시오. 헛된 슬픔으로 애도하시기보다 영원히 남을 재능으로 기리시는 편이 아우님께 더 낫습니다. 운에 대해 말하자면, 운이 무언가를 빼앗았다는 바로 그 이유로 운이 우리에게 준 것까지 모두 미워 보이니 지금은 공 앞에서 운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공을 운에게 좀 더 공정한 재판관으로 만들어 드리면 그때는 변호해야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공께서도 운과 화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은 이 불의를 바로잡을 많은 것을 미리 마련해 두었고, 이를 갚을 많은 것을 앞으로도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운이 빼앗아 간 바로 그것도 애초에 운이 공께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공의 재능을 공 자신에게 맞서 쓰지 마십시오. 공의 슬픔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공의 웅변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믿게 할 수도, 거꾸로 큰 것을 깎아 아주 작은 것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 그 힘은 다른 데 쓰도록 아껴 두시고 지금은 웅변이 온 힘을 다해 공을 위로하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것마저 이미 쓸데없는 일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얼마간을 요구하지만, 허영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끌어모읍니다. 그렇다고 공께 조금도 슬퍼하지 마시라고 요구할 생각은 제게 결코 없습니다. 현자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분별이 굳세다기보다 딱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이런 불행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겪어 보았다면 운이 그들의 오만한 지혜를 털어 내고, 싫어도 진실을 털어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성은 슬픔 가운데 남아돌고 넘치는 것만 잘라 내도 할 몫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이성이 슬픔을 아예 없애 주리라는

것은 누구도 바랄 수 없고 바라서도 안 됩니다. 이성은 차라리 이런 절도를 지켜야 합니다. 정 없는 것을 흉내 내지도 미친 것을 흉내 내지도 않으며, 정 깊되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자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절도 말입니다. 눈물은 흐르되 그치기도 하고, 신음은 가슴 깊은 데서 끌려 나오되 끝나기도 해야 합니다. 현자들에게도 아우님들에게도 인정받으실 수 있게 공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아우님에 대한 기억이 자주 떠오르기를 스스로 바라시게 하고, 이야기 속에서 아우님을 기리시고 끊임없는 회상으로 눈앞에 되살리십시오. 아우님에 대한 기억을 눈물겨운 것보다 즐거운 것으로 만드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은 돌아갈 때마다 슬퍼지는 곳에서 늘 달아나기 마련이니까요. 아우님의 겸손을 생각하십시오. 일을 꾀할 때의 슬기, 일을 해낼 때의 근면, 약속을 지킬 때의 한결같음을 생각하십시오. 아우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모두 남들에게도 들려주시고 공 자신에게도 되새기십시오. 아우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또 어떤 분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런 아우님이라면 무엇인들 안심하고 장담할 수 없었겠습니까?

이 글은 오랜 방치로 이미 녹슬고 무디어진 마음으로 제 힘닿는 데까지 겨우 엮은 것입니다. 이 글이 공의 재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의 슬픔을 제대로 낫게 해 드리지 못하는 듯 보이거든, 감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불행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위로할 겨를을 내기 어렵고, 야만인들의 거칠고 어지러운 소음, 조금 나은 야만인들조차 듣기 괴로워할 그 소음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사람에게는 라틴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

1. 앞부분이 전하지 않는다. 남은 첫 문장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이 우리 삶에 견주면 단단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2. 카르타고와 코린트는 기원전 146년, 누만티아는 기원전 133년에 로마군에게 함락되어 허물어졌다.

3. 이 글에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재위 41~54)다. 원문은 「카이사르」.

4.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해방 노예. 황제의 학문 담당 비서로 큰 권세를 누렸다. 41년부터 코르시카에 추방되어 있던 세네카가 그의 아우가 죽자 이 위로문을 써 보냈다.

5. 폴리비우스는 호메로스를 라틴어로, 베르길리우스를 그리스어로 풀어 옮겼다고 한다(11장).

6. 세네카는 로마인이 이솝 우화에 아직 손대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우구스투스의 해방 노예 파이드루스가 이미 라틴어 운문 우화집을 냈다. 세네카가 몰랐거나 셈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엔니우스의 비극에서 아이아스의 아버지 텔라몬이 하는 말이다(키케로 『투스쿨룸 대화』 3.28). 키케로는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비슷한 말을 한 사람으로 아낙사고라스도 든다(3.30). 「안아 들어 길렀다」(sustuli)는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땅에서 들어 올려 제 자식으로 받아들이던 로마의 관습에서 나온 말이다.

8. 세네카는 41년 칼리굴라의 누이 율리아 리빌라와 간통했다는 죄로 원로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클라우디우스가 나서서 코르시카 추방으로 그쳤다.

9. 황제 칼리굴라(재위 37~41). 원문은 「가이우스」. 바로 앞 문단의 「앞선 군주의 광기」도 그를 가리킨다.

10. 대(大)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기원전 236~기원전 183). 형제 루키우스 스키피오가 공금 문제로 벌금을 물고 끌려가게 되자 관리의 손에서 그를 빼냈다고 전한다. 만년에는 정적들에게 밀려 리테르눔으로 물러나 살았다.

11.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기원전 185~기원전 129).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의 아들로 스키피오 집안에 양자로 들었다. 기원전 167년 아버지가 마케도니아 왕 페르세우스를 꺾고 개선식을 올릴 무렵, 집에 남은 두 아우가 개선식 닷새 전과 사흘 뒤에 잇따라 죽었다. 뒷날 카르타고를 무너뜨렸다.

12. 루키우스 리키니우스 루쿨루스(기원전 118 무렵~기원전 56)와 그 아우 마르쿠스. 우애가 깊기로 이름났다.

13. 폼페이우스의 아들들. 큰아들 그나이우스는 기원전 45년 문다에서 카이사르에게 지고 죽었고, 작은아들 섹스투스는 시칠리아를 근거로 버티다 기원전 35년 죽었다. 「누이」라 했지만, 그 죽음으로 로마의 평화가 깨진 사람은 카이사르의 딸이자 폼페이우스의 아내 율리아(기원전 54년 사망)다. 세네카의 착오이거나 원문이 잘못 전한 것으로 본다.

14. 옥타비아의 아들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와 혼인해 후계자로 여겨졌으나 기원전 23년 스무 살이 못 되어 죽었다.

15. 아우구스투스의 외손자이자 양자인 가이우스 카이사르(기원전 20~기원후 4). 칼리굴라와 다른 사람이다. 아우 루키우스는 2년 마실리아에서 병으로 죽었고, 가이우스는 아르메니아에서 입은 상처로 4년에 죽었다. 「청년의 제일인자」는 아우구스투스가 두 손자에게 준 칭호다.

16. 티베리우스. 기원전 9년 아우 드루수스가 게르마니아에서 말에서 떨어져 죽어 갈 때 서둘러 달려가 임종을 지켰고, 로마까지 시신 앞을 걸어서 운구했다.

17. 클라우디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의 딸이다. 안토니우스의 아우 가이우스 안토니우스는 마케도니아에서 브루투스에게 사로잡혔다가 기원전 42년 처형되었고, 안토니우스는 같은 해 필리피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꺾었다.

18. 칼리굴라의 누이(16~38). 드루실라가 죽자 칼리굴라는 그를 신으로 모시게 했다.

어머니 헬비아에게 보내는 위로

1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벌써 여러 번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려고 나섰다가 여러 번 마음을 눌러 접었습니다. 감히 해 보라고 저를 떠미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눈물을 그치게 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잠시나마 닦아 드릴 수 있다면 제가 겪는 괴로움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제가 먼저 일어선다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울 힘이 더 생기리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진 운이 제 식구 가운데 누군가를 대신 이기려 들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상처를 한 손으로 누른 채 어떻게든 기어가서라도 어머니와 식구들의 상처를 싸매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뜻을 다시 붙드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이 아직 생생하게 날뛰는 동안에는 위로의 말이 도리어 슬픔을 건드려 불을 지필 수 있으니, 섣불리 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병을 다룰 때도 때 이른 약만큼 해로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슬픔이 제풀에 기운이 꺾이고, 시간이 흐르며 누그러져, 약을 받아들이고 손을 대어 매만져도 될 만큼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이름난 천재들이 슬픔을 달래고 다스리려고 써 둔 글을 모조리 펼쳐 보았지만, 자기가 식구들에게 애도를 받는 처지이면서 오히려 그 식구들을 위로한 사람의 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전례 없는 일 앞에서 저는 머뭇거렸고, 이 글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더구나 자기 화장 장작더미 위에서 고개를

들어 식구들을 위로하려는 사람이라면, 흔하고 일상적인 위로의 말에서 빌려 오지 않은 새로운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도를 넘어선 큰 슬픔은 말을 고를 여유마저 빼앗기 마련입니다. 목소리마저 막아 버릴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제 재주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바로 저이니, 저 자신이 가장 효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무엇 하나 거절하신 적 없는 어머니시니, 모든 비탄이 고집스럽기는 하지만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머니의 그리움에 제가 끝을 정해 드리는 일 말입니다.

2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너그러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슬픔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힘센 것이지만, 어머니께는 제가 어머니의 슬픔보다 더 힘이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슬픔과 맞붙지 않고, 먼저 슬픔 편에 서서 슬픔을 북돋울 것들을 들이밀겠습니다. 이미 아문 상처까지 모두 꺼내 다시 헤집어 놓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잊힌 불행을 다시 불러내고, 불행 하나도 겨우 견디는 마음을 제가 겪은 온갖 고난 앞에 세워 놓다니, 이것이 무슨 위로인가?" 그러나 그 사람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약을 이겨 낼 만큼 독해진 병은 대개 거꾸로 된 약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마음 앞에 어머니가 겪은 온갖 애도와 온갖 상복을 갖다 대겠습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다독이는 치료가 아니라 지지고 째는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겠느냐고요? 그토록 많은 불행을 이겨 낸 마음이, 흉터투성이인 몸에 난 상처 하나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랜 행운에 무르고 여린 마음이 힘을 잃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울고 탄식하게 두십시오. 아주 가벼운 해가 건드려도 무너지게 두십시오. 그러나 평생을 재앙 속에 보낸 사람이라면 가장

무거운 일도 굳세고 흔들림 없는 의연함(constantia)으로 견뎌야 합니다. 끊이지 않는 불운에도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늘 괴롭히는 사람을 마침내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운은 어머니께 가장 무거운 슬픔에서 쉴 틈을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어머니가 태어나신 날조차 비켜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아니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친어머니를 여의셨고, 말하자면 버려진 채 삶에 내놓이셨습니다. 어머니는 계모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딸에게서도 보기 드문 온갖 순종과 효성으로 그 계모를 기어이 어머니로 만드셨지만, 좋은 계모라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더없이 다정하시고 훌륭하고 용감하셨던 외삼촌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중에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운은 잔인함을 나누어 덜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듯, 서른 날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세 자식을 낳아 드린 사랑하는 남편을 묻게 했습니다. 애도하시는 어머니께 또 다른 애도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때 자식들은 하나같이 곁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이 기댈 곳이 하나도 없도록 일부러 그때에 불행을 몰아넣은 듯했습니다. 어머니를 쉴 새 없이 덮친 그 숱한 위험과 그 숱한 두려움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어머니는 손자 셋을 품에서 떠나보냈던 바로 그 품에 손자 셋의 뼈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 안에서, 어머니의 입맞춤 속에서 숨진 제 아들을 묻으신 지 스무 날이 채 안 되어, 제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1]. 어머니께 아직 없던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산 사람을 두고 애도하는 일 말입니다.

3 어머니의 몸에 내려앉은 상처 가운데 이번의 새 상처가 가장 무겁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살갗 겉만 찢은 것이 아니라 가슴과 속까지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신병은 조금만 다쳐도 소리를 지르고 칼보다 의사의 손을 더 무서워하지만, 노련한 병사는 몸이 깊이

꿰뚫려도 남의 몸인 양 신음 한 번 없이 고름을 짜내게 두듯이, 어머니도 이제는 굳세게 치료에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울부짖음과 통곡과, 여자의 슬픔이 흔히 소란을 피우는 그 밖의 짓들은 치우십시오. 아직도 불행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다면 그 많은 불행을 헛되이 겪으신 셈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겁 없이 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불행 가운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쌓아 올려 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4 저는 담대하게 그리했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을 둘러 가지 않고 이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저는 이렇게 이길 것입니다. 먼저, 제가 남에게 불행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은 하나도 겪고 있지 않으며, 하물며 제 가까운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만한 일은 더욱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머니께로 넘어가, 온통 제 처지에 매달린 어머니의 처지 또한 무겁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효심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부터 다루겠습니다. 저에게는 나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께서 저를 짓누른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일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없다 해도, 사람들을 흔히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 속에서 제가 행복하다면 저는 저 자신이 더 마음에 들 것입니다. 저에 관해서는 남의 말을 믿으실 까닭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소문에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근심 없으시도록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불행해질 수조차 없습니다.

5 우리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조건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자연은 잘 사는 데 큰 채비가 필요 없도록 해 두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들은 무게가 가볍고, 어느 쪽으로든 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현자를 들뜨게 하지도 않고 나쁜 일이 현자를 주저앉히지도 않습니다. 현자는 늘 가장 많은 것을 자기 안에 두고, 모든 기쁨을 자기에게서 구하려고 애써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제가 현자라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세울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불행하지 않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보다 운 좋은 사람이며 신 가까이 이른 사람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모든 불행을 누그러뜨리기에 넉넉한 일을 했습니다. 현자들에게 저를 맡긴 것입니다. 아직 제 힘으로 저를 지킬 만큼 굳세지 못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사람들을 쉽게 지켜 내는 이들의 진영으로, 남의 진영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초소에 배치된 병사처럼 늘 서 있으라고, 운이 꾀하는 일과 운의 기습을 그것이 들이닥치기 훨씬 전에 내다보라고 일렀습니다. 운은 갑자기 당하는 사람에게나 무겁고, 늘 기다리는 사람은 쉽게 견딥니다. 적의 습격도 방심한 사람을 덮칠 때 쓰러뜨리는 법이고, 전쟁이 나기 전에 다가올 전쟁을 채비해 둔 사람들은 대열을 갖추고 무장한 채 가장 요란한 첫 일격을 쉽게 받아 냅니다. 저는 운이 평화를 지키는 듯 보일 때에도 운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운이 더없이 너그럽게 저에게 베풀어 준 것들, 돈과 관직과 세력은 모두 운이 저를 흔들지 않고도 도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그것들과 저 사이에 넓은 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운은 그것들을 가져갔을 뿐 뜯어 가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운에 속은 사람이 아니면 나쁜 운에 짓밟히지 않습니다. 운의 선물을 영원한 제 것인 양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러름을 받고 싶어 한 사람들은, 헛되고 거짓된 그 노리개들이 온갖 단단한 즐거움을 모르는 헛되고 어린애 같은 마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때 쓰러져 비탄에 잠깁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우쭐하지 않은 사람은 일이 바뀌어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미

굳건함을 시험받은 그 사람은 두 처지 어느 쪽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지킵니다. 행운 속에 있을 때 이미 무엇이 불운에 맞서 힘을 쓰는지 겪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바라는 것들에 참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늘 생각해 왔고, 그것들을 들여다보니 속은 비고 그럴싸하게 속이는 칠만 덧바른 채 안에는 겉모습과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쁜 일이라고 불리는 것들 속에서도 저는 뭇사람의 생각이 을러대던 만큼 무섭고 가혹한 것을 찾지 못합니다. 하기야 그 낱말부터가 무슨 믿음과 합의 같은 것 때문에 귀에 더 거칠게 들리고, 듣는 사람을 무슨 슬프고 저주받은 것처럼 칩니다. 인민이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그러나 인민의 결의를 현자들은 대부분 폐지합니다.

6 그러니 겉모습만 보고 그럴듯하면 믿어 버리는 뭇사람의 판단은 치워 두고, 추방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추방이란 곧 사는 곳을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추방의 힘을 깎아내리고 그 안의 가장 나쁜 것을 빼놓는다고 보이지 않도록 말씀드리자면, 사는 곳을 바꾸는 이 일에는 가난과 치욕과 멸시라는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것들과는 나중에 맞붙겠습니다. 우선은 사는 곳을 바꾸는 일 자체가 무엇이 그리 쓰라린지부터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국을 잃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자, 이 엄청난 도시의 지붕들도 겨우 감당할 만큼 북적이는 이 무리를 보십시오. 그 무리의 대부분은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치 도시와 식민 도시에서, 아니 온 세상에서 이리로 흘러들었습니다. 누구는 야망에 끌려왔고, 누구는 공무가 불러서 왔고, 누구는 사절로 보내져서 왔고, 누구는 악덕을 채우기에 알맞고 넉넉한 곳을 찾는 사치 때문에 왔고, 누구는 학문을 배우고 싶어서 왔고, 누구는 구경거리 때문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우정에 끌려왔고, 어떤 이는 덕을 펼쳐 보일 넓은 마당을 찾은

부지런함에 끌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팔 수 있는 미모를 들고 왔고, 어떤 이는 팔 수 있는 웅변을 들고 왔습니다. 덕에도 악덕에도 큰 값을 매기는 이 도시로 몰려들지 않은 부류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이름으로 불러내어 저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하십시오. 대부분이 제 터전을 버리고, 더없이 크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자기 것은 아닌 도시로 왔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모두의 도시라 할 만한 이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들을 두루 돌아보십시오. 낯선 땅에서 온 무리가 큰 몫을 차지하지 않은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리가 아름답고 땅이 알맞아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곳들은 지나쳐, 황량한 곳과 더없이 거친 섬들, 스키아토스섬과 세리포스섬, 기아로스섬과 코수라섬[2]을 살펴보십시오. 누군가 제 마음이 좋아서 머물지 않는 추방지는 하나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 바위섬보다 더 헐벗고, 사방이 더 깎아지른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거리를 보면 이보다 더 메마른 곳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면 이보다 더 사나운 곳이, 땅의 생김새를 보면 이보다 더 험한 곳이, 날씨를 보면 이보다 더 고르지 못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는 토박이보다 다른 데서 온 사람이 더 많이 삽니다. 사는 곳을 바꾸는 일 자체는 이곳조차 몇몇 사람을 조국에서 끌어올 만큼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사는 곳을 바꾸고 거처를 옮기고 싶어 하는 타고난 들썩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정신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가만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며,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모든 것으로 생각을 내보냅니다. 떠돌기를 좋아하고 쉬기를 못 견디며, 새로운 것을 무엇보다 반깁니다. 정신이 처음 어디서 왔는지 보시면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신은 땅에 속한 무거운 몸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들의 본성은 늘 움직이며,

달아나고, 더없이 빠르게 내달립니다. 우주를 비추는 별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멈추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는 쉬지 않고 미끄러져 가며 자리에서 자리로 옮기고, 우주와 함께 돌면서도 우주와는 거꾸로 움직여 황도의 모든 자리를 두루 지나며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모든 것은 늘 돌고 늘 지나가는 중입니다. 법과 자연의 필연이 정한 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가고, 정해진 햇수 동안 제 궤도를 다 돌고 나면 왔던 길을 다시 갑니다. 그러니 이제 가서, 신적인 것들을 이루는 바로 그 씨앗으로 지어진 사람의 마음이 옮겨 가고 떠도는 것을 언짢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재빠르게 바뀌는 데서 즐거움을 얻거나 그렇게 해서 제 몸을 지키는데도 말입니다.

7 자, 이제 하늘의 것들에서 사람의 일로 눈을 돌려 보십시오. 민족들과 백성들이 통째로 사는 곳을 바꾼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야만인들의 땅 한가운데에 그리스 도시들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인도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에서 마케도니아 말이 들리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스키타이와, 사납고 길들지 않은 민족들이 사는 그 넓은 땅이 흑해 연안에 들어선 아카이아의 도시들을 내보입니다. 끝없는 겨울의 혹독함도, 제 하늘을 닮아 거친 사람들의 기질도 집을 옮겨 오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에는 아테네 사람들이 무리 지어 살고, 밀레토스는 일흔다섯 도시를 채울 만한 백성을 사방으로 쏟아 냈습니다. 아래쪽 바다에 씻기는 이탈리아 해안은 통째로 대(大) 그리스였습니다. 아시아는 에트루리아인을 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티레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카르타고인은 히스파니아에 삽니다. 그리스인은 갈리아로 밀고 들어갔고, 갈리아인은 그리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피레네산맥도 게르만족이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길 없는 곳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사람의 들뜬 마음은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자식과 아내와 늙어 몸이 무거운 부모를 끌고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 떠돌며 시달리다 판단해서 고른 것이 아니라 지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고, 어떤 이들은 무기로 남의 땅에 제 권리를 세웠습니다. 어떤 민족은 모르는 땅을 찾아가다 바다에 삼켜졌고, 어떤 민족은 온갖 것이 모자라 더 갈 수 없게 된 바로 그곳에 눌러앉았습니다. 조국을 떠나 새 조국을 찾은 까닭도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는 적의 무기에 도시가 무너져 겨우 빠져나와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채 남의 땅으로 쫓겨났고, 누구는 집안싸움에 밀려났고, 누구는 사람이 넘치도록 불어나 짐을 덜려고 내보내졌고, 누구는 역병이나 잦은 지진이나 그 밖에 메마른 땅의 견딜 수 없는 흠 때문에 내쫓겼고, 어떤 이들은 기름지다고 부풀려 칭찬하는 땅의 소문에 홀렸습니다. 저마다 다른 까닭이 사람들을 집에서 불러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태어난 자리에 그대로 머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쉬지 않고 이리저리 내닫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날마다 무언가가 바뀝니다. 새 도시의 주춧돌이 놓이고, 앞선 민족들이 사라지거나 더 강한 민족에게 흡수되면서 새 민족의 이름이 생겨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통째로 옮겨 가는 것이 나라 전체가 당하는 추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를 이토록 멀리 돌려 끌고 다닐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파타비움(오늘날의 파도바)을 세운 안테노르와, 테베레강 기슭에 아르카디아 사람들의 왕국을 세운 에우안드로스를 하나하나 늘어놓아 무엇 하겠습니까? 디오메데스와, 트로이 전쟁이 이긴 자도 진 자도 함께 낯선 땅으로 흩어 놓은 다른 이들을 늘어놓아 무엇 하겠습니까? 로마 제국도 그 창건자로 추방된 사람을 돌아봅니다[3]. 조국이 함락되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달아나, 필요와 승자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 먼 땅을 찾다가 이탈리아에 닿은 사람입니다. 그 뒤로 이 백성은 얼마나 많은 식민시를 모든 속주로

보냈습니까! 로마인은 이긴 곳이면 어디서든 삽니다. 사는 곳을 이렇게 바꾸는 일에 사람들은 기꺼이 이름을 올렸고, 늙은이도 제 제단을 버리고 바다 건너 정착민들을 따라갔습니다. 이 일은 더 많이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눈앞에 들이닥치는 것 하나만은 덧붙이겠습니다. 바로 이 섬도 벌써 여러 번 사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덮어 버린 더 오랜 일은 넘어가더라도, 포키스를 떠나 지금 마실리아에 사는 그리스인들[4]이 먼저 이 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을 이 섬에서 떠나게 한 것이 무거운 날씨였는지,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힘센 이탈리아였는지, 항구 하나 없는 바다의 생김새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사나워서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때 더없이 거칠고 다스려지지 않던 갈리아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그 뒤로 리구리아인이 이 섬으로 건너왔고, 히스파니아인도 건너왔습니다. 풍습이 닮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칸타브리아인과 같은 머리쓰개와 같은 신발을 쓰고, 몇몇 낱말도 같습니다. 말 전체는 그리스인과 리구리아인과 섞여 지내며 조상의 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뒤에 로마 시민의 식민시 둘이 들어섰는데, 하나는 마리우스가, 하나는 술라가 세웠습니다. 이 메마르고 가시덤불 무성한 바위섬의 주민은 이토록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요컨대 지금도 토박이가 사는 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섞였고 다른 데서 옮겨 심은 것들입니다. 한 무리가 다른 무리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 무리는 저 무리가 싫증 낸 것을 탐냈고, 저 무리는 남을 쫓아낸 곳에서 다시 쫓겨났습니다. 운명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것의 운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로 말입니다.

8 추방에 따르는 다른 불편은 빼고 사는 곳을 바꾸는 일 자체에 맞서는 약으로는, 로마인 가운데 가장 박식한 바로는 이것이면

넉넉하다고 봅니다. 어디로 가든 같은 자연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브루투스[5]는 추방되어 떠나는 사람도 제 덕을 지니고 갈 수 있다는 것이면 넉넉하다고 봅니다. 누가 이 둘을 하나씩 떼어 보고는 추방된 사람을 위로하기에 모자란다고 판단하더라도, 둘을 하나로 모으면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는 것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는 우리가 어디로 옮겨 가든 따라올 것입니다. 모두에게 같은 자연과 저마다의 덕 말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우주를 빚은 이가 누구든,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든, 거대한 작품을 지어낸 몸 없는 이성이든,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까지 고르게 힘을 뻗치며 모든 것에 스며든 신성한 숨이든, 운명, 곧 서로 맞물린 원인들이 바뀌지 않고 이어지는 사슬이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는 가장 하찮은 것들 말고는 무엇도 남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두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서,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자연이 낳은 것 가운데 이보다 크고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 우주와, 우주를 바라보고 우러르는, 우주의 가장 빛나는 부분인 마음은 우리 것이며 영원하고, 우리가 남아 있는 한 우리와 함께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운차게 허리를 펴고, 일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두려움 없는 걸음으로 서둘러 가서 어느 땅이든 끝까지 밟아 봅시다. 우주 안에서는 어떤 추방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사람에게 낯선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하늘로 올려다보는 눈길은 똑같고, 신적인 것은 모두 사람의 것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 눈이 아무리 보아도 물리지 않는 저 구경거리에서 떼어 놓이지만 않는다면, 해와 달을 바라보고 다른 별들에 눈을 붙박을 수 있다면, 별들이 뜨고 지는 것과 그 간격과 어떤 별은 빠르고 어떤 별은 느리게 가는 까닭을 캐물을 수 있다면, 밤새 반짝이는 그 많은 별을, 어떤 것은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것은 멀리 나가지 않고 제 발자국 안에서 맴돌며 어떤 것은 갑자기 터져 나오고 어떤 것은 불을 쏟으며 떨어지는 듯 눈을 부시게 하고 어떤 것은 긴 꼬리를 끌며 환한 빛으로 날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람에게 허락된 만큼 그것들과 함께 있으며 하늘의 것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제 핏줄인 것들을 바라보려는 마음을 늘 높은 곳에 둘 수 있다면, 제가 밟는 땅이 어디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9 "그러나 이 땅은 열매 맺는 나무도, 보기 좋은 나무도 자라지 않는다. 크고 배가 다닐 만한 강줄기가 적셔 주지도 않는다. 다른 민족들이 찾는 것은 아무것도 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먹을 것도 겨우 낸다. 여기서는 값진 돌을 캐지도 않고 금맥이나 은맥을 파내지도 않는다." 땅의 것에 즐거워하는 마음은 좁은 마음입니다. 어디서나 똑같이 드러나고 어디서나 똑같이 빛나는 것들로 마음을 데려가야 합니다. 또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땅의 것들은 거짓되고 그릇되게 믿은 탓에 참된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랑을 길게 늘일수록, 탑을 높이 세울수록, 동네를 넓게 펼칠수록, 여름 피서용 동굴을 깊이 팔수록, 연회장 지붕을 더 큰 덩어리로 올릴수록, 그들에게서 하늘을 가리는 것이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우연이 내던진 곳이 오두막이 가장 호사스러운 거처인 땅이라 합시다. 그런데 로물루스의 오두막[6]을 알기에 그 처지를 꿋꿋이 견딘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좁고 구차하게 스스로를 달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초라한 움막도 덕은 맞아들이지 않는가? 정의와 절제와 분별과 효성과, 온갖 의무를 바르게 나누어 치르는 이치와, 사람의 일과 신의 일에 대한 앎이 이곳에 보인다면, 이 움막은 어떤 신전보다 아름다울 것이다. 이토록 큰 덕의 무리를 품는 곳은 결코 좁지 않다. 이런 일행과 함께 갈 수 있는 추방은 결코 무겁지 않다." 브루투스는 덕에 관해 쓴 책에서, 미틸레네에서 추방 생활을 하는

마르켈루스[7]를 보았는데 사람의 본성이 허락하는 한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그때만큼 학문에 열심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르켈루스를 추방지에 남겨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르켈루스 없이 돌아가는 자기가 추방되는 것만 같았다고 덧붙입니다. 아, 나라에서 집정관직을 인정받았을 때보다 브루투스에게 추방을 인정받았을 때 마르켈루스는 얼마나 더 운이 좋았습니까! 추방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만으로 누군가 스스로를 추방된 사람처럼 느끼게 했으니,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외삼촌 카토마저 우러를 만한 브루투스를 자기를 우러르게 만들었으니,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미틸레네를 그냥 지나쳤다고 말합니다. 몰골이 망가진 그 사람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로원은 그를 돌아오게 해 달라고 다 함께 나서서 간청해 그의 귀환을 얻어 냈습니다. 그날 원로원은 몹시 애태우고 슬퍼해서 모두가 브루투스와 같은 마음인 것처럼 보였고, 마르켈루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없이 남아 있다면 자기들이 추방된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마르켈루스는 브루투스가 추방된 그를 차마 두고 떠날 수 없었고 카이사르가 차마 그를 볼 수 없었던 그날,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증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브루투스는 마르켈루스 없이 돌아가는 것을 괴로워했고, 카이사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 추방을 담담하게 견디라고 스스로를 자주 이렇게 다독였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조국을 잃었다고 해서 비참한 것은 아니다. 너는 현자에게는 어느 곳이든 조국이라는 것을 알 만큼 학문을 몸에 익혔다. 그뿐인가? 너를 쫓아낸 이 사람도 열 해 내내 조국을 떠나 있지 않았느냐? 물론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였다. 그래도 조국을 떠나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지금 보아라.

다시 일어나는 전쟁의 위협으로 가득한 아프리카가 그를 끌어당기고, 꺾이고 짓밟힌 당파를 다시 일으키는 히스파니아가 그를 끌어당기고, 믿을 수 없는 이집트가 그를 끌어당기고, 흔들리는 제국의 틈을 노리는 온 세상이 그를 끌어당긴다. 그는 무엇부터 맞서겠느냐? 어느 쪽에 먼저 버티고 서겠느냐? 그의 승리가 그를 온 땅으로 몰고 다닐 것이다. 민족들은 그를 우러르고 섬기라고 해라. 너는 브루투스가 너를 우러러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10 마르켈루스는 이렇게 추방을 잘 견뎠고, 사는 곳이 바뀌어도 그의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뒤따랐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뒤엎는 탐욕과 사치의 광기에 아직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난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얼마나 적습니까! 덕을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에게 그것이 모자랄 수 있겠습니까? 저로 말하자면, 제가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분주함이라는 것을 압니다. 몸이 바라는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추위를 막고, 먹고 마셔 배고픔과 목마름을 달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밖에 탐내는 것은 쓸모가 아니라 악덕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를 샅샅이 뒤질 필요도, 짐승을 떼로 잡아 배를 채울 필요도, 가장 먼 바다의 알지 못하는 해안에서 조개를 캐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토록 미움 살 만큼 넓은 제국의 경계를 사치로 넘어서는 자들은 신들과 여신들이 멸하시기를! 그들은 허세 부리는 식탁을 차리려고 파시스강 너머에서 잡아 오기를 바라고, 아직 원수도 갚지 못한 파르티아인에게서 새를 구해 오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릴 대로 물린 목구멍을 위해 아는 것이란 아는 것은 사방에서 실어 오고, 쾌락에 늘어진 위장이 겨우 받아들일 것을 가장 먼 대양에서 날라 옵니다. 그들은 먹으려고 게우고, 게우려고 먹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 구한 요리를 소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가난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탐내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오히려 이롭습니다. 원치 않아도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도 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할 수 없는 동안에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연이 가장 높은 처지에서 가장 큰 악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려고 낳은 듯한 칼리굴라[8]는 하루 저녁 식사에 1,00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썼습니다. 이 일에 모든 사람의 재주를 빌렸는데도 속주 세 곳의 공물을 한 끼 식사로 만들 방도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아, 값비싼 음식이 아니면 입맛이 돋지 않는 가엾은 사람들이여! 음식을 값비싸게 만드는 것은 뛰어난 맛도 목구멍을 녹이는 달콤함도 아니고, 귀하고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건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배를 섬기는 그 많은 기술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장사는 무슨 소용이며, 숲을 망가뜨리는 것은, 바다 밑을 뒤지는 것은 무슨 소용입니까? 자연이 곳곳에 마련해 둔 먹을거리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그것을 지나쳐 온 땅을 헤매고 바다를 건너며, 적은 것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는데도 많은 것으로 허기를 부추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배를 띄웁니까? 어찌하여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손에 무기를 듭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요란하게 이리저리 내닫습니까? 어찌하여 재산에 재산을 쌓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작은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토록 적은 것밖에 담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탐내는 것은 광기요 정신의 마지막 착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재산을 늘리고 경계를 넓혀도 여러분의 몸을 늘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사가 잘되고, 군 복무가 큰 이득을 가져다주고, 사방에서 찾아낸 음식이 모여들어도, 여러분은 그 차려 놓은 것들을 넣어 둘 곳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하러 그토록 많은 것을 그러모읍니까? 그 덕이 지금도 우리의 악덕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불행했단 말입니까? 그들은 제 손으로 먹을 것을 마련했고, 땅바닥이 잠자리였으며, 그들의 지붕은 아직 금으로 번쩍이지 않았고 그들의 신전은 아직 보석으로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흙으로 빚은 신들을 걸고 경건하게 맹세했고, 그 신들을 부르며 맹세한 사람들은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고 죽을 줄 알면서도 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삼니움인 사절들을 맞으면서 화롯가에서 더없이 값싼 음식을 제 손으로 뒤집던 우리 독재관,[9]이, 이미 여러 번 적을 쳤고 카피톨리움 유피테르의 무릎에 월계관을 올려놓은 바로 그 손으로 음식을 뒤집던 그 사람이, 우리 시대에 살았던 아피키우스,[10]보다 덜 행복하게 살았단 말입니까? 아피키우스는 한때 철학자들이 젊은이를 타락시킨다며 쫓겨난 바로 그 도시에서 요리의 학문을 가르친다고 나서서 제 가르침으로 한 시대를 물들였습니다." 그의 최후는 알아 둘 만합니다. 그는 1억 세스테르티우스를 부엌에 쏟아붓고, 군주들이 내린 그 많은 하사금과 카피톨리움의 막대한 세입을 술판 한 번에 하나씩 다 들이켠 끝에 빚에 짓눌리자, 그때 처음으로 억지로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000만 세스테르티우스가 남으리라고 셈하고는, 1,000만 세스테르티우스로 사는 것은 마지막 굶주림 속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듯이 독약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0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궁핍으로 여겼다니 얼마나 대단한 사치입니까! 그러니 이제 가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크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0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무서워했고, 남들은 소원으로 빌어 구하는 것을 독약을 마셔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비뚤어진 정신을 지닌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한 모금이 가장 몸에 좋은 약이었습니다. 엄청난 잔치를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자랑하고, 제 악덕을 뽐내고, 나라를 제 사치로 끌어들이고, 나쁜 본보기가 없어도 제 발로 잘 배우는 젊은이들을 꾀어 흉내 내게 하던

그때야말로 그는 독을 먹고 독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정해진 한도가 있는 이성(ratio)에 맞추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한없이 제멋대로인 나쁜 버릇에 맞추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탐욕에게는 무엇도 넉넉하지 않고, 자연에게는 적은 것도 넉넉합니다. 그러니 추방된 사람의 가난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아무리 궁한 추방지라도 사람 하나 먹여 살리기에는 넉넉히 기름지기 때문입니다.

11 "그러나 추방된 사람은 옷과 집을 그리워할 것이다." 이것도 쓸 만큼만 그리워할 것입니다. 지붕도 옷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몸은 먹이는 데와 마찬가지로 덮는 데에도 적은 것이면 됩니다. 자연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만든 것을 어느 하나도 힘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줏빛 조개 물감에 흠뻑 물들이고 금실을 엮어 넣고 갖가지 빛깔과 솜씨로 수놓은 옷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운의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으로 가난합니다. 그가 잃은 것을 모두 되돌려 주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되돌려 받은 그 사람이 탐내는 것에서 모자라는 몫이, 추방된 사람이 가졌던 것에서 모자라는 몫보다 클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금 그릇으로 번쩍이는 세간을, 옛 장인들의 이름 덕에 이름난 은그릇을, 몇몇 사람의 광기 덕에 값비싸진 청동 그릇을, 아무리 큰 집이라도 비좁게 만들 만큼 많은 노예를, 억지로 먹여 살찌운 짐승들을, 온갖 민족의 돌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결코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속이 타서 생긴 갈증은 어떤 물로도 달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목마름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먹을 것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악덕에서 생겨나는 바람은 모두 같은 성질을 지닙니다. 거기에 무엇을 쌓아 주든 욕망의 끝이 아니라 한 계단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자연의 한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가난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자연의

한도를 넘는 사람은 아무리 큰 부를 누려도 가난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에는 추방지로도 넉넉하고, 쓸데없는 것에는 왕국으로도 모자랍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추방지까지 따라오고, 더없이 거친 황야에서도 몸을 지탱할 만큼만 찾아내면 제 좋은 것을 넘치도록 누립니다. 돈은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멸의 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제 몸에 너무 매인 사람들이 우러르는 이 모든 것, 돌과 금과 은과 크고 반들반들한 둥근 식탁은 땅의 무게일 뿐입니다. 순수하고 제 본성을 잊지 않은 영혼은 이런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그 자체로 가볍고 거칠 것이 없으며, 언젠가 풀려나면 가장 높은 곳으로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영혼은 굼뜬 팔다리와 둘레를 감싼 이 무거운 짐이 허락하는 만큼 빠르고 날랜 생각으로 신적인 것들을 두루 살핍니다. 그러니 영혼은 결코 추방될 수 없습니다. 자유롭고, 신들과 핏줄이 닿으며, 온 우주와 모든 시대에 맞먹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생각은 온 하늘을 두루 돌고, 지나간 모든 때와 다가올 모든 때로 뻗어 나갑니다.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요 사슬인 이 하찮은 몸은 이리저리 내던져집니다. 형벌도, 강도질도, 병도 이 몸에 가해집니다. 그러나 영혼 자체는 거룩하고 영원하며,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12 아무도 무겁게 느끼지 않는 가난,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무겁게 느끼는 가난의 불편을 덜어 보이려고 제가 현자들의 가르침만 빌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먼저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보십시오. 그들이 부자들보다 조금도 더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흩어질 데가 적은 만큼 오히려 더 즐겁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부자들에게로 넘어가 봅시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과 다름없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행하는 사람은 짐을 덜어 내고, 길이 급할 때마다 따르는 무리를

돌려보냅니다.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가진 것의 몇 분의 일이나 지니고 다닙니까? 군영의 규율이 온갖 짐을 치워 버리니 말입니다. 때와 장소가 궁해서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과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부에 물리면 며칠씩 날을 잡아 땅바닥에서 저녁을 먹고, 금그릇 은그릇을 치우고 질그릇을 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이따금 탐내는 것을 늘 두려워하다니. 아, 얼마나 짙은 안개가 그들의 정신을 덮고, 진리를 모르는 무지가 얼마나 깊이 그들을 〈…〉[11] 들볶습니까! 그들이 즐거움 삼아 흉내 내는 그것을 말입니다. 저로 말하자면 옛 본보기들을 돌아볼 때마다 가난을 두고 위안을 찾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시대의 사치가 얼마나 내리막을 굴렀는지, 이제는 추방된 사람의 노잣돈이 옛날 군주의 재산보다 많으니까요. 호메로스에게는 노예가 하나, 플라톤에게는 셋 있었고, 스토아학파의 엄격하고 사내다운 지혜를 처음 연 제논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비참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말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귀족과 평민 사이에서 나라의 화합을 중재한 메네니우스 아그리파[12]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 장사를 치러 주었습니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는 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인들을 무찌르던 때 원로원에 편지를 보내, 자기 품팔이꾼이 떠나 버려 농장이 버려졌다고 알렸습니다. 원로원은 레굴루스가 없는 동안 나라가 그 농장을 돌보기로 결의했습니다. 노예 하나 없는 대가로 로마 인민을 소작인으로 두었으니 그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스키피오[13]의 딸들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국고에서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맹세코, 로마 인민이 카르타고에게서는 늘 공물을 거두었으니 스키피오에게 한 번쯤 공물을 바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아, 로마 인민을 장인으로 둔 그 처녀들의 남편들은 얼마나 운이 좋았습니까! 자기네 무언극 여배우가 10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지참금으로 들고 시집가는 자들이, 후견인인 원로원에게서 지참금으로 묵직한 옛 청동 돈을 받은 스키피오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빛나는 조상의 초상을 거느린 가난을 누가 업신여기겠습니까? 스키피오에게는 지참금이, 레굴루스에게는 품팔이꾼이, 메네니우스에게는 장례비가 모자랐고, 모자랐기에 오히려 더 명예롭게 채워졌는데, 추방된 사람이 무엇이 모자란다고 분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변호인으로 세우면 가난은 안전할 뿐 아니라 환영받기까지 합니다.

13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은 견딜 수 있어도 한데 모으면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어찌하여 그토록 교묘하게 떼어 놓는가? 사는 곳을 바꾸기만 한다면 그것은 견딜 만하다. 가난도 치욕만 없다면 견딜 만하다. 그러나 치욕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을 짓눌러 버리곤 한다." 불행을 떼로 몰고 와 저를 겁주려는 사람이 누구든, 그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운의 어느 한 부분에 맞설 힘이 넉넉하다면 모든 부분에 맞설 힘도 넉넉할 것입니다. 덕이 한번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어느 쪽에서도 다치지 않게 지켜 줍니다. 인류의 가장 지독한 역병인 탐욕이 놓아주었다면 야망도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형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으로 바라본다면,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낸 그 가슴에는 어떤 두려움도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성욕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족을 잇기 위해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몸속 깊이 박힌 이 은밀한 파멸에 짓밟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모든 욕망도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칠 것입니다. 이성은 악덕을 하나씩 쓰러뜨리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쓰러뜨립니다. 악덕은 한 번 꺾이면 통째로 꺾입니다." 모든 것을 제 안에 두고 뭇사람의 생각에서 물러난 현자가 치욕에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욕스러운 죽음은 치욕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한때 홀로 서른 참주를

꾸짖어 제자리에 앉혔던 바로 그 얼굴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치욕을 걷어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는 곳은 감옥으로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마르쿠스 카토가 법무관과 집정관에 나섰다가 두 번 떨어진 것을 카토의 치욕이라고 생각할 만큼 진리를 보는 눈이 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카토를 맞아들였다면 영예를 얻었을 법무관직과 집정관직의 치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업신여긴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비굴하고 땅바닥에 내던져진 마음이 그런 모욕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나운 불행에 맞서 우뚝 서고, 남들을 짓누르는 불행을 거꾸로 뒤엎는 사람은 불행 자체를 거룩한 머리띠처럼 두릅니다. 우리는 꿋꿋하게 불행을 견디는 사람만큼 크게 우러러보는 것이 없으니까요. 아테네에서 아리스테이데스[14]가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마주치는 사람마다 눈을 내리깔고 신음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의 자체가 벌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가 있었습니다. 입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감히 그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언짢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굴을 닦고 미소 지으며 자기를 데려가는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버릇없이 하품하지 말라고 일러 주시오." 이것이야말로 모욕을 모욕한 일이었습니다. 업신여김보다 무거운 것은 없으며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 저는 추방도 대개 업신여김과는 거리가 멀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쓰러져도 위대하게 누워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무너진 신전의 잔해를 서 있는 신전 못지않게 섬기며 짓밟지 않듯, 그 사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14 사랑하는 어머니, 제 일로는 어머니를 끝없는 눈물로 몰아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어머니를 찌르는 것은 어머니 자신의

사정일 것입니다. 그 사정은 둘입니다. 무언가 버팀목을 잃으셨다는 생각이 어머니를 흔들거나, 그리움 자체를 견딜 수 없으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앞의 것은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식구들에게서 식구들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은 이런 어머니들이나 신경 쓰라고 하십시오. 자식의 권세를 여자의 무절제로 휘두르는 어머니들, 여자는 관직에 오를 수 없으니 자식을 통해 야심을 채우는 어머니들, 아들의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그 재산을 노리는 어머니들, 아들의 웅변을 남에게 빌려주어 지치게 하는 어머니들 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이 잘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지만 누구보다 덜 누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의 씀씀이에는 늘 한도를 정하셨지만 어머니 자신의 씀씀이에는 한도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아버님 슬하에 계신 몸이면서도 넉넉한 아들들에게 오히려 먼저 보태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 재산을 돌보시되 어머니 것인 양 애쓰시고 남의 것인 양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의 세력을 남의 것 쓰듯 아끼셨고, 저희가 오른 관직에서 어머니께 돌아간 것은 기쁨과 비용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 번도 이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무사할 때 한 번도 어머니 몫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을, 아들을 빼앗기셨다고 이제 와서 아쉬워하실 수는 없습니다.

15 어머니의 슬픔이 지닌 참된 힘이 솟아나는 곳으로 제 위로를 모두 돌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 볼 수 없다. 그 얼굴을 볼 수도,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다. 그 아이를 보면 시름에 잠긴 얼굴이 풀리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던 그 아이는 어디 있는가? 아무리 해도 물리지 않던 이야기는 어디 있는가? 여자로서보다 기꺼이,

어머니로서보다 허물없이 함께하던 그 공부는 어디 있는가? 반갑게 마주치던 그 일은 어디 있는가? 어머니를 보면 늘 어린아이처럼 반기던 그 얼굴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어머니께서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지내던 장소들을,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함께 지낸 흔적들, 마음을 들쑤시기에 더없이 효험 있는 그 흔적들을 덧붙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운은 이 일에서도 어머니께 잔인한 꾀를 부렸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겨우 사흘 전에, 아무 근심 없이 이런 일은 꿈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던 어머니를 떠나시게 했으니까요. 다행히 먼 거리가 우리를 떼어 놓았었고, 다행히 몇 해 떨어져 지낸 것이 이 불행에 대비하게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오셨습니다. 아들에게서 기쁨을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에 길든 버릇을 잃으시려고 돌아오신 셈입니다. 훨씬 전에 떠나 계셨다면 거리가 그리움을 누그러뜨려 더 굳세게 견디셨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아들을 이틀 더 보는 마지막 열매는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인한 운명은 어머니께서 제 불행을 곁에서 함께하지도 못하시고 떨어져 지내는 데 길드시지도 못하게 일을 짜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혹할수록 어머니는 더 큰 덕을 불러내셔야 하고, 이미 잘 알고 이미 여러 번 이긴 적과 맞붙듯 더 매섭게 맞서셔야 합니다. 이 피는 상처 없던 몸에서 흐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맞으신 곳은 바로 그 흉터 자리입니다.

16 여자라는 이름을 핑계로 삼으실 까닭이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눈물에 대해 거의 끝 모를 권리가 허락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열 달의 기한을 주어, 여인들의 끈질긴 비탄과 나라의 규정으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애도를 금하지 않고 끝을 정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잃었을 때 끝없는 고통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응석이고,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것은 사람답지 않은 냉혹함입니다. 정과 이성

사이에서 가장 좋은 조화는 그리움을 느끼되 눌러 두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인 슬픔을 죽어서야 끝낸 몇몇 여인들을 보실 까닭은 없습니다(아들을 잃고 입은 상복을 끝내 벗지 않은 여인들을 어머니도 아시지요). 처음부터 더 굳세게 살아오신 어머니께는 삶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자의 온갖 악덕과 거리가 멀었던 분에게 여자라는 핑계가 통할 리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악인 부정(不貞)도 어머니를 뭇 여인의 무리로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보석도 진주도 어머니를 꺾지 못했습니다. 부는 인류의 가장 큰 좋은 것인 양 어머니 눈앞에서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옛 법도를 지키는 엄한 집안에서 잘 자라신 어머니를, 착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못된 자들의 흉내가 엇나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을 나이를 들추는 일인 양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움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다른 여인들처럼 부른 배를 무슨 볼썽사나운 짐인 양 감추신 적도 없고, 배 속에 품은 아이의 희망을 짓눌러 없애신 적도 없습니다. 얼굴을 분과 꾸밈으로 더럽히신 적도 없습니다. 벗으나 입으나 더 드러낼 것도 없는 옷은 한 번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는 오직 하나의 장식, 어느 나이에도 시들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움, 가장 큰 자랑이 정숙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슬픔을 붙들어 두려고 여자라는 이름을 내세우실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덕이 그 이름에서 어머니를 데려가 버렸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자의 악덕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만큼 여자의 눈물에서도 떨어져 계셔야 합니다. 여자들조차 어머니가 상처에 몸이 녹아들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빛나는 덕으로 위대한 남자들 사이에 자리를 얻은 여인들을 보려 하신다면, 그 여인들은 꼭 필요한 비탄만 서둘러 마치고 일어나라고 어머니께 말할 것입니다. 운은 코르넬리아의 열두 자식을 둘로 줄여 놓았습니다. 코르넬리아의 장례를 세어 보면 열을 잃었고, 무게를 달아 보면

그라쿠스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르넬리아는 곁에서 울며 그 운명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그라쿠스 형제를 아들로 준 운을 탓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민회에서 "나를 낳은 내 어머니를 그대가 욕한단 말이오?" 하고 말한 아들[15]은 마땅히 이런 여인에게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의 말이 훨씬 더 담대하게 들립니다. 아들은 그라쿠스 형제가 태어난 것을 귀하게 여겼고, 어머니는 그들의 죽음까지 귀하게 여겼으니까요. 루틸리아는 아들 코타[16]를 따라 추방지로 갔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기보다 추방을 견디는 편을 택할 만큼 정에 묶여 있었고, 아들과 함께가 아니면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 나라에서 활짝 피어난 뒤에 아들을 잃었을 때, 루틸리아는 아들을 따라갈 때만큼 굳세게 견뎠습니다. 아들을 묻은 뒤로 루틸리아가 우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쫓겨났을 때는 덕을, 아들을 잃었을 때는 분별을 보여 주었습니다. 무엇도 그 여인을 정에서 떼어 놓지 못했고, 무엇도 그 여인을 쓸데없고 어리석은 슬픔에 붙들어 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이런 여인들 축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여인들의 삶을 본받아 오셨으니, 슬픔을 다잡고 억누르는 데서도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7 이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어떤 격정(affectus)도 우리를 섬기지 않으며, 슬픔에서 생겨난 격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격정은 사납고 어떤 약에도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이따금 그것을 눌러 묻고 신음을 삼키려 하지만, 애써 꾸민 얼굴 위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따금 경기나 검투사 구경으로 마음을 붙들어 두려 하지만,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는 그 구경거리 한가운데서도 그리움의 작은 흔적 하나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슬픔은 속이기보다 이기는 편이 낫습니다. 속아서 쾌락이나 분주함에 끌려간 슬픔은 다시 일어나고, 쉬는 동안 오히려 날뛸 기세를 모읍니다. 그러나 이성에

굴복한 슬픔은 영원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썼다고 알고 있는 방도를 어머니께 일러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 여행으로 마음을 붙들어 두시거나 아름다운 곳을 다니며 기분을 푸시라거나, 장부를 꼼꼼히 받아 보시고 재산을 관리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시라거나, 늘 새 일에 몸을 얽어매시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 잠깐 도움이 될 뿐 슬픔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저는 슬픔이 속기보다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운을 피해 달아나는 모든 사람이 피신해야 할 곳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렵니다. 학문입니다. 학문이 어머니의 상처를 낫게 할 것이고, 학문이 어머니에게서 모든 슬픔을 뽑아낼 것입니다. 학문에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으셨더라도 지금은 학문에 기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제 아버님의 옛 법도가 허락한 만큼, 온갖 좋은 학문을 다 익히지는 못하셨어도 맛은 보셨습니다. 더없이 훌륭한 분인 제 아버님께서 조상들의 관습에 덜 매이셔서, 어머니가 지혜의 가르침에 살짝 물드시기보다 깊이 배우시기를 바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지금 운에 맞설 도움을 새로 마련하실 필요 없이 꺼내 쓰시기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글을 지혜가 아니라 사치를 위해 갖추는 여인들 때문에 아버님은 어머니가 학문에 깊이 빠지시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무엇이든 잘 빨아들이는 재능 덕분에 그 짧은 시간에 견주어 많은 것을 흡수하셨고, 온갖 학문의 주춧돌을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학문으로 돌아가십시오. 학문이 어머니를 안전하게 지켜 드릴 것입니다. 학문이 위로해 드릴 것이고, 학문이 즐겁게 해 드릴 것입니다. 학문이 진정으로 어머니 마음에 들어오면 다시는 슬픔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근심도, 헛된 괴로움이 주는 쓸데없는 시달림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이런 것들에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악덕들에는 이미 오래전에

닫혔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패이며, 이것만이 어머니를 운에게서 건져 낼 수 있습니다.

18 그러나 학문이 어머니께 약속하는 그 항구에 닿으실 때까지는 기댈 버팀목이 필요하시니, 그동안 어머니께 있는 위안들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제 형제들[17]을 돌아보십시오. 그 둘이 무사한 동안에는 어머니께서 운을 탓하셔서는 안 됩니다. 두 아들에게서 어머니는 저마다 다른 덕을 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런히 애써 관직에 올랐고, 하나는 지혜롭게 관직을 업신여겼습니다. 한 아들의 높은 지위에서, 다른 아들의 고요한 삶에서, 두 아들의 효성에서 마음을 놓으십시오. 저는 제 형제들의 속 깊은 마음을 압니다. 하나는 어머니께 자랑이 되어 드리려고 지위를 닦고, 하나는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리려고 고요하고 한가한 삶으로 물러났습니다. 운은 어머니의 자식들을 도움도 되고 즐거움도 되도록 잘 배치해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아들의 지위로 보호받으실 수 있고, 다른 아들의 여가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께 도리를 다하려고 서로 다툴 것이고, 아들 하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두 아들의 효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는 머릿수 말고는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손주들에게로도 눈을 돌리십시오. 더없이 귀여운 아이 마르쿠스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어떤 슬픔도 버티지 못합니다. 누구의 가슴에서 날뛰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생생한 슬픔이라도 그 아이가 안겨 들면 다 누그러집니다. 그 아이의 명랑함이 누구의 눈물인들 그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재치가 근심으로 오그라든 마음인들 풀어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 장난기가 누구인들 웃음으로 불러내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물리지 않을 그 재잘거림이, 생각에 붙박인 사람인들 제게로 돌려 끌어내지

못하겠습니까? 신들께 비오니, 이 아이가 우리 뒤에 오래 남게 하소서! 운명의 잔인함이 모두 저에게서 지쳐 멈추기를. 어머니로서 슬퍼하셔야 할 것은 모두 저에게로, 할머니로서 슬퍼하셔야 할 것도 모두 저에게로 옮겨 오기를. 나머지 식구들은 지금 그대로 꽃피기를. 다만 이 집안이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제가 대신 바쳐진 제물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자식 잃은 것도, 제 처지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머지않아 증손주를 안겨 드릴 노바틸라를 무릎에 안아 주십시오. 저는 그 아이를 제게로 데려오다시피 해서 제 아이로 삼았기에, 저를 잃은 지금 그 아이는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고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대신으로도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십시오. 운은 얼마 전 그 아이에게서 어머니를 앗아 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그 아이가 어머니를 잃은 것을 슬퍼할 뿐 그 빈자리를 느끼지는 않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품행을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 그 아이를 빚어 주십시오. 여린 나이에 새겨진 가르침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어머니의 뜻대로 빚어지게 하십시오. 본보기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더라도 많은 것을 주시는 셈입니다. 이 거룩한 소임이 어머니께 약이 될 것입니다. 효성스럽게 슬퍼하는 마음을 근심에서 돌려세울 수 있는 것은 이성이나 훌륭한 일거리뿐이니까요.

어머니의 아버님이 멀리 계시지만 않았다면 그분도 큰 위안으로 꼽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어머니께서 그분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어머니를 아끼시는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몸을 상하시기보다 그분을 위해 몸을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더 옳은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덮쳐 와 어머니께 따라오라고 할 때마다 아버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머니께서는 그분께 그토록 많은 손주와 증손주를 안겨 드려 그분의 하나뿐인 핏줄이 아니게 되셨지만, 운 좋게 살아오신 그분 생애의 마무리는 어머니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신 동안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것을 불평하시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19 어머니께 가장 큰 위안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언니, 어머니께 더없이 미더운 그 가슴, 어머니의 모든 근심을 나누지 않고 고스란히 함께 짊어지시는 분,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 같은 그 마음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분과 눈물을 섞으셨고, 그분 품에서 처음으로 숨을 돌리셨습니다. 그분은 늘 어머니의 마음을 따라 함께 느끼시지만, 제 일에서만큼은 어머니 때문에만 슬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겨 로마로 왔고, 오래 앓는 동안 그분이 어머니처럼 정성껏 보살펴 주신 덕에 나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재무관에 나설 때 당신의 영향력을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남과 이야기하는 것도,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워하실 만큼 수줍은 분이었는데, 저를 위해서는 사랑이 수줍음을 이겼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사시는 삶도, 그토록 방자한 여인들 사이에서 촌스러워 보일 만한 그 겸손도, 고요함도, 한가함을 위해 감추어 둔 은둔의 몸가짐도 그분이 저를 위해 표를 구하러 나서시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께서 기운을 되찾으실 위안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분과 하나가 되시고, 그분의 품에 꼭 안기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은 흔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피해 제 슬픔을 마음껏 풀어놓을 자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분께로 가십시오. 지금 그 모습을 지키고 싶으시든 벗어 던지고 싶으시든, 그분 곁에서 슬픔의 끝을 찾으시거나 슬픔의 길동무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더없이 훌륭한 여인의 분별을 안다면, 그분은 어머니께서 아무 쓸모없는 비탄에 몸을 상하시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고, 제가 몸소 지켜본 그분 자신의 본보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처녀로 시집간 사랑하는 남편, 우리 이모부[18]를 바로 뱃길 위에서 잃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슬픔과 두려움을 한꺼번에 견디시며 폭풍을 이겨 내시고, 난파를 당한 몸으로 남편의 시신을 뭍으로 모셔 오셨습니다. 아, 얼마나 많은 여인의 빼어난 행실이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까! 놀라운 덕을 그대로 우러르던 그 소박한 옛 시대에 이분이 사셨다면, 자기 연약함도 잊고 가장 굳센 사람도 무서워하는 바다도 잊은 채 남편의 장례를 위해 제 목숨을 위험에 내던지고, 남편의 장례를 생각하느라 자기 장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아내를 기리려고 재주꾼들이 얼마나 다투어 나섰겠습니까! 남편 대신 죽겠다고 나선 여인은 모든 시인의 노래로 이름을 떨칩니다.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무덤을 찾아 주는 일은 그보다 더한 일입니다.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더 적은 것을 되찾는 사랑이 더 큰 사랑입니다.

이러고 보면, 남편이 열여섯 해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시는 사이 그분이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속주 사람은 누구도 집에 들이지 않으셨으며, 남편에게 아무것도 청하지 않으셨고, 누가 자기에게 무엇을 청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스럽고 장관들을 헐뜯는 데 재주가 넘치는 그 속주, 허물을 피한 사람조차 추문은 피하지 못하던 그 속주가 그분을 둘도 없는 정숙함의 본보기로 우러러보았습니다. 위험한 농담마저 즐기는 그 속주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도, 그분에 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을 모두 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분 같은 사람이 오기를, 결코 바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늘 소원합니다. 속주가 열여섯 해 동안 그분을 인정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속주가 그분을 아예 몰랐다는 것은 그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을 기리는 말을 다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짧게 훑고 지나가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칭송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모든 권세에 따라붙는 동무이자 역병인 야망과 탐욕도 이기지 못한 여인, 배가 이미 부서져 제 난파를 눈앞에 보면서도 죽음의 두려움에 꺾이지 않고 숨진 남편에게 매달린 채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갈지가 아니라 어떻게 남편을 모셔 갈지를 궁리한 여인이 얼마나 큰마음(magnus animus)을 지녔는지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분과 맞먹는 덕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마음을 애도에서 거두어들이시고, 누구도 어머니께서 아이를 낳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여기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20 그런데 어머니께서 무엇을 다 하셔도 어머니의 생각은 자꾸 제게로 달려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다른 자식들보다 제가 더 자주 어머니 눈앞에 어른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아픈 곳으로 손이 더 자주 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할지 들어 보십시오. 더없이 좋은 일 속에 있는 사람처럼 기쁘고 기운찬 모습으로 생각하십시오. 제 처지는 정말로 더없이 좋습니다. 제 영혼은 온갖 분주함에서 벗어나 제 일에 몰두하며, 어떤 때는 가벼운 공부로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진리에 목말라 자신의 본성과 우주의 본성을 살피러 일어섭니다. 영혼은 먼저 땅과 땅의 자리를 캐묻고, 그다음에 땅을 둘러싼 바다의 형편과 그 밀물과 썰물을 캐묻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두려움 가득한 모든 것, 천둥과 번개와 바람과 비구름과 눈과 우박이 휘몰아치는 이 소란한 공간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고는 낮은 곳들을 두루 거친 뒤 가장 높은 곳으로 뚫고 올라가 신적인 것들의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누리며, 자신의 영원함을 기억하면서 지나간 모든 것과 다가올 모든 것 속으로, 모든 세대를 가로질러 나아갑니다.

1. 기원후 41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칼리굴라의 누이 율리아 리빌라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세네카를 코르시카섬에 추방했다. 이 글은 그곳에서 썼다.

2. 스키아토스섬과 세리포스섬과 기아로스섬은 에게해의 작은 섬이고, 코수라섬은 시칠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다. 로마는 이런 섬들로 사람들을 추방했다.

3. 아이네이아스. 트로이가 함락되자 살아남은 이들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건너왔다는 로마의 전설적 시조다.

4. 마실리아(오늘날의 마르세유)를 세운 것은 이오니아의 포카이아 사람들이다. 세네카는 그리스 본토의 포키스로 적었다.

5.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기원전 116~기원전 27)는 로마 제일의 박식가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기원전 85~기원전 42)는 카이사르를 암살한 사람으로, 철학 저술도 남겼으나 전하지 않는다.

6. 로물루스가 살았다고 전하는 초가집. 로마 사람들은 이 오두막을 팔라티누스 언덕에 보존하며 손질해 왔다.

7.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기원전 51년 집정관). 내전에서 폼페이우스 편에 섰다가 레스보스섬의 미틸레네에 물러나 살았고, 기원전 46년 원로원의 간청으로 카이사르의 사면을 받았으나 돌아오는 길에 살해되었다. 브루투스의 책 『덕에 관하여』는 전하지 않는다.

8. 황제 칼리굴라(재위 37~41). 원문은 「가이우스 카이사르」.

9. 마니우스 쿠리우스 덴타투스(기원전 3세기). 삼니움인과 피로스를 무찌른 장군으로, 소박한 삶의 본보기로 꼽힌다.

10. 마르쿠스 가비우스 아피키우스.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시대의 이름난 미식가다. 로마는 기원전 161년 철학자와 수사학자들을 도시에서 내보낸 적이 있다.

11. 원문 결락. 뒤의 「그것」은 문맥으로 보아 가난이다.

12. 기원전 494년 평민이 로마를 떠나 성산으로 물러났을 때, 배와 팔다리의 우화로 그들을 달래 돌아오게 했다고 전한다.

13.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칼부스. 대(大)스키피오의 큰아버지로, 기원전 211년 히스파니아에서 전사했다.

14. 아테네의 정치가로 「정의로운 사람」이라 불렸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다 침뱉음을 당한 이 일화는 다른 전승에서는 포키온의 것으로 나온다.

15. 코르넬리아의 아들 가이우스 그라쿠스. 호민관으로 개혁을 밀다 기원전 121년에 죽임을 당했다.

16. 가이우스 아우렐리우스 코타. 기원전 90년 추방되었다가 82년 술라의 승리로 돌아와 75년 집정관이 되었다.

17. 맏형 노바투스(뒷날 양자로 들어가 갈리오가 되었다)는 관직에 나아갔고, 아우 멜라는 관직을 마다하고 로마 기사로 살았다. 멜라는 시인 루카누스의 아버지다.

18. 가이우스 갈레리우스. 기원후 16년부터 31년까지 이집트 장관을 지냈고, 임지를 떠나 돌아오는 뱃길에서 죽었다.

관용에 관하여 제1권

1 폐하, 제가 관용에 관한 글을 쓰기로 한 것은 말하자면 거울 노릇을 하여, 모든 즐거움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에 이르실 폐하의 모습을 폐하께 비추어 드리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의 참된 열매는 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이고, 덕에는 덕 자신 말고 그에 걸맞은 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선한 양심을 들여다보고 두루 살펴보는 일은 즐겁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거대한 무리, 불화하고 들고일어나기 쉽고 제 몸을 가누지 못하며 이 멍에를 부수기만 하면 남의 파멸에도 제 파멸에도 똑같이 날뛰며 기뻐할 이 무리에게 눈길을 보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뭇 인간 가운데 마음에 들어 뽑혀 지상에서 신들을 대신하게 되었단 말인가? 나는 뭇 민족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자다. 저마다 어떤 몫과 처지를 누릴지는 내 손에 달려 있다. 운이 인간 하나하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지는 내 입을 빌려 선포된다. 내 대답에서 백성과 도시들이 기뻐할 까닭을 얻는다. 내가 바라고 내가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어디서도 어느 땅도 번성하지 못한다. 내 평화가 눌러 두고 있는 이 수천수만 자루의 칼은 내 고갯짓 하나에 뽑혀 나올 것이다. 어느 민족을 뿌리째 없애고 어느 민족을 옮겨 살게 할지, 누구에게 자유를 주고 누구에게서 빼앗을지, 어느 왕을 노예로 만들고 누구의 머리에 왕관을 씌울지, 어느 도시가 무너지고 어느 도시가 일어설지, 그것이 모두 내 관할이다. 이토록 큰 권력을 쥐고도 나는 분노에 떠밀려 부당한 형벌을 내린 적이 없다. 젊은

혈기에도, 아무리 고요한 가슴에서도 참을성을 쥐어짜 내곤 하는 사람들의 무모함과 고집에도 떠밀리지 않았고, 공포로 권력을 과시하려는 그 끔찍하지만 큰 권력에는 흔한 영광에도 떠밀리지 않았다. 내 칼은 칼집에 들어 있다. 아니, 칼집에 묶여 있다. 나는 가장 하찮은 피 한 방울도 더없이 아낀다.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로 내게 호의를 얻는다. 엄격함(severitas)은 감추어 두고 관용(clementia)은 늘 채비해 둔다. 나는 오랫동안 버려진 채 어둠에 묻혀 있다가 내가 빛으로 불러낸 법들 앞에 셈을 바쳐야 할 사람처럼 나 자신을 지킨다. 누구는 앳된 나이가, 누구는 늘그막의 나이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누구는 지위를 보아, 누구는 비천함을 보아 살려 주었다. 연민(misericordia)을 베풀 까닭을 하나도 찾지 못할 때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려 주었다. 오늘이라도 불멸의 신들이 내게 셈을 물으신다면, 나는 인류를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세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폐하께서는 이렇게 당당히 공언하셔도 됩니다. 폐하의 신의와 보호 아래 들어온 것은 모두 안전하게 지켜지고, 폐하로 말미암아 국가가 힘으로든 몰래든 무엇 하나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폐하께서는 더없이 드물고 지금껏 어느 군주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칭송, 곧 결백을 바라셨습니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고, 폐하의 남다른 그 선함은 배은망덕하거나 심술궂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폐하께 감사로 보답합니다. 로마 인민에게 크고 오랜 복이신 폐하만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스스로 엄청난 짐을 지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신격 아우구스투스를, 티베리우스 황제의 첫 시절을 입에 올리지 않고, 폐하께서 본받으시기를 바라는 본보기를 폐하 밖에서 찾지도 않습니다. 폐하의 치세는 처음 맛보여 주신 그 맛을 잣대로 평가받습니다. 그 선함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한때 걸친 것이었다면 이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면을 오래 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꾸민 것은 금세 본바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밑에 진실이 깔려 있는 것, 말하자면 단단한 땅에서 돋아난 것은 세월이 갈수록 더 크고 더 나아집니다.

폐하의 그 고귀한 천품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알 수 없던 동안, 로마 인민은 큰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기원은 안전합니다. 폐하께서 갑자기 폐하 자신을 잊으실 염려는 없으니까요. 물론 지나친 행운(felicitas)은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고, 욕망은 결코 얻은 것에서 멈출 만큼 절제되지 않습니다. 큰 것에서 더 큰 것으로 층계를 밟아 오르고, 바라지도 못한 것을 얻은 사람은 더없이 염치없는 희망을 끌어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폐하의 시민들은 모두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복에 더할 것은 이 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이보다 더디게 나오는 고백은 없는데도, 많은 것이 그들에게서 이 고백을 받아 냅니다. 깊고 넘쳐흐르는 안온함(securitas), 어떤 불의도 넘보지 못하는 높은 곳에 세워진 법이 그렇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더없이 기쁜 국가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최고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자란 것이라고는 멸망할 자유 하나뿐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폐하의 관용에 대한 감탄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미칩니다. 다른 복은 저마다 제 처지에 비례해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누리거나 기대하지만, 관용에서는 모두가 같은 것을 바랍니다. 자기 결백에 아무리 흡족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잘못을 받아 줄 관용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2 그런데 관용이 가장 악한 자들을 떠받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관용은 죄가 있은 뒤에야 쓸모가 있고, 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덕 하나만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의술은 병든 사람에게 쓰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도 존중받듯이, 관용도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부르짖어 찾지만 죄 없는 사람들도 받듭니다. 다음으로, 관용은 죄 없는 사람에게도 설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운이 죄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결백만 돕는 것이 아니라 덕도 자주 돕습니다. 시대의 형편에 따라서는 칭찬받을 일로 벌받는 일도 생기니까요. 게다가 벌을 면해 주기만 하면 결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가리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구별이 사라지면 혼란이 뒤따르고 악덕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고칠 수 있는 성품과 가망 없는 성품을 가릴 줄 아는 절도를 써야 합니다. 관용은 아무에게나 흔하게 베풀어서도, 아예 끊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것만큼 잔인합니다. 우리는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알맞게 맞추기는 어려우니, 어느 쪽으로든 넘쳐야 한다면 더 인정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제자리에서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제 주제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풀어 줌에 관한 부분입니다[1]. 둘째는 관용의 본성과 품성을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악덕은 덕을 흉내 내므로 둘을 가려낼 표지를 찍어 두지 않으면 서로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마음을 어떻게 이 덕으로 이끌고, 마음이 어떻게 이 덕을 굳히며 몸에 익혀 제 것으로 만드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어떤 덕도 이보다 더 인정 있는 덕은 없으니, 어떤 덕도 이보다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공동선을 위해 태어난 사회적 동물로 보려는 우리뿐 아니라, 인간을 쾌락에 내맡기고 모든 말과 행동이 제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고요와 여가를 찾는다면, 평화를 사랑하고 손을 거두는 이 덕에서 제 본성에 맞는 덕을 얻은 셈이니까요. 그러나 관용은

누구보다도 왕이나 군주에게 어울립니다. 큰 힘은 사람을 살리는 권력일 때에만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해치는 데 힘을 쓰는 것은 역병의 힘입니다. 모두가 자기들 위에 있는 만큼 자기들 편에 서 있다고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의 안녕을 위해 그의 보살핌이 밤새 깨어 지킨다는 것을 날마다 겪는 사람, 그가 나서면 무슨 해롭고 사나운 짐승이 굴에서 튀어나온 듯 흩어져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밝고 이로운 별에게로 앞다투어 몰려드는 사람, 그런 사람의 위대함만이 흔들림 없이 굳게 터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해 자객의 칼끝에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가 살아남을 길을 사람의 주검으로 깔아야 한다면 제 몸을 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보초를 서서 그의 잠을 지키고, 그를 에워싸고 앞을 막아서서 양옆을 지키며, 덮쳐 오는 위험에 몸으로 맞섭니다.

뭇 민족과 도시들이 이처럼 왕을 지키고 사랑하며, 다스리는 이의 안위가 요구하는 곳이면 어디든 자신과 제 것을 내던지는 데 뜻을 모으는 것은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 수천수만이 칼을 받고, 때로는 늙고 병든 한 사람의 목숨을 숱한 죽음으로 사들이는 것은 자기를 하찮게 여겨서도, 미쳐서도 아닙니다.

몸 전체는 마음을 섬깁니다. 몸이 마음보다 훨씬 크고 훨씬 보기 좋은데도, 마음은 가늘게 숨어 있어 어느 자리에 숨어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손과 발과 눈은 마음의 일을 하고, 이 살갗은 마음을 감싸 지키며, 마음이 시키면 우리는 누워 있거나 쉴 새 없이 뛰어다닙니다. 마음이 명하면, 그 주인이 탐욕스러우면 우리는 이익을 찾아 바다를 뒤지고, 야심 찬 주인이라면 우리는 벌써 오른손을 불길에 내밀었거나 스스로 땅 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영혼을 둘러싼 이 거대한 무리는 그 한 사람의

숨결로 다스려지고 그의 이성으로 이끌립니다. 그의 지혜가 떠받치지 않는다면 이 무리는 제 힘에 짓눌려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4 그러니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 열 개 군단씩 싸움터로 이끌고 나가 맨 앞줄로 달려 나가며, 자기 사령관의 군기가 등을 돌리지 않도록 가슴으로 상처를 받아 낼 때, 그들은 실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국가를 하나로 묶는 끈이요, 이 수천수만이 들이마시는 생명의 숨입니다. 제국의 그 정신이 빠져나가면 이들은 저 혼자서는 짐과 먹잇감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무사하면 모두가 한마음이요,
왕을 잃으면 믿음을 깨뜨린다."[2]

그런 일이 닥치면 로마의 평화는 끝장나고, 이 위대한 인민의 운은 폐허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 인민은 고삐를 견딜 줄 아는 동안에만 그 위험에서 멀리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고삐를 끊어 버리거나, 어쩌다 고삐가 풀렸을 때 다시 채우기를 거부한다면, 이 하나 됨과 이 거대한 제국의 짜임새는 여러 조각으로 터져 흩어지고, 이 도시가 복종을 그치는 날이 곧 다스림을 그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군주와 왕, 그 밖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이들이 사사로운 혈연을 넘어서까지 사랑받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제정신인 사람에게 공적인 일이 사적인 일보다 중하다면, 국가가 제 몸을 기댄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것도 당연합니다. 황제는 이미 오래전에 국가를 제 몸처럼 입어서, 둘 가운데 하나를 떼어 내면 둘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에게는 힘이 필요하고 국가에게는 머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 제 이야기가 본래 주제에서 꽤 멀리 벗어난 듯 보이겠지만, 맹세코 바로 그 문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끌어낸 대로 폐하께서 폐하의 국가의 마음이시고 국가가 폐하의 몸이라면, 관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폐하께서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남을 아끼시는 듯 보일 때 폐하께서는 폐하 자신을 아끼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비난받아 마땅한 시민들도 병든 팔다리를 아끼듯 아껴야 하고, 피를 뽑아야 할 때가 오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깊이 베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용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에 맞는 것이지만, 통치자에게 가장 아름답게 어울립니다. 통치자에게는 관용이 지켜 줄 것이 더 많고, 관용이 드러날 바탕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잔인함(crudelitas)은 얼마나 작은 해를 끼칩니까! 군주의 포악함은 전쟁입니다. 덕들은 서로 어울리고 어느 덕도 다른 덕보다 낫거나 더 훌륭하지 않지만, 어떤 덕은 어떤 사람에게 더 잘 맞습니다. 도량(magnanimitas)은 어떤 인간에게나, 그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어울립니다. 나쁜 운을 되받아치는 것보다 크고 용감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도량은 좋은 운 속에서 더 넓은 자리를 얻고, 평지보다 재판석 위에서 더 잘 보입니다.

관용은 어느 집에 찾아가든 그 집을 운 좋고 평온하게 해 주지만, 궁궐에서는 드문 만큼 더 경이롭습니다. 그의 분노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가 무거운 판결을 내리면 죽는 사람조차 수긍하며, 누구도 그의 말을 끊지 않을 것이고, 그가 몹시 격노하면 용서를 빌지조차 못할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 손을 붙들고 이렇게 생각하며 제 권력을 더 낮고 더 온화하게 쓴다면, 그보다 더 기억할 만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나 말고는 아무도 못 한다." 큰 운에는 큰마음이 어울립니다. 큰마음이 운의 높이까지 올라 그보다 더 높이 서지 못하면 운마저 땅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큰마음의 특징은 온화하고 평온하며, 불의와 모욕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데 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날뛰는 것은 아녀자의 일이고, 쓰러진 자를 물어뜯고 몰아붙이는

것은 짐승, 그것도 고귀하지 못한 짐승의 일입니다. 코끼리와 사자는 쓰러뜨린 것을 그냥 지나칩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천한 짐승의 짓입니다. 포악하고 누그러질 줄 모르는 분노는 왕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화를 내어 상대와 같은 높이로 내려가면 그보다 그리 높이 솟아 있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위태롭고 잃어 마땅한 이들에게 목숨을 주고 지위를 준다면, 그는 세상을 쥔 사람 말고는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윗사람에게서도 빼앗을 수 있지만, 줄 수는 아랫사람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빼어난 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운이 가장 우러름을 받아야 할 때는, 선한 이든 악한 이든 그 은혜로 우리를 빛 속에 태어나게 하는 신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신들의 마음을 제 것으로 삼는 군주는 시민들 가운데 쓸모 있고 선한 이들은 기꺼이 바라보고, 나머지는 머릿수를 채우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있어서 기쁘고, 어떤 이들은 참아 주는 것입니다.

6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에서는 더없이 넓은 길로 사람의 물결이 쉼 없이 흘러가다가도, 거센 급류처럼 내닫는 그 흐름을 무엇이 가로막기라도 하면 서로 짓눌립니다. 이 도시는 세 극장의 객석을 한꺼번에 채울 사람을 내놓고, 온 땅에서 갈아 거둔 것을 다 먹어 치웁니다. 이런 도시에서 엄격한 재판관이 무죄로 풀어 줄 사람만 남긴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황량해지겠습니까. 심문하는 관리들 가운데, 자기가 심문할 때 내세우는 바로 그 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발하는 사람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용서(venia)를 자주 빌어야 했던 사람만큼 용서에 인색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는 무거운 죄를, 누구는 가벼운 죄를, 누구는 작정하고, 누구는 어쩌다 떠밀리거나 남의 악에 휩쓸려 지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좋은

결심을 굳세게 지키지 못해, 마지못해 그리고 붙들려고 애쓰면서도 결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삶이 다하는 날까지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누가 이미 마음을 잘 씻어 내어 이제 무엇도 그를 어지럽히거나 속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그 역시 죄를 지어 가며 결백에 이르렀습니다.

7 신들을 말씀드렸으니, 군주가 따라 자신을 빛을 본보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군주는 신들이 자기에게 그러기를 바라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실수에 누그러질 줄 모르고 마지막 파멸까지 적의를 거두지 않는 신들을 모시는 것이 이롭겠습니까? 그렇다면 왕 가운데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벼락에 찢긴 몸을 점쟁이들이 주워 모으지 않을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달랠 수 있고 공정한 신들이 권력자들의 죄를 곧장 벼락으로 뒤쫓지 않는다면, 사람들 위에 세워진 사람이 온화한 마음으로 통치권을 쓰고, 세상이 맑고 깨끗한 날에 더 눈에 즐겁고 아름다운지 아니면 잦은 천둥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번개가 번쩍일 때 그러한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얼마나 더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요하고 법도 있는 통치의 얼굴은 맑게 빛나는 하늘의 얼굴과 다르지 않습니다. 잔인한 통치는 어지럽고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모두가 떨며 갑작스러운 소리에도 소스라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뒤흔드는 그 사람 자신도 흔들리지 않고 배기지 못합니다. 끈질기게 앙갚음하는 보통 사람들은 더 쉽게 용서받습니다. 그들은 해를 입을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은 불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업신여김을 두려워하고, 해친 자에게 되갚지 않으면 관용이 아니라 나약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앙갚음이 손쉬운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으면 틀림없이 온화함(mansuetudo)으로 칭송받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먹을 휘두르고, 송사를 벌이고, 싸움판에 뛰어들고,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하기가 더 자유롭습니다. 대등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주먹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위엄에 맞지 않습니다.

8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있는 말할 자유를 왕들에게서 빼앗는 것을 폐하께서는 가혹하다고 여기십니다.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예속이다" 하고 폐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유는 저희에게 있고 폐하께는 예속이 있다는 것을 폐하께서는 몸소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군중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처지가 다릅니다. 그들의 덕은 드러나기까지 오래 싸워야 하고, 그들의 악덕은 어둠에 가려집니다. 그러나 폐하 같은 분들의 행동과 말은 소문이 받아 퍼뜨립니다. 그러니 어떤 평판을 받을 만하든 큰 평판을 얻게 될 사람들만큼 자기 평판을 마음 써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폐하의 은혜로 저희에게는 허락되는 많은 것이 폐하께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는 따르는 사람 하나 없이, 집에도 허리에도 칼 한 자루 없이, 도시 어디든 혼자 겁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폐하께서 이루신 평화 속에서도 무장을 하고 사셔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폐하의 높은 처지에서 벗어나실 수 없습니다. 그 처지가 폐하를 에워싸고, 폐하께서 어디로 내려가시든 거창한 행렬을 이끌고 뒤따릅니다. 더 작아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위대함의 예속입니다. 그러나 이 필연은 폐하께서 신들과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신들도 하늘에 묶여 있어서, 신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듯 폐하께도 내려오시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폐하께서는 폐하의 꼭대기에 붙박여 계십니다. 저희가 움직이는 것은 몇 사람밖에 알아채지 못합니다. 저희는 세상이 모르는 사이에 나다니고 물러나고 옷차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해와 마찬가지로 숨으실 수가 없습니다. 폐하 둘레에는 빛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 빛으로 쏠려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저 밖으로 나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르시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이 그 목소리를 받아 듣습니다. 폐하께서 화를 내시면 모든 것이 떱니다. 누구 하나를 치셔도 그 둘레의 것이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벼락이 떨어지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몇 사람이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듯이, 큰 권력이 내리는 벌은 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널리 겁을 주는데,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는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것도 보태십시오. 보통 사람은 받은 불의를 참으면 불의를 더 당하기 쉬워지지만, 왕은 온화함에서 더 확실한 안온함을 얻습니다. 잦은 앙갚음은 몇 사람의 증오를 누르는 대신 모든 사람의 증오를 돋우기 때문입니다. 포악하게 굴 까닭이 바닥나기 전에 포악하게 굴려는 뜻부터 바닥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린 나무에서 숱한 가지가 다시 돋고 여러 작물을 더 빽빽이 자라게 하려고 베어 내듯이, 왕의 잔인함은 적을 없애면서 적의 수를 늘립니다. 죽은 사람 하나하나의 자리를 그의 부모와 자식, 친척과 벗들이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9 이것이 얼마나 참된지 폐하 집안의 본보기로 일깨워 드리고자 합니다. 신격 아우구스투스께서는 누가 그분을 그분의 치세부터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온화한 군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국가를 나누어 쥐고 있던 시절에는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지금 폐하의 나이, 막 열여덟을 넘기셨을 때 그분은 이미 벗들의 품에 단검을 숨기셨고, 이미 계략을 꾸며 집정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옆구리를 노리셨으며, 이미 살생부를 함께 만든 동료이셨습니다[3]. 그러나 마흔을 넘기시고 갈리아에 머무르실 때, 미련한 사람 루키우스 킨나[4]가 그분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덮치려 하는지까지 일러바쳤습니다. 음모에 가담한 자 하나가 밀고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께서는 그에게 앙갚음하기로 하시고 벗들을 불러 회의를

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이 일만 빼면 흠 없는 명문가 젊은이,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의 손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불러 주는 살생부 포고문을 받아 적으셨던 분이,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연거푸 신음하며 서로 엇갈리는 말을 이것저것 내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나는 마음을 졸이는데 나를 죽이려는 자는 태평하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란 말이냐? 그 숱한 내전에서 헛되이 노려졌고 그 숱한 해전과 육전에서도 무사했던 이 목숨을, 땅과 바다에 평화가 자리 잡은 지금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제물로 바치기로 작정한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단 말이냐?" (그분이 제사를 지낼 때 덮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번에는 킨나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큰 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네가 죽는 것이 이롭다면 너는 왜 사느냐? 처형은 언제 끝나느냐? 피는 언제 그치느냐? 나는 명문가 젊은이들이 칼끝을 갈아 대는 과녁으로 내놓인 머리다. 나 하나 죽지 않으려고 그토록 많은 것을 없애야 한다면 삶은 그만한 값어치가 없다." 마침내 아내 리비아께서 그분의 말을 끊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녀자의 생각도 받아 주시겠습니까? 의사들이 하는 대로 해 보십시오. 의사들은 흔히 쓰는 약이 듣지 않으면 반대되는 약을 써 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엄격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살비디에누스 뒤를 레피두스가, 레피두스 뒤를 무레나가, 무레나 뒤를 카이피오가, 카이피오 뒤를 에그나티우스가 따랐습니다[5]. 그토록 큰일을 감히 꾸몄다는 것이 부끄러운 다른 자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관용이 당신께 어떻게 듣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루키우스 킨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는 붙잡혔으니 이제 당신을 해칠 수 없고, 당신의 명성에는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편을 들어 줄 변호인을 찾았다는 데

기뻐하시며 아내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회의에 부른 벗들에게 곧바로 회의를 거둔다고 알리게 하시고, 킨나 한 사람만 불러들이셨습니다. 방에서 모두를 내보내시고 킨나에게 의자 하나를 따로 놓아 주게 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네에게 이것부터 부탁하네. 내가 말하는 동안 끊지 말고, 내 말 중간에 소리치지 말게. 자네에게도 마음껏 말할 시간을 주겠네. 킨나, 나는 적진에서 자네를 찾아냈을 때, 자네가 내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원수로 태어났는데도 자네를 살려 주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네. 오늘 자네는 이긴 자들이 진 자네를 시샘할 만큼 운 좋고 부유하네. 자네가 사제직을 바랐을 때는 부모가 나와 함께 싸운 여러 사람을 제치고 자네에게 주었네. 내가 자네에게 이만큼 베풀었는데, 자네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네." 이 말에 킨나가 자기는 그런 미친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소리치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군, 킨나. 말을 끊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거듭 말하지만, 자네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네." 그러고는 장소와 공모자와 날짜와 음모의 순서, 그리고 누구에게 칼을 맡겼는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킨나가 눈을 내리깐 채, 이제는 약속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가? 자네가 군주가 되려고? 자네가 다스리는 데 나 말고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맹세코 로마 인민의 형편이 딱하게 되었군. 자네는 자네 집안도 지키지 못하네. 얼마 전에는 사사로운 소송에서 해방 노예 하나의 연줄에 밀려 지기까지 했지. 그러니 자네에게는 황제에게 맞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는 모양이군. 말해 보게. 내가 홀로 자네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면, 파울루스와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코수스 집안과 세르빌리우스 집안이, 헛된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얼굴상에 오히려 영예가 되는 그 숱한 귀족의 무리가 자네를 받아들이겠는가?"

그분의 말씀을 다 옮겨 이 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겠습니다(그분은 두 시간 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 하나로 만족하실 이 벌을 그렇게 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킨나, 나는 자네에게 두 번째로 목숨을 주네. 처음에는 적에게 주었고, 이번에는 나를 노려 숨어든 자, 주군을 시해하려 한 역적에게 주네. 오늘부터 우리 사이에 우정이 시작되기를 바라네. 내가 더 큰 신의로 자네에게 목숨을 주었는지, 자네가 더 큰 신의로 그 목숨을 빚졌는지 겨루어 보세." 그 뒤 그분은 킨나가 감히 집정관직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나무라시며 손수 집정관직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킨나를 더없이 가깝고 충실한 벗으로 두셨고, 킨나는 그분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로 그분을 노린 음모는 다시 없었습니다.

10 폐하의 고조부께서는 패한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누구를 다스리셨겠습니까? 그분은 살루스티우스와 코케이우스 집안과 델리우스 집안, 그리고 맨 먼저 알현을 허락받는 측근 무리 전체를 적진에서 데려와 채우셨습니다. 도미티우스 집안, 메살라 집안, 아시니우스 집안, 키케로 집안 등 나라의 꽃이라 할 사람들도 모두 그분의 관용 덕에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레피두스만 해도 그분은 얼마나 오래 그가 제명대로 죽기를 기다려 주셨습니까! 여러 해 동안 그분은 레피두스가 군주의 표장을 그대로 지니는 것을 참아 주셨고, 대신관 자리도 그가 죽고 나서야 넘겨받으셨습니다[6]. 그 자리가 전리품이 아니라 명예로 불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용이 그분을 안전과 안온함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관용 덕분에 그분은 로마 인민이 아직 굴복하지 않은 목덜미에 손을 얹으셨는데도 고마움과 호의를 받으셨습니다. 이 관용이 오늘날까지도 그분께, 살아 있는

군주들조차 좀처럼 누리지 못하는 명성을 안겨 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으로 믿는 것은 그러라는 명령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투스께서 좋은 군주셨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분께 잘 어울렸다고 고백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군주에게는 흔히 불의보다 더 쓰라린 모욕마저 그분은 잔인하게 앙갚음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헐뜯는 말에 웃어넘기셨습니다. 벌을 내리실 때는 그분 자신이 벌을 받는 듯 보였고, 따님과 간통한 죄로 단죄한 자들을 죽이기는커녕 추방하면서 더 안전하도록 통행증까지 내주셨습니다[7].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기를 대신해 분노하고 남의 피로 자기 비위를 맞추려 들 사람이 많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목숨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 주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11 이것은 아우구스투스께서 늙으셨을 때, 또는 이미 나이가 노년으로 기울었을 때의 일입니다. 젊을 때는 그분도 달아오르고 분노로 불타셨으며, 마지못해 뒤돌아보실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격 아우구스투스의 지나치게 무르익은 노년을 폐하의 젊은 시절과 겨루게 한다 해도, 누구도 감히 그분을 폐하의 온화함에 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절도 있고 관용을 베푸셨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악티움 바다를 로마인의 피로 물들인 뒤였고, 시칠리아에서 자기 함대와 남의 함대를 부순 뒤였고, 페루시아의 제단과 살생부를 거친 뒤였습니다[8]. 저는 지친 잔인함을 관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폐하, 참된 관용은 폐하께서 보여 주시는 관용입니다. 포악함을 뉘우치는 데서 시작하지 않은 관용, 얼룩 하나 없고 시민의 피를 한 번도 흘리지 않은 관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권력 속에서 마음이 지키는 가장 참된 절제이고, 인류를 제 몸처럼 감싸 안는 사랑입니다. 어떤 욕망이나 경솔한 기질이나 앞선 군주들의 본보기에 물들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통치권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폐하, 폐하께서는 나라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지켜 내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사람의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고 폐하께서 담대하게 자랑하신 일은, 누구보다도 이른 나이에 칼을 손에 쥐셨기에 더 크고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 관용은 사람을 더 훌륭하게 할 뿐 아니라 더 안전하게도 해 줍니다. 관용은 통치의 꾸밈이자 가장 확실한 안전입니다. 왕들은 늙도록 다스리다 자식과 손자에게 왕국을 물려주었는데, 참주(tyrannus)의 권력은 저주받고 짧았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주와 왕은(겉으로 보이는 처지와 방종할 수 있는 힘은 같으니) 무엇이 다릅니까? 참주는 쾌락을 위해 포악하게 굴고, 왕은 까닭과 필요가 있을 때만 그런다는 것 말고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12 "그러면 어떤가? 왕들도 흔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가?" 그러나 왕은 나라의 이익이 그래야 한다고 설득할 때만 그럽니다. 참주는 포악함 자체를 좋아합니다. 참주가 왕과 다른 것은 이름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대(大)디오니시오스[9]는 마땅히 여러 왕보다 낫다고 할 수 있고, 적이 바닥나서야 죽이기를 멈춘 루키우스 술라를 참주라 부르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술라가 독재관 자리에서 내려와 토가 차림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해도, 어떤 참주가 그토록 게걸스럽게 사람의 피를 마셨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 칠천 명을 도륙하라고 명했고, 가까운 벨로나 신전에 앉아 있다가 칼 아래 신음하는 그 수천 명의 아우성이 들려와 원로원이 겁에 질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10]. "의원 여러분, 하던 일을 합시다. 몇 안 되는 반역자들이 내 명령으로 죽고 있을 뿐이오."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술라에게는 그것이 몇 안 되는 수로 보였으니까요. 술라 이야기는 적에게 어떻게 분노해야 하는지, 특히 같은 몸에서 떨어져 나온 시민들이 적의 이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져 볼 때 곧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하던 말을 이어

가겠습니다. 왕과 참주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관용입니다. 둘 다 무기로 단단히 둘러싸여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한쪽은 평화를 지키는 성벽으로 무기를 쓰고, 다른 쪽은 큰 공포로 큰 증오를 누르려고 무기를 쥐고는 자기 몸을 맡긴 바로 그 손들조차 마음 놓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서로 어긋나는 것에 이끌려 서로 어긋나는 쪽으로 내몰립니다. 두려움을 사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서도, 미움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을 사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곤두박질치게 한 그 저주받을 시구를 입에 올립니다. "미워해도 좋다, 두려워하기만 한다면."[11] 증오가 도를 넘어 자라면 얼마나 큰 광란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알맞은 두려움은 마음을 붙들어 두지만, 끊이지 않고 날카로우며 막다른 지경까지 몰아붙이는 두려움은 엎드려 있던 사람들을 무모함으로 일으켜 세우고 무슨 일이든 해 보게 부추깁니다. 짐승들도 깃털 단 줄로 에워싸 가두어 두면 그대로 있지만, 말 탄 사냥꾼이 뒤에서 창을 던지며 몰아붙이면 피해 달아나던 바로 그 줄을 뚫고 달아나려 하고 두려움의 줄을 짓밟아 넘을 것입니다. 막다른 필연이 짜내는 용기가 가장 사납습니다. 두려움은 얼마간 마음 놓을 여지를 남겨 두고, 위험보다 희망을 훨씬 더 많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두려워해야 할 때 사람들은 차라리 위험에 뛰어들고 제 목숨을 남의 것처럼 함부로 쓰고 싶어집니다.

13 온화하고 평온한 왕에게는 호위병들이 충실합니다. 왕이 그들을 모두의 안녕을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병사는 자기가 나라의 안온함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기에 자랑스러워하며, 아버지를 지키는 사람처럼 어떤 수고든 기꺼이 견딥니다. 그러나 가혹하고 피에 굶주린 왕은 제 호위병들조차 버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문대나 죽이려고 마련한 쇠붙이처럼 고문 도구로 부리는 자들, 짐승에게 던지듯 사람을 던져 주는 자들에게서 선하고 충실한 마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왕은 어떤 피고보다도 비참하고 불안합니다. 자기 죄를 보고 앙갚음할 증인으로 사람과 신들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행실을 바꿀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잔인함의 여러 해악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이것입니다. 끝까지 버텨야 하고, 더 나은 길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죄는 범죄로 지켜야 하니까요. 이제 악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보다 불행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아, 가엾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학살과 약탈로 권력을 휘두르고, 바깥일이든 집안일이든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무기를 두려워하면서 무기로 달아나고, 벗들의 신의도 자식들의 효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남들이 가엾게 여기는 것은 죄가 될 테니까요. 그는 자기가 저지른 일과 저지를 일을 둘러보고 죄와 고문으로 가득 찬 제 양심을 열어 볼 때마다, 죽음을 자주 두려워하고 그보다 더 자주 바랍니다. 그를 섬기는 사람들보다 그 자신이 그를 더 미워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어떤 것은 더, 어떤 것은 덜 보살피되 나라의 어느 부분도 제 몸의 일부처럼 기르는 사람, 더 온화한 쪽으로 기울어 벌을 내리는 것이 이로울 때에도 거친 약에 얼마나 마지못해 손을 대는지 드러내는 사람, 마음에 적의도 사나움도 없는 사람, 자기 명령이 시민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며 권력을 온화하고 이롭게 쓰는 사람, 자기 행운을 모두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넉넉히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 말씨가 상냥하고 만나기 쉽고 다가가기 쉬우며 백성의 마음을 가장 잘 얻는 얼굴로 사랑받는 사람, 정당한 바람에는 기꺼이 응하고 부당한 바람에도 가혹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온 나라가 사랑하고 지키고 받듭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남몰래 하는 말과 드러내 놓고 하는 말이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낳아 기르고 싶어 하고, 나라의 불행 때문에 스스로 택했던 자식 없는 삶은 끝이 납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이런 시대를 보여 주면 자식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군주는 자기가 베푼 은혜로 안전하니 호위병이 필요 없습니다. 무기는 꾸밈으로 지닐 뿐입니다.

14 그렇다면 군주의 의무(officium)는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꾸짖을 때 어떤 때는 다정하게, 어떤 때는 엄하게 꾸짖고, 때로는 매를 들어 깨우치기도 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가 첫 잘못에 아들의 상속권을 빼앗겠습니까? 크고 잦은 불의가 인내를 꺾어 버리기 전에는, 단죄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기 전에는, 아버지는 결정을 적어 넣는 펜을 들지 않습니다. 먼저 흔들리고 이미 나쁜 쪽으로 기운 성품을 되돌리려고 여러 방도를 써 봅니다. 가망이 없다고 판명되고 나서야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약을 다 써 본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형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할 일을 군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군주를 '나라의 아버지'라 부른 것은 헛된 아첨에 이끌려서가 아닙니다. 다른 별칭들은 영예로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군주들을 '위대한 자'라고, '운 좋은 자'라고, '존엄한 자'라고 불렀고, 야심 찬 위엄에 붙일 수 있는 칭호를 모조리 쌓아 올려 그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아버지'라 부른 것은 군주에게 아버지의 권한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은 자식을 돌보고 제 일을 자식 다음으로 미루는, 더없이 절제된 권한입니다. 아버지는 제 팔다리를 더디게 잘라 내야 하고, 잘라 낸 뒤에도 다시 붙이고 싶어 해야 하며, 잘라 내면서도 오래도록 망설이며 신음해야 합니다. 서둘러 단죄하는 사람은 기꺼이 단죄하는 사람과 가깝고, 지나치게 벌하는 사람은 부당하게 벌하는 사람과 가깝습니다.

15 우리 기억에 남은 일로, 로마 기사 트리콘이 제 아들을 채찍질해 죽이자 군중이 포룸에서 그를 철필로 찔렀습니다.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휘두르는 성난 손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께서 권위로 겨우 그를 빼내셨습니다. 타리우스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꾀하다 들키자

사건을 심리한 뒤 아들을 단죄했지만,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추방으로, 그것도 마실리아로 보내는 편안한 추방으로 만족해 그 존속 살해범을 그곳에 두고, 아들이 아무 죄 없을 때 대 주던 만큼 해마다 생활비를 대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너그러움 덕분에, 더 나쁜 자들에게도 변호인이 모자라는 법이 없는 이 도시에서, 그 피고가 마땅히 단죄되었다는 데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워할 수조차 없던 아버지가 단죄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이니까요.

바로 이 일화로, 좋은 아버지에 견줄 만한 좋은 군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타리우스는 아들을 심리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자문 회의에 모셨습니다. 황제께서는 남의 집 안채로 오셔서 곁에 앉아 남의 회의의 일원이 되셨을 뿐, "아니, 그 아이를 내 집으로 데려오게"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의 심리가 아니라 황제의 심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건을 듣고 젊은이가 스스로를 변호한 말과 그를 고발하는 말을 모두 꼼꼼히 따져 본 뒤, 황제께서는 저마다 자기 의견을 글로 적어 내게 하셨습니다. 황제의 의견이 모두의 의견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서판을 열기 전에, 부자인 타리우스의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단죄해 제 유산 욕심의 길을 트려 한다는 의심을 살까 봐 두려워했으니 소견이 좁았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누구든 심술궂은 소문에 맞서 선한 양심을 넉넉히 믿고 버텨야 하겠지만, 군주는 평판에도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황제께서는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타리우스는 그날 상속인을 하나 더 잃었지만, 황제께서는 판결의 자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격함에 사심이 없음을 밝히신 뒤(군주라면 늘 마음 써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가 정하는 곳으로 아들을 멀리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제께서는 자루도, 뱀도, 감옥도 판결하지

않으셨습니다[12]. 자기가 누구를 판결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회의에 앉아 있는지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앳된 아들에게 가장 부드러운 벌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남에게 떠밀려 그 죄에 끌려들었고, 그 일에서 머뭇거렸으니 그것이 결백에 가장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로마와 아버지의 눈앞에서 떼어 놓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16 아, 아버지들이 자문 회의에 모실 만한 분이십니다! 아, 아버지들이 죄 없는 자식들과 나란히 공동 상속인으로 적어 넣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런 관용이 군주에게 어울립니다. 군주는 어디를 가든 모든 것을 더 온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왕에게, 그가 죽어도 왕이 느끼지 못할 만큼 하찮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제국의 한 부분입니다. 큰 통치를 위한 본보기를 작은 통치에서 찾아봅시다. 다스림에는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군주는 시민을, 아버지는 자식을, 스승은 배우는 이를, 천부장이나 백인대장은 병사를 다스립니다. 아주 사소한 까닭으로도 자식을 쉴 새 없이 때려 다잡는 아버지는 가장 나쁜 아버지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스승이 교양 학문을 가르칠 자격이 더 있습니까? 제자가 기억이 막히거나 글을 읽다가 눈이 굼뜨게 걸린다고 제자를 짓이기는 스승입니까, 아니면 타이르고 부끄러움을 일깨워 바로잡고 가르치기를 바라는 스승입니까? 포악한 천부장이나 백인대장을 세워 보십시오. 탈영병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래도 그 탈영병들은 용서받습니다. 말 못 하는 짐승을 다스릴 때보다 사람을 더 무겁고 거칠게 다스리는 것이 공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길들이는 데 능한 조련사는 말을 잦은 채찍질로 겁주지 않습니다. 쓰다듬는 손길로 달래 주지 않으면 말은 겁 많고 고집 센 말이 되고 말 테니까요. 사냥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들에게 발자취를 따르도록 가르치는 사냥꾼도,

이미 훈련된 개들로 짐승을 몰아내거나 뒤쫓는 사냥꾼도, 개들을 자주 을러대지 않습니다(그러면 기세가 꺾이고, 타고난 바탕이 무엇이든 비굴한 겁에 질려 부서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헤매고 쏘다니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느릿느릿 일하는 짐 나르는 짐승들도 여기에 보태도 좋습니다. 그 짐승들은 업신여김과 고생을 겪으려고 태어났는데도, 지나치게 혹독하게 다루면 멍에를 뿌리치게 됩니다.

17 사람보다 까다로운 동물은 없고, 사람보다 더 큰 솜씨로 다루어야 할 동물도, 더 아껴야 할 동물도 없습니다. 짐 나르는 짐승과 개에게는 화풀이하기를 부끄러워하면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두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병을 고치지 병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에는 부드러운 약과, 환자에게 조금도 적의를 품지 않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고치기 싫어서 가망 없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의사의 짓입니다. 모두의 안녕을 맡은 사람도 마음이 병든 이들을 두고 똑같이 해야 합니다. 희망을 서둘러 내던지거나 죽을 징후라고 선언하지 말고, 악덕과 씨름하고 버티며, 어떤 이에게는 그 병을 꾸짖고, 어떤 이는 부드러운 치료로 속여 넘겨 속이는 약으로 더 빨리 더 잘 낫게 해야 합니다. 군주는 목숨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흉터가 보기 흉하지 않게 남도록 마음 써야 합니다. 왕이 포악하게 벌을 내려서 얻는 영광은 없습니다(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반대로 제 힘을 억누르고, 많은 사람을 남의 분노에서 건져 내고, 아무도 자기 분노에 바치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18 노예를 절도 있게 다스리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노예를 두고도 그가 얼마나 겪어도 벌받지 않는지가 아니라, 공정과 선의 본성이 얼마만큼 허락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본성은 포로와 돈 주고 산 노예마저 아끼라고 명합니다. 하물며 자유롭고 자유민으로

태어난 점잖은 사람들은 노예처럼 함부로 부리지 말고, 지위로는 앞서지만 예속이 아니라 보호를 맡은 사람들로 대하라고 명하는 것은 얼마나 더 정당하겠습니까. 노예도 조각상으로 달아나 몸을 피할 수 있습니다[13]. 노예에게는 무엇이든 해도 되지만, 살아 있는 것들 모두에게 공통된 법이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베디우스 폴리오[14]를 그의 노예들보다 더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는 사람의 피로 곰치를 살찌웠고, 무엇이든 자기 비위를 거스른 노예들을 양어장, 아니 뱀 소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곳에 던지게 했습니다. 아, 천 번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자기가 먹을 곰치에게 노예를 먹으라고 던져 주었든, 그렇게 먹이려고 곰치를 길렀든 말입니다.

잔인한 주인이 온 도시에서 손가락질받고 미움과 혐오를 사듯이, 왕의 불의는 더 널리 퍼지고 그 오명과 증오는 대대로 전해집니다. 나라의 불행으로 태어난 자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얼마나 나았겠습니까!

19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길로, 어떤 권리로 남들 위에 서게 되었든, 그에게 관용보다 더 어울리는 것을 생각해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관용은 더 큰 권력에서 베풀어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장엄하다고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 권력이 자연의 법에 맞추어진다면 해로울 까닭이 없습니다. 왕은 자연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 다른 동물에게서도, 특히 벌에게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의 왕은 가장 넓은 방을 차지하는데, 그 방은 한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게다가 왕은 남의 일을 감독할 뿐 자기는 일하지 않습니다. 왕을 잃으면 벌 떼는 통째로 흩어지고, 벌들은 결코 둘 이상의 왕을 견디지 못해 싸워서 더 나은 왕을 가립니다. 또 왕은 생김새가 남달라, 크기로 보나 광채로 보나 다른 벌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점이 다릅니다. 벌들은 몸집에 비해 더없이 성마르고 싸움을 좋아해서 찌른 상처에 침을 남기지만, 왕에게는 침이 없습니다. 자연은 왕이 포악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비싼 값을 치를 앙갚음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서, 왕에게서 무기를 빼앗고 그 분노를 무장 해제된 채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왕들에게 더없이 큰 본보기입니다. 자연은 작은 것들로 솜씨를 닦고, 아주 작은 것 안에 엄청난 일의 가르침을 낳아 두는 버릇이 있으니까요. 하찮은 동물에게서 행실을 배우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해를 끼치는 힘이 큰 만큼 더 절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같은 법이 있어서, 분노가 그 무기와 함께 부러지고, 한 번보다 자주 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남의 힘을 빌려 증오를 풀지 못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란이 제 힘으로만 제 뜻을 채워야 하고 죽음을 무릅써야만 힘을 쏟아 낼 수 있다면, 광란은 쉽게 지쳐 버릴 테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그런 사람이 가는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사고자 한 만큼 두려워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손을 지켜보아야 하며, 노림을 받지 않을 때에도 노림을 받는다고 여겨, 두려움에서 벗어난 순간이 한 순간도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서 근심 없이,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권력을 이롭게 쓸 수 있는데도, 이런 삶을 견디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에게서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왕이 안전하리라 여긴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온함은 안온함을 서로 주고받아야 얻습니다. 높이 솟은 성채를 짓거나, 오르기 가파른 언덕에 요새를 두르거나, 산허리를 깎아 내거나, 겹겹의 성벽과 탑으로 자기를 둘러칠 필요가 없습니다. 관용은 탁 트인 곳에서도 왕을 무사히 지켜 줄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은 단 하나, 시민들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자기 장수를 빌어 주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기원을 소리 내어 바치는 가운데 사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 가슴에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는 것, 누구든 자기를 지켜 주는 그 사람의 안녕과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은 정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할 분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선함을 보여 주어 국가가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국가의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사람에게 위험을 꾸미겠습니까? 그 아래에서 정의와 평화와 정숙과 안온함과 품위가 꽃피고, 그 아래에서 부유한 나라가 온갖 좋은 것으로 넘쳐 나는 이 사람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운마저 비켜 가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불멸의 신들이 자기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우리가 우러러 받들며 바라볼 그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이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들의 본성을 따라 처신하며 은혜롭고 너그럽고 더 나은 쪽으로 힘을 쓰는 사람은 신들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되 동시에 가장 선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말입니다.

20 군주가 벌을 내리는 까닭은 흔히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 앙갚음하거나, 남을 위해 앙갚음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주 자신에게 닿는 쪽을 논하겠습니다. 앙갚음이 본보기를 위한 것일 때보다 제 아픔을 갚으려는 것일 때 절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쉽게 믿지 말고, 진실을 캐내고, 결백한 쪽을 편들며, 재판에서는 위태로운 피고 못지않게 재판관도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을 알라고 일깨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정의에 속한 일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군주에게 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해를 입었더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벌을 면해

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누그러뜨리며, 남이 입은 불의보다 자기가 입은 불의에 훨씬 더 너그럽게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으로 인심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만큼 자기 것을 덜어 내는 사람이 큰마음을 지닌 사람이듯이, 저는 남의 아픔에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 제 아픔에 찔려 들쑤셔지면서도 뛰쳐나가지 않는 사람을 관용 있는 사람이라 부르겠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쥐고서 불의를 참는 것이 큰마음이라는 것, 해를 입고도 앙갚음하지 않는 군주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말입니다.

21 앙갚음은 흔히 두 가지를 줍니다. 불의를 당한 사람에게 위안을 주거나, 앞날의 안온함을 줍니다. 군주의 운은 위안이 필요할 만큼 작지 않고, 그의 힘은 남의 불행으로 힘이 있다는 평판을 구해야 할 만큼 흐릿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에게 공격받고 해를 입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때 대등했던 이들을 이제 자기 아래로 내려다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앙갚음한 셈이니까요. 왕은 노예도, 뱀도, 화살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린 이는 언제나 자기가 살린 사람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주고 빼앗을 힘을 쥔 사람은 신들이 준 이 크나큰 선물을 담대하게 써야 합니다. 특히 한때 자기와 같은 꼭대기에 섰던 이들을 두고는, 그들의 생사를 가를 권한을 얻은 것만으로 앙갚음을 다 채웠고, 참된 벌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숨을 빚진 사람은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서 원수의 발치로 내동댕이쳐져 제 목숨과 왕국을 두고 남의 판결을 기다렸던 사람은 누구든 자기를 살려 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고, 눈앞에서 치워졌을 때보다 살아남아서 그 사람의 이름에 더 많이 보탭니다. 그는 남의 덕을 보여 주는 끊이지 않는 구경거리이니까요. 개선 행렬에서였다면 금세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에게 왕국까지 안심하고 남겨 두고 그가 떨어진 자리에 다시 앉힐 수

있었다면, 패한 왕에게서 영광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데 만족한 사람의 칭송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승리를 딛고 다시 개선하는 일이요, 진 자들에게서 이긴 자에게 어울릴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시민들, 그리고 이름 없고 비천한 이들은 그들을 짓밟아 봐야 별것 아닌 만큼 더 절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꺼이 살려 주고, 어떤 이들에게는 앙갚음하는 것조차 하찮게 여기십시오. 작지만 짓밟는 사람을 더럽히는 벌레에게서 손을 거두듯 그들에게서 손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려 주든 벌하든 온 나라의 입에 오르내릴 사람들을 두고는, 관용을 널리 알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2 이제 남이 입은 불의로 넘어갑시다. 그런 불의를 벌할 때 법은 세 가지를 좇았고, 군주도 그것을 좇아야 합니다. 벌받는 사람을 바로잡거나, 그를 벌해 다른 사람들을 더 낫게 하거나, 악한 자들을 없애 나머지가 더 근심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벌받는 사람 자신은 가벼운 벌로 더 쉽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흠 없는 무언가가 남은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체면을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는 벌받을 자리가 남지 않은 것도 일종의 면죄입니다. 나라의 풍속은 벌을 아낄 때 더 잘 바로잡힙니다. 죄짓는 사람이 많으면 죄짓는 것이 버릇이 되고, 단죄가 무더기로 쏟아지면 낙인도 가벼워지며, 엄격함은 가장 큰 효험인 권위를 잦은 쓰임으로 잃어버립니다. 군주가 악덕을 참아 주되, 그것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마지못해 큰 괴로움을 안고서야 벌하러 나서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군주는 나라에 좋은 풍속을 세우고 악덕을 씻어 낼 것입니다. 다스리는 이의 관용 그 자체가 죄짓기를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온화한 사람이 정한 벌은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23 게다가 폐하께서도 보시겠지만, 자주 벌하는 죄일수록 자주 저질러집니다. 폐하의 아버님[15]께서는 다섯 해 동안, 우리가 전해 듣기로 지난 모든 세대에 자루에 꿰매 넣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자루에 꿰매 넣으셨습니다. 그 죄에 법이 없던 동안에는 자식들이 그 극악한 죄를 감히 저지르는 일이 훨씬 적었습니다. 더없이 높은 뜻을 품고 세상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16]은 더없는 분별로, 그 죄를 믿을 수 없는 죄, 어떤 대담함도 넘어선 죄로 여겨 그냥 지나치는 쪽을 택했습니다. 벌하려다 그런 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느니 그편이 낫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존속 살해범은 법과 함께 생겨났고, 벌이 그들에게 그 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보다 자루를 더 자주 보게 된 뒤로, 자식의 도리는 가장 나쁜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람이 드물게 벌받는 나라에서는 결백에 뜻이 모이고, 사람들은 결백을 나라의 보배처럼 아낍니다. 나라가 스스로 결백하다고 믿게 하십시오. 그러면 결백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지키는 검소한 법도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몇 안 된다는 것을 보면 나라는 그들에게 더 분노할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악한 자가 얼마나 더 많은지를 나라에 보여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24 언젠가 원로원에서 노예를 자유민과 옷차림으로 구별하자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노예들이 우리 수를 세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위험이 닥칠지 분명해졌습니다. 아무도 용서하지 않을 때에도 똑같은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나라의 더 나쁜 쪽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숱한 장례가 의사에게 수치이듯, 숱한 처형은 군주에게 수치입니다. 느슨하게 다스리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잘 복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고집스러워 거스르는 쪽, 가파른 쪽으로 버팁니다. 끌려가기보다는 따라가기를 더 쉽게 합니다. 좋은 혈통의 고귀한 말이 부드러운 재갈로 더 잘

다루어지듯, 결백도 스스로 우러나 제 기세로 관용을 따르고, 나라는 관용을 제 것으로 지킬 만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이 길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25 잔인함은 조금도 인간다운 악이 아니고, 그토록 온화한 인간의 마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피와 상처를 즐기고, 사람이기를 내던지고 숲속 짐승으로 넘어가는 것은 짐승의 광포함입니다. 알렉산드로스여, 제발 말해 보시오. 리시마코스를 사자에게 던져 주는 것과 그대가 제 이로 직접 물어뜯는 것이 무엇이 다르오[17]? 그 아가리는 그대의 것이요, 그 사나움도 그대의 것이오. 아, 그대는 차라리 그대에게 발톱이 있기를, 사람을 삼킬 만한 그 아가리가 그대에게 있기를 얼마나 바랐겠소! 가까운 이들을 틀림없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손이 누구를 살리기를, 뭇 민족에게 물릴 줄 모르는 재앙인 그 사나운 마음이 피와 살육 없이 배부르기를 우리는 그대에게 바라지 않소. 벗을 죽일 사형 집행인을 사람 가운데서 고르기만 해도 벌써 관용이라 불리니 말이오. 포악함을 무엇보다 혐오해야 하는 까닭은 이것입니다. 포악함은 먼저 익숙한 한계를, 다음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형벌을 찾아내며, 고통을 갖가지로 바꾸고 늘일 도구를 궁리하려고 재주를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불행을 즐깁니다. 잔인함이 쾌락으로 바뀌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즐거워질 때, 그 끔찍한 마음의 병은 마지막 광기에 이릅니다. 그런 사람의 등 뒤를 머지않아 혐오와 증오와 독과 칼이 뒤쫓습니다. 그는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위험인 만큼 많은 위험의 표적이 되고, 때로는 사사로운 음모에, 때로는 온 나라의 봉기에 에워싸입니다. 가볍고 사사로운 해악은 도시 전체를 움직이지 않지만, 널리 날뛰기 시작해 모두를 덮치는 것은 사방에서 찔립니다. 작은 뱀들은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며, 나라가 나서서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뱀이 보통 크기를 넘어 괴물로 자라나, 침으로

샘을 더럽히고, 숨을 내뿜으면 태워 버리며, 지나가는 곳마다 짓뭉갤 때에는 투석기로 공격합니다. 자잘한 악은 속여 넘기고 빠져나갈 수 있지만, 엄청난 악에는 모두가 맞서 나섭니다. 그처럼 앓는 사람 하나는 집안조차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죽음으로 역병이 돈다는 것이 드러나면 온 나라가 아우성치며 달아나고, 신들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릅니다. 어느 한 지붕 아래 불길이 보이면 식구와 이웃들이 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불이 벌써 많은 집을 삼켰다면 도시 한 구역을 허물어 덮어 끕니다.

26 보통 사람들의 잔인함에도 노예들의 손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 뻔한 위험을 무릅쓰고 앙갚음했습니다. 참주들은 그 해악을 겪던 민족과 백성, 그 해악이 닥쳐오던 이들이 모두 나서서 뿌리째 없애려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 자신의 호위병들이 그들에게 맞서 들고일어나, 배신과 불경과 사나움, 그 밖에 그들에게서 배운 것을 모조리 그들에게 써먹었습니다. 악해지라고 가르친 사람에게서 누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악은 오래 시중들지 않고, 명령받은 만큼만 죄짓지도 않습니다. 잔인함이 안전하다고 칩시다. 그 통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함락된 도시의 모습, 온 나라가 두려움에 질린 끔찍한 얼굴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슬프고 떨리고 어지럽습니다. 쾌락마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도 혀를 조심스레 단속해야 하는 잔치에 마음 놓고 가지 못하고, 고발과 위험의 빌미를 찾는 구경거리에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합니다. 큰돈과 왕의 재물을 들이고 이름난 배우들을 골라 마련한다 해도, 감옥 안에서 벌이는 놀이가 누구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선한 신들이시여, 이 무슨 재앙입니까! 죽이고, 날뛰고, 쇠사슬 소리를 즐기고, 시민들의 목을 베고, 가는 곳마다 피를 쏟고, 제 얼굴만 보여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다니! 사자와 곰이 다스리고, 뱀과 가장

해로운 짐승들에게 우리를 다스릴 권력이 주어진다면 삶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짐승들은 이성이 없고 우리에게서 흉포하다는 죄명으로 단죄받지만, 제 동족은 해치지 않습니다. 짐승들 사이에서도 닮은 것끼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광포함은 가까운 혈육조차 봐주지 않고, 남의 것과 제 것을 똑같이 다루며, 휘두를수록 더욱 사나워집니다. 그러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데서 민족 전체를 멸하는 데로 번져 가고, 지붕에 불을 지르고 오래된 도시를 쟁기로 갈아엎는 것을 권력이라 여깁니다. 한두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는 것은 황제답지 않다고 믿고, 한꺼번에 가엾은 무리가 칼날 아래 서 있지 않으면 자기 잔인함이 졸병 신세로 강등되었다고 여깁니다.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 죽음 그 자체에서 삶으로 불러들이고, 관용으로 시민관을 얻는 것, 그것이 행운입니다[18]. 시민을 구한 공으로 받는 그 관만큼 군주의 높은 자리에 걸맞고 아름다운 꾸밈은 없습니다. 진 적에게서 벗겨 낸 무기도, 야만인의 피로 물든 전차도,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도 그만 못합니다. 무리 지어, 나라 전체를 살리는 것, 이것이 신의 권능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것은 불과 붕괴의 권능입니다.

---

1. 원문이 의심스러운 곳. 저본의 manumissionis(풀어 줌)를 그대로 옮겼으나, 「길들임」으로 고쳐 읽거나 여러 낱말이 빠졌다고 보기도 한다. 이 세 부분 가운데 전하는 것은 제1권과 제2권 앞부분뿐이다.

2. 베르길리우스 『농경시』 4.212~213. 벌 떼와 그 왕을 노래한 대목이다.

3. 기원전 43년 아우구스투스(당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레피두스와 삼두가 되어 정적들을 살생부에 올려 죽였다. 키케로도 이때 죽었다. 그 전해에는 집정관 안토니우스를 암살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4.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킨나 마그누스. 폼페이우스의 외손자다. 세네카는 루키우스라 부르지만, 카시우스 디오는 그나이우스라 하고 이 일을 기원후 4년 로마에서 있었던 일로 적는다.

5. 모두 아우구스투스를 노린 음모에 연루된 사람들. 살비디에누스 루푸스(기원전 40년), 삼두 레피두스의 아들(기원전 30년), 무레나와 카이피오(기원전 23년 무렵), 에그나티우스 루푸스(기원전 19년).

6. 삼두의 한 사람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기원전 36년 권력을 잃었으나 기원전 12년 죽을 때까지 대신관 자리를 지켰고,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죽은 뒤에야 대신관이 되었다.

7.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는 기원전 2년 간통 혐의로 판다테리아섬에 추방되었다. 상대로 지목된 귀족들도 대개 추방되었으나 율루스 안토니우스는 죽임을 당했다.

8.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기원전 36년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를 꺾었다. 기원전 40년 페루시아를 함락한 뒤 항복한 자들을 신격 율리우스의 제단 앞에서 제물로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9.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재위 기원전 405~기원전 367).

10. 기원전 82년 내전에서 이긴 술라는 벨로나 신전에서 원로원 회의를 여는 동안, 가까운 곳에 가두어 둔 항복한 포로 수천 명을 죽이게 했다.

11. 아키우스의 비극 『아트레우스』의 한 구절. 칼리굴라가 즐겨 입에 올렸다고 수에토니우스가 전한다.

12. 존속 살해범에게 내리던 벌. 죄인을 가죽 자루에 꿰매 넣어 물에 던졌다.

13. 노예는 황제의 조각상으로 달아나 주인의 학대를 호소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14. 아우구스투스의 벗인 부호. 수정 잔을 깬 노예를 곰치 연못에 던지려다 아우구스투스에게 제지당했다(「분노에 관하여」 제3권 40장).

15. 클라우디우스. 네로는 그의 양자였다.

16. 존속 살해에 따로 형벌을 두지 않았던 옛 입법자들. 아테네의 솔론이 그랬고(키케로 『로스키우스 변호』 70), 로마의 로물루스도 그랬다고 전한다(플루타르코스 『로물루스전』 22).

17. 알렉산드로스가 측근 리시마코스를 사자에게 던졌다는 이야기. 「분노에 관하여」 제3권 17장에도 나온다.

18. 시민관. 싸움터에서 시민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주던 떡갈나무 관. 아우구스투스 이래 황제들이 받았다.

관용에 관하여 제2권

1 폐하, 제가 관용에 관한 글을 쓰게 된 것은 무엇보다 폐하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저는 감탄하며 들었고, 그 뒤로 남들에게도 들려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결하고 큰마음과 큰 너그러움(lenitas)이 담긴 그 말씀은 꾸민 것도 남의 귀를 의식한 것도 아니었고, 불쑥 터져 나와 폐하의 선함이 폐하의 처지와 다투고 있음을 모두 앞에 드러냈습니다. 폐하의 근위대장 부루스[1]는 빼어난 사람이며 폐하 같은 군주를 섬기려고 태어난 사람인데, 강도 두 명을 처형하려고 폐하께서 누구를, 무슨 까닭으로 처형하기를 바라시는지 글로 적어 달라고 폐하께 요구했습니다. 여러 번 미루어진 일이라 이번에는 처리되기를 다그친 것입니다. 부루스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역시 내키지 않으시는 폐하께 문서를 꺼내 건네 드리자 폐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차라리 글을 몰랐더라면!" 아,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사는 민족도, 그 곁에서 자유인지 아닌지 모를 처지로 사는 민족도, 힘으로든 기개로든 로마에 맞서 일어서는 민족도 모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 온 인류의 집회에 내보내야 할 말씀, 군주와 왕들이 그 말씀을 걸고 맹세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 인류 전체가 결백하던 시절에나 어울릴 말씀, 그 옛 시대를 되돌려 받아 마땅한 말씀입니다! 이제야말로 모두가 한뜻으로 공정과 선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마음의 온갖 악이 비롯하는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을 몰아내고, 경건과 청렴이 신의와 절제와 함께 다시 일어서며, 오랜

통치를 마음껏 누려 온 악덕이 마침내 운 좋고 깨끗한 시대에 자리를 내주어야 마땅합니다.

2 폐하, 이런 날이 오리라고 크게 바라고 믿어도 좋겠습니다. 폐하 마음의 그 온화함(mansuetudo)은 전해지고 제국의 온몸으로 조금씩 퍼져, 모든 것이 폐하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건강은 머리에서 옵니다. 모든 지체는 그것을 이끄는 마음이 살아 있느냐 시드느냐에 따라, 거기서부터 생기 있게 꼿꼿이 서거나 맥이 빠져 늘어집니다. 이 선함에 걸맞은 시민들이 있을 것이고, 이 선함에 걸맞은 동맹국들이 있을 것이며, 온 세상에 바른 풍속이 돌아올 것입니다. 어디서나 폐하의 손은 쓰일 일 없이 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머무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폐하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그것은 제 버릇이 아닙니다. 저는 아첨으로 마음에 들기보다 참말로 언짢게 해 드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폐하께서 폐하의 훌륭한 행동과 말씀에 되도록 익숙해지셔서, 지금은 타고난 성품이요 충동인 것이 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크지만 저주받을 말들이 많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와 세간에 널리 떠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미워해도 좋다, 두려워하기만 한다면"[2]이라는 말이 그렇고, 자기가 죽거든 땅이 불과 뒤섞이라고 명하는 그리스 시구[3]도 그와 비슷하며, 그 밖에도 이런 부류의 말이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재능 있는 사람들은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소재일수록 더 술술 격렬하고 들끓는 생각을 표현해 냈습니다. 선하고 온화한 사람에게서 나온 기개 넘치는 말은 지금껏 하나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겠습니까? 폐하께서 글을 미워하시게 만든 그것을 폐하께서는 때로 적으셔야만 합니다. 다만 드물게, 내키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크게

망설이시며 적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러시듯 크게 망설이시고 여러 번 미루신 끝에 적으셔야 합니다.

3 관용(clementia)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에 우리가 언젠가 속아 그 반대쪽으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관용이란 무엇이고 어떠하며 어디까지인지 살펴봅시다.

관용이란 앙갚음할 힘을 쥐고 있을 때 마음이 지키는 절제(temperantia)이거나, 벌을 정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이는 너그러움입니다. 정의는 여럿을 내놓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의 하나로는 사태를 다 감싸지 못하고, 말하자면 소송 문구에 걸려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벌을 매길 때 너그러운 쪽으로 기우는 마음의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관용이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에서 얼마를 덜어 주는 절도라고 말한다면, 이 정의는 진실에 가장 가깝기는 해도 반박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덕도 누구에게 마땅한 것보다 덜 해 주지 않는다고 따지는 소리가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마땅히 정할 수 있는 벌에 못 미치는 쪽으로 몸을 굽히는 것, 모두가 관용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4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엄격함(severitas)이 관용과 반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덕도 다른 덕과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용과 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인함(crudelitas)입니다. 잔인함은 벌을 매길 때 마음이 보이는 흉악함일 뿐입니다. "그러나 벌을 매기지 않으면서도 잔인한 자들이 있다. 이득을 보려는 것도 아니면서 모르는 사람, 마주친 사람을 오직 죽이려고 죽이고,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날뛰는 자들 말이다. 저 부시리스와 프로크루스테스[4], 그리고 붙잡은 사람을 때리고 산 채로 불 속에 던지는 해적들이 그렇다." 그것도 잔인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앙갚음을 좇는 것도 아니고(해를 입은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잘못에 화를 내는 것도 아니어서(앞서 저지른

죄가 없으니까요), 우리 정의 밖으로 벗어납니다. 우리 정의는 벌을 매길 때 마음이 절제를 잃는 것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포악함을 쾌락으로 삼는 사나움(feritas)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기라고 불러도 됩니다. 광기에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찢어발기는 데까지 이르는 광기보다 확실한 광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벌할 까닭은 있으되 절도가 없는 사람들을 잔인하다고 부르겠습니다. 팔라리스[5]가 그런 예입니다. 그가 죄 없는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군 것은 아니지만, 인간다운, 수긍할 만한 한도를 넘어 포악했다고들 합니다. 트집을 피하려면 잔인함을 더 가혹한 쪽으로 기우는 마음의 성향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관용은 잔인함을 물리쳐 멀찍이 떨어져 서 있게 하지만, 엄격함과는 사이좋게 지냅니다.

여기서 연민(misericordia)이 무엇인지 따져 보는 것은 우리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연민을 덕으로 칭송하고 연민이 많은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마음의 악덕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이 둘은 엄격함과 관용 바로 곁에 놓여 있어서, 엄격함인 줄 알고 잔인함에 빠지고, 관용인 줄 알고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뒤쪽의 잘못은 덜 위험하지만, 진실에서 벗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 그러니 경건은 신들을 받들고 미신은 신들을 욕보이듯이, 선한 사람은 누구나 관용과 온화함을 보이되 연민은 피할 것입니다. 연민은 남의 불행이 남긴 인상에 무너져 내리는 좁은 마음의 악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민은 가장 못난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합니다. 가장 큰 죄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려, 할 수만 있다면 감옥이라도 부수어 열 사람들은 늙은 여자들과 아녀자들입니다. 연민은 까닭이 아니라 처지를 보고, 관용은 이성을 따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스토아학파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군주와 왕들에게 좋은 조언은 결코 주지 못할 학파라고 평판이 나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현자는 연민하지 않는다, 현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이 이 학파가 받는 비난입니다. 이 말들만 따로 떼어 놓으면 미움을 살 만합니다. 인간의 잘못에 아무 희망도 남겨 두지 않고, 모든 허물을 벌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정말 그렇다면, 인정을 버리라고 가르치고 운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항구인 서로 돕기를 닫아 버리는 이 학문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학파도 이보다 자애롭고 너그럽지 않으며, 어떤 학파도 이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선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 학파는 쓸모 있고 도움이 되는 것,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와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연민이란 남의 비참함이 남긴 인상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괴로움(aegritudo)이거나, 겪을 까닭이 없는 이들에게 닥쳤다고 믿는 남의 불행에서 옮아 온 슬픔입니다. 그런데 현자에게는 괴로움이 닥치지 않습니다. 현자의 정신은 맑게 개어 있고, 그 정신을 구름처럼 덮을 일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큰마음만큼 어울리는 것은 없는데, 큰마음이면서 동시에 슬픔에 잠긴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비탄은 정신을 짓누르고, 내동댕이치고, 오그라들게 합니다. 현자에게는 자기에게 닥친 재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자는 운의 분노를 모두 되받아쳐 제 앞에서 부숴 버릴 것이고, 언제나 같은 얼굴,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얼굴을 지킬 것입니다. 슬픔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 게다가 현자는 앞을 내다보고 늘 방도를 마련해 둡니다. 그런데 흐린 물에서 맑고 깨끗한 것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슬픔은 사태를 꿰뚫어 보고, 이로운 것을 궁리하고, 위험한 것을 피하고, 공정한 것을 가늠하는 데 서투릅니다. 그러니 현자는 연민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참해지지 않고서는 연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민하는 사람들이 하기를 제가 바라는 나머지 일은 모두 현자도 기꺼이, 높은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현자는 남의 눈물을 닦아 주러 달려가되 그 눈물에 자기 눈물을 보태지는 않을 것입니다. 난파한 사람에게 손을, 추방된 사람에게 잠자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을 줄 것입니다. 연민이 많아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대개 그러듯 업신여기며 던져 주는 동전, 자기가 돕는 사람들을 꺼리고 그들의 손이 닿을까 두려워하며 던지는 동전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공동의 몫에서 나누어 주듯이 줄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아 아들을 돌려주고, 사슬을 풀어 주라 명하고, 검투사 양성소에서 빼내 주고, 죄인의 주검까지 묻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평온한 정신으로, 제 얼굴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자는 연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도울 것이고, 이롭게 할 것입니다. 현자는 모두를 돕고 공공의 선이 되도록 태어났고, 그 선에서 누구에게나 제 몫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비난받고 바로잡혀야 할 불행한 이들에게도 그 정도에 맞게 자기 선함을 베풀 것이고, 어쩌다 짓밟혀 고생하는 이들은 훨씬 더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운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연이 쓰러뜨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말고, 재물이나 힘을 어디에 더 낫게 쓰겠습니까? 누구의 말라비틀어진 다리나 누더기를 걸친 앙상한 몸, 지팡이에 기댄 늙음을 보고 얼굴을 떨구지도 마음을 떨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있는 모든 이를 이롭게 하고, 신들처럼 불행한 이들을 너그러이 돌아볼 것입니다.

연민(misericordia)은 비참(miseria)과 이웃입니다. 비참을 얼마간 지니고 비참에서 끌어 오기 때문입니다. 남의 짓무른 눈을 보고 저도 눈물이 고이는 눈은 약한 눈임을 알아 두십시오. 맹세코 그것은 웃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따라 웃고 누가 하품만 하면 저도 입을 벌리는 것이

명랑함이 아니라 병인 것과 같습니다. 연민은 비참을 지나치게 겁내는 마음의 악덕입니다. 누가 현자에게 연민을 요구한다면, 남의 장례에서 통곡하고 신음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7 "그렇다면 현자는 왜 용서하지 않는가?" 자, 이번에도 용서(venia)가 무엇인지 정해 봅시다. 그러면 현자가 용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란 마땅히 받을 벌을 면해 주는 것입니다. 현자가 왜 용서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길게 설명합니다. 저는 남의 소송에서 변론하듯 짧게 말하겠습니다. 용서는 벌받아야 할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매겨야 할 벌을 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로 얻고 싶은 것을 현자는 더 훌륭한 길로 줄 것입니다. 현자는 아껴 주고, 돌보아 주고,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용서할 때와 똑같이 하되 용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해야 했던 일을 빠뜨렸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아직 바로잡을 수 있는 나이임을 보아 말로만 타이르고 벌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죄의 오명을 뚜렷이 뒤집어쓰고 있어도, 속았기 때문에, 술에 취해 실수했기 때문에 무사히 놓아주라고 명할 것입니다. 적들도 신의를 위해, 맹약을 위해, 자유를 위해, 곧 훌륭한 까닭으로 전쟁에 불려 나온 것이라면 무사히 돌려보내고, 때로는 칭찬까지 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용서가 아니라 관용이 하는 일입니다. 관용에는 자유로운 재량이 있습니다. 관용은 소송 문구에 매이지 않고 공정과 선에 따라 판결하며, 무죄로 풀어 줄 수도 있고 배상액을 원하는 만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관용은 이 가운데 어느 일도 정당한 것보다 덜 해 준다고 여기며 하지 않고, 자기가 정한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여기며 합니다. 반면에 용서한다는 것은 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땅히

받을 벌을 면해 주는 것입니다. 관용이 용서보다 앞서는 첫째 까닭은, 놓아주는 이들이 그 밖의 일을 겪어서는 안 되었다고 선언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용은 용서보다 더 온전하고 더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에 다툼은 말을 두고 있을 뿐, 사태를 두고는 의견이 같습니다. 현자는 많은 것을 면해 줄 것이고, 건전하지는 않으나 고칠 수 있는 성품을 지닌 많은 사람을 살려 줄 것입니다. 현자는 좋은 농부를 본받을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곧고 키 큰 나무만 가꾸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비뚤어진 나무에도 바로 서도록 버팀목을 대 주고, 어떤 나무는 가지가 위로 뻗는 것을 짓누르지 않도록 둘레를 쳐 주고, 자리가 나빠서 약해진 나무는 거름을 주어 기르고, 남의 그늘에 시달리는 나무에는 하늘을 열어 줍니다. 현자는 어떤 성품을 어떤 방도로 다루어야 하는지, 비뚤어진 것을 어떻게 곧게 펼지 살필 것입니다. 〈…〉[6]

---

1. 섹스투스 아프라니우스 부루스. 51년부터 근위대장을 지냈고, 세네카와 함께 젊은 네로를 보좌했다.

2. 아키우스의 비극 『아트레우스』의 한 구절. 제1권 12장에도 인용되었다.

3. 「내가 죽거든 땅이 불과 뒤섞여라」라는 출처 미상의 그리스 비극 시구. 키케로 『최고선과 최고악에 관하여』 3.64에도 인용된다.

4. 부시리스는 나그네를 제물로 바쳤다는 전설 속 이집트 왕, 프로크루스테스는 나그네를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이거나 잘랐다는 아티카의 악당이다.

5. 시칠리아 아크라가스의 참주(기원전 6세기). 청동 황소 안에 사람을 넣고 불을 때 구워 죽였다고 전한다.

6. 이 뒤로 원문이 전하지 않는다.

판권면

세네카 대화편

원제 · Dialogi · De clementia (대화편 · 관용에 관하여)

지은이 ·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Lucius Annaeus Seneca, 기원전 4년경~기원후 65)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저본 · The Latin Library(thelatinlibrary.com)가 공개한 라틴어 전자 텍스트. 토이프너(Teubner) 계열 비판본을 바탕으로 한다. 라틴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으며, 오브리 스튜어트(Aubrey Stewart)의 영어 번역 《Minor Dialogues, together with the Dialogue On Clemency》(London: George Bell and Sons, 1889)는 대조에만 썼다.

분량 · 원문 라틴어 약 85,300단어 · 대화편 12편과 「관용에 관하여」 2권, 모두 14편 · 원문 438문단 · 옮긴이 주 241개

바로잡은 곳 · 저본 전자 텍스트의 오자. 원문이 상한 자리는 「일러두기」에 밝힌 방식으로 표시했다.

저작권 · 원저작물은 기원후 1세기에 쓰였고, 지은이는 기원후 65년에 죽었다. 대한민국(저작권법, 저작자 사후 70년)과 미국 모두에서 보호기간이 오래전에 끝난 퍼블릭도메인이다. 저본 본문은 고대 원문 그대로라 새 저작권이 생기지 않으며, 대조에 쓴 스튜어트의 영어 번역(1889)도 퍼블릭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이 한국어 번역은 에테르 라이브러리가 만들었다.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0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3